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보고서

2015. 0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Arts Agencies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보고서

2015. 04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발간된 책자입니다.

제 출 문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04월 30일

○주 관 기 관: (사)한국문화기획학교
○책임연구원: 윤 성 진
○부책임연구원: 오 양 열
○공동연구원: 김 승 민
이 흥 재
정 정 숙
황 상 훈

목 차

제1장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개요 1

제1절 : 평가 연구 개요 2

제2절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개요와 취지 3

제3절 : 평가 체계 7

제2장 평가 종합 17

제1절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평가 결과 18

제2절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36

제3장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41

제1절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42

제1-1절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통합 부문 42

제1-2절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76

제1-3절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100

제1-4절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119

제1-5절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134

제2절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148

제4장 지역별 평가 175

제1절 : 서울 176

제2절 : 부산 187

제3절 : 대구 201

제4절 : 인천 216

제5절 : 광주 231

제6절 : 대전 244

제7절 : 울산 259

제8절 : 세종 271

제10절 : 강원 289
제11절 : 충북 303
제12절 : 충남 315
제13절 : 전북 326
제14절 : 전남 339
제15절 : 경북 352
제16절 : 경남 362
제17절 : 제주 374

제5장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개선 과제와 방향 387
제1절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388
제1-1절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총평 391
제1-2절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통합 부문 391
제1-3절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392
제1-4절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395
제1-5절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400
제1-6절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402
제2절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403

제6장 평가 분석과 시사점 405
제1절 : 2013년도 평가 결과와 비교 406
제2절 : 2010~2014년도 5년간 평가결과 비교 414

제7장 부록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418
- 특성화지원사업 개별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419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주안점 및 별첨자료 예시 420
- 특성화지원사업 개별 지표별 주안점 및 별첨자료 예시 425

그 림 목 차

[그림1]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단계별 추진 절차 8
[그림2]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 등급별 평균 18
[그림3]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 사업별 평균 19
[그림4]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19
[그림5]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 - 등급별 평균 20
[그림6]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 - 사업별 평균 21
[그림7]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21
[그림8] 창작활성화 부문 - 등급별 평균 22
[그림9] 창작활성화 부문 - 주요 지표별 평균 22
[그림10] 창작활성화 부문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24
[그림11] 교류활성화 부문 - 등급별 평균 25
[그림12] 교류활성화 부문 - 주요 지표별 평균 25
[그림13] 교류활성화 부문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29
[그림14]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 등급별 평균 30
[그림15]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 주요 지표별 평균 30
[그림16]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32
[그림17] 지역특성화 부문 - 등급별 평균 33
[그림18] 지역특성화 부문 - 주요 지표별 평균 33
[그림19] 지역특성화 부문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35
[그림2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등급별 평균 36
[그림2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주요 지표별 평균 37
[그림2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37
[그림23] 특성화 통합 사업계획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42
[그림24] 특성화 통합 사업계획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42
[그림25] 특성화 통합 성과목표 설정 여부 및 적합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43
[그림26] 전남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으로 마련된 10대 중점사업 44
[그림27] 전남 지역 지원사업 성과목표 공유를 위한 채널 45

[그림31] 부산문화재단 사업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체계 49
[그림32] 특성화 통합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50
[그림33] 특성화 통합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50
[그림34] 특성화 통합 추진일정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51
[그림35] 대구지역 문예진흥공모사업 추진 절차 및 내용 52
[그림36] 특성화 통합 심의 절차 및 심의위원 구성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53
[그림37] 특성화 통합 교류 협력 수준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55
[그림38] 특성화 통합 교류 협력 수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55
[그림39] 특성화 통합 지역예술인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56
[그림40]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운영현황 57
[그림41] 특성화 통합 지역 및 해외와의 교류 협력 추진 노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60
[그림42] 전남 지역 지역협력행사 '어울마당' 개최 성과 61
[그림43] 전남 지역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추진체계도 61
[그림44] 특성화 통합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62
[그림45] 특성화 통합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62
[그림46] 특성화 통합 지역수요자 문화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63
[그림47] 서울시민 문화예술 향유실태 조사 결과 64
[그림48] 강원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65
[그림49] 특성화 통합 홍보 추진 노력의 적절성 및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67
[그림50] 전남문화재단 유튜브 게시 동영상 68
[그림51] 특성화 통합 사업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69
[그림52] 특성화 통합 사업성과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69
[그림53] 특성화 통합 계량성과 취합 체계 및 성과 정리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70
[그림54] 특성화 통합 비계량 성과 정리 체계 및 적절성–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73
[그림55] 특성화 통합 평가 환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74
[그림56] 특성화 통합 평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74
[그림57] 특성화 통합 자체평가체계 운영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75

[그림61] 대구 지역 예술창작진흥 Track 79
[그림62] 대구 지역 밀착형지원 Track 79
[그림63]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80
[그림64]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82
[그림65]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82
[그림66]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83
[그림67] 창작활성화 부문 시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85
[그림68] 전남 지역 수행단체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채널 구성도 86
[그림69]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87
[그림70]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87
[그림71] 창작활성화 부문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88
[그림72] 인천문화재단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9
[그림73] 창작활성화 부문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90
[그림74]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92
[그림75]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92
[그림76] 창작활성화 부문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93
[그림77] 전남문화예술재단의 목표 설정과 육성사업 성과목표 94
[그림78] 창작활성화 부문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95
[그림79] 서울 - 커뮤니티 댄스 〈당신은 지금 바비레따에 살고 있군요〉 공연 장면 96
[그림80]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97
[그림81]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97
[그림82] 창작활성화 부문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98
[그림83] 대구 지역의 2013년 대비 2014년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99
[그림84]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00
[그림85]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00
[그림86]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02
[그림87]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04

[그림91]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08
[그림92]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09
[그림93]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09
[그림94] 교류활성화 부문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10
[그림95] 교류활성화 부문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11
[그림96]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12
[그림97]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12
[그림98] 교류활성화 부문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14
[그림99] 교류활성화 부문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15
[그림100]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16
[그림101]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16
[그림102] 교류활성화 부문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17
[그림103]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19
[그림104]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19
[그림105]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20
[그림106]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22
[그림107]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23
[그림108]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23
[그림109]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 기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24
[그림110]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25
[그림111]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26
[그림112]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27
[그림113]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28
[그림114]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29
[그림115]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29
[그림116]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30
[그림117]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31

[그림121]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34
[그림122] 지역특성화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34
[그림123]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35
[그림124]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36
[그림125]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37
[그림126]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37
[그림127]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 기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38
[그림128]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39
[그림129]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40
[그림130]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40
[그림131] 지역특성화 부문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41
[그림132] 지역특성화 부문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42
[그림133]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43
[그림134]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43
[그림135] 지역특성화 부문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44
[그림136] 지역특성화 부문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45
[그림137]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46
[그림138]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46
[그림139] 지역특성화 부문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47
[그림14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차별성-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48
[그림14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차별성-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48
[그림14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기획의 독창성 및 우수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49
[그림14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상주단체 프로그램의 지역고유성 및 차별성 반영 노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51
[그림14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53
[그림14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53
[그림146]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별 선정단체 기준 및 선정단체 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54
[그림14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연계 협력 및 협조체계 구축 여부 및 수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56

[그림15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홍보 및 마케팅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61
[그림15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상주단체간 협력, 네트워크 수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63
[그림15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 추진 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65
[그림15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65
[그림15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66
[그림156]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인증, 수상 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67
[그림15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성과목표 달성 수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69
[그림15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와 환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71
[그림159]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71
[그림16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자체평가 체계의 적절성 및 결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72
[그림16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서울 176
[그림16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서울 177
[그림163]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서울 179
[그림16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서울 185
[그림165]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부산 187
[그림166]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부산 188
[그림167] 툭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부산 190
[그림168]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부산 194
[그림169]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부산 197
[그림170]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부산 198
[그림17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부산 199
[그림172]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대구 201
[그림17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대구 202
[그림174]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대구 204
[그림175]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대구 208
[그림176]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대구 211
[그림177]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대구 212

[그림181]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인천 219
[그림182]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인천 224
[그림183]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인천 227
[그림18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인천 229
[그림185]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광주 231
[그림186]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광주 232
[그림187]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광주 234
[그림188]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광주 238
[그림189]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광주 240
[그림19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광주 242
[그림19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대전 244
[그림19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대전 245
[그림193]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대전 247
[그림194]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대전 251
[그림195]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대전 254
[그림196]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대전 255
[그림19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대전 257
[그림198]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울산 259
[그림199]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울산 260
[그림200]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울산 261
[그림201]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울산 265
[그림202]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울산 267
[그림203]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울산 268
[그림20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울산 269
[그림205]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세종 271
[그림206]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세종 272
[그림207]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세종 273

[그림211]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경기 281
[그림212]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경기 285
[그림213]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경기 286
[그림21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경기 287
[그림215]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강원 289
[그림216]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강원 290
[그림217]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강원 292
[그림218]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강원 296
[그림219]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강원 298
[그림220]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강원 300
[그림22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강원 301
[그림222]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충북 303
[그림22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충북 304
[그림224]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충북 306
[그림225]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충북 310
[그림226]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충북 311
[그림227]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충북 312
[그림22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충북 313
[그림229]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충남 315
[그림230]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충남 316
[그림231]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충남 317
[그림232]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충남 320
[그림233]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충남 321
[그림234]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충남 322
[그림23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충남 323
[그림236]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전북 326
[그림237]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전북 327

[그림241]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전북 336
[그림24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전북 337
[그림243]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전남 339
[그림244]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전남 340
[그림245]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전남 342
[그림246]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전남 346
[그림247]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전남 348
[그림24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전남 349
[그림249]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경북 352
[그림250]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경북 353
[그림251]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경북 354
[그림252]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경북 358
[그림253]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경북 360
[그림25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경북 361
[그림255]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경남 362
[그림256]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경남 363
[그림257]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경남 365
[그림258]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경남 369
[그림259]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경남 370
[그림260]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경남 371
[그림26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경남 372
[그림262]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제주 374
[그림26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제주 375
[그림264]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제주 377
[그림265]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제주 381
[그림266]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제주 383
[그림267]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제주 384
[그림26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제주 385

표 목 차

[표 1] 평가위원 명단 7
[표 2]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사업 체계의 변경 14
[표 3]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점수 체계의 변경 14
[표 4]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사업 구분의 변경 15
[표 5]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가중치의 변경 15
[표 6]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추진일정 및 계획 16
[표 7]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 등급별 평균 18
[표 8]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등급 구분 기준 18
[표 9]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 사업별 평균 19
[표 10]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19
[표 11]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 - 등급별 평균 20
[표 1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 - 사업별 평균 21
[표 1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21
[표 14] 창작활성화 부문 - 등급별 평균 22
[표 15] 창작활성화 부문 - 주요 지표별 평균 22
[표 16] 창작활성화 부문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24
[표 17] 교류활성화 부문 - 등급별 평균 25
[표 18] 교류활성화 부문 - 주요 지표별 평균 25
[표 19] 인천 지역 교류활성화 부문 사례 28
[표 20] 교류활성화 부문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29
[표 21]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 등급별 평균 30
[표 22]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 주요 지표별 평균 30
[표 23]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32
[표 24] 지역특성화 부문 - 등급별 평균 33
[표 25] 지역특성화 부문 - 주요 지표별 평균 33
[표 26] 지역특성화 부문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35
[표 2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등급별 평균 36

[표 31] 특성화 통합 사업계획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42
[표 32] 특성화 통합 성과목표 설정 여부 및 적합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43
[표 33] 특성화사업 성과목표 설정 여부 및 적합성 우수사례 – 서울 지역 44
[표 34] 특성화 통합 설계의 방향성 및 전략의 구체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46
[표 35] 예술인, 예술단체의 성장단계별 지원 방향 – 서울 지역 47
[표 36]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서울문화재단 간 예술지원체계 역할분담 47
[표 37] 특성화 통합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48
[표 38] 특성화 통합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50
[표 39] 특성화 통합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50
[표 40] 특성화 통합 추진일정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51
[표 41] 특성화 통합 심의 절차 및 심의위원 구성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53
[표 42] 특성화 통합 교류 협력 수준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55
[표 43] 특성화 통합 교류 협력 수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55
[표 44] 특성화 통합 지역예술인(단체)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56
[표 45] 지역예술인(단체)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우수사례 – 서울 지역 57
[표 46] 지역예술인(단체)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우수사례 – 강원 지역 58
[표 47] 특성화 통합 지역 및 해외와의 교류 협력 추진 노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60
[표 48] 특성화 통합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62
[표 49] 특성화 통합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62
[표 50] 특성화 통합 지역수요자 문화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63
[표 51] 2014년 문화코디네이터 구성 현황 및 활동 사항 – 충북 지역 66
[표 52] 충북 관내 지역별 문화리포터 구성 현황 66
[표 53] 특성화 통합 홍보 추진 노력의 적절성 및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67
[표 54] 특성화 통합 사업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69
[표 55] 특성화 통합 사업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69
[표 56] 특성화 통합 계량성과 취합 체계 및 성과 정리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70
[표 57] 계량성과지표 관리 내용 – 서울 지역 71
[표 58] 전문예술육성지원사업의 자표산식과 계량성과 산출결과 – 강원지역 72

[표 61] 특성화 통합 평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74
[표 62] 특성화 통합 자체평가체계 운영의 적절성 - 재단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75
[표 63]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77
[표 64]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77
[표 65]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78
[표 66]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80
[표 67] 강원 지역의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 실적 사례 81
[표 68]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82
[표 69]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82
[표 70]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83
[표 71] 전문예술창작발표'(공연예술분야) 서류심의 선정기준 및 배점 84
[표 72] 창작활성화 부문 시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85
[표 73]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87
[표 74]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87
[표 75] 창작활성화 부문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88
[표 76] 창작활성화 부문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90
[표 77] 대전문화재단 기획·경영 아카데미 개요 91
[표 78]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92
[표 79]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92
[표 80] 창작활성화 부문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93
[표 81] 창작활성화 부문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95
[표 82]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97
[표 83]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97
[표 84] 창작활성화 부문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98
[표 85]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00
[표 86]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00
[표 87]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02
[표 88]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04

[표 91]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06
[표 92]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07
[표 93]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08
[표 94]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09
[표 95]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09
[표 96] 교류활성화 부문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10
[표 97] 교류활성화 부문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11
[표 98]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12
[표 99]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12
[표 100] 교류활성화 부문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14
[표 101] 교류활성화 부문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15
[표 102]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16
[표 103]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16
[표 104] 교류활성화 부문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17
[표 105]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19
[표 106]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19
[표 107] 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20
[표 108]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22
[표 109]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23
[표 110]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23
[표 111]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 기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24
[표 112]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별 추진단체의 사업 추진 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25
[표 113]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26
[표 114]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26
[표 115]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27
[표 116]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28
[표 117]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29
[표 118]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29

[표 121]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32
[표 122]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32
[표 123]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33
[표 124]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34
[표 125]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34
[표 126]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35
[표 127]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36
[표 128]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37
[표 129]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37
[표 130]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 기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38
[표 131]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39
[표 132]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40
[표 133]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40
[표 134] 지역특성화 부문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41
[표 135] 지역특성화 부문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42
[표 136]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43
[표 137]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43
[표 138] 지역특성화 부문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44
[표 139] 지역특성화 부문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45
[표 140]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46
[표 141]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46
[표 142] 지역특성화 부문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47
[표 14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차별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48
[표 14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차별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48
[표 14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기획의 독창성 및 우수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49
[표 146]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상주단체 프로그램의 지역고유성 및 차별성 반영 노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51
[표 14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53
[표 14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53

[표 15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 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58
[표 15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연계 협력 및 협조 체계 구축 여부 및 수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58
[표 15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역 문화수요의 반영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59
[표 15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홍보 및 마케팅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61
[표 15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상주단체간 협력, 네트워크 수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63
[표 156]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 추진 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65
[표 15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65
[표 15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66
[표 159]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비계량적 사업추진성과(인증, 수상 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67
[표 16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성과목표 달성 수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69
[표 16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와 환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171
[표 16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71
[표 16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자체평가 체계의 적절성 및 결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172
[표 164]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서울 176
[표 165]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서울 176
[표 166]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서울 176
[표 167]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서울 177
[표 168]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서울 179
[표 169]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서울 185
[표 170]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부산 187
[표 171]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부산 187
[표 172]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부산 187
[표 17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부산 188
[표 174]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부산 190
[표 175]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부산 194
[표 176]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부산 197
[표 177]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부산 198

[표 181]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대구 201
[표 18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대구 202
[표 183]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대구 204
[표 184]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대구 208
[표 185]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대구 211
[표 186]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대구 212
[표 18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대구 213
[표 188]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인천 216
[표 189]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인천 216
[표 190]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인천 216
[표 191]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인천 217
[표 192]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인천 219
[표 193]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인천 224
[표 194]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인천 227
[표 19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인천 229
[표 196]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광주 231
[표 197]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광주 231
[표 198]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광주 231
[표 199]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광주 232
[표 200]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광주 234
[표 201]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광주 238
[표 202]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광주 240
[표 20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광주 242
[표 204]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대전 244
[표 205]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대전 244
[표 206]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대전 244
[표 207]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대전 245

[표 211]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대전 255
[표 21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대전 257
[표 213]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울산 259
[표 214]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울산 259
[표 215]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울산 259
[표 216]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울산 260
[표 217]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울산 261
[표 218]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울산 265
[표 219]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울산 267
[표 220]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울산 268
[표 22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울산 269
[표 222]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세종 271
[표 223]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세종 271
[표 224]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세종 271
[표 225]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세종 272
[표 226]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세종 273
[표 227]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세종 276
[표 228]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경기 278
[표 229]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경기 278
[표 230]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경기 278
[표 231]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경기 279
[표 232]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경기 281
[표 233]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경기 285
[표 234]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경기 286
[표 23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경기 287
[표 236]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강원 289
[표 237]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강원 289

[표 241]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강원 296
[표 242]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강원 298
[표 243]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강원 300
[표 24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강원 301
[표 245]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충북 303
[표 246]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충북 303
[표 247]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충북 303
[표 248]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충북 304
[표 249]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충북 306
[표 250]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충북 310
[표 251]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충북 311
[표 252]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충북 312
[표 25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충북 313
[표 254]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충남 315
[표 255]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충남 315
[표 256]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충남 315
[표 257]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충남 316
[표 258]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충남 317
[표 259]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충남 320
[표 260]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충남 322
[표 261]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충남 323
[표 26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충남 324
[표 263]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전북 326
[표 264]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전북 326
[표 265]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전북 326
[표 266]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전북 327
[표 267]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전북 329
[표 268]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전북 333

[표 27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전북 337
[표 272]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전남 339
[표 273]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전남 339
[표 274]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전남 339
[표 275]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전남 340
[표 276]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전남 342
[표 277]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전남 346
[표 278]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전남 348
[표 279]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전남 349
[표 280]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경북 352
[표 281]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경북 352
[표 282]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경북 352
[표 28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경북 353
[표 284]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경북 354
[표 285]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경북 358
[표 286]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경북 360
[표 28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경북 361
[표 288]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경남 362
[표 289]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경남 362
[표 290]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경남 362
[표 291]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경남 363
[표 292]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경남 365
[표 293]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경남 369
[표 294]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경남 370
[표 295]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경남 371
[표 296]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경남 372
[표 297]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제주 374
[표 298]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제주 374

[표 301]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제주 377
[표 302]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제주 381
[표 303]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제주 383
[표 304]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제주 384
[표 30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제주 385
[표 306]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부문 2013~2014년 등급 비교 407
[표 307]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 2013~2014년 등급 비교 408
[표 308] 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2013~2014년 등급 비교 409
[표 309]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2013~2014년 등급 비교 410
[표 310] 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2013~2014년 등급 비교 411
[표 311]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2013~2014년 등급 비교 412
[표 31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2013~2014년 등급 비교 413
[표 313] 2010~2014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결과 등급 비교 414
[표 314] 광역자치단체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등급 비교(2010~2014년)(1) 415
[표 315] 광역자치단체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등급 비교(2010~2014년)(2) 416

제1장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개요

제1절 : 평가 연구 개요

제2절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개요와 취지

1. 평가 배경
2. 평가 목표
3. 평가 방향
4. 평가 범위
5. 기대 효과

제3절 : 평가 체계

1. 평가위원 구성
2. 평가 내용
3. 추진 일정

제1절 평가 연구개요

□ 연 구 명 :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 연구기간 : 2014년 8월 1일 ~ 2015년 4월 30일

□ 위탁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발주기관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 연구기관 : 사단법인 한국문화기획학교

□ 연 구 진

- 책임 연구원 : 윤 성 진 ((사)한국문화기획학교 상임이사)
- 부책임연구원 : 오 양 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석좌연구위원)
- 공동 연구원 : 김 승 민 ((주)문화기획학교 대표)
  이 흥 재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정 정 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연구위원)
  황 상 훈 ((주)기분좋은QX 대표)
- 연 구 원 : 채 송 아 ((사)한국문화기획학교 연구원)
- 연구 보조원 : 이 은 주 ((사)한국문화기획학교 연구원)
- 총 괄 : 고 준 환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사무국장)
  심 수 진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간사)
  이 성 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부권 지역문화협력관)
  이 창 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남권 지역문화협력관)
  황 치 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호남권 지역문화협력관)
  조 미 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부 차장)

제2절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개요와 취지

1. 평가 배경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과 17개 시 · 도의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 중인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지역협력형사업)의 2014년도 평가 운영 필요

□ 2009년부터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및 환류를 통한 지원금 배분 인센티브 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7개 시 · 도(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 · 객관적 · 전문적인 평가 필요

□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점검 · 환류하고, 지역의 성과관리에 대한 능력 및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의 효율화 달성

□ 2013년도부터 포괄형(자율형) 사업체계 도입 및 연차별 확대에 따른 지역의 책임성 및 성과(계량, 비계량) 평가 강화

2. 평가 목표

□ 2014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

□ 각 지역별 사업 운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보조금 차등지급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관련 정부부처에 대하여 기금 사용의 적절성 · 투명성 및 성과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3. 평가 방향

□ 평가체계의 안정화 및 고도화

- 지난 평가 결과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평가 시에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요소 등을 발전적으로 수렴 반영함.
- 다년간의 본 사업 평가 수행 경험을 가진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 2010년도: 2009년부터 시작된 평가방법의 연속성 및 환류의 일관성 확보, 지역별 · 사업별 · 지표별 평가체계 구축함
  - 2011년도: 지역방문을 통한 다면적 현장평가 시스템 구축(서류검토, 사업담당자 인터뷰,

지원 단체 인터뷰, 현장실사 등), 권역별 지역문화협력관 참여 및 협조 시스템 구축,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평가모델 개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참고사례 제시 등

- 2012년도: 평가단 운영 및 현장평가 운영 기본 매뉴얼 구축, 16개 시 · 도(문화재단) 예술(인)단체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수요, 만족도, 개선사항 등)
- 2013년도: 사업별 만족도조사 표준안 개발 및 제공, 예술(인)단체 설문조사 계속,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시스템의 우수사례화
- 2014년도: 변화되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체계를 반영한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시스템 구축함. 평가체계 개편, 현장평가 대체, 컨설팅형 평가가 되도록 함.

□ 2014년 평가체계의 변화

- 특성화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사업을 구분하여 각각의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함.
- 평가체계 개편: 평가지표, 심화인터뷰, 자체평가, 평가환류 등 평가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재설계함.
- 현장평가 대체: 17개 시 · 도별 방문 현장평가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권역별 통합 심화인터뷰를 통해 현장평가를 대체
- 컨설팅형 평가: 지역별 · 사업별 · 지표별 분석, 시계열 분석, 우수사례 제시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컨설팅형 평가가 되도록 함.
- 성과평가 강화: 2013년부터 도입된 성과평가 시스템을 재정립하여 성과평가 강화 시도

4. 평가 범위

□ 기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체계 · 지표 · 방법의 재검토 및 신규 설정

- 평가지표 수 및 현장평가 대체 방안 마련
- 정부 경영평가 등 외부평가와의 연계성 강화
- 『2008년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지원사업 운영방안 연구』 참고
- 『2009년 지역협력사업 평가보고서』 참고
- 『2010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보고서』 참고
- 『2011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보고서』 참고
- 『2012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보고서』 참고
-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보고서』 참고
- 평가착수에 앞서 평가 체계 · 지표 · 방법 등이 포함된 실행 계획을 예술위원회와 사전 협의

□ 지역 자율성 강화에 따른 책임성 평가 및 환류 방안 마련

□ 사업체계 변화에 따른 평가지표 개선

-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의 포괄적 사업 구조 반영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계량 · 비계량 성과 관리

- 평가를 통한 사업의 계량 · 비계량(우수사례 등) 성과 관리 및 실적 측정
- 기존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지표체계 개선
- 기존의 사업운영 프로세스 중심의 평가 개선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설계(기본계획) · 수행과정 · 성과 등 평가

- 사업 설계의 적합성, 운영과정의 적절성 및 효율성, 성과의 정도 및 파급효과 등 측정
- 각종 관련 서면 자료 확인, 관계자 면담, 심화인터뷰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 2014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및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함.

□ 지역별 · 지표별 · 단위사업 부문별 평가 결과의 특성화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사업 구분 종합

- 비교를 위한 객관적 · 체계적인 기준과 방법 제시
- 우수 사례, 미흡 사례 등 제시

□ 지역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 보고서 작성분량 제한선 제시

5. 기대 효과

□ 체계적이고 공정하며 권위 있는 평가 결과 도출

- 연구진, 전문가 자문 등 대내외 검증을 통해 내용적 적합성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춘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를 구축함.
- 지표체계, 심사체계, 면접체계, 환류체계 등을 입체적,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평가의 내실과 권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함.
- 평가개선 요소 파악 및 상위 정책과 사업 환경의 변화 흐름 진단을 통해 이에 부합하는 차기년도 평가 개선방안 도출함.

□ 광역단위 지원주체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 역량 향상

- 평가 중에 진행되는 담당자 참여 워크숍, 심화인터뷰 등의 과정 수행을 통해 관점과 역량의 상승을 조력하고 견인함.
- 지역별 문화 환경과 역량에 맞는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고 각 시도별 지원 사업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

- 광역단위 자체 평가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함.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개선방안 도출 및 평가결과 환류

- 지원 수혜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강화하고 활발한 의견개진을 촉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 견해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도출함.
- 사업성과의 평가결과, 분석내용 및 발전전략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이하 한지협), 각 시· 도별 담당부서, 사업추진단체 등 관련주체와의 충분한 소통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차기년도 사업에 환류 되도록 유도함.
- 과업 후반부의 개선방안 도출 워크숍, 종합 평가 워크숍 등을 통해 성과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도출에 따른 각 주체의 자기변화와 역량 성장을 촉진함.

□ 관련 정부부처의 경영평가, 기금평가 자료로 연계 활용

- 기획재정부 주관 경영평가, 문화관광부 주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에 연계 활용되는 보고 자료를 생산함.

제3절 평가 체계

1. 평가위원 구성

평가 사업 분야	주 평가연구위원	부 평가연구위원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	윤 성 진	오 양 열	
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오 양 열	윤 성 진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정 정 숙	김 현 진	
특성화지원사업–시민참여활성화	김 승 민	송 경 희	
특성화지원사업–지역특성화	이 흥 재	조 정 국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황 상 훈	이 희 진	이 흥 재

[표 1] 평가위원 명단

2. 평가 내용

가.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의 주안점 및 대상

□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의 주안점

- 2013년 평가체계의 지속적 안정화 및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개선 추진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사업 발전에 따른 평가체계 효율화와 성과평가 강화 추진
- 지역의 평가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보고서 개선 및 현장 평가제도 개선
- 권역별 심화인터뷰 도입을 통한 현장평가 보완 및 평가효율성 확립
- 지역문화협력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 평가를 통한 지역의 문예지원 역량 강화 및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질적 발전을 목표로 함.

□ 평가의 일관성 및 연속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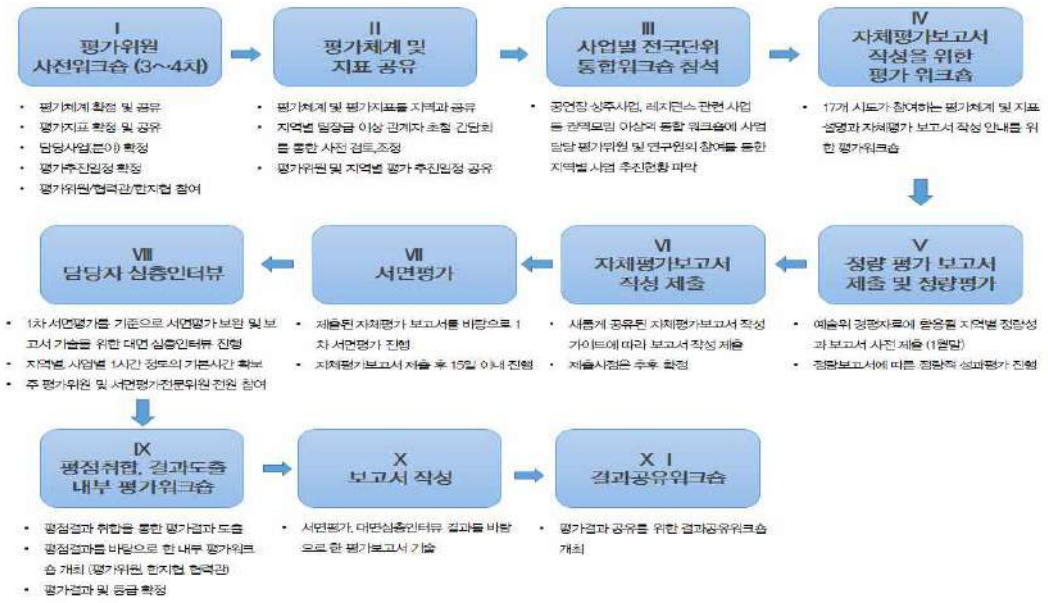
- 6년간 지속적인 평가참여 연구진을 통해 사업취지에 대한 맥락적 이해와 공감에 바탕을 둔 개선방안 도출
- 지난해 지역협력형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한 컨설팅 형태의 평가 진행

– 개선방안 도출 워크숍 및 종합평가 워크숍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발전을 꾀함.

□ 평가 대상 사업

– 2014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임.

나. 기존 평가체계 · 지표 · 방법 개선 및 개발



[그림 1]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단계별 추진 절차

□ 선행평가 분석 및 평가지표 조정

– '2008년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지원사업 운영방안 연구' 와 '2009~2013년 지역협력사업 평가보고서' 를 참고하여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지표를 개선함.

– 선행평가 점검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체계 및 지표를 개선하고 평가지표 개선 자문위원들의 참여(지역문화재단 담당자 포함)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발전단계에 부응하는 평가체계 개선 시도.

– 사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별 평가지표별 가중치, 각 사업의 공통항목 비중 재검토

□ 평가체계 개발 방향

-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 · 관리 유지 및 강화를 통한 지역의 문화예술지원역량 제고를 실현함.
- 3대 영역 〈지역별 평가, 사업별 평가, 지표별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입체적, 유기적, 통합적 평가체계를 구축함.
- 지역별 평가는 평가결과를 점수 배점하여 계량화함으로써 지역 간 우열을 파악하여 우수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지역문화예술지원역량을 강화함.
- 사업별 평가는 실무 담당자들과의 심화인터뷰를 통해 각 사업의 추진역량과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별 지역안착을 지지 · 지원하는 정책판단정보를 제공함.
- 지표별 평가는 5가지 지원 사업 각각의 제 요소(사업추진역량, 목적 달성도, 기획력 및 완성도 등)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광역 지자체의 사업추진역량에 대한 상세한 세부평가가 가능함.

□ 지역문화협력관 역할 강화

- 지역문화협력관들의 워크숍 참여를 통한 지역정보 접근성 확대함.
-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숙지하여야 할 지역문화예술 이슈 사항과 핵심 정보들에 대하여 지역문화협력관들이 평가위원들에게 정보 제공함.
- 자체평가보고서 취합 이후 평가 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 주요 평가사항들에 대해 지역문화협력관이 자문, 조정, 우수사례 추천 등의 역할 담당함.

다. 각 시도별 사업의 설계(기본계획) · 수행과정 · 성과 등 평가

□ 평가방향

- 2014년 평가 방향에 따라 평가지표를 보완, 개발하여 사업 설계(기본계획)의 타당성, 수행과정의 적절성과 효율성, 성과의 정도와 파급효과 등을 측정
- 각종 관련 서면 자료 확인, 자체평가, 서면평가, 심화인터뷰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함.

□ 계량/비계량 성과 제출 및 정량 평가

- 2014년 지역협력형사업과 관련한 지역별 정량 성과(계량/비계량)를 2015년 1월 15일까지 각 지역 협력관에게 제출함.
- 17개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의 통계 자료를 2014년 1월 31일까지 평가단에서 취합함.
- 정량보고서에 따른 정량적 성과 평가를 1차 진행함.

□ 자체평가

- 지역별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을 통해 지원 사업 대한 자기검증 및 문화행정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가이드 작성함.
- 2013년도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의견과 결과물을 참고로 하여 우수사례 등을 제시하고 사업 담당자들이 사업의 성과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보고서 표준모델을 개선하여 제시함.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17개시· 도 지원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를 통해 '평가세부지표' 설명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를 공유하고 질의사항 및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워크숍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를 17개 시· 도에 배포함.
- 세부적인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각 시도별 담당자가 직접 자체평가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고 평가관련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지역별 행정역량이 상이하여 우수하게 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서류심사의 근거가 되는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이해와 작성요령이 부족하여 저평가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공평한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함.

□ 서면평가, 심사

- 업무집중시기를 피하여 기본적으로 2015년 3월 5일까지 자체평가보고서를 받고 최종 3월 15일에 접수 마감함.(3월 6일부터 종합점수 100점에서 일자별로 0.5점씩 감점)
- 연구진이 수합한 각 시도별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함.
-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는 주 평가위원과 부 평가위원 2명이 교차 평가를 진행함.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총 3명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진행함.
- 평가위원들을 각 사업별 주심과 부심으로 편성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심화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각 시·도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배점표를 작성함.

□ 지원담당자 심화인터뷰

- 1차 서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주 평가위원 및 부 평가위원 전원이 서면평가 보완 및 보고서 기술을 위하여 지역별 · 사업별로 1시간 정도 지원담당자와의 심화인터뷰를 실시함.
- 사업의 발전을 위한 각 주체별 입장과 역할,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기록함.
- 녹취한 내용을 유형화하여 정리 분석하고 종합평가에 활용함.
- 정리된 심화인터뷰 내용 요약본을 연구진 전체가 공유함.

□ 종합평가

- 평가 내용(정량평가, 자체평가, 서면평가· 심사, 심화인터뷰)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예년도 평가결과, 사업별 결과 등을 비교분석함.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및 각 시· 도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전략 및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함.
- 도출된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하는 워크숍 실시함(예술위원회, 한지협 등).
- 평가연구원들이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함.
- 연구진 종합워크숍을 통해 정리된 평가결과에 대한 토의 및 분석과정을 거쳐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평가보고서를 보완함.
- 평가의 정확도를 꾀하기 위하여 심화인터뷰 후 인터뷰 결과에 대한 토론회 겸 워크숍에 지역문화협력관이 함께 참여함.
-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및 각 지역별, 사업별 평점 부여 후 평가연구보고서의 내용적 완성도를 높이며 협력관들의 평가 과정 참여 비중을 높임.
- 지역문화예술지원 전략체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타 지역의 지원활동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에 참가한 모든 관계자들(예술위원회, 한지협, 각 시· 도별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평가결과를 공유하는 종합워크숍을 개최함.
- 종합워크숍을 통하여 각 지역별 개선과제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시스템의 개선과 지원역량의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함.

라. 주요 단계별 관계자 참여 워크숍 및 간담회

□ 단계별 특성에 따라 평가 가이드 제공, 소통 및 학습효과 거양, 발전방안 공유 등을 위한 워크숍과 내용 공유를 위한 지속적인 간담회 및 의견 수렴을 실시

□ 2014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워크숍

- 일시 : 2014. 8. 22(금)
- 대상 : 2014 지역문화예술지원 평가단
- 내용 : 2014 평가체계 개편 및 지표 설계 관련 의견 취합 및 향후 일정 협의

□ 2014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체계 재구축 및 평가지표 재설계를 위한 워크숍

- 일시 : 2014. 9. 16(화)
- 대상 : 예술위원회 지역문화협력관, 한지협, 2014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단
- 내용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선 방향성 토의 및 확정, 평가 추진 일정에 대한 협의 및 확정

□ 2014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선에 따른 시 · 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 일시 : 2014. 10. 13(월)
- 대상 : 지역문화재단 지원사업 담당 팀장 및 광역지자체 관계자, 예술위원회, 한지협, 2014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단
- 내용 : 평가체계 및 지표 개선 방향 및 추진 일정 공유, 보완된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선안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 2014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선안에 대한 지역의견 수렴
- 일시 : 2014. 10. 30(목) ~ 11. 5(수)
- 대상 : 17개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지원사업 담당자
- 내용 : 개선된 평가체계 및 지표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문서 발송 및 의견 취합

□ 2014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선안 공유
- 일시 : 2014. 12. 8(월)
- 대상 : 17개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지원사업 담당자
- 내용 :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선안에 대한 지역별 보완 의견에 대한 답변 회신 및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선안(최종) 자료 공유

□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가이드 워크숍
- 일시 : 2014. 1. 13(화)
- 대상 : 17개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지원사업 담당자, 예술위원회, 한지협
- 내용 :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계획과 평가 지표를 공유하고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안내함.

□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결과 확정 워크숍
- 일시 : 2014. 4. 7(화)
- 대상 : 예술위원회, 한지협,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단
- 내용 :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워크숍 진행

마.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 평가 체계의 변경
- 현장평가 폐지 및 담당자 심화인터뷰 강화
  - 평가위원들의 지역방문 현장 모니터링 평가를 17개 시·도 지원사업 담당자들과의 심화인터뷰로 변경하여 진행함.
- 특성화 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사업 별도 평가 및 결과 별도공개

- 자체사업의 합산 종합평가를 통한 등급산출을 폐지하고 사업별 별도평가를 통해 사업별 등급을 발표하고, 사업별 인센티브를 적용함

– 지역(시도 및 재단)의 사업추진 기초역량을 평가하는 공통평가항목 폐지
  - 재단설립여부 등 지역의 사업추진 기초역량을 평가하는 공통평가항목의 지표를 삭제하고 일부 통합적 성격의 지표는 특성화 통합지표에 포함하여 평가함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시 평가보고서 작성 분량의 제한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시 총 작성 분량의 제한을 통해 피 평가자의 과도한 작성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특성화 사업 총 작성 분량 최대 400P 이내, 통합평가 100P이내, 사업별 최대 100P이내 - 4개 부문 추진 기준 / 공연장상주사업 최대 150P이내)

– 특성화지원사업의 개별사업에 대한 가중치를 지역에서 직접 결정
  - 개별사업의 포함분야 및 개별사업에 대한 가중치를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적 권한을 부여함.

– 지역협력관의 현장 모니터링 의견을 서면평가결과공유 워크숍을 통해 평가에 참고하는 방식으로 협력관의 지역현장 정보를 평가에 참고하며, 현장평가 폐지의 한계를 보완함.
  - 지역현장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면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지역협력관의 지역별, 사업별 현장 모니터링 의견을 청취하여, 서면평가 결과공유 워크숍 시에 평가결과에 참고하고, 이를 통해 현장평가 폐지로 인한 현장이해도 부족을 보완토록 함.

□ 평가 지표의 변경

– 사업계획–사업진행–사업성과–평가환류의 평가지표 체계 유지
  - 특성화 통합, 개별지표, 공연장상주사업 지표의 지표체계를 사업추진단계에 맞춰 4단계로 구분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절대수를 축소하여 보고서 작성부담을 경감
  - 평가항목별 평가지표수를 축소하고 지표별 평가요서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 작성가이드를 제시하여 보고서 작성의 부담을 최소화 (※자체평가보고서 적성가이드는 1월 중 개최되는 평가워크숍에서 제공됨)

– 계량 및 비계량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지표의 배점을 늘려 성과평가의 비중을 높임
  - 2013년부터 늘어난 사업성과평가에 대한 비중을 늘려 계량 및 비계량 사업성과를 발굴, 정리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평가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함.

□ 사업 체계의 변경

<table>
<tr><th colspan="2">2013년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th><td rowspan="6">⇒</td><th colspan="2">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th></tr>
<tr><td rowspan="4">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td><td>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td><td rowspan="4">특성화
지원사업
통합부문
(40%)</td><td rowspan="4">특성화지원사업
개별 사업 부문
(창작활성화, 교류활성화,
시민참여활성화, 지역특성화
4개 사업 부문으로 구분)
(60%)</td></tr>
<tr><td>시 · 도기획지원사업</td></tr>
<tr><td>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td></tr>
<tr><td>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td></tr>
<tr><td colspan="2">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td><td colspan="2">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100%)</td></tr>
</table>

[표 2]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사업 체계의 변경

□ 점수 체계의 변경

<table>
<tr><th colspan="5">2013년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th><td rowspan="4">⇒</td><th>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th></tr>
<tr><td colspan="5">공통 평가 항목 – 40점</td><td>특성화지원사업 통합부문(40점)
+
특성화지원사업 개별 사업 부문 (60점) = 100점</td></tr>
<tr><td colspan="4">특성화지원사업 통합항목 - 35점</td><td rowspan="2">공연장
상주</td><td rowspan="2">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100점</td></tr>
<tr><td>육성</td><td>기획</td><td>레지</td><td>우리
가락</td></tr>
<tr><td>25점</td><td>25점</td><td>25점</td><td>25점</td><td>60점</td><td></td></tr>
</table>

[표 3]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점수 체계의 변경

□ 사업 구분의 변경

– 최근 2년간의 지역협력형 사업 평가 대상 사업구분과 2014년 평가대상 사업의 구분 비교

– 2014년 지역별 특성화지원사업의 지원현황을 종합 검토 및 분류하여 특성화지원사업을 4대 사업부문(8개 분야)으로 분류하여 사업부문별로 평가함.

2012년 지역협력형사업 사업 구분	2013년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구분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구분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 시도기획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특성화지원사업 (4개 그룹, 8개 부문으로 구분) – 창작활성화 그룹: 전문예술창작활동 부문 지원사업, 신진예술인육성부문 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그룹: 국제교류활성화 부문 지원사업, 레지던스 부문 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그룹: 시민문화활동육성 부문 지원사업, 우리가락우리마당 부문 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그룹: 지역특화기획 부문 지원사업, 기타 특성화 부문 지원사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표 4]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사업 구분의 변경

□ 특성화지원사업 가중치의 변경

– 평가 체계의 변화에 따라 각 사업들에 대한 가중치도 변경됨.

– 지원사업 분야별 가중치 중 자율가중치(30%)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예산 가중치는 각 지역의 실제 지원 예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산정함.

2013년 지역협력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사업 구분	가중치
육성지원사업	25%
시도기획지원사업	20%
레지던스지원사업	15%
우리가락우리마당	5%
공연장상주사업	35%

⇒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사업 구분	가중치	
	예산	자율
창작활성화	30%	자율
교류활성화	20%	자율
시민참여활성화	10%	자율
지역특성화	40%	자율
반영가중치	**70%**	**30%**

[표 5]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가중치의 변경

3. 추진 일정

구 분	2014					2015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선	▶	▶	▶	▶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개선안 확정 및 공유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평가워크숍						▶			
정량 평가 보고서 제출 및 정량평가						▶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	
서면평가								▶	
담당자 심층인터뷰								▶	▶
평점취합 및 결과도출 내부 평가워크숍									▶
보고서 작성									▶
최종 결과보고									▶

[표 6]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추진일정 및 계획

제2장

평가 종합

제1절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평가 결과

1.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2.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통합 부문
3.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4.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업 – 교류활성화 부문
5.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6.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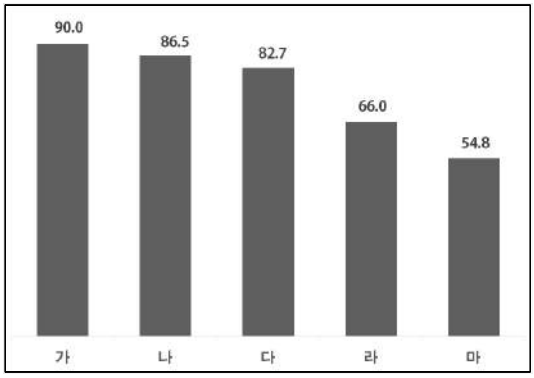
제2절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제1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평가 결과

1.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 제출된 17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자체평가보고서와 붙임자료, 2014년에 진행되었던 심화 인터뷰의 결과를 반영하여 서면심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평가 결과가 도출되었음.

□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평가는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이하 '특성화지원사업'으로 표기)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크게 구분하여 진행되었으며,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는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와 각 사업 부문별 평가의 합산에 각 사업별 예산 가중치와 지역에서 선정한 자율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하였으며, 특성화지원사업의 종합 평가 결과를 5개의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나눠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그림 2]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 등급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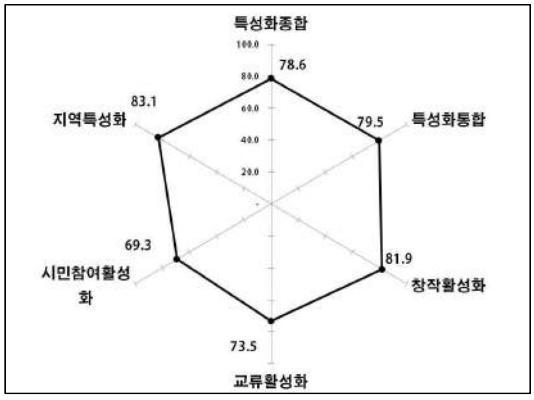
(등급 내 가나다순, 100점 기준)

등급	지역	평균
가	강원, 부산, 서울	90.0점
나	경기, 대구, 대전, 인천	86.5점
다	경남, 광주, 전남, 제주, 충북	82.7점
라	울산, 전북, 충남	66.0점
마	경북, 세종	54.8점

[표 7]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 등급별 평균

□ 종합 평가 및 각 사업별 등급 구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상대평가를 통한 등급 구분을 원칙으로 하여 평가환류를 통한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 등급별 포함 지역의 수를 설정하였음.

등급	비율	개수
가	15%	2~3개
나	20%	3~4개
다	35%	5개
라	20%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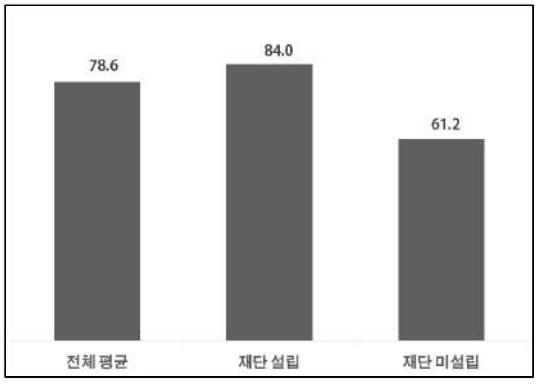


[그림 3] 특성화지원 종합 평가 - 사업별 평균

(100점 기준)

사업 구분	평가 점수
특성화 종합	78.6점
특성화 통합	79.5점
창작활성화	81.9점
교류활성화	73.5점
시민참여활성화	69.3점
지역특성화	83.1점

[표 9]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 사업별 평균



[그림 4]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재단 설립 여부 비교

(100점 기준)

사업 구분	평가 점수
전체 평균	78.6점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4.0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1.2점

[표 10]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재단 설립 여부 비교

□ 사업부문별로는 지역특성화 부문의 평점이 가장 높았으며(83.1점), 시민참여활성화 부문의 평점이 가장 낮았음.(69.3점) 개별사업부문의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 역량과 지원사업 설계를 위한 기획력 등을 평가하는 특성화통합지표의 평가는 비교적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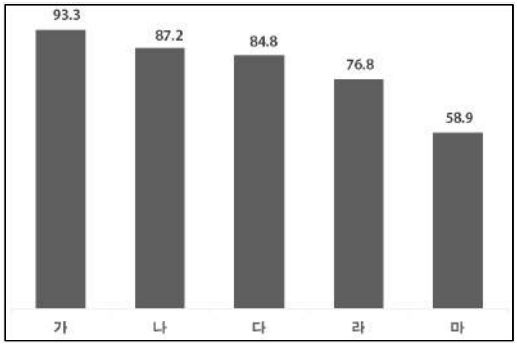
□ 재단설립지역과 미설립지역의 비교 결과 평점 평균의 차이는 23점으로 여전히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충남의 재단 설립으로 17개 지역 중 재단 미설립 지역은 4개 지역(전북, 경북, 울산, 세종)만 남아 있는 상황이며 전북과 경북, 울산 모두 재단 설립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됨.

2.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통합 부문 평가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지표 부문은 2013년에 추가된 평가항목으로 기존의 개별사업들이 특성화 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신설된 평가항목임. 2014년에는 공통평가항목 부문의 평가가 폐지되고 일부 지표가 특성화 통합부문 지표로 포함되면서 개별 사업부문에 대한 공통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음.

□ 2014년 평가부터는 종합평가결과를 도출하지 않고 특성화지원사업 부문에 대한 평가종합과 공연장상주사업 평가 두 개로 크게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특성화 지원사업 평가종합은 특성화 지원사업 4개 부문 각각의 사업 결과와 특성화 통합지표 부문의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특성화 통합부문의 평가는 제출된 17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자체평가보고서와 붙임자료, 2014년에 진행되었던 심화인터뷰의 결과를 반영하여 서면심사를 진행하였음. 지역별 특성화 통합지표 부문의 평가결과를 5개의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나눠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그림 5]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 – 등급별 평균

(등급 내 가나다순, 100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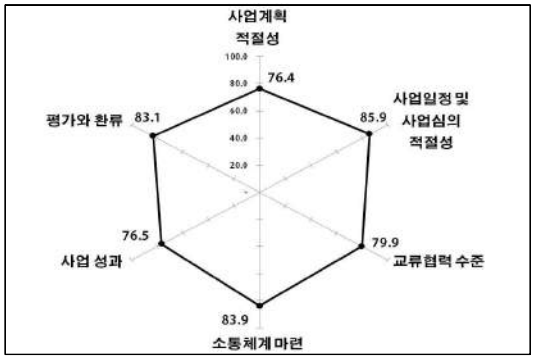
등급	지역	평균
가	서울, 전남, 충북	93.3점
나	강원, 경기, 대구, 대전, 부산	87.2점
다	광주, 인천	84.8점
라	경남, 제주, 전북	76.8점
마	경북, 세종, 울산, 충남	58.9점

[표 11]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 - 등급별 평균

□ 통합지표의 등급 구분에서 '나' 등급에 포함된 지역이 많고 상대적으로 다 등급이 적은 이유는 '나' 등급에 포함되는 지역의 평점 편차가 거의 없어 한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나' 등급에 포함된 지역이 5개 지역으로 많아져 '다' 등급보다 '나' 등급에 더 많은 지역이 포함되었음.

□ 특성화 통합지표는 부문별 사업 추진의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특성화 사업의 설계 및 성과목표 수립,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사업추진일정의 관리와 사업심의, 교류협력수준 등을 평가하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

□ 각 주요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음.



[그림 6]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 - 사업별 평균

(100점 기준)

사업 구분	평가 점수
사업계획 적절성	76.4점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85.9점
교류협력 수준	79.9점
소통 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83.9점
사업성과	76.5점
평가와 환류	83.1점
평균	**80.9점**

[표 1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 - 사업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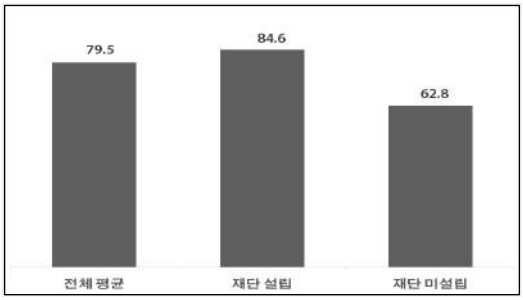
□ 특성화 통합지표의 평가항목은 사업계획적절성(10),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5), 교류협력 수준(5), 소통체계마련 및 운영수준(5), 사업성과(12), 평가환류(3)점으로 총 6개의 평가항목에 12개의 평가지표로 총 40점으로 구성됨.

□ 성과평가 이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항목은 사업계획적절성 항목으로 특성화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여부 및 적합성(3), 특성화 사업설계의 방향성 및 전략의 구체성(4), 특성화사업 기획역량강화를 위한 노력(3) 등 특성화사업의 기획 및 설계의 방향성과 기획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지역별로 변별력 있는 편차를 보여줌.

□ 사업집행과정을 평가하는 평가항목은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항목(5), 교류협력수준(5), 소통체계마련 및 운영수준(5)의 세 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됨.

□ 평가결과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적절성 항목(85.9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수준(83.9점)이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 재단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의 비교결과 84.6점과 62.8점으로 평균 18점 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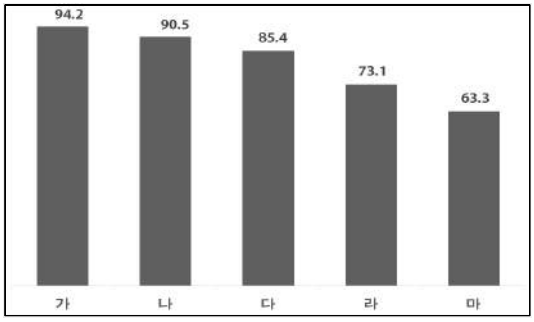


(100점 기준)

사업 구분	평가 점수
전체 평균	79.5점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4.6점

3.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 제출된 17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자체평가보고서와 붙임자료, 2014년에 진행되었던 심화 인터뷰의 결과를 반영하여 서면심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평가 결과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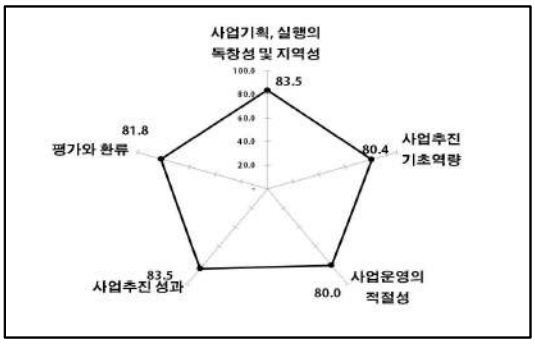
[그림 8] 창작활성화 부문 - 등급별 평균

(등급 내 가나다순, 100점 기준)

등급	지역	평균
가	강원, 서울	94.2점
나	경기, 대구, 대전, 부산, 인천	90.5점
다	경남, 광주, 전남, 제주	85.4점
라	울산, 전북, 충북	73.1점
마	경북, 세종, 충남	63.3점

[표 14] 창작활성화 부문 - 등급별 평균

□ 각 주요 지표별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음.



[그림 9] 창작활성화 부문 - 주요 지표별 평균

(100점 기준)

사업 구분	평가 점수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83.5점
사업추진 기초역량	80.4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80.0점
사업추진 성과	83.5점
평가와 환류	81.8점
평균	**81.8점**

[표 15] 창작활성화 부문 - 주요 지표별 평균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에 대한 종합 평가

- 진취적인 기상을 지닌 몇몇 지역문화재단들을 중심으로 새롭고 실험적인 제도를 시행해 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도와 대비해 볼 때 전체적으로 많은 측면에서 개선된 면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현상 유지 차원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시 · 도 역시 존재하고 있음.

□ 평가지표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문화부와 예술위의 역할분담, 지원체계 이원화와 심사참관인제, 탈락단체 현장평가제도, 지원사업 경계 허물기, 개방형 심사제 등 진취적인 시 · 도 문화재단에 의해 독창적인 기획 내용과 실행 방식이 도입되고 있으나,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정밀한 검토가 필요함.

□ 평가지표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

– 지역성(지역 특화문화자원과의 연계성)을 지원 심의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부산과 인천, 경기, 강원은 지역성을 자원과의 연계방식이나 소재나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관련 언론보도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개하고 있음.

□ 평가지표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 창작활성화 부문 심의기준으로 예술적 수월성에 비중을 크게 둔 경우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 않았고, 전년 대비 지원단체 선정율은 내려가고 평균지원액은 올라가는 추세이며, 대부분의 시 · 도에서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엄격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었음.

□ 평가지표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 모든 시 · 도에서 지원신청 자격을 명시하여 부적합한 단체(개인)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참여확대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는 시 · 도는 많지 않음. 신규단체 선정비율은 적정선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평가지표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

–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사업 설계와 선정에 반영하여 실천에 옮긴 시 · 도는 몇몇에 불과한 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모니터링이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시 · 도가 점차 늘고 있어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임.

□ 평가지표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

– 문화재단이 없는 일부 시 · 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홍보에 매우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특색 있는 홍보 전략을 펼치는 곳이 많음. 다만, 아직까지는 주로 사업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고 수요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곳은 많지 않음.

□ 평가지표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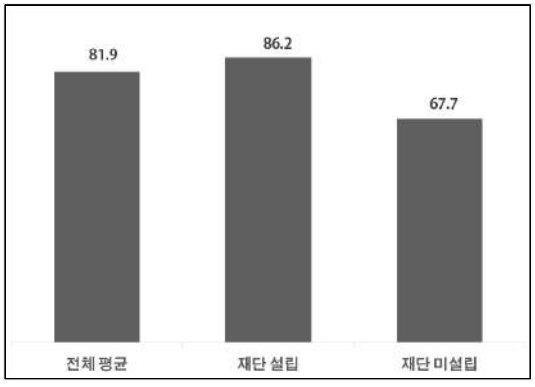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신뢰할만한 측정 수단을 확보하여 계량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 · 도가 이러한 과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량적인 결과만을 집계하고 있어 체계 구축에 관한 한지협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평가지표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 7개 시 · 도가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을 획득했으며 창작활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 대표 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사례와 국내 · 외 수상, 인증 등의 실적을 소개하고 있음. 아직은 서울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나 여타 지역도 빠르게 국내 · 외 수상, 인증 등의 실적을 쌓아가고 있음.

□ 평가지표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남, 경남 등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 모니터링이나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요나 개선 요구사항, 만족도 분석 등을 통해 지원사업 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그림 10] 창작활성화 부문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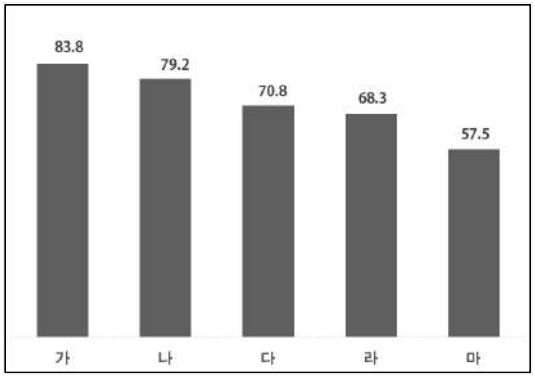
(100점 기준)

사업 구분	평가 점수
전체 평균	81.9점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6.2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7.7점

[표 16] 창작활성화 부문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4.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 제출된 17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자체평가보고서와 붙임자료, 2014년에 진행되었던 심화 인터뷰의 결과를 반영하여 서면심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평가 결과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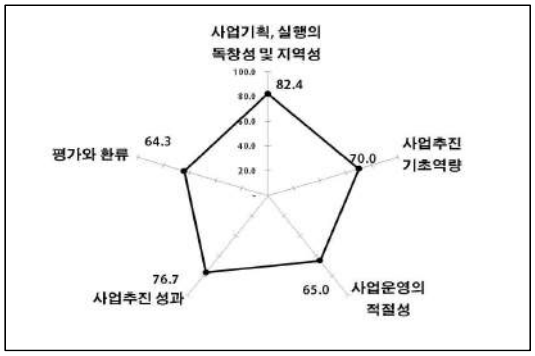
[그림 11] 교류활성화 부문 - 등급별 평균

(등급 내 가나다순, 100점 기준)

등급	지역	평균
가	광주, 부산, 전남, 충북	83.8점
나	강원, 인천	79.2점
다	경남, 대구, 대전, 전북	70.8점
라	제주, 충남	68.3점
마	경북, 울산	57.5점
미추진	경기, 서울, 세종	-

[표 17] 교류활성화 부문 - 등급별 평균

□ 각 주요 지표별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음.



[그림 12] 교류활성화 부문 - 주요 지표별 평균

(100점 기준)

사업 구분	평가 점수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82.4점
사업추진 기초역량	70.0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65.0점
사업추진 성과	76.7점
평가와 환류	64.3점
평균	**71.7점**

[표 18] 교류활성화 부문 - 주요 지표별 평균

□ 2013년 대비 2014년에 이루어진 가장 큰 특징적 변화

- 2014년에는 2013년과 비교해 볼 때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교류활성화 부문' 이 특성화 사업의 한 단위를 차지하는 명칭으로 확정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역협력형 사업에 문화예술기금의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유형화함에 있어서, '교류활성화' 라는 목적이 문화예술계 창작자들에게 주요 수요와 이슈로 대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근본적으로 문화예술의 창조와 발전에 있어서, '교류' 의 가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함.

- 국내 · 외의 예술가 간 교류가 일회성 행사 혹은 비용이나 시간의 소모적 낭비나 투입으로 인식되던 '개발 · 효율 · 정량형' 발전 모델에서 그야말로 전문적인 창의성을 제고하는 영감(靈感, inspiration)의 시간과 공간과 흐름을 중시하는 '창조 · 효과 · 정성형' 발전모델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시대적 추세가 반영됨. 집중과 몰입만큼 중요한 것이 새로운 접촉과 개안이라는 균형적 시각이 폭 넓은 지지를 얻으며 확산되고 있음.
  -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교류사업이 하나의 단위로 통합됨.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창작몰입형 공간지원이나 지역공동체형 커뮤니티 사업으로 각각 지역 특성에 맞게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고,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술가들의 가장 중요한 수요라고 볼 수 있는 국내외 예술가들의 교류사업 현장으로서의 레지던스 공간에 대한 기대가 '교류활성화' 사업이라는 통합형 명칭으로 변화되는 데 기여함.
- 따라서 교류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초기 연도여서 지역에 따라서는 기존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1/2의 비중으로 '교류활성화' 부문에 포함시키면서 나머지 1/2은 기존의 일반창작지원 등에 있던 국제교류형 사업들을 '교류활성화' 부문으로 이전하는 등 과도기적인 적응과 반영이 있었음.
- 교류활성화 사업들의 주된 교류 대상지역은 기존의 문화예술이 모방의 대상지역으로 삼아왔던 현대예술의 주도국인 서구에 비해서, 의외로 아시아지역에 편중되어 있었음. 이를 통해 지역의 국제적인 문화예술 네트워크는 아시아지역과 긴밀한 편이며, 이는 근거리로서의 접근 편의성과 문화할인율이 낮은 점, 비용의 경제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세계의 전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특화될 수 있는 지역별 국제교류 특성화 네트워크 및 중앙단위의 문화예술위원회에서의 교류 테크닉과 방법론 및 기존의 네트워크 정보 제공 등이 요망됨.
- 한편 '교류활성화' 프로그램의 정량적인 성과로는 전국(서울과 경기, 세종시 제외) 14개 광역 단위에서 약 63개 단체가 참여했고, 약 83만 명의 관객이 창작 결과물을 관람하고 향유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총량적인 성과는 '교류활성화' 자체의 빈도나 창조적 자극의 결과였다기보다는 기존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성과물에 대한 관람이나, 레지던스 프로그램 과정 중의 주민 참여의 현황을 측량한 것으로 '교류활성화'에 대한 성과 측정방법과 지표에 대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함을 의미함.

□ '교류활성화' 부문의 신설과 하위 단위의 국제교류지원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지다보니 각각의 성과가 분리되어 기술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기존의 레지던스의 창작거점형 사업과 커뮤니티형 사업과 별개로 또 다른 독립적 기능으로서의 교류를 1/3씩의 비중으로 고려하여, 레지던스의 총괄적인 사업형태로 기술되기도 했음.

- 레지던스 사업이 예술가의 창작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기본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지던스 프로그램 안에서 교류활동을 기술한 것임. 한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서울, 경기지역은 교류활성화부문을 기존의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동일시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
  - 예컨대, 14개 지역 중 총괄형은 9개 지역으로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부산, 울산, 전북, 충남, 충북 등이며, 5개의 분리형은 대구(해외파견, 직접 레지던스), 대전, 인천, 전남, 제주(국제문화예술교류와 창작공간 프로그램) 등이 해당됨.

□ 평가구조 조정을 통한 평가항목 감축의 장점과 보완사항

- 2014년의 사업을 평가하는 2015년의 평가에서는 실무자들이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전 과정 속에서 사업 자체에 몰두할 수 있게 하고, 평가와 관련된 업무 부담과 피로도는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게 평가항목을 최대한 단순화함.
  - 평가항목의 단순화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심층인터뷰에서 지역재단 실무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체평가서 작성에서의 어려움이 반감되었다는 평가항목 감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함.
  - 다만 감축된 평가항목이라는 것은 항목마다 지니는 함축된 의미의 내용은 광범위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방향성이나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다소 초점이 없는 기술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평가항목의 의미와 지표에 대한 설명회가 지역재단 실무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발성이 아닌 다수의 회차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보완 요망사항이 수렴됨.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지표의 유형화와 그 결과

- 지역별로 계량성과와 비계량성과를 자율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한 2014년 평가항목은 성과에 대한 정량적이고 획일적인 기술을 넘어서서, 스스로 성과라고 자기평가하거나 자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한 진일보한 평가항목이었음. 다만, 처음으로 등장한 비계량성과에 대한 지역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체평가서 작성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평가요소와 첨부해야 할 별첨자료로 '페스티벌 초청' 등을 예시하여 제공한 바, 비계량성과마저도 주로 가시적인 성과들을 중심으로 기술 하는 결과로 수렴되었음.
- 예컨대, '2014 올해의 작가상 수상', 암스테르담 영화제 초청, '2014 겸재정선 내일의 작가상 수상', 뉴욕타임즈 공모 입상, 신진기획자상, 한국사진학회 최우수작품 선정, 아시아 텐 콜렉션 작가 선정, 올해의 큐레이터 표창 등 포상 실적 위주로 비계량 성과가 기술되었음.
  - 교류활성화의 비계량적 성과로 제시할 수 있는 의미와 내용에 대한 예술가들과 기획자, 비평가, 실무자, 평가자 간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최소한의 필수 성과의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예컨대, 예술가들이 국내 · 외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얻은 성과로서 개인적

인 창작소재와 창작방법, 창작태도 및 공동창작과 국제페스티벌 참여, 교류대상 국가의 레지던스 체험의 기회 획득 등에 대한 예술가 중심의 구체적인 기술들이 가능할 것임.

□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특정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창작공간에서의 창작 몰입이 장기적으로 해당 사회와 국제 사회의 예술 창작 수준의 제고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창작 몰입도와 창작 환경에의 만족도가 중요함.

- 그러한 레지던스 프로그램만의 고유한 평가지표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작 몰입과 창작환경에 대한 지원의 민감성이 추구될 필요가 없고, 다소 무가치하게 여겨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즉 예술창작과 예술작품도 일정한 비용과 환경만 투입되면 생산이 보장되는 일반적인 제조업종 공산품과 같은 시선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음.
-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포함한 '교류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도 평가의 대항목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평가지표에 있어서는 특성화 지표가 새롭게 발굴되어,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하는 완성도 높은 평가지표의 제시가 요망됨.

□ '교류활성화' 사업의 미래지향적 지원 기획 사례

- 인천의 경우,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지역의 장기적인 계획성과 창의성이 돋보임. 일반적으로 '교류활성화' 라고 할 때, 교류 건수와 교류 대상 국가를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비해, 인천지역에서는 국제문화교류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성찰과 기획을 통해, 현재 상태에서 네트워크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교류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미래의 교류를 준비하는 사업까지도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포함시켜 지원함으로서, 국제문화교류의 지속성과 준비단계의 지원을 도모함.

문화예술 국제교류	단체 및 단체에 소속된 개인	국제교류	A유형 : 인천 내 또는 해외에서 진행하는 국제교류활동
			B유형 : 향후 2년 이내 국제교류를 계획하는 활동
			C유형 : 사전 네트워크 및 워크숍 활동

[표 19] 인천 지역 교류활성화 부문 사례

□ 지역에서 바라는 중앙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교류활성화' 의 새로운 목표설정과 무관하게 각 지역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공간과 거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별로 독자적인 창작활동이 전개됨.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개인 단위로 창작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동일 공간 안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을 매개로 한 연대 및 밀도 높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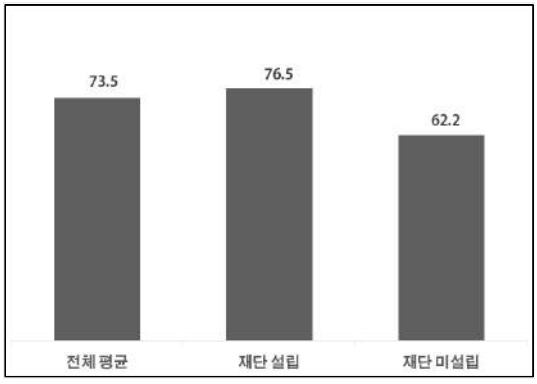
- 따라서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자들 간의 연대나 교류 네트워크가 예술창작의 자극과 지속성의 중요한 견인요소가 되기도 함.

– 지역 실무자들 뿐 아니라, 참여 예술가들은 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전국 단위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워크숍 뿐 아니라, 전국 레지던스 프로그램 페스티벌이나 아트마켓과 같이 그들의 최종적인 성과물을 전국 단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이벤트를 기대하고 있음.

-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연계하거나 문화예술위원회의 자체 기획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중 '교류활성화' 사업들의 종합적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면, 전국과 국외 신진 예술가들에게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회차를 거듭해간다면 그야말로 국제적인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창구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임. 지역별로 순회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면 각 지역의 레지던스 혹은 국제교류 공간이 지역 브랜드로 정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교류활성화' 사업의 중심축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각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음. 아직도 국내 레지던스에 머물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국제 레지던스를 시도하고 있음. 그러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는 실증자료로 제시한 지역의 문화중장기 발전계획 등과의 구체적인 연계성에 대한 고민이 약하고, 사업 추진단체들의 전문법인의 성격이 약하며, 최종적인 만족도와 설문조사도 충분하지 않고, 홍보도 역부족인 지역이 다수 있음.

– 평가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컨설팅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시점임. 지역의 자괴감과 열등감만 가중시키는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문화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체계적인 지원이 투입될 수 있는 중앙 단위의 지원정책이 필요함.



[그림 13] 교류활성화 부문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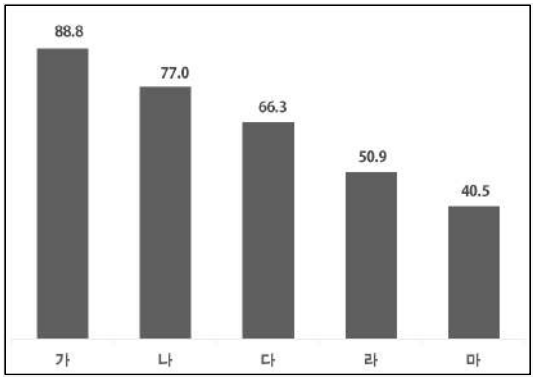
(100점 기준)

사업 구분	평가 점수
전체 평균	73.5점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6.5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2.2점

[표 20] 교류활성화 부문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5.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 제출된 17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자체평가보고서와 붙임자료, 2014년에 진행되었던 심화 인터뷰의 결과를 반영하여 서면심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평가 결과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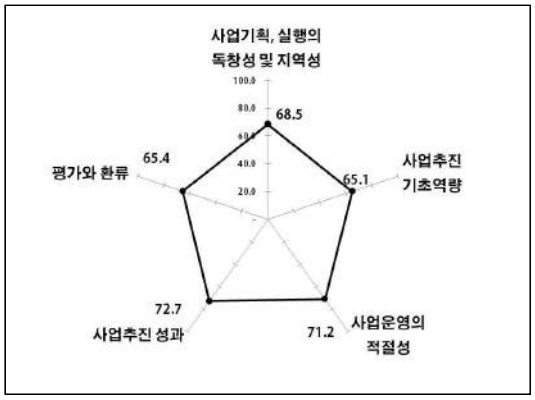
[그림 14]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 등급별 평균

(등급 내 가나다순, 100점 기준)

등급	지역	평균
가	강원, 경기, 부산	88.8점
나	경남, 대전, 전북, 충북	77.0점
다	대구, 세종	66.3점
라	울산, 충남, 제주	50.9점
마	경북	40.5점
미추진	광주, 서울, 인천, 전남	-

[표 21]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 등급별 평균

□ 각 주요 지표별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음.



[그림 15]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 주요 지표별 평균

(100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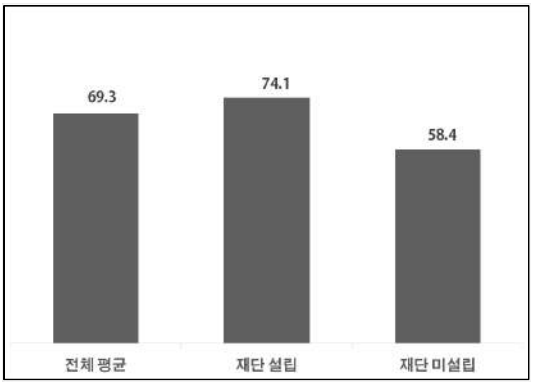
사업 구분	평가 점수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68.5점
사업추진 기초역량	65.1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71.2점
사업추진 성과	72.7점
평가와 환류	65.4점
평균	**68.6점**

[표 22]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 주요 지표별 평균

□ 시민참여활성화사업 분야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개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고 우리가락우리마당 9개, 우리가락우리마당과 시민참여활성화사업 기획 1개, 시민참여활성화사업 기획 3개로 시행하였음.

□ 8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우리가락우리마당의 브랜드 이미지가 전통국악공연의 형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음.

- 전통국악의 대중화와 야외공연장의 명소화를 이루면서, 고정 관람객과 매니아 층이 형성되고 있고 생활문화속의 공연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음. 장르의 다양화와 신진예술가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전통국악의 보존과 현대적 일상화에 기여하고 있음.
- 야외공연장 또는 야외특설무대를 우리가락우리마당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국악공연의 장소성과 전통문화예술의 향유권 신장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며 공연장의 국악공연 명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다수의 지역에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 지속적인 운영으로 관람객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고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생활 공감형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
- 야외공연장의 국악명소화와 함께 우천시 대비, 기반시설의 열악함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다수의 지역에서 신진예술가, 신진단체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고, 명인 명창, 시민동아리 초청공연 등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어, 특정 단체나 특정 장르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구성을 통한 예술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시민참여활성화 영역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우리가락우리마당을 넣었지만, 부산의 경우 생활예술지원사업, 경기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경남 도민예술활동지원, 제주 도민문화표현활동지원 등 새로운 기획과 기존 육성지원사업 중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시민참여활성화에 포함하였음. 경기도의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는 3년간 지속되었던 사업을 시민참여활성화 영역으로 분류하면서 지역공동체와 예술단체 연계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키며 지역문화기반시설을 활성화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시민참여활성화 영역은 전문예술가 지원이 아닌 만큼 시민참여형, 아마추어동아리형, 예술가와 시민 협력형 등 일반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와 참여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과 기획이 필요함.
-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가락우리마당을 시민참여활성화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국악의 대중화와 장소의 명소화 못지 않게 시민참여를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육성지원사업 중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시민참여활성화 영역으로 분류하거나, 새로운 기획으로 시민참여활성화 영역의 확대가 예상 되나, 단순히 육성지원사업 중 시민동아리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획과 접근이 필요함.



[그림 16]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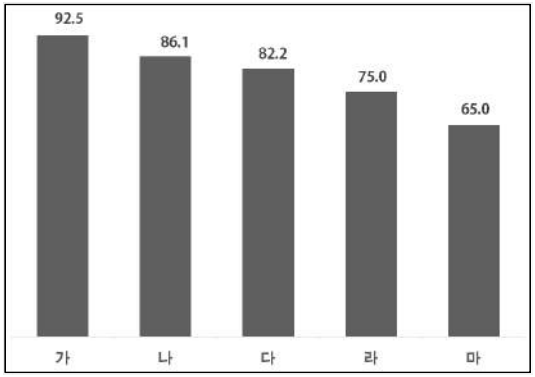
(100점 기준)

사업 구분	평가 점수
전체 평균	69.3점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4.1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58.4점

[표 23]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6.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 제출된 17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자체평가보고서와 붙임자료, 2014년에 진행되었던 심화 인터뷰의 결과를 반영하여 서면심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평가 결과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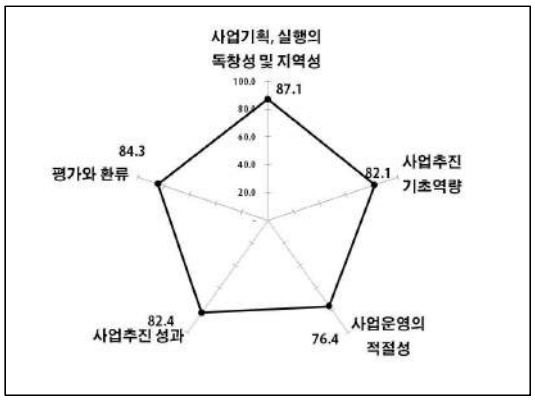
[그림 17] 지역특성화 부문 - 등급별 평균

(등급 내 가나다순, 100점 기준)

등급	지역	평균
가	경남, 인천	92.5점
나	강원, 경기, 대전, 부산, 충북, 제주	86.1점
다	광주, 대구, 전남	82.2점
라	전북, 충남	75.0점
마	울산	65.0점
미추진	경북, 서울, 세종	-

[표 24] 지역특성화 부문 - 등급별 평균

□ 각 주요 지표별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음.



[그림 18] 지역특성화 부문 - 주요 지표별 평균

(100점 기준)

사업 구분	평가 점수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87.1점
사업추진 기초역량	82.1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76.4점
사업추진 성과	82.4점
평가와 환류	84.3점
평균	**82.25점**

[표 25] 지역특성화 부문 - 주요 지표별 평균

□ 특성화 지원사업의 기본적인 취지는 지역의 특화문화자원을 연계한 독창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이는 독창성 있는 기획과 방식으로 계획하고 사업추진 및 운영역량을 갖춰 추진하는 취지의 사업임. 아울러 그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과 비계량적 성과가 적절해야 하며 시민평가와 모니터링 절차를 갖춰야 함.

□ 34평가를 진행한 절차는 먼저 이번에 새로 변경된 지표를 적용하기 위해 지표재설계 의견을 청취 수렴하고, 평가워크숍을 거쳐 담당자 및 관계자와 공감대를 형성했음. 나아가 자체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사항을 바탕으로 담당자 심층인터뷰에서 사실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쳐 완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시행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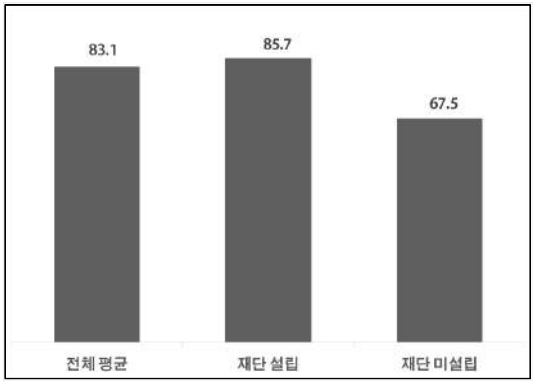
□ 이러한 취지와 절차에 바탕을 두고 평가한 것을 종합하여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등급은 경남, 인천임. '나' 등급은 강원, 경기, 대전, 부산, 충북, 제주 임. '다' 등급은 광주, 대구, 전남임. '라' 등급은 전북, 충남임. '마' 등급은 울산임. 그밖에 서울, 경북, 세종은 특성화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음.

□ 평가결과 지역특성화사업은 사업을 시행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국 평균은 82.25 점임. 최고점수기관은 92.5점이며 최하점수는 65.0으로서 편차가 크게 나오고 있음. 최고점수지역과 평균점수지역이 10.25점 정도 차이가 있고, 최저점수지역과는 17.25 차이가 있음.

□ 사업수행 능력이 향상되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지만, 평균적인 수준의 나 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았음을 알 수 있음. 재단이 전반적으로 행정 절차를 잘 준수하였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역특성화사업의 취지를 잘 파악하고 이에 맞춰 사업을 집행한 결과라고 봄.

□ 지표 및 항목별 설명

- 평가결과를 지표별로 살펴보면, 지역특성화 사업의 취지와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는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봄. 사업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함. 대개 행정절차는 그동안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잘 하고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 지역특성화 사업의 사업기획과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을 얼마나 반영했는가를 평가했음. 이에 대한 평가결과는 87.1점으로 이 지표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춰 노력한 지역들이 있는가 하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업기획과 집행을 한 지역이 있음.
-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추진 기초역량은 82.1점이며, 사업운영의 적절성은 76.4점으로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진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업성과에 있어서는 82.4점을 기록했음. 이 지표는 사업추진 성과를 양적, 질적, 수상 실적 등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 동안 지역들이 노력한 성과가 잘 나타나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성과에 대한 계량자료와 비계량자료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하는 과제도 발견되고 있음.
- 평가환류는 84.3점을 받음. 이 지표는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과정과 그 내용에 관한 평가인데, 지역의 문화재단들이 이 점의 중요성을 사업과정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설계하여 내부적으로 추진하거나,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책임문화행정의 추진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림 19] 지역특성화 부문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100점 기준)

사업 구분	평가 점수
전체 평균	83.1점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5.7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7.5점

[표 26] 지역특성화 부문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 이 분석은 재단이 설립되어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경우와 재단 없이 자치단체의 행정력으로 추진하는 경우를 비교한 것임. 사업운영을 담당하는 재단이 설립되어 재단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은 평균 점수가 85.7점인 것으로 나왔으나, 재단 미설립지역의 경우는 점수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67.5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반적으로 재단의 계획적인 추진으로 사업 활성화와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역특성화 사업 평가결과 두드러진 점은 지역의 독창적인 사업기획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점임. 무엇보다 전반적인 행정력이 평균적인 수준으로 늘어나 사업집행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성과로 보임.

□ 지역 간 점수 차이는 등급차이는 여전히 드러나고 있으며, 개별지표 간 점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하고 있으며, 집행력의 평균적 향상, 평가를 위한 행정조치 등을 전에 비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 점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평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된 것으로 보임. 이러한 학습이 누적되어 다른 사업의 추진에도 활용되는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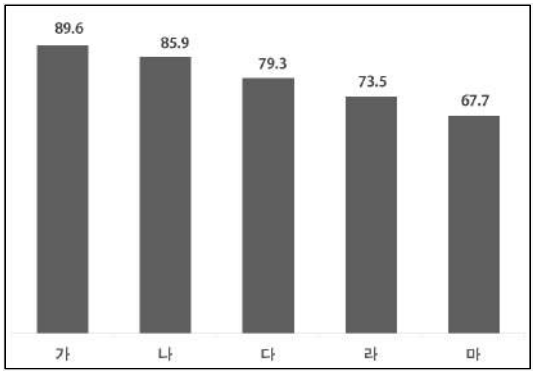
□ 지역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고, 지역이 네크워크를 통해 지역문화사업을 독창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문화정책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보이므로 이 역량을 키우는데 더 많은 역량을 집결해야 할 것으로 평가함.

제2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하 “공연장상주사업”)은 전국의 문예회관 등 공연장과 공연예술 상주단체 간 인적·물적 협력관계 조성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 활성화 및 공연장 가동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연예술단체에게 상주단체로서 안정적 창작활동 여건 마련을 위한 공간(공연무대, 사무실, 연습실 등)을 제공하고, 공연장에는 우수한 레퍼토리의 공연 ·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우수 프로그램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추진하고 있음. 등급에 따른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음.

□ 제출된 17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자체평가보고서와 붙임자료, 2014년에 진행되었던 심화 인터뷰의 결과를 반영하여 서면심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평가 결과가 도출되었음.



[그림 2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등급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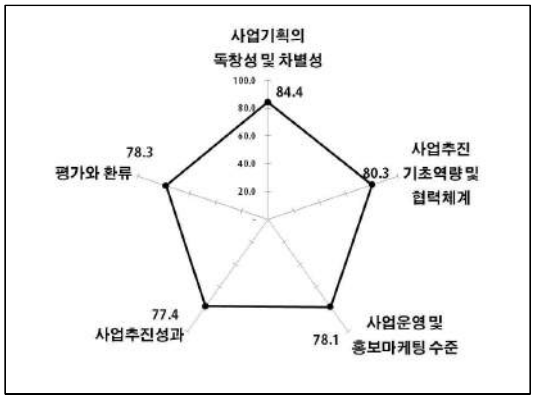
(등급 내 가나다순, 100점 기준)

등급	지역	평균
가	강원, 경기, 대구, 부산	89.6점
나	서울, 전남	85.9점
다	광주, 대전, 충북	79.3점
라	경남, 인천, 전북, 제주	73.5점
마	경북, 울산, 충남	67.7점
미추진	세종	-

[표 2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등급별 평균

□ 공연장상주사업 평가결과 전체 평균이 79.6점으로 지난해 80.6점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역은 90.0점,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은 65.1점임.

□ 평가 항목 중 ‘상주단체 프로그램의 지역고유성 및 차별성 반영 노력’, ‘공연장상주사업 기획의 독창성 및 우수성’ 항목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사업성과목표 달성 수준’, ‘사업홍보 및 마케팅’ 항목은 낮은 평가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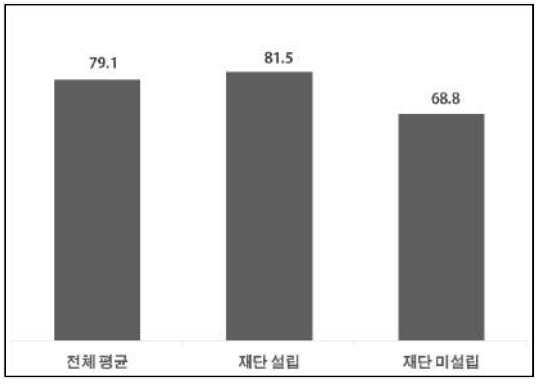


[그림 2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주요 지표별 평균

(100점 기준)

사업 구분	평가 점수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84.4점
사업추진 기초역량 및 협력체계	80.3점
사업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78.1점
사업추진 성과	77.4점
평가와 환류	78.3점
평균	**79.7점**

[표 2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주요 지표별 평균



[그림 2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100점 기준)

사업 구분	평가 점수
전체 평균	79.1점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1.5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8.8점

[표 29]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재단 설립 여부 비교

□ 지역의 공연장 및 공연예술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신규공연장 추가 발굴, 권역별 균형발전을 고려한 사업 추진, 공연 유통을 위한 쇼케이스 프로그램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인 시도들이 예년에 비해 더욱 활발해졌음.

□ 무엇보다 전문인력, 전담인력의 중요성이 확인되는 한해였음.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의 담당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환경이 연속적, 안정적으로 담보되는가에 따라 발전도와 성과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공연장 전문코디네이터 채용 등 그동안 취약했던 공연장의 전문기획인력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려는 자구책이 등장하고 있음.

□ 질적 교류를 유도하기 위한 융·복합적 공동 창작 또는, 다각적인 교류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술시장 유통을 위한 상주단체 페스티벌의 쇼케이스 프로그램 등 교류자체를 중시하는 일반적 교류에서 벗어나 작품의 질적 제고, 판로 개척 등의 목적지향적 교류로 변화하고 있음.

- 공연장과 상주단체가 호흡을 맞추어야 하는 상주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연장을 사업의 주체로 세우거나 공연장이 상주단체를 공모하여 지원하는 등 공연장의 참여 비중을 높이고 공연장의 행정역량과 공신력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 지역고유성 및 차별성 반영을 위한 상주단체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견인하기 위한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의 노력은 다소 미약함.
- 공연장 선정 시 재단의 지원금 외 공연장의 자체투자분을 보유할 경우 우대하여 선정하고, 공연장과 상주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매칭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공연장에서 상주단체의 자부담을 전액 부담하고, 공연장에서 상주단체 지원금을 별도 예산을 배정하는 등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밀착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재원을 확대하는 사례가 있음.
- 가동율이 저조한 공연장을 신규로 발굴·선정하여 활성화시키거나, 영상센터 등을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상주사업에 참여토록 견인하는 등 관내 지역별로 고르게 공연장을 활성화키시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음.
- 상주사업의 초기에는 상주단체가 전국적으로 많이 선정되어 사업이 양적으로 확산하는 시기였다면 다년차 수행단체들이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지금은 지역들이 이들을 질적으로 발전하도록 독려하고 집중 지원하는 사업방향을 수립하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음.
- 공연장에 3개의 상주단체가 상주하는 경우 공연장에 배정되는 지원금(총예산의 20%)을 모아 상주단체사업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지역들이 있음. 상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에서 기획담당자 1명을 채용한 공연장도 있음.
-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으며, 공연장의 인식이 갑·을관계에서 동반자관계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으며 공연장의 사업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음.
- 상주단체가 공연장의 기획까지 도맡아 진행해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담양 등에서는 단체가 주도하여 전문인력이 없는 공연장을 활성화시킴(매마수 프로그램 등). 또한, 극단 갯돌의 경우 상주하고 있는 공연장의 기획인력이 없어 전문성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나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신청하여 공연장에 배치하여 공연장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나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이며, 상주단체간의 자발적인 교류도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상주단체페스티벌의 경우 단체협의회, 상주단체 등의 주도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 공모를 통해 상주단체페스티벌 개최지역을 선정하여 문화소외지역에서 교류축제를 벌이고 기초지자체의 참여(예산 등)를 이끌어 냄.

- 지자체 참여 유도 측면에서 전남의 경우 상주사업 선정 심의와 평가시에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참석시키고 공연장 담당자와 공연단체의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연장 담당공무원의 사업이해 제고, 전문성과 기획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충북은 공연장 관련 공무원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공연장 담당공무원의 공연장상주사업 이해 증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 경남의 공연장상주단체 사랑방축제(타시군 방문공연), 전남의 어울마당(상주성과 발표장) 등 교류 및 성과공유 프로그램의 형태가 다각화하고 있음.
- 경남의 경우 상주단체 작품 유통을 위해 공연장 소재지역의 지역적 특색을 드러내는 작품을 창작하여 해당 시군에서 구매 활용하도록 적극 추진함.
- 강원, 경기의 경우 상주단체 작품의 유통을 위해 쇼케이스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경기는 중매프로젝트 등 다양한 판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주단체페스티벌을 아트마켓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음.(경기공연예술페스타를 통해 3월 현재 7단체 11건의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총 20개 내외의 계약을 기대하고 있음)
- 한문연 지회, 서문연 등 공연장 관련 단체들과 재단의 연계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음.(서울, 경기, 강원 등)
- 통합홍보마케팅 차원에서는 대구의 dgtickets(공연안내센터, 티켓박스)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통합적인 홍보마케팅 사업을 확인하기 어려웠음. 다만, 적극적인 문화재단들의 경우 상주단체의 보도자료를 재단에서 통합적으로 작성, 배포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부산의 경우 통합홍보책자에 프리티켓을 포함하여 상주단체 공연 1회 무료관람 제공하고, 해외진출단체를 위해 외국어 리플릿 제작(국영문)하여 지원하고 있음.
- 지역마다 공연장상주사업의 방향성에 따른 적정한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하나 상당수 지역이 성과목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임.(재단 경영평가를 받기 위한 KPI를 제시하거나, 단체의 사업수행내역을 제시하는 수준)
- 공연장상주사업을 통해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역량이 없었던 척박한 환경의 지역들에 예술단체가 새롭게 창단하는 등 낙수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전남 해남의 극단 미암 창단, 충북 음성 극단 새봄아 창단, 전북 주민극단 실버연극단 창단 등)
-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중간 및 최종 성과발표회, 성과공유 워크샵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 학습, 점검하는 성과평가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실제로 차기사업 심의에 반영하는 평가환류가 확대되고 있음.

제3장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제1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사업별 평가

제1-1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통합 부문

1. 사업계획 적절성
2.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3. 교류협력 수준
4.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5. 사업 성과
6. 평가 환류

제1-2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1. 사업 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 사업추진 기초 역량
3. 사업 운영의 적절성
4. 사업추진 성과
5. 평가와 환류

제1-3절: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1. 사업 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 사업추진 기초 역량
3. 사업 운영의 적절성

제1-4절: 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1. 사업 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 사업추진 기초 역량
3. 사업 운영의 적절성
4. 사업추진 성과
5. 평가와 환류

제1-5절: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1. 사업 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 사업추진 기초 역량
3. 사업 운영의 적절성
4. 사업추진 성과
5. 평가와 환류

제2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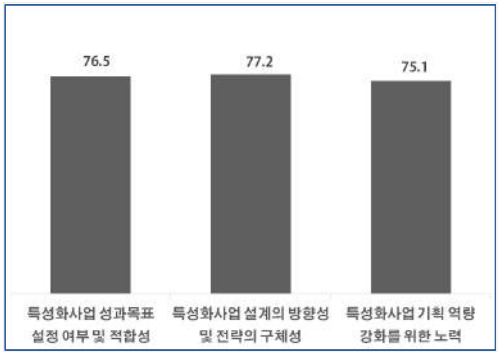
1. 사업 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2.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체계
3. 사업 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4. 사업추진 성과
5. 평가와 환류

제1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제1-1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통합부문

1. 사업계획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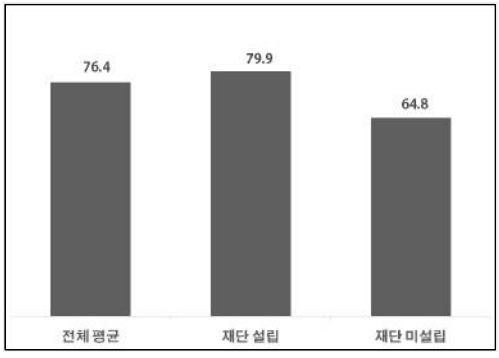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특성화사업 성과목표 설정 여부 및 적합성
  - 특성화사업 설계의 방향성 및 전략의 구체성
  - 특성화사업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그림 23] 특성화 통합 사업계획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성과목표 설정 여부 및 적합성	76.5점
사업 설계의 방향성 및 전략의 구체성	77.2점
사업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75.1점
지표 평균	76.3점

[표 30] 특성화 통합 사업계획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24] 특성화 통합 사업계획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9.9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4.8점
전체 평균	76.4점

[표 31] 특성화 통합 사업계획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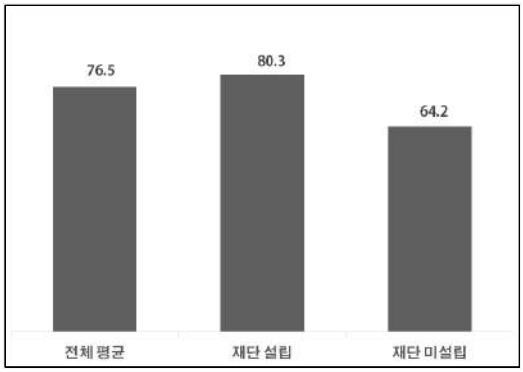
□ 사업계획단계의 역량을 평가하는 사업계획적절성 평가항목은 모두 세 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됨. 세 개의 평가항목 중 성과목표설정 여부 및 적합성 지표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지표의 6개 평가항목 중 가장 낮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재단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을 비교해 보면 재단설립지역은 79.9점, 미설립지역은 64.8점으로 15점 정도의 편차가 나타남.

가. 특성화사업 성과목표 설정 여부 및 적합성

• 평가 요소	• 특성화사업의 목적 제시 수준 •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목표 및 지표설정 여부와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 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연차별 성과목표 수립 여부 • 사업별 성과 목표에 대한 선정 단체 공유 노력
• 평가 참고 자료	• 사업목적과 성과 목표,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설명 자료 • 계획서, 지원신청 안내문, 실적보고서(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해당 부분) • 특성화사업별 설명회 추진 계획 및 결과보고 자료



[그림 25] 특성화 통합 성과목표 설정 여부 및 적합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0.3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4.2점
전체 평균	76.,5점

[표 32] 특성화 통합 성과목표 설정 여부 및 적합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지표 1.1 특성화 사업 성과목표 설정여부 및 적합성

– 이 지표는 특성화 사업의 목적 제시수준,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목표의 수립과 자체 지표 설정, 사업 목적과 지표의 연계성, 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연차별 성과목표의 수립여부, 사업별 성과목표에 대한 선정단체와의 공유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임.

– 평가를 위해서 보고서 상에 기술된 성과목표 기술 수준, 사업의 연차별 또는 발전단계별 성과목표의 제시여부 및 수준, 사업별 성과목표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선정 단체들에게 전달되고 공유되고 있는가 여부 등을 평가하였음.

– 평가결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문위원회나 포럼 개최를 통해 특성화 사업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연구를 진행한 지역이 다수 확인되었음.

□ 우수사례 : 서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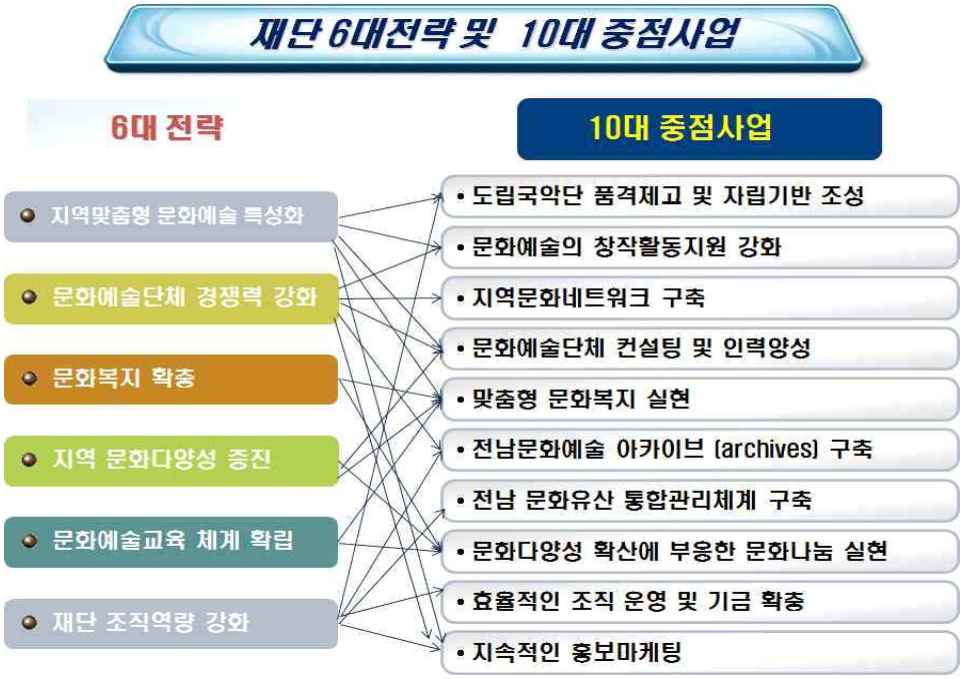
– 서울지역은 특성화사업 목적에 따른 2014년 재단 예술지원팀 상시성과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문화재단의 특성화지원사업 추진의 목적은 ‘전문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에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팀 전략 목표로 ‘전문예술 창작지언 확대 및 우수 예술콘텐츠 육성’ 을 명시하였음.

추진방향	핵심 전략과제	성과지표	목표(A) 추진실적(B)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단위	목표 달성률 (B/A)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예술지원체계 정립	예술지원체계 개선 활동 노력	활동실적	20	1	10	6	3	건	120.0%
			24	2	2	17	3		
예술지원사업 관리시스템 고도화	체계적인 지원관리 시스템 구축/개선	시스템구축/개선실적	13	–	3	4	6	건	100.0%
			13	3	3	3	4		
	지원금전용체크카드 발급 확대	교부신청 대비 체크카드 발급률	52	20	30	40	52	%	126.9%
			66	–	34	52	66		
	지원사업 대상 현장평가 확대	현장평가 실적	190	–	–	90	100	건	118.9%
			226	–	–	89	137		
예술지원사업 만족도 제고	만족도 제고 및 정보제공 서비스	서비스 실적	48	15	10	8	15	건	102.1%
			49	8	16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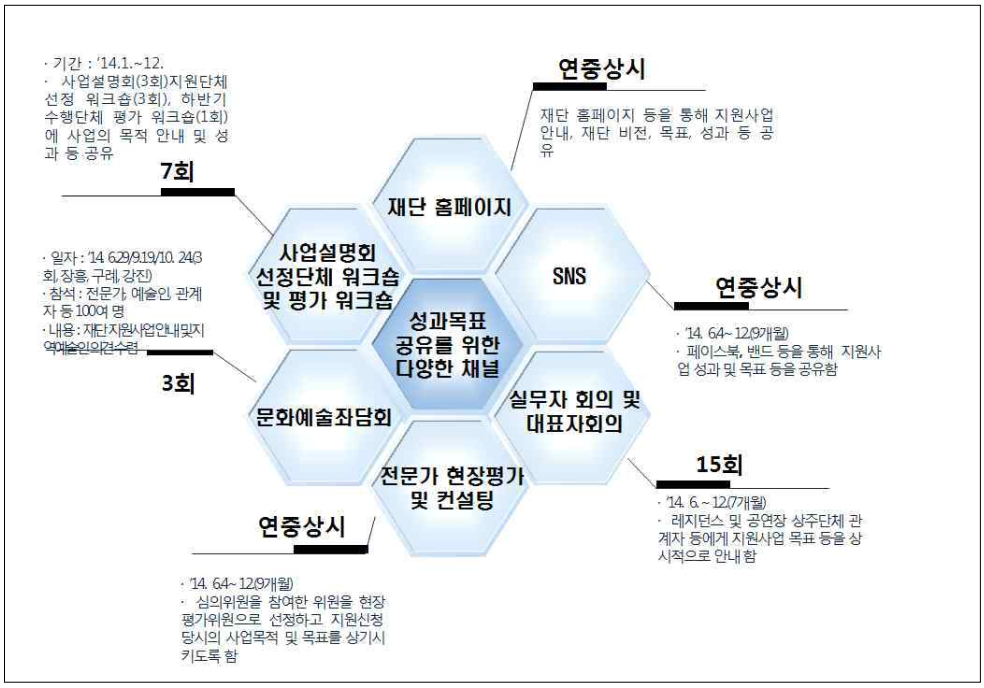
[표 33] 특성화사업 성과목표 설정 여부 및 적합성 우수사례 - 서울 지역

□ 우수사례 : 전남지역

– 전남지역은 2012.10~2013.3까지 수립한 '전남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에 따라 재단 6대 전략 및 10대 중점사업을 마련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이 수립되었음.



– 전남지역은 지원사업 성과목표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음.



[그림 27] 전남지역 지원사업 성과목표 공유를 위한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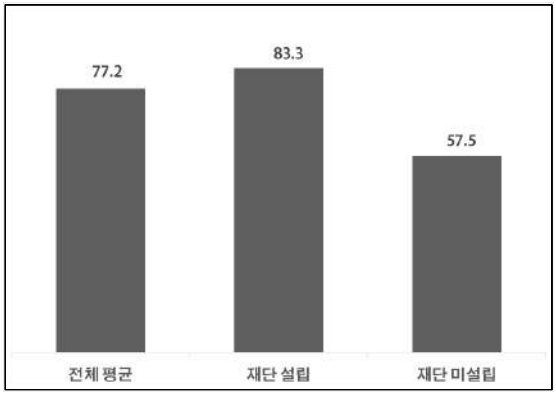
□ 우수사례 : 강원지역

– 강원지역은 2014년에 강원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개년 성과목표를 수립하였으며,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재단의 전략과제를 기반으로 2014년도 문예사업팀의 팀 목표와 미션을 설정하였음.

문예사업팀 목표	강원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체계구축
문예사업팀 미션	전문예술분야 선택적 집중 지원
	지역형 생활예술 저변 확대
	지원사업 수혜격차 해소
	강원도형 콘텐츠 지원확대
	지역문화예술계 소통 확대

나. 특성화사업 설계의 방향성 및 전략의 구체성

• 평가 요소	• 특성화 사업 설계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 특성화사업 추진 전략의 구체성 수준 • 지역의 특성과 비전의 반영 수준과 특성화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특성화사업 설계를 위한 기회회의, 포럼, 세미나, 워크숍 추진 실적 •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지역 예술인, 예술단체 등 수혜단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



[그림 29] 특성화 통합 설계의 방향성 및 전략의 구체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3.3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57.5점
전체 평균	77.2점

[표 34] 특성화 통합 설계의 방향성 및 전략의 구체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지표 1.2. 특성화사업 설계의 방향성 및 전략의 구체성

- 이 지표는 특성화 사업 설계와 사업목적의 부합여부, 특성화 사업 추진전략의 구체성 수준, 지역의 특성과 비전이 특성화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고 특성화되고 있는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지표임.
- 평가를 위해서 보고서상에 기술된 사업설계의 내용과 특성화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특성화 사업계획이 개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지역특성과 문화자원을 잘 반영하고 있는 특성화 사업들이 설계되었는가를 평가하였음.
- 평가결과 기존의 사업유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었으나 광역시단위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인 특성화 지원사업의 체계를 재구축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다양하게 실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난해에 비해 과감한 지원사업 설계를 시도하는 지역이 늘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됨.

□ 우수사례 : 서울지역

- 서울지역은 예술창작지원사업 개선과 계획수립을 위해 예술지원 체계개선 연구 및 내 · 외부 회의를 추진하였음. 이러한 다각적인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예술가', 예술단체' 의 육성에 초점을 맞춘 생애주기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하였음.

성장단계	성장단계별 필요한 지원 (예술사랑방 릴레이토크 결과)
진입예술가	– 개인적 네트워크로는 학교 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으므로 공적인 교류 환경 조성 – 아카데미 로얄티(공연 사용료)의 부담이 심함
신진예술가	– 단계적 성장시스템이 미비함 – 신진 예술지원 결과를 단기적 활동결과로 평가하면 위험함 – 프로젝트지원 보다는 단체를 운영할 수 있게 지원
중견예술가	– 중견예술가의 작품발표기회 확대를 위해 공간과 기획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함
저명예술가	– 저명예술가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저명예술가의 주요작품을 재발간하거나 재평가하는 기회 필요

[표 35] 예술인, 예술단체의 성장단계별 지원 방향 – 서울지역

– 한편 정부와 광역시도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주체에 따른 역할분담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기관	중점방향	주요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복지 문화향유 문화산업	– 국민의 문화향유권보장(예술교육+문화복지) – 지역문화향유기반조성 – 고부가가치산업육성 – 국가브랜드 제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기반개선 문화가치확산 국제교류지원	– 국가적인 차원의 예술지원정책방향 수립 – 창작기반 개선(공연연습실 조성 · 대관료 지원 등) – 인건비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문화예술의 가치확산 및 사회적 인식제고 – 국제교류지원 · 전국규모의 행사지원
서울문화재단	예술가(단체) 육성 창작공간거점 지역특성화	– 창작공간과 연계한 통합예술지원지역예술특성화 –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예술단체 육성 – 개인창작활동 맞춤형 지원을 통한 예술가 육성 – 예술계를 선도하는 우수한 작품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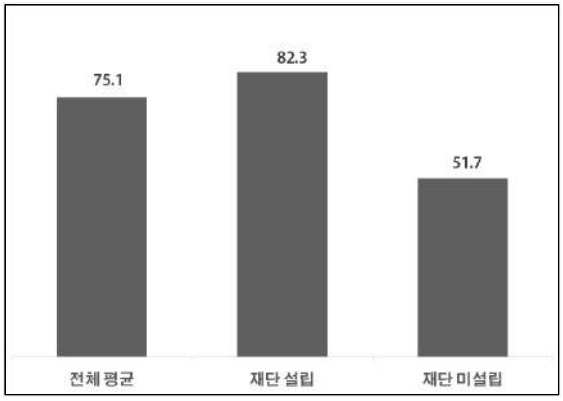
[표 36]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서울문화재단 간 예술지원체계 역할분담

□ 우수사례 : 경기지역

– 경기지역은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재단 순회 워크숍 〈피어라 커뮤니티〉를 개발 · 운영 하였는데, 이는 13개 기초문화재단 실무자와 지역문화기획자, 예술인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요청에 따른 것임. 11개 기초문화재단 지역과 경기 남북부 지역 등 총 13회의 워크숍을 운영하였음. 1일차에는 커뮤니티아트 국내외 사례발표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2일차에는 기획안 작성 실습 및 전문 멘토링단의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총 390명의 지역예술인 및 기초문화재단 실무자와 지역기획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됨.

다. 특성화사업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 평가 요소	• 사업담당자들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여부 • 기획 역량 강화 노력을 통해 얻어진 실제적인 성과
• 평가 참고 자료	• 지원사업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추진 실적 • 기타 지역만의 특별한 직원 역량강화 실천 사례



[그림 30] 특성화 통합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2.3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51.7점
전체 평균	75.1점

[표 37] 특성화사업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지표 1.3. 특성화사업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 이 지표는 지역 및 재단의 지원사업 담당자들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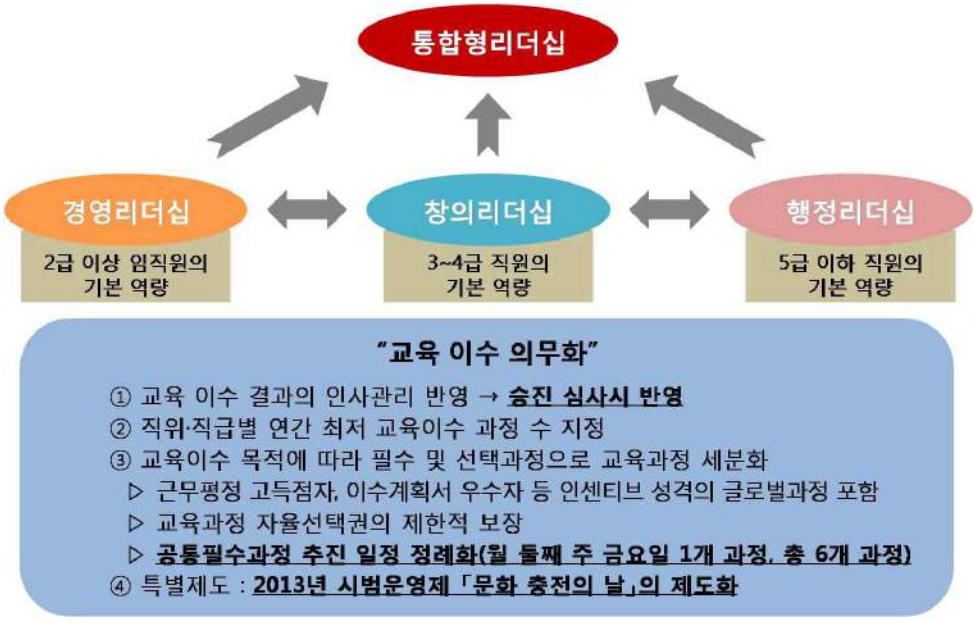
– 평가를 위해서 보고서나 심화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특성화 사업 담당자들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의 추진여부와 실질적인 성과창출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워크숍을 설계하고 있는가와 역량강화 노력의 성과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였음.

– 평가결과 대부분 지역의 지원사업 수혜단체 예술인들과 관계자 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에 지원사업 담당자가 참여한 것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극히 일부 지역만 지자체 및 재단관계자들을 위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거나, 자발적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우수사례 : 부산지역

– 부산지역은 2014년부터 재단 사업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수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도전하는 인재’, ‘신뢰받는 인재’, ‘함께 발전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인재상을 설정하고 교육을 추진해오고 있음.

– 공통필수과정으로 매월 둘째주 금요일 교육과정을 정례적으로 개설하여 교육이수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으며, 2013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화 한 '문화충전의 날' 을 운영하여 지역의 문화예술분야 현장 및 기관탐방, 공연 · 전시 · 영화 관람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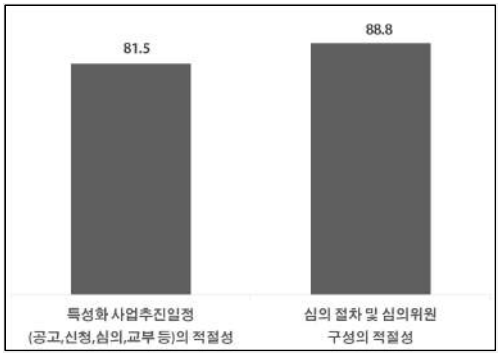
[그림 31] 부산문화재단 사업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체계

□ 우수사례 : 대전지역

– 대전지역은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을 선발, 배치하여 예술지원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교육, 「내가 재단이다」 운동을 전개하여 직원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유도하고 있음. 예술지원사업팀 직원들의 연간 교육이수시산은 평균 80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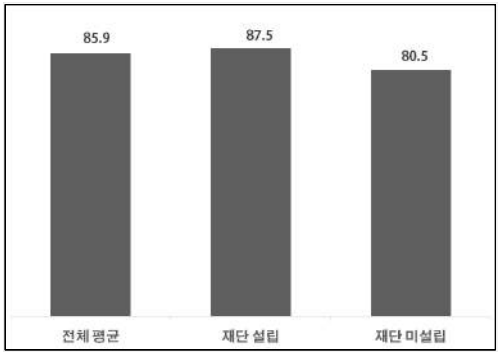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특성화 사업 추진 일정(공고, 신청, 심의, 교부 등)의 적절성
  - 심의 절차 및 심의위원 구성의 적절성



[그림 32] 특성화 통합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특성화사업추진일정의 적절성	81.5점
심의절차 및 심의위원 구성의 적절성	88.8점
지표 평균	85.5점

[표 38] 특성화 통합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33] 특성화 통합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7.5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80.5점
전체 평균	85.9점

[표 39] 특성화 통합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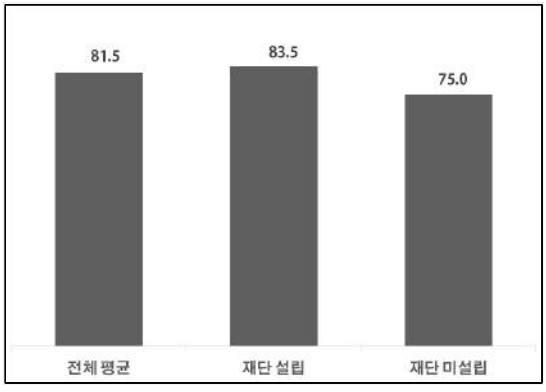
□ 특성화 사업의 추진일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와 심의체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항목의 평가지표는 2개로 구성됨. 두 지표 중 심의절차 및 심의위원 구성 적절성 여부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음.

□ 대부분 지역이 심의과정을 적절히 관리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단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의 평균점을 비교해 보면 재단설립지역은 87.5점, 재단 미설립지역은 80.5점으로 7점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표들의 편차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차로 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도 적절한 심의 관리 역량을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가. 특성화사업 추진일정(공고, 신청, 심의, 교부 등)의 적절성

• 평가 요소	• 사업공고 및 선정 일정의 적절성 •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일정 준수 여부
• 평가 참고 자료	• 지원사업 공고, 신청, 심의, 선정 절차를 정리한 지원사업 추진 일정 경과 보고 자료 • 지원금 신청에 따른 교부 실적 보고 자료



[그림 34] 특성화 통합 추진일정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3.5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5.0점
전체 평균	81.5점

[표 40] 특성화 통합 추진일정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지표 2.1. 특성화 사업추진일정(공고, 신청, 심의, 교부 등)의 적절성

- 이 지표는 사업공고 및 선정 등 지원사업 추진일정의 적절성과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일정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 평가를 위해서 보고서상의 지원사업별 추진일정계획과 결과를 비교하여 추진일정 준수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지원사업의 공고, 선정, 교부 등이 연초에 조기에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였음.
- 평가결과 대부분의 지역이 사업추진 일정의 관리의 어려움이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년도 연말에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말에 이미 기본 지원사업의 공고를 완료하여 1월중으로 지원신청과 심의까지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지역도 확인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특정사업을 4월에 가서야 사업공고를 내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도 확인되었음. 전반적으로 양호한 관리역량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 높은 평가를 받음.

□ 우수사례 : 대구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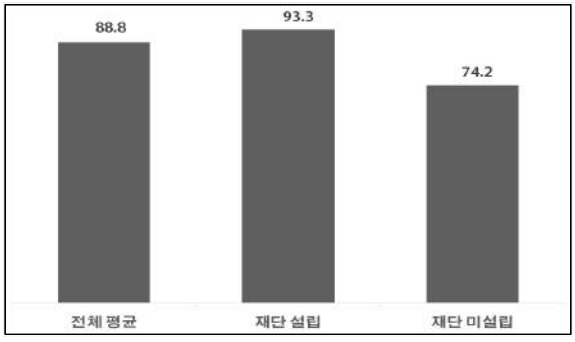
- 대구지역은 문예진흥공모사업을 2010년부터 11월에 익년도 사업을 공모 공고하는 동시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접수, 1월과 2월에 심의 및 결과발표까지 공모사업 추진 일정이 고정화 되어 있어 조기 선정 및 지원금 교부로 봄 시즌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형성하고 있음.

구분	추진절차	세부내용
1단계	공모계획 확정	▶2014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 계획 확정
2단계	공모사업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2014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 공고 : 2013. 11. 28(목) ▶사업설명회로 사업에 대한 이해 도모 : 2013. 11. 28(목)
3단계	예술지원 컨설팅 개최(2회)	▶공모사업에 대한 예술단체 예술지원 컨설팅(장소:재단) ▶1차 : '13. 12. 4(일반공모) / 2차 : '13. 12. 5(기획공모)
4단계	지원신청서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서 접수 (http://www.ncas.or.kr) ▶1차 일반공모 접수 : 2012. 12. 16(월) ~ 26(목) / 11일간 ▶2차 기획공모 접수 : 2013. 12. 30(월) ~ 2014. 1. 9(목) / 11일간 ▶3차 특별공모 접수 : 2014. 2. 3(월) ~ 10(월) / 8일간

[그림 35] 대구지역 문예진흥공모사업 추진 절차 및 내용

나. 심의 절차 및 심의위원 구성의 적절성

• 평가 요소	• 심의위원 위촉 방식 및 심의위원 선정 적절성 •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
• 평가 참고 자료	• 심의위원 선정 기준 및 실제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자료 • 사업별 심의(선정)기준 및 심의 절차가 정리된 자료



[그림 36] 특성화 통합 심의 절차 및 심의위원 구성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93.3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4.2점
전체 평균	88.8점

[표 41] 특성화 통합 심의 절차 및 심의위원 구성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지표 2.2. 심의절차 및 심의위원 구성의 적절성

- 이 지표는 공통평가항목의 과정관리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의 하나로 심의위원 위촉방식 및 심의위원 선정 내용의 적절성,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 평가를 위해서 보고서와 심화인터뷰를 통해 심의위원 풀의 운영과 선정기준, 외부 심의위원의 비율, 전문가 참여여부,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결과의 공개여부, 심의기준과 지원사업 목표와의 일치여부 등을 평가하였음.
- 평가결과 광역도 한두곳을 제외하고는 권장 기준에 따른 심의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심의결과도 대부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일부 광역시 지역에서 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참관인제 도입, 다단계 절대평가에 따른 심의절차 마련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제도 도입을 통해 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잡음을 없애고 있는 지역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우수사례 : 대구지역

- 대구지역은 심의 '공정성' 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음. 1,000여명의 심의위원 풀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심사위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심의과정을 모니터하는 '심사참관인제' 를 도입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음. 심사참관인제는 외부 문화예술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심사의 전문성과 균형성' , '심사과정의 운영' , '심사장에 대한 물리적 환경' 등 세가지 모니터링 지표를 정하고 매 심사과정을 평가하고 있음.

□ 우수사례 : 대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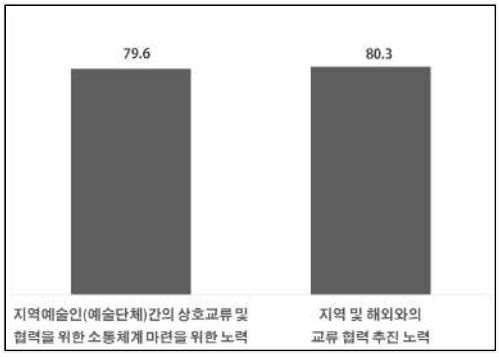
- 대전지역은 '다단계 절대평가 심의' 라는 대전문화재단만의 차별화된 심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의체계의 차별화를 통해 심의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예술창작지원 탈락단체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여 서류 중심의 사 전심의가 갖는 한계로 인해 탈락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지원탈락단체(개인)의 참여 신청에 따른 현장평가 진행으로 차년도 심의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4년도 심의탈락단체 중 4개 장르 12개 단체가 참여하였음.

□ 우수사례 : 강원지역

- 강원지역은 심의공정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규모의 심의위원 풀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개방형 심의위원제도' 를 도입하여 '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도내에 있는 자', '공모분야의 국내 및 국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분야 10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 등 3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분야별 1명씩 총 8명의 개방형 심의위원을 모집을 공고하여 5명이 응모하고 2명이 취종 선정되어 심의에 참여하였음. 제도 시행 첫해라 성과는 미미하지만, 개방적인 심의과정을 통해 심의과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3. 교류 협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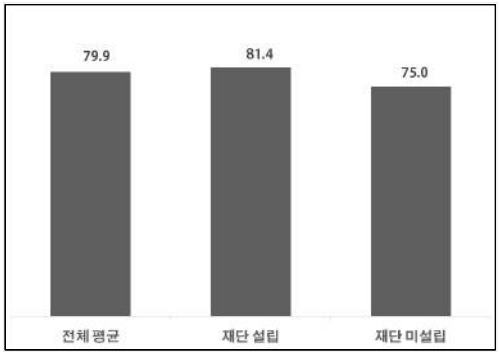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지역예술인(단체)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 지역 및 해외와의 교류 협력 추진 노력



[그림 37] 특성화 통합 교류 협력 수준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지역예술인(단체)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79.6점
지역 및 해외와의 교류 협력 추진 노력	80.3점
지표 평균	79.9점

[표 42] 특성화 통합 교류 협력 수준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38] 특성화 통합 교류 협력 수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1.4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5.0점
전체 평균	79.9점

[표 43] 특성화 통합 교류 협력 수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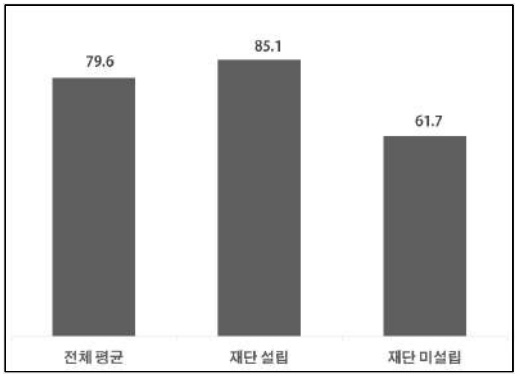
□ 지역내 예술인들간의 교류 및 협력, 지역간의 교류를 위한 노력, 지역과 해외와의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활동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교류협력수준 항목은 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됨. 두 지표간의 평점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지역예술인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들이 지역 여건에 맞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지역과 지역간의 교류도 집중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해외와의 교류를 위한 노력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가 있으며 국내의 교류활동에 비해 아직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재단 설립지역과 미설립 지역의 평점 평균의 차이는 6.4점으로 비교적 적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가. 지역예술인(단체)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 평가 요소	• 지역 예술인들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사·도(문화재단)와 지역예술인(단체)들과의 소통을 위한 채널 운영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지역예술인(단체)들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실적 • 지역예술인(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실적



[그림 39] 특성화 통합 지역예술인(단체)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5.1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1.7점
전체 평균	79.6점

[표 44] 특성화 통합 지역예술인(단체)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지표 3.1. 지역예술인(예술단체)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소통체계 마련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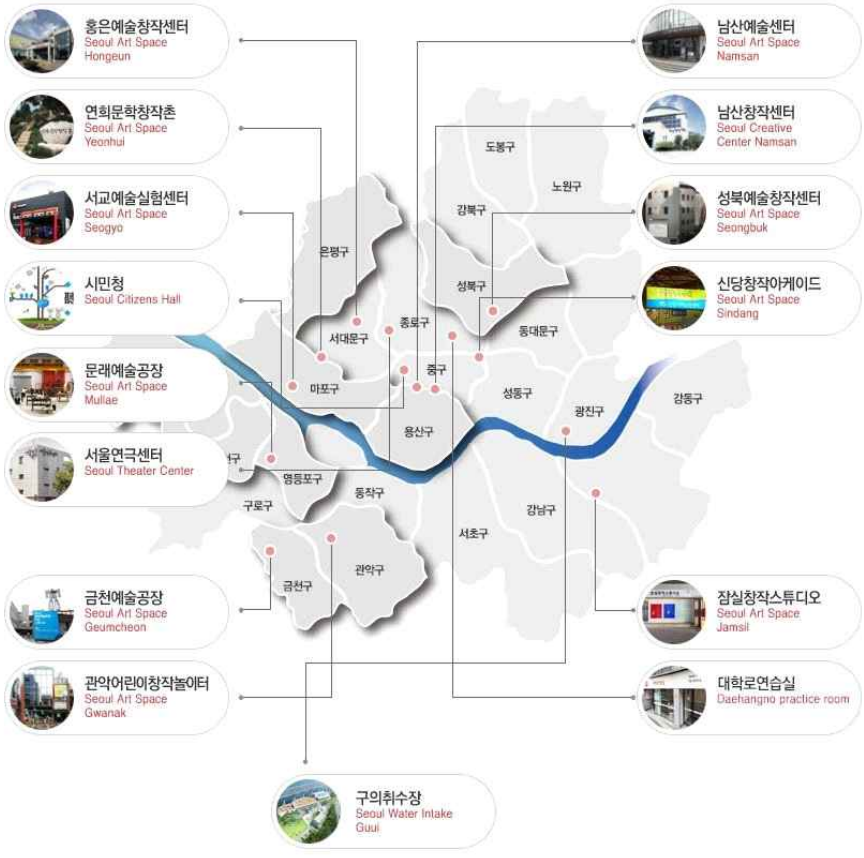
- 이 지표는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예술인들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지원주체인 시 · 도(문화재단)와 지역예술인(단체)와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 평가를 위해서 보고서와 심화인터뷰를 통해 지역예술인들 상호간의 소통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부와 성과, 시 · 도(문화재단)에서 지역예술인(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여부를 평가하였음.
- 평가 결과, 고액이 지원되는 집중지원사업의 수혜단체들을 위한 지속적인 간담회, 설명회 등의 지원정보의 전달과 소통을 위한 자리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사업과 무관하게 지역 예술인들의 상시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채널을 만드는 것은 아직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됨. 정례적으로 예술인들을 포함한 지역문화계와의 소통 시스템을 갖고 있는 지역도 있으나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소통채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우수사례 : 서울지역

- 서울지역은 지역예술인(예술단체)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서울시내 15개 공간 운영을 통해 지역예술인(단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음. 창작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 예술가 중심형, 복합형, 시민중심형 거버넌스 등 공간별 맞춤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예술인 창작지원 및 교류협력지원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어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예술가 중심형 거버넌스	복합형 거버넌스	시민 중심형 거버넌스
– 문화예술생태계 발달지역 혹은 예술전문 특화가 필요한 공간 – 지역예술인의 자발적 지원 및 자율합의제로 구성 – 기획, 운영에 참여 및 지역·분야 커뮤니티 구심점	– 지역민과 예술가 공존의 지역예술 생태계 형성지역 혹은 예술기반 부족 지역 – 예술가–주민–공공의 경계 없는 예술 공동체 형성 – 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 협의 기구	– 문화예술기반 부족 지역 – 시민중심+전문가자문 형태 – 실질적 자문역할은 물론 운영 및 홍보 등에 직접 참여
서교/신당/서울연극센터	문래/금천/잠실/홍은/성북/연희	관악/시민청

[표 45] 지역예술인(단체)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우수사례 – 서울 지역



□ 우수사례 : 강원지역

– 강원지역은 재단과 지역예술인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도내 18개 시군을 하나도 빠짐없이 방문하여 '문화사랑방' 이라는 명칭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를 통해 시군의 문화예술단체와 직접 소통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지원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평가됨.

기 간	2014. 4월 ~ 11월(8개월간)
장 소	강원도 18개 사 군 청사 및 문화예술 공간
대 상	강원도 18개 시 · 군 문화예술관계자
내 용	– 강원문화재단 사업 소개 및 우수사례와 정보 공유,민관의 협력 사항 토의 – 사업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 토의, 최근 문화예술관련 동향 및 화제
운영방식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교환 및 질의응답



〈강릉〉 문화사랑방



〈정선〉 문화사랑방

기 간	2014. 10. 13 ~ 10. 22
장 소	강원문화재단 2층 회의실
대 상	각 분야별 도내 예술인, 심의위원, 재단 관계자
내 용	분야별 전문예술인의 인정범위 등 6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
운영방식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교환 및 질의응답

[표 46] 지역예술인(단체)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우수사례 - 강원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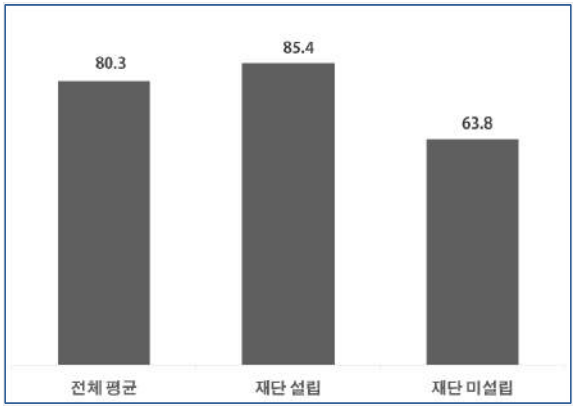
– 문화사랑방 외에도 강원지역은 지역 문화예술단체(예술인)와 6회의 간담회를 통해 각 분야별 지원방식 및 체계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음.

□ 우수사례 : 경기지역

- 경기지역은 공모지원사업 신청 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 예술프로젝트 신청자격, 심의기준을 통해 2단체 이상의 예술단체 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우리 동네 예술프로젝트로 선정된 203건의 프로젝트 중 46%가 협력프로젝트로 실행되었음. 또한, 우리 동네 예술프로젝트 선정 단체들간의 상호 교류모니터링을 14회에 걸쳐 개최하여 실질적인 지역간, 단체간 교류를 실천하고 있으며 사업예산도 재단 배정액(504,000천원)에 시·군 매칭액(607,210천원)을 포함하여 재단 배정액 대비 220%의 사업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지역 및 해외와의 교류 협력 추진 노력

• 평가 요소	• 사도 및 지역문화재단이 중심이 되는 지역간 교류 및 해외와의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활동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지자체, 재단이 기획하여 타 지역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한 사례 정리 및 성과 증빙 자료 • 지자체, 재단이 해외 예술인(단체)와 지역 예술인(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한 사례 정리 및 성과 증빙 자료



[그림 41] 특성화 통합 지역 및 해외와의 교류 협력 추진 노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5.4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3.8점
전체 평균	80.3점

[표 47] 지역 및 해외와의 교류 협력 추진 노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지표 3.2 지역 및 해외와의 교류협력 추진노력

– 이 지표는 시.도(문화재단)이 중심이 된 지역간 교류 및 해외와의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활동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 평가를 위해서 지자체 및 재단이 기획의 주체가 되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타지역, 해외와의 교류 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가를 평가하였으며, 지역예술가(예술단체)의 국제교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여부도 평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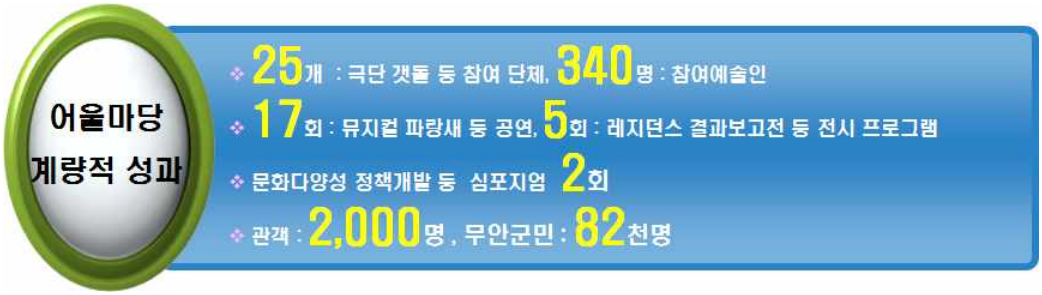
– 평가결과 국내 타 지역과의 교류는 매년 그 성과가 축적되고 교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국제적인 협력과 교류활동은 아직 몇몇 문화재단에서만 그 성과가 발견되고 있음.

□ 우수사례 1 : 강원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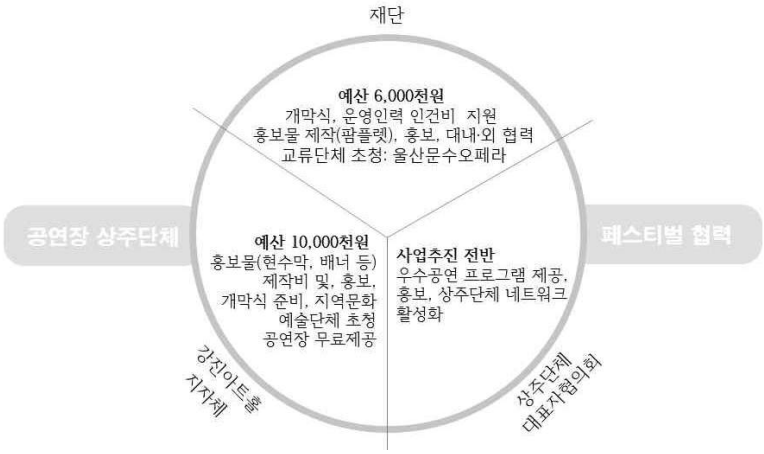
– 강원지역은 2014년 10월 도내 6개의 기초문화재단(춘천시문화재단, 원주문화재단, 강릉문화재단, 인제군문화재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평창문화예술재단)과 「강원지역문화예술지원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강원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함.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이후 광역재단들과 기초재단들과의 역할 분담과 지역내 협력을 위해 광역 및 기초 재단들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협의회 구성은 시기적절한 협력체 구성으로 평가됨.

□ 우수사례 2 : 전남지역

- 전남지역은 재단 설립 5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무안군과 함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레지던시 지원사업 중심의 전남지역의 지원사업 수혜단체들의 통합 결과보고전 형식의 행사를 마련하여 지역문화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드러남.
- 공동협력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에 지속적인 협력 문화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그 성과가 차기년도에도 지속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상주단체 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하여 강진군과 협력하여 상주단체 페스티벌을 차질없이 개최하고 상주단체들간의 교류 기반을 확고히 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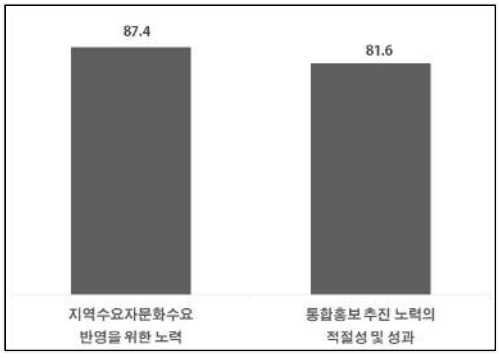
[그림 42] 전남 지역 지역협력행사 '어울마당' 개최 성과



[그림 43] 전남 지역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추진체계도

4.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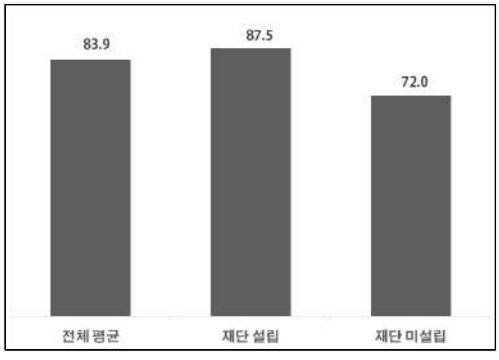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지역수요자 문화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
  - 통합 홍보 추진 노력의 적절성 및 성과



[그림 44] 특성화 통합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지역수요자 문화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	87.4점
통합 홍보 추진 노력의 적절성 및 성과	81.6점
지표 평균	84.5점

[표 48] 특성화 통합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45] 특성화 통합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7.5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2.0점
전체 평균	83.9점

[표 49] 특성화 통합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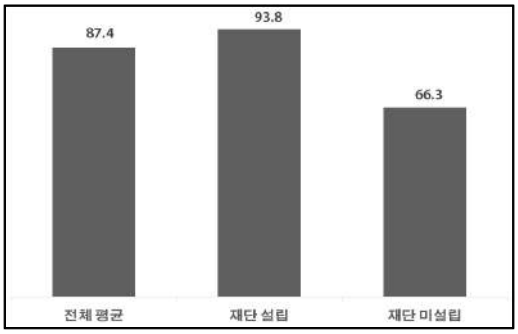
□ 지역 문화수요자의 수요파악과 반영을 위한 노력과 통합홍보 추진을 위한 활동 및 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항목인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수준' 의 평가지표는 2개로 각 87.4점, 81.6점의 평점을 보이고 있으며, 두 지표간의 평점 편차는 지역수요자의 문화수요 반영 노력 지표의 평가결과가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통합홍보 추진노력의 적절성 및 성과 지표는 매년 조금씩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별로 특화된 지역별 홍보매체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로 평가됨.

□ 재단 설립지역과 미설립지역의 평점 차이는 15.5점으로 높은 편차를 보이고 있음.

가. 지역수요자 문화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

• 평가 요소	• 시민 모니터링과 관객만족도 조사 체계와 실시 수준 • 시민들의 문화수요 관련 의견 수렴 채널 운영 여부
• 평가 참고 자료	•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및 운영 결과 자료 (모집, 교육, 활동, 모니터링 결과 공유) • 외부 전문기관에서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결과보고서 • 시민 문화수요과 의견을 반영한 조치 결과 및 시민 문화수요조사를 위한 연구 추진 결과 요약 자료 등 관련 자료



[그림 46] 특성화 통합 지역수요자 문화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93.8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6.3점
전체 평균	87.4점

[표 50] 특성화 통합 지역수요자 문화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지표 4.1. 지역수요자 문화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

- 이 지표는 지역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최종적인 수요자가 되는 시민들의 문화수요와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며,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 평가를 위해서 시민모니터링단 등 시민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자체 평가체계의 운영수준을 파악하였으며, 일반 시민들의 문화수요 관련 의견들을 수렴하는 채널의 운영여부와 적절성을 평가하였음.
- 평가결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등 자체적인 평가체계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역에서 숨겨진 우수 단체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체평가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됨. 몇몇 지역에서는 시민 문화수요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였음.

□ 우수사례 : 서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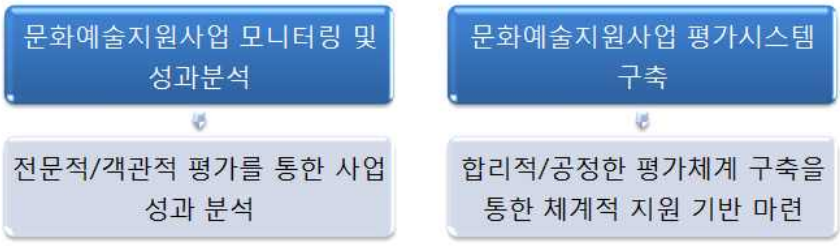
- 서울지역은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문화예술향유 실태 및 재단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 2,9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2014.12.2.~26) 조사내용은 서울의 문화지표, 재단사업 참여 만족도, 재단 매체이용 만족도 등 이었으며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지원사업 및 기획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설문결과는 재단 홈페이지 및 관련 홍보매체에 게재하여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그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림 244] 서울시민 문화예술 향유실태 조사 결과

□ 우수사례 : 강원 지역

– 강원지역은 문화예술지원사업의 객관적 평가와 효율적인 성과분석을 위해 연구용역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18개 시·군에서 진행되는 약 400여개의 지원사업에 대한 권역별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그림 48] 강원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 우수사례 : 충북 지역

– 충북지역은 2013년부터 지역문화예술환경에 대한 이해와 지역 내 폭 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문화예술코디네이터 및 문화리포터를 운영하며 지역문화수요 소통채널로 활용하고 있음. 문화코디네이터들의 주요 역할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매개활동을 하는 것임.

· 도내 활동 중인 아마추어 문화예술동아리 발굴
·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기획 협업
· 생활문화예술플랫폼 사업 진행과정 관리
· 문화예술동아리와 전문예술가의 매개자 역할 및 분야별 의견수렴

(단위:명)

지역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진천	증평	음성	단양
상반기	13	2	2	2	1	3	2	1	1	1	1	1
하반기	14	2	2	–	1	2	2	1	1	1	1	1

상반기	– 일시 : 2014. 4. 21(월) 14:30 ~ 16:30 – 장소 : 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 참석 : 30명 – 내용 : 성남문화재단 사례발표, 사업운영관리 설명, 의견수렴 등 [특강]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례 발표(유상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하반기	– 일시 : 2014. 8. 29(금) ~ 30(토), 1박 2일 – 장소 : 청주청소년수련원 – 참석 : 25명 – 내용 : 강의(3회), 토론(2회), 실무교육 및 소감발표(2회) – 의견수렴 : 문화기획자로의 역할 강화, 문화예술플랫폼 사업 제도 개선안, 동우회 페스티벌 역할 논의

[표 51] 2014년 문화코디네이터 구성 현황 및 활동 사항 – 충북지역

– 충북지역은 지역문화수요자들의 관점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취재를 통해 시민기자의 역할을 하며 온라인 홍보활동과 웹진 보도자료를 제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리포터' 제도를 운영하여 큰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문화리포터는 총 53명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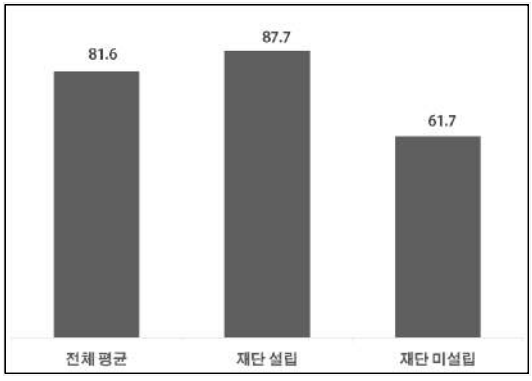
(단위:명)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10	4	5	3	3	5	4	3	4	4	4	4

[표 52] 충북 관내 지역별 문화리포터 구성 현황

나. 통합 홍보 추진 노력의 적절성 및 성과

• 평가 요소	•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홍보채널 확보 및 운영의 적절성
• 평가 참고 자료	•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매체 운영 실적 자료 및 우수 홍보 사례 • 지자체 및 지역문화재단 명의의 주요지원사업 및 기획사업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자료



[그림 49] 특성화 통합 홍보 추진 노력의 적절성 및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7.7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1.7점
전체 평균	81.6점

[표 53] 특성화 통합 홍보 추진 노력의 적절성 및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지표 4.2. 통합홍보 추진 노력의 적절성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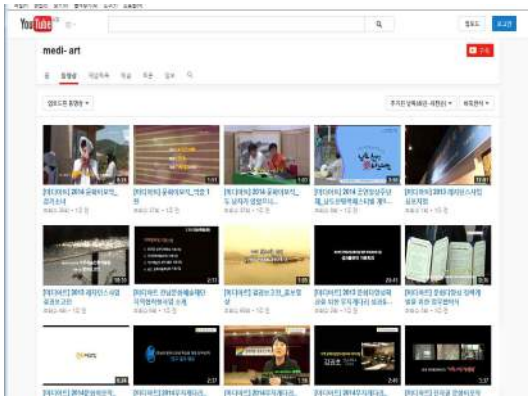
- 이 지표는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홍보채널의 확보여부와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 평가를 위해서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눈,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의 확보수준과 운영수준을 평가하였으며 지원사업 홍보지원을 위한 체계 및 시 · 도(문화재단) 자체의 지원사업 홍보 전담인력의 구비 여부를 평가하였음.
- 평가결과 일부 지역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App 개발로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도 확인되었으며, 지원사업 홍보를 맡는 전담 홍보인력을 갖추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광역도 지역은 대상 지역이 광범위하여 광역시 지역에 비해 지원사업의 통합홍보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 우수사례 : 인천지역

- 인천지역은 인천문화예술의 시작을 알리는 앱 '인천 IQ' 를 통해 인천문화예술 통합 DB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인천 IQ 앱' 은 2014년 11월 기준 3만8800여명이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온라인에 정보 입력 시 바로 아이큐 앱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 온라인과 모바일 시스템 연계 실현으로 시 · 군 · 구 홈페이지와 각 문화예술기관별 홈페이지가 바로 연동되도록 구현됨.

□ 우수사례 : 전남지역

- 전남지역은 재단 영상기록화팀을 운영하며 재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 사업에 대한 영상기록 및 SNS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영상만도 60편을 제작하였으며, 완성된 영상물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통합홍보를 추진하고, 방송에도 지속적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국과 협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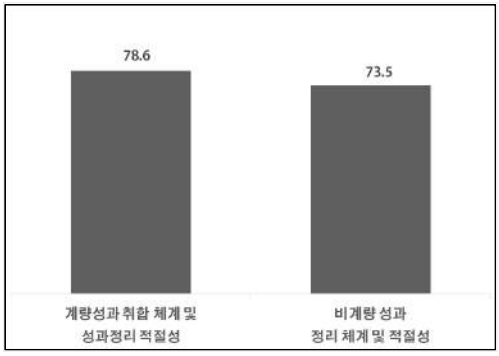




[그림 50] 전남문화재단 유튜브 게시 동영상

5. 사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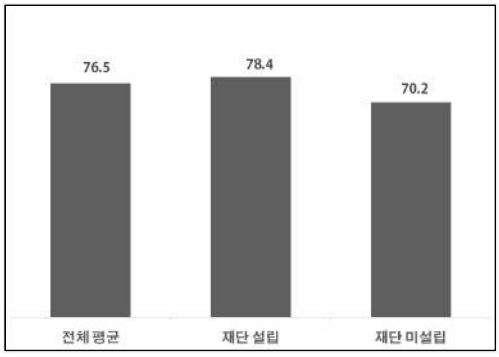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계량성과 취합 체계 및 성과 정리 적절성
  - 비계량 성과 정리 체계 및 적절성



[그림 51] 특성화 통합 사업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계량성과 취합 체계 및 성과 정리 적절성	78.6점
비계량 성과 정리 체계 및 적절성	73.5점
지표 평균	75.0점

[표 54] 특성화 통합 사업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52] 특성화 통합 사업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8.4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0.2점
전체 평균	76.5점

[표 55] 특성화 통합 사업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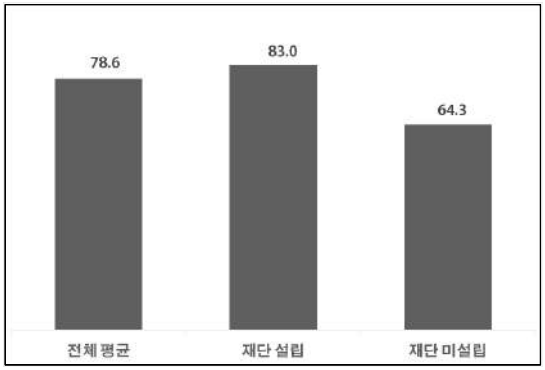
□ 사업성과 항목은 2013년부터 기존의 과정관리 중심의 평가가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비중이 높아진 평가항목임. 사업성과 항목은 계량성과와 비계량성과 지표로 되어 있으며, 통합지표 부문에서의 사업성과 항목은 단순히 계량적 수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량성과 취합체계 및 성과정리의 적절성' 을 평가하고 있음.

□ 2개 지표 중 계량성과 부문이 약간 높은 평점을 받았으나, 아직 계량성과 정리 체계가 미흡한 지역이 많이 지역별로 평점의 편차가 크지 않은 편임.

□ 재단 설립지역과 미설립 지역의 평균은 8점 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 계량성과 취합 체계 및 성과 정리 적절성

• 평가 요소	• 지원사업의 성과취합을 위한 체계 마련 여부 • 계량적 성과 제시를 위한 자료 취합 및 정리 수준 • 계량적 성과의 연차별 변화추이 분석 여부
• 평가 참고 자료	• 특성화지원사업의 계량성과 제시자료 및 증빙 자료 • 계량적 성과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과 향후 계량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계획



[그림 53] 특성화 통합 계량성과 취합 체계 및 성과 정리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3.0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4.3점
전체 평균	78.6점

[표 56] 특성화 통합 계량성과 취합 체계 및 성과 정리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지표 5.1. 계량성과 취합 체계 및 성과정리 적절성

- 이 지표는 지원사업의 성과 취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와 계량적 성과제시를 위한 자료 정리의 수준과 연차별 변화추이 분석을 통해 계량성과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계량성과 관리 체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 평가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제출한 계량성과 정리 자료와 계량성과에 대한 연차별 비교분석과 분석 결과에 따른 대응책 마련 여부, 계량성과 취합을 위한 체계 구비 수준, 그리고 계량성과 결과의 수준 등을 평가하였음. 2014년 평가에서는 계량성과의 결과비교 보다는 계량성과 취합 및 정리체계 및 변화추이 분석 수준 등을 위주로 평가하였음.
- 평가결과 지역별로 사업의 수와 사업의 특성,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물리적 범위, 수요층의 편차 등으로 산술적 계량성과 비교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계량성과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합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모델이 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그 성과와 파급효과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우수사례 : 서울지역

- 서울지역은 예술창작지원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Two Track의 성과관리 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먼저 재단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계량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공통 계량 성과를 병행하여 성과를 취합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서울지역의 계량성과지표 관리 내용을 요약도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재단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계량 성과지표 설정

– 예술지원의 충분성 확보를 위한 평균지원금 관리 : 전년대비 약 3~5% 향상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지원금	10,845천원	11,116천원	12,023천원	12,350천원
선정건수	440건	431건	346건	385건
선정비율	33.9%	30.0%	23.5%	22.5%

– 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금 전용카드 발급 확대
: 전년대비 발급률 16% 향상

구분	2013년	2014년
교부신청 대비 체크카드 발급률	50%	66%

– 선정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한 현장평가 대상 사업 확대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가대상 건수	440건	427건	337건	385건
평가진행 건수	133건	194건	185건	223건
현장평가 진행률	30.2%	45.4%	54.9%	57.9%

○ 지역협력형사업 공통 계량 성과지표 관리

– 사업 참여 예술가 및 참여 관객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참여 예술가	11,981	13,245	9,379
참여 관객	530,089	337,268	651,775

[표 57] 계량성과지표 관리 내용 – 서울 지역

□ 우수사례 : 강원지역

– 강원지역은 지원사업의 성과를 취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각 지원 사업별 지표 정의서를 마련하여 사업별 성과취합과 관리를 체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별 계량성과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지표산식과 가중치를 차별화한 계산식을 마련하고 있음. 아래 옮겨온 자료는 사업별 지표산식 중 전문예술육성지원사업의 지표산식과 계량성과 산출결과를 정리한 도표임. 강원지역은 2014년 계량성과와 함께 2012년~2014년까지의 연차별 비교를 통해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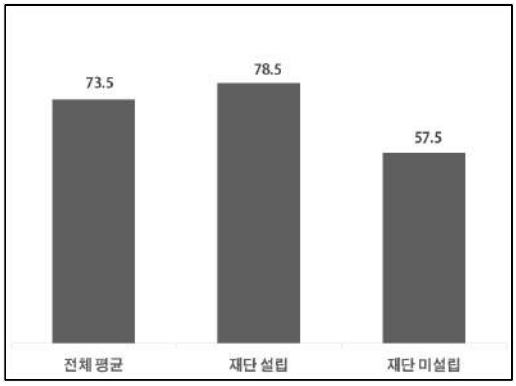
사 업 명	전문예술육성지원		
성과목표	전문예술 집중육성을 통한 예술인 및 단체 역량강화		
성과지표	지원선정율 및 평균 지원금액 향상 등	난이도	
지표산식	㉮ 사업지원 증감률**(60%)** ㉮-1 지원신청률(20%) – {(' 14년 신청건수 – ' 14년 신청목표건수) / ' 14년 신청목표건수} × 100 ㉮-2 선정율(20%) – {(' 14년 선정율 – ' 14년 선정 목표율) / ' 14년 선정 목표율} × 100 cf) 매년 –5% 목표로 최종 선정율을 현 기준에서 40%까지 목표 하향선정 ㉮-3 사업비 평균지원액 증감률(20%) – {(' 14년 평균지원액 – ' 14년 평균지원목표액) / ' 14년 평균지원목표액} × 100 ㉯ 지원사업 참여율**(20%)** ㉯-1 예술가참여율(10%) – {(' 14년 예술가참여수 – ' 14년 예술가참여목표수) / ' 14년 예술가참여목표수} × 100 ㉯-2 관람객참여율 (10%) – {(' 14년 총관람객수 – ' 14년 총관람객목표수) / ' 14년 총관람객목표수} × 100 ㉰ 사업만족도(신규)**(20%)** ㉰-1 예술가 만족도(10%) – {(' 14년 점수 – ' 14년 목표점수) / ' 14년 목표점수} × 100 ㉰-2 관람객 만족도(10%) – {(' 14년 점수 – ' 14년 목표점수) / ' 14년 목표점수} × 100		

구분	사업 (건)	공연회수 (회)	공연일수 (일)	발표작품수 (개)	관람객수 (명)	참여예술인수 (명)
총계	181	493	1,102	6,214	279,645	8,510
다원예술	13	31	18	58	7,213	223
무용	10	9	9	41	2,770	183
문학	28	40	183	2,439	24,300	1,575
시각예술	45	102	513	3,049	175,853	2,195
연극	18	80	81	34	12,669	677
예술일반	22	181	251	303	35,460	1,852
음악	19	22	23	128	9,830	1,105

[표 58] 전문예술육성지원사업의 지표산식과 계량성과 산출결과 – 강원지역

나. 비계량 성과 정리 체계 및 적절성

• 평가 요소	• 지원사업의 비계량적 성과 정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지원사업의 비계량적 성과 제시 여부 및 성과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특성화사업이 지역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비계량적 성과를 증명하는 다양한 자료 (인증, 수상, 국제교류성과 등 사업실적으로 제시할만한 성과 자료) • 1월에 제출한 비계량적 성과와 추가저인 비계량적 성과 자료



[그림 54] 특성화 통합 비계량 성과 정리 체계 및 적절성–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8.5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57.5점
전체 평균	73.5점

[표 59] 특성화 통합 비계량 성과 정리 체계 및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지표 5.2. 비계량 성과 정리체계 및 적절성

– 이 지표는 지원 사업을 통한 인증, 수상, 국제교류성과 등 비계량적 성과 정리의 체계 및 적절성 여부와 비계량적 성과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 평가를 위해서 지역에서 제출한 보고서상의 비계량적 성과 내용과 붙임자료의 다양한 보도결과 등을 확인하였으며, 비계량정 성과를 적극적으로 취합, 분석하여 향후 사업기획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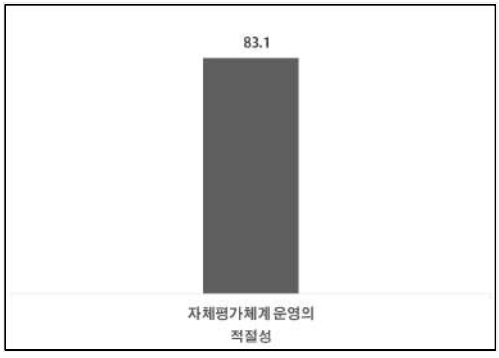
– 평가결과 계량적 성과에 비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비계량적 성과를 신뢰성 있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역시 지역별 특성이 달라 객관적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비계량적 성과를 정리해 내는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적절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지역별로 아직 비계량적 성과를 정리하는 초창기이므로 그 결과 데이터를 차기년도 사업기획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까지 나가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남.

□ 우수사례 : 대구지역

– 대구지역은 지원사업 선정사업인 ‘창작국악뮤지컬 복이’가 대구광역시에 대한 정부 합동평가 대상에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우수사례로 추천되었으며, 극단 뉴 컴퍼니는 2013년 집중기획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중국 합작 넌버벌 퍼포먼스인 ‘런닝맨’을 실연하였고, 2014년에는 ‘런닝맨’을 레퍼토리화 하였음. 대구지역의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은 신진예술가를 2년 연속 지원하는 형태로 매월 80만원씩의 활동지원금을 통해 역량이 뛰어난 신진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집중하게 만들어 우수한 전문예술인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음.

6. 평가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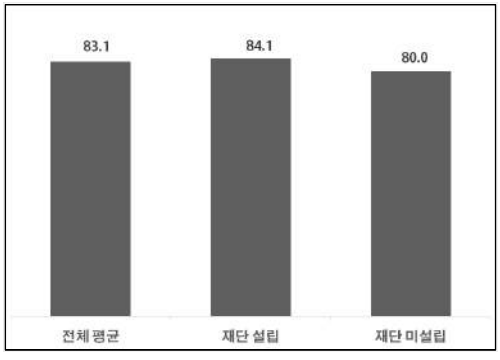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자체평가체계 운영의 적절성



[그림 55] 특성화 통합 평가 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자체평가체계 운영의 적절성	83.1점
지표 평균	83.1점

[표 60] 특성화 통합 평가 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56] 특성화 통합 평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4.1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80.0점
전체 평균	83.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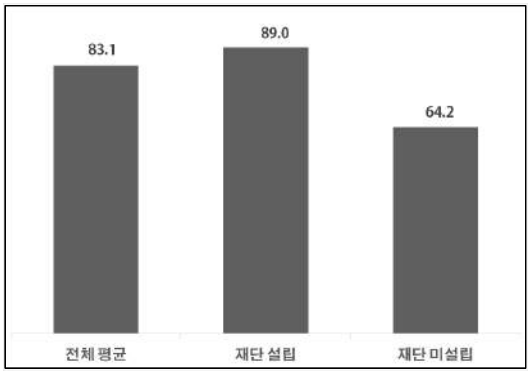
[표 61] 특성화 통합 평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환류는 지역의 자체평가체계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하나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83.1점의 비교적 안정된 평가를 받고 있음.

□ 재단 설립 지역과 미설립 지역의 편차는 4점으로 큰 차이가 없음.

가. 자체평가체계 운영의 적절성

• 평가 요소	• 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여부 • 평가 결과를 실제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 여부
• 평가 참고 자료	•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방안 정리 자료 • 평가 결과를 차기년도 선정 과정에 반영하는 방식에 관한 토의 자료 • 전년도 평가 결과 적용 및 사업 개선 방안 정리 자료 및 증빙 자료



[그림 57] 특성화 통합 자체평가체계 운영의 적절성 - 재단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9.0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4.2점
전체 평균	83.1점

[표 62] 특성화 통합 자체평가체계 운영의 적절성 - 재단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지표 6.1. 자체평가체계 운영의 적절성

– 이 지표는 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부와 평가 결과를 실제적인 사업계획에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환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 평가를 위해서 전년도 자체평가 및 외부 평가결과를 사업개선 및 사업설계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선정단체의 예산집행 투명성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한 평가환류 노력을 평가하였음.

– 평가 결과 일부 지역은 전년도 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지역의 구체적인 개선 노력과 그 성과를 별도로 정리해서 제시한 지역도 있었으며, 대부분 지역이 자체평가 결과를 차기년도 심의시에 가점 및 감점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제1-2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 창작활성화 부문의 개별지표는 9개 지표 60점 만점으로, 배점 5점의 지표 6개와 배점 10점의 지표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추진 단계별 지표수와 배점은,

[사업계획단계] '사업기획/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개 지표 10점,

[사업집행단계] '사업추진 기초역량' 2개 지표 15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2개 지표 10점,

[사업성과단계] '사업추진 성과' 2개 지표 15점,

[평가환류단계] '평가와 환류' 1개 지표 10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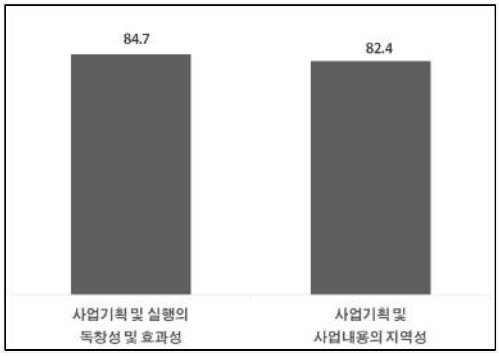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지표별 배점 등에 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서류심사와 심화인터뷰를 통해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 최종 결과는 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9.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54.4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9.4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40.6점임.

- 이를 100점 만점으로 표시하면, 전국 평균 81.8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90.7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2.3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67.7점임.
- 이러한 결과는 시·도 의 문화예술 진흥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1.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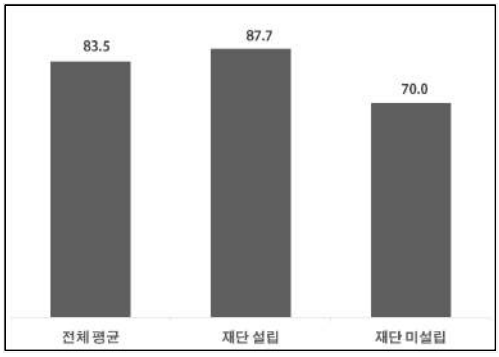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그림 58]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84.7점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82.4점
지표 평균	83.5점

[표 63]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59]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7.7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0.0점
전체 평균	83.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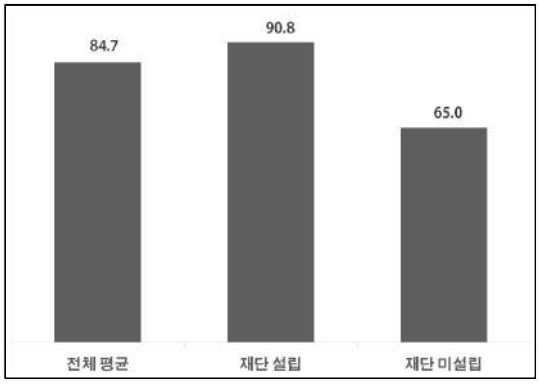
[표 64]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진취적인 시 · 도 문화재단에 의해 여러 가지 독창적인 기획 내용과 실행 방식이 도입되고 있으나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지역성, 즉 지역 특화문화자원과의 연계성을 지원 심의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임.

가.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평가 요소	• 차별화된 사업기획력 반영 여부 • 창의적 사업실행방식의 채택 여부 • 사업실행방식의 효과성 여부
• 평가 참고 자료	• 사업기획의 차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정리자료 및 증빙자료 •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식에 있어서 독창성이 사업 성과로 드러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사업결과보고서, 보도기사 • , 전문 예술 평론가의 평론 등)



[그림 60]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90.8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5.0점
전체 평균	84.7점

[표 65]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지표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5점)은, 사업기획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는지, 사업실행 방식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정도를 평가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3.3점임.
- 서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위원회와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창작활성화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시·도가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부산은 재단이 추구하는 3대 가치를 창작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구는 공연도시 육성이라는 뚜렷한 목표 아래 사업육성체계를 Two Track으로 분리하고 심사참관인제를 도입함.
- 대전은 역발상적 사고방식에 의한 탈락단체 현장평가제도를 도입했고, 경기는 지원사업의 경계를 허무는 '별별예술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단계별 공연지원제도로 레퍼토리 육성기반을 마련함.
- 강원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 심사제(심사위원 공모제)를 도입했고, 전남은 재단과 도(道)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지역 고유성을 반영한 사업체계를 구축함.

□ 우수사례 : 대구 지역

– '대구공연문화도시 육성 중장기계획'(2010~1019)에 따라 대표 콘텐츠 육성을 목표로 예술단체가 지속적으로 레퍼토리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예술의 특성을 살리고자 창작활성화 사업 육성체계를 '예술창작지원Track'과 '지역밀착형지원Track'으로 분리함.

– 대구의 차별화된 지원방식으로는, Two Track으로 지원체계 개선,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 대표 콘텐츠 육성,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 선정비율 조정과 평균지원액 증액, 우수사업 재발굴과 지속지원 확대, 외부 추천비율 60% 이상 유지, 심사참관인제(심사참관 1인, 보조 1인)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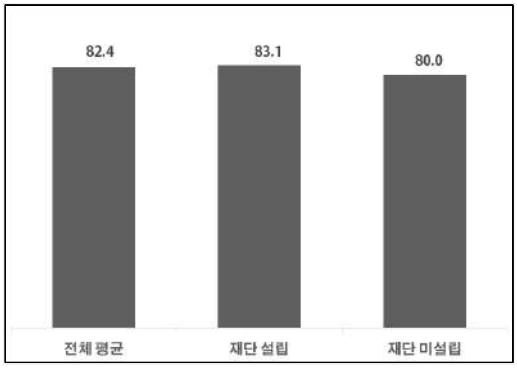
[그림 61] 대구 지역 예술창작진흥 Track



[그림 62] 대구 지역 밀착형지원 Track

나.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 평가 요소	• 사업기획 및 내용에 있어서 지역특화문화자원의 연계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사업기획에 있어서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반영한 기획임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식에 있어서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에 대한 활용이 잘 드러난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사업결과보고서, 보도기사, 전문 예술 평론가의 평론 등)



[그림 63]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3.1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80.0점
전체 평균	82.4점

[표 66]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지표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 (5점)은, 기획사업 및 개별 지원사업의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4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4.0점임.
- 지역성(지역 특화문화자원과의 연계성)을 지원 심의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연계방식으로 지역문화의 원형자원 활용, 설화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제작, 환경자원을 활용한 창작활동, 무형문화재 연계 등 네 가지 방식을 제시한 후 사례들을 제시
- 인천은 지역 정체성이 담긴 지원 사업 16건, 기획사업 8건의 내용을 관련 언론보도와 함께 소개하고 있고, 경기는 지역의 역사, 인물, 민담, 설화를 소재/주제로 한 극예술 10건, 지역의 문화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시, 수필, 소설, 동화 등 12건(작품 수 72건)의 내용을 요약 소개

□ 우수사례 : 강원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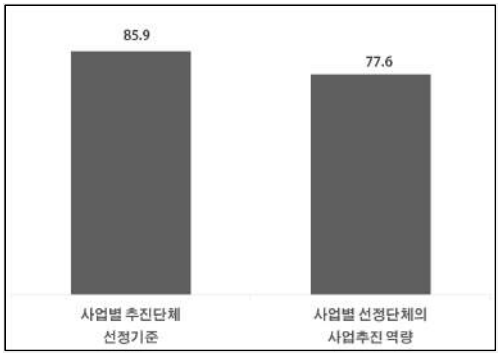
- 역사적 인물 4건, 문화적 고유성 2건, 사회적 특성 2건, 지리적 특성 9건 등 18건의 강원지역 문화자원 연계사업 사례를 자세한 내용과 함께 소개함.

구 분	사업명(단체명)	내 용
역사적 인물	춘천절기 전계심 추모 공연 (춘천민예총 국악협회)	춘천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인 전계심을 찾아내어 선양하고 기리는 의도로 춘천의 절절한 사랑이야기를 전통문화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기획이다.
문화적 고유성	김시동 강원다큐멘터리 제2집 출판 : 유네스코 무형유산 강릉단오 (김시동)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이며 유네스코 무형유산인 강릉단오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정체성을 찾기 위한 강원도의 무형문화 가치 기록 작업
사회적 특성	2014 강원다문화가족 공모백일장 및 작품집 발간 (원주여성문학인회)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민여성들에게 한글 백일장을 통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체험을 서툴지만 타국어인 한국어로 표현하게 하여 한글 깨우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자녀들에겐 확실한 국가관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
지리적 특성	강원의 산하 : 그 여백과 공간을 따라서 – 네 번째 이야기 (강원작곡가포럼)	강원도를 예찬한 주옥같은 시에 작곡가들이 노래를 붙여 아름다운 가곡을 탄생시키고 그 노래들을 알려 함께 노래하게 함.

[표 67] 강원지역의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 실적 사례

2. 사업추진 기초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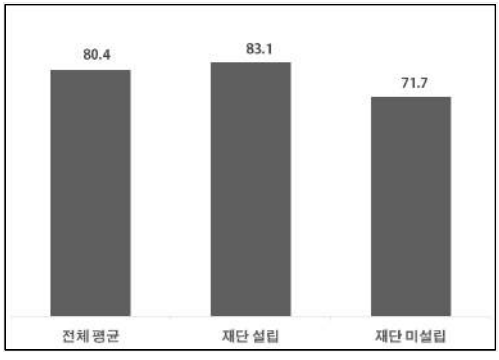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 기준
  -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 추진 역량



[그림 64]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 기준	85.9점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 추진 역량	77.6점
지표 평균	81.7점

[표 68]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65]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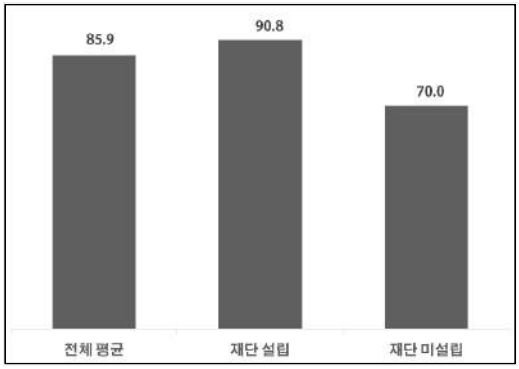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3.1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1.7점
전체 평균	80.4점

[표 69]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창작활성화 부문 심의기준으로 예술적 수월성에 높은 비중을 둔 경우는 많지 않았으나, 전년 대비 지원 단체 선정율은 내려가고 평균 지원액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지역에서 지원신청 자격을 명시하여 부적합한 단체(개인)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참여 확대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은 미흡함.

가.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 기준

• 평가 요소	• 선정 기준 및 선정율의 적절성 여부 • 평균지원액 규모 및 중복 지원 제한 여부
• 평가 참고 자료	• 부문별 사업에 대한 선정단체 선정 기준과 사업부문별 연차별 선정율 자료 • 사업부문별 평균지원액의 연차별 추이를 볼 수 있는 자료



[그림 66]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90.8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0.0점
전체 평균	85.9점

[표 70]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지표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5점)은,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취지에 맞는 선정기준(예컨대, 예술적 수월성)을 설정하고 있는지, 지원 단체 선정율과 평균지원액의 규모가 적정하거나 연차별로 개선되고 있는지,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 · 도 평균 3.5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심의기준으로 예술적 수월성에 비중을 크게 둔 경우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 않았고, 전년 대비 지원 단체 선정율은 내려가고 평균지원액은 올라가는 추세이며, 대부분의 시 · 도 에서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하는 엄격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었음.
- 서울의 경우 공연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장르 각각에 대해 사업의 질, 운영, 성과에 관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창작활성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질' 의 경우 장르마다 적합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강원의 경우에는 '전문예술육성지원사업' 을 선택과 집중 사업으로 전환하여 선정율을 '13년 56.0% → '14년 38.7%로 낮춰 평균 지원액을 '13년 3,703천원 → '14년 6,692천원으로 크게 상승시켰고, 예총/민예총/문화원 지회/지부 선정 비율을 '13년 49.1% → '14년 34.0%로 낮춤.

□ 우수사례 : 경기 지역

–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예술적 역량과 추진능력, 작품의 실험성/우수성/참신성/예술성, 예술적 기여도에 최소 70점 이상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어 예술적 수월성에 대해 중점 배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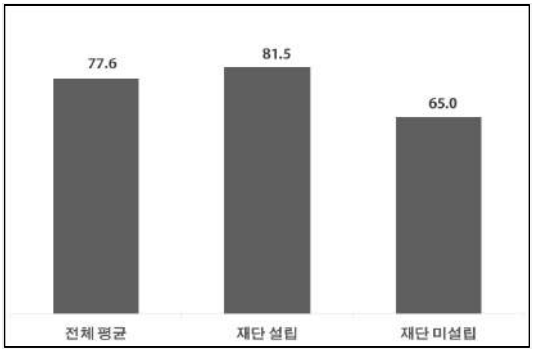
구분 (배점)	심의기준	내 용
신청자 (20)	예술적 역량 추진능력	· 신청자의 활동실적이 충분한가? · 참가자들 또는 사업주체의 역량이 뛰어난가?
사업계획 (20)	목표부합성 타당성	·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 추진계획이 사업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워졌는가? ·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계획인가?
작품내용 (30)	우수성,참신성, 예술성	· 작품의 예술성(작품수준)이 높은가? · 작품내용에 참신성·창의성·독창성이 있는가?
기대가치 (25)	예술적 기여도	· 경기도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내용인가? ·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인가?
추가배점(5)	-	· 인류학, 신화학, 생태학, 생물학 모임 결합여부

[표 71] 전문예술창작발표'(공연예술분야) 서류심의 선정기준 및 배점

– 선정율은 '별별예술프로젝트' 21%, '전문예술창작발표' 14%, '전문예술연구출판' 13%, 평균 지원액은 차례대로 13,824천원, 10,777천원, 5,384천원으로 선정율은 낮고 평균 지원액은 높으며, 신청자격 제한과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나.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 평가 요소	•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비율 • 선정단체가 사업수행에 적절한 단체인가? •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여부
• 평가 참고 자료	• 부문별 선정 단체의 지원 금액 중 최고액과 최저액 지원단체의 단체 소개 및 이력 자료 • 지원사업 안내문에 참여 자격(기준)에 대한 기술 내용 • 부문별 선정단체들의 성격, 지원수혜경력, 전문예술법인(단체)여부 등을 정리한 자료 • 지자체나 재단이 예술단체의 전문예술법인화에 대한 교육, 지원 등 활동 추진 여부 • 부문별 협력 연계 필요기관과의 협력관계 수준 및 협력 활동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



[그림 67] 창작활성화 부문 시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1.5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5.0점
전체 평균	77.6점

[표 72] 창작활성화 부문 시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지표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10점)은,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율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여부, 단체(개인) 지원신청 자격 명시 여부, 선정단체의 사업수행 적합성 정도, 신규단체 참여확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배려 여부,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정도 등을 평가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7.8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5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7.9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 · 도 평균 6.5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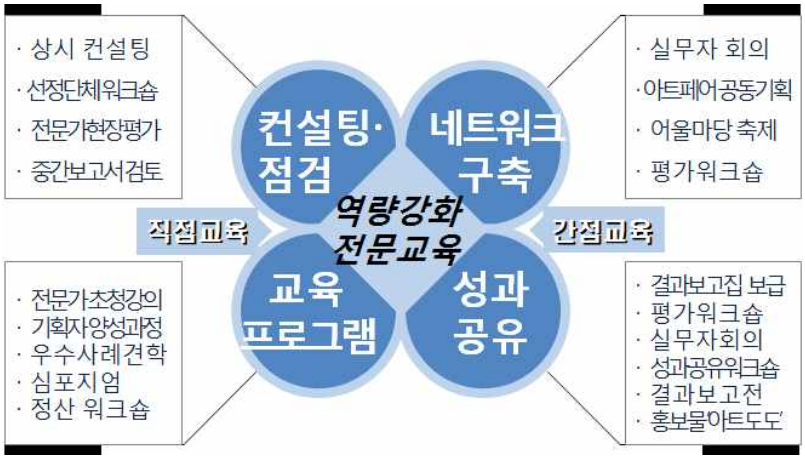
– 모든 시 · 도에서 지원신청 자격을 명시하여 부적합한 단체(개인)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참여확대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는 시 · 도는 많지 않음. 신규단체 선정비율은 적정선 범위 내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서울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수는 142개('13년 말), 선정율은 39%(선정 13개 / 신청 33개)로, 이는 예술 활성화 부문 전체 선정율 25%(선정 213개/신청 859개)보다 14%가 높은 비율임. 전문예술법인(단체)을 우대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며, 선정 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지원을 실시

– 경남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수는 94개('14년 말), 선정율은 100%(선정 20개 / 신청 20개, 육성지원 전체 선정율 48%)로, 전체 대비 비율은 5.6%(선정 20개/신청 357개)임. 적합한 단체 선정을 위해 신청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신규 단체 신청 대비 선정율은 60%임.

□ 우수사례 : 전남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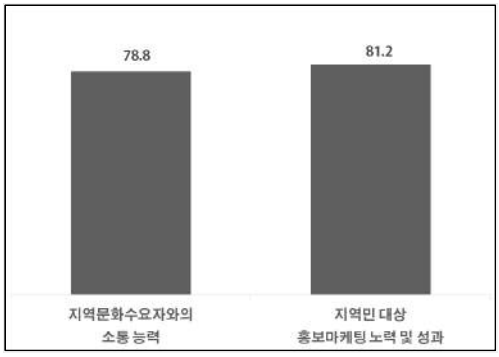
- 전남지역의 전문예술법인(단체) 29개('14년 말) 중 진돗개공연단 등 예술지원 부적합 단체(4개)를 제외하고 25개 법인(단체)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원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신규단체 우대를 명시하여 신규단체 선정율 '13년 36.4% → '14년 58.0%로 증가함.
- 선정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구성하고 컨설팅(상시), 워크숍(5회), 현장평가(2회), 현장견학, 전문가 초청강연, 전문기획자 양성교육(13주), 찾아가는 좌담회(2회), 지역거버넌스 좌담회, 심포지엄, 중간점검보고서 검토, 상호평가워크숍, 대표자/실무자 회의(사업별 5회), 결과보고집 제작 보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남도, 22개 시·군, 상상문화발전소 등 6개 수행단체, 광주은행, 농협, 미디아트, 도내 언론기관 및 교육기관 등, 그리고 예술위원회, 전북도, 6개 광역문화재단, 한국메세나협회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함.



[그림 68] 전남 지역 수행단체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채널 구성도

3. 사업 운영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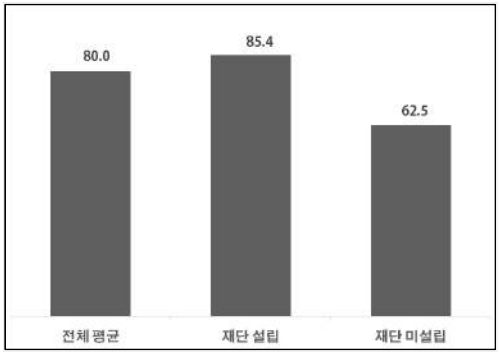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그림 69]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78.8점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81.2점
지표 평균	80.0점

[표 73]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70]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5.4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2.5점
전체 평균	8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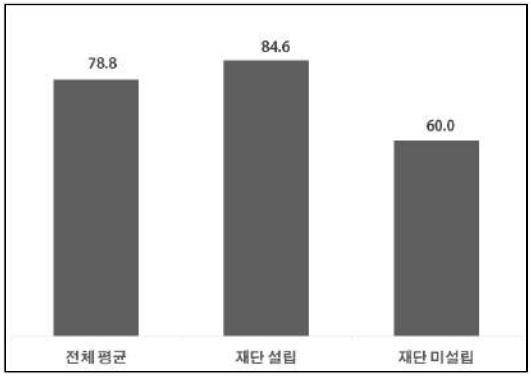
[표 74]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전반적으로 지역민과 예술인과의 소통과 수요조사의 결과를 지원사업 수행에 반영하고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부족하나, 모니터링이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차기년도 지원사업 설계와 선정 방안에 반영하는 경우는 점차 늘고 있음.

– 문화재단이 없는 일부 시 · 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홍보에 매우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고 있으나 행사를 알리는 차원에 머무를 뿐 수요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곳은 많지 않음.

가.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평가 요소	•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분석 여부 •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운영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지역문화수요 분석 관련 연구, 조사 여부 증빙자료 • 사업부문별로 지역민들의 문화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업부문별로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을 알 수 있는 자료



[그림 71] 창작활성화 부문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4.6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0.0점
전체 평균	78.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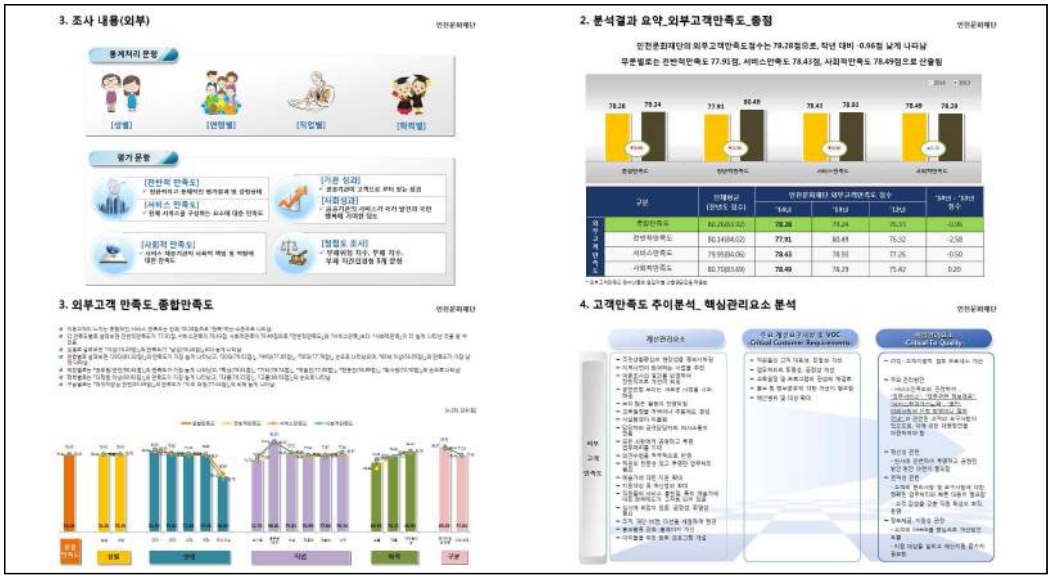
[표 75] 창작활성화 부문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지표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5점)은,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사업 설계 및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평가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5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3.0점임.
-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사업 설계와 선정에 반영하여 실천에 옮긴 시·도는 몇몇에 불과한 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모니터링이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시·도가 점차 늘고 있어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임.
- 대구는 선정단체의 자체 설문조사와 더불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4 지역협력형사업 관련 공연 및 전시 13세 이상 관람객 전체(106개 단체 3,916명)에 대해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2014 지역협력형사업 관람객 만족도 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함.
- 전남은 지역예술인, 22개 시·군 문화예술관계자들이 지역민의 수요를 조사하고 고객만족도를 조사(특히 재단 직원과 도민 모니터요원이 고객 587명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로 파악한 예술인 및 고객의 개선 요구사항 네 가지를 지원사업에 반영하여 전면 개편함.

□ 우수사례 : 인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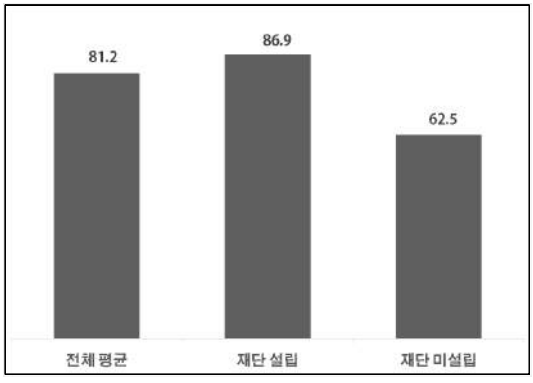
- 2014 인천문화재단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서비스 만족도 78.3점의 결과를 얻었으며, '2012년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4년마다 조사, 인천문화지표, 문화공공성지표,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인천예술인실태조사의 네 부문으로 구성) 결과를 지원사업 설계에 활용하고 있음.
- 예컨대 '인천예술인실태조사' 결과, 창작지원예산 확충과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요구가 가장 많아 창작관련 직접지원과 기획지원 규모를 해마다 확대('12년 1,923백만원 → '13년 2,331백만원 → '14년 2,492백만원)하고 있고, 도화2동 가압펌프장 위치에 공연예술 종합연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예술위원회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 협력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목요문화포럼' 4회 개최, 기획/창작/출연/제작 전 과정에 시민이 함께 하는 복합창작공연 프로그램 '인천왈츠'를 추진함.



[그림 72] 인천문화재단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나.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 평가 요소	• 사업별로 특화된 홍보마케팅 추진 여부 • 지역민 참여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사업부문별로 특화된 홍보마케팅 추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홍보,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림 73] 창작활성화 부문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6.9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2.5점
전체 평균	81.2점

[표 76] 창작활성화 부문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지표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5점)는, 특화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주민 참여와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그리고 지원수혜 단체의 홍보/기획/마케팅 담당자 대상의 교육, 자문, 워크숍을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 · 도 평균 3.1점임.
- 문화재단이 없는 일부 시 · 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홍보에 매우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특색 있는 홍보 전략을 펼치는 곳이 많음. 다만, 아직까지는 주로 사업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고 수요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곳은 많지 않음.
- 대구는 공연안내센터인 dgtickets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티켓을 판매(지역협력형사업의 경우 500매 판매)하고 있음. dgtickets를 이용한 전체 인원이 전년 대비 2.4배('13년 6,345명 → ' 14년 15,150명)가 증가하였음.
- 전남은 홍보 전담인력으로 2명을 채용하고 지원사업 홍보물 '아트도도'와 소식지 '문화랑'을 연(年) 2회 각 3,000부씩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재단 사업을 124개 영상물(다큐, 단편 등)로 제작하여 SNS를 통해 홍보하는 동시에 광주 MBC, 목포 MBC에서 상시 방영하고 있음.

□ 우수사례 : 대전지역

– 재단 홈페이지 내에 별도의 지원사업 통합홍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뉴스레터와 보도자료 발간 배포, 문화안내소인 '문화곳간'(원도심 지역민 대상 홍보 전용 채널)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심화인터뷰 시, 시에서 발행하는 무가지 '잇츠대전'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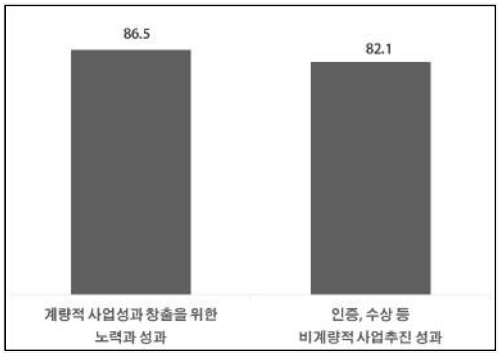
– 특히 제11차 기획/경영아카데미(SNS로 문화예술 홍보하기, '14.6.30~7.4 19~22시), 제12차 기획/경영아카데미(빅데이터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14.11.17~27 19~22시)를 개최하여 각각 문화예술단체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가, 홍보역량을 강화함.

구 분	내 용
제 11차 기획 · 경영 아카데미	· 내용 : 기획자가 되기 위한 이론과 실무(SNS로 문화예술 홍보하기) · 일시 : 2014. 6. 30(월)~7. 4(금), 19:00~22:00 · 장소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일반교육실 · 대상 : 문화예술단체 기관 실무자 및 관련분야 대학생 50명 · 강사 : 김대영 (파워블로거협동조합 이사)
제 12차 기획 · 경영 아카데미	· 내용 : 빅데이터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전략 짜기 · 일시 : 2014. 11. 17(월)~11. 27(금), 19:00~22:00 · 장소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일반교육실 · 대상 : 문화예술단체 기관 실무자 및 관련분야 대학생 50명 · 강사 : 황성진 (주식회사 소셜 노트 대표)

[표 77] 대전문화재단 기획·경영 아카데미 개요

4. 사업 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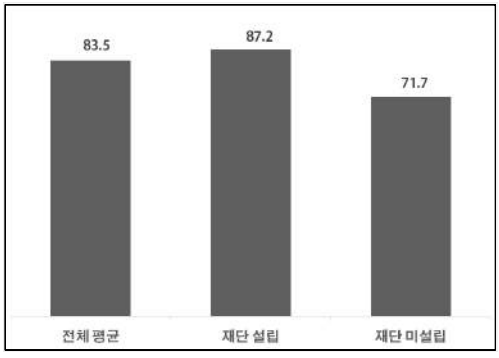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 추진 성과



[그림 74]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86.5점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 추진 성과	82.1점
지표 평균	84.점

[표 78]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75]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7.2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1.7점
전체 평균	83.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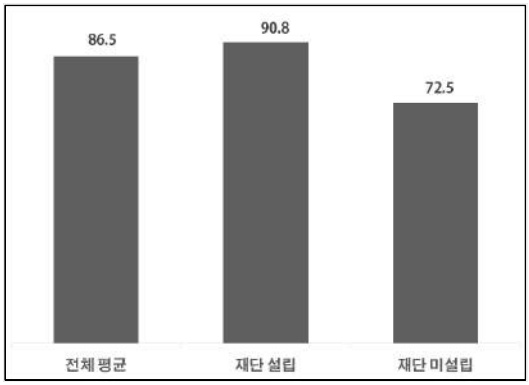
[표 79]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많은 시 · 도가 체계적인 성과 목표 및 지표 설정 과정과 신뢰할만한 측정 수단의 확보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량적인 결과만을 집계하고 있어 체계 구축에 관한 한지협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의 경우 아직은 서울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나 여타 지역도 실적을 쌓아가고 있음

가.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평가 요소	• 사업목표대비 계량적 사업성과 수준과 적절성
• 평가 참고 자료	• 부문별 사업에 대한 관람객 수, 발표작품 수, 참여예술인 수 등에 대한 입증 자료



[그림 76] 창작활성화 부문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90.8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2.2점
전체 평균	86.5점

[표 80] 창작활성화 부문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지표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5점)는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의 수준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했는지와 그 성과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 · 도 평균 3.6점임.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신뢰할만한 측정 수단을 확보하여 계량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 · 도가 이러한 과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량적인 결과만을 집계하고 있어 체계 구축에 관한 한지협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강원의 경우 강원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을 기반으로 문예사업팀의 5개년(2014~18) 성과목표를 수립, 재단 전략과제를 기반으로 2014년 문예사업팀의 팀 목표와 미션을 설정하고, 미션에 따른 지역협력성사업과 강원문예진흥사업을 구분하여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음.

□ 우수사례 : 전남지역

– 전남은 중장기 경영전략에 따른 비전체계를 가장 상위에 둔 재단의 목표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2013년에 설정한 2014년도 5개 성과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였음.

2014년 지원사업 재단 목표설정

- 유관기관 및 지자체 협력도 제고
- 지역 예술인(단체)간 교류활동 활성화
- 예술인(단체)역량강화
- 지역 예술인 의견수렴 및 소통 창구 확대
- 수행단체의 지역 브랜드화
- 전남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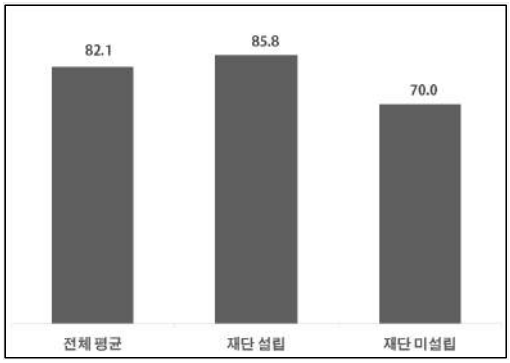
계량적 성과 목표

- 지원예산 확대
- 참여예술인 확대
- 문화수요자 확대

사 업 명	사업 목적	성과 목표
지역문화 예술육성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문화예술활동 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 도모	· 지원체계 확립 · 지역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 국내외 교류사업 확대 추진 · 신진예술가 육성을 위한 발판 마련 · 청소년대상(주체)사업 축소 (지적사항)

나.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 평가 요소	•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특성화사업 부문별 각 1건의 Best Practice를 선정하여 그 비계량적 성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 제시한 Best Practice(최우수 사례)의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실적, 작품(예술가)의 수상 실적, 국내외 페스티벌 초청(참가) 실적, 핵심 예술시장 유통 실적, 예술작품(공연, 전시 등) 시장 판매 실적 등을 정리한 자료 • 그 외에도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 추진 성과를 보여주는 사업 부문별 우수 사례들에 대한 비계량적 성과 증빙 자료



[그림 78] 창작활성화 부문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5.8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0.0점
전체 평균	82.1점

[표 81] 창작활성화 부문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지표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10점)는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창작활성화 부문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를 창출했는지, 제시한 최우수프로젝트(Best Practice)가 타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국내외 각종 수상(受賞), 인증, 페스티벌 초청/참가, 예술시장에서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평가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9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3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 · 도 평균 7.0점임.

– 7개 시 · 도 가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을 획득했으며 창작활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사례와 국내외 수상, 인증 등의 실적을 소개하고 있음. 아직은 서울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나 여타 지역도 빠르게 국내외 수상, 인증 등의 실적을 쌓아가고 있음.

–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사례로는, 대구의 공연문화거리 활성화 프로젝트와 도심형 문화축제, 인천의 신진무대 〈동행〉 시리즈, 세종의 〈한글과 세계문자서예 동행전〉 , 강원의 태백체험공원 벽화 제작, 충남의 〈서동 무왕즉위식〉 , 경북의 〈창작뮤지컬 이몽룡〉 등이 있음.

– 수상, 인증 등의 사례로는 광주 극단의 전국연극제 대상/연출상/최우수연기상 수상, 강원 인형극단의 뉴욕 공연, 광주 공예작가의 영국 공예전/미국 아트 페어/한중일명인초대전 참

가, 대전 작가의 프랑스/영국/싱가포르 아트 페어 참가, 경남 부곡예술촌 입주작가들의 홍콩 아트 페어 참가 등이 있음.

□ 우수사례 : 서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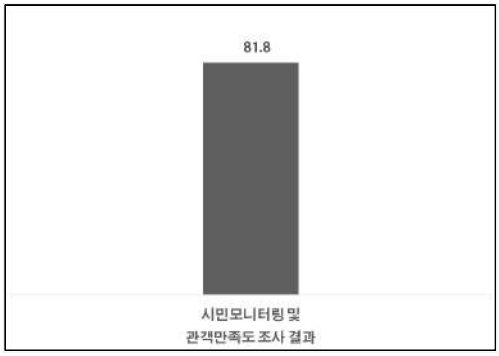
- 각 장르별로 수많은 국내외 수상, 인증, 페스티벌 초청, 예술시장 유통 실적이 있으며, 연극 14건, 무용 15건, 음악6건, 전통 19건, 다원6건, 시각 10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 2014 서울시 국악발전 종합계획과 관련, 소설을 판소리 무대화한 작품 〈판소리 단편선 1_주요섭〉 , 관객 참여형 감성치유 프로젝트이자 시민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끌어 내는 커뮤니티 댄스인 〈당신은 지금 바비레따에 살고 있군요〉 를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사례로 제시함.




[그림 79] 서울 – 커뮤니티 댄스 〈당신은 지금 바비레따에 살고 있군요〉 공연 장면

5. 평가와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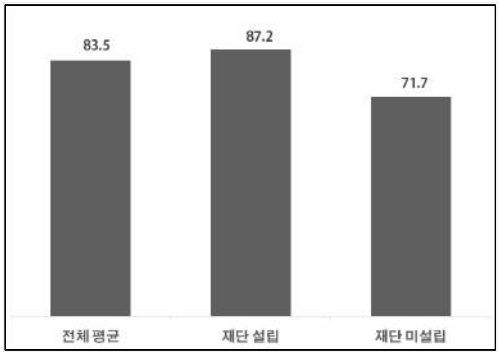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그림 80]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81.8점
지표 평균	81.8점

[표 82]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81]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7.2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1.7점
전체 평균	83.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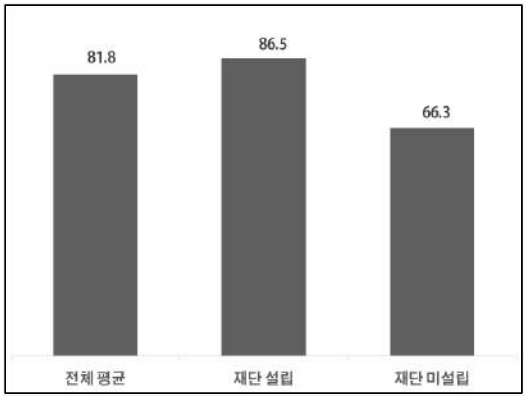
[표 83]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남, 경남 등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 모니터링이나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이를 통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요나 개선 요구사항, 만족도 분석 등을 통해 지원사업 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가.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 평가 요소	• 사업 부문별 시민모니터링 결과 • 사업 부문별 관객 만족도 조사 결과
• 평가 참고 자료	• 시민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등 관객만족도를 입증할 수 있는 요약 자료 •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첨부자료로 제출



[그림 82] 창작활성화 부문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6.5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6.3점
전체 평균	81.8점

[표 84] 창작활성화 부문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지표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10점)는, 시민 모니터링과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과 결과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평가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9.0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4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 · 도 평균 6.6점임.

–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남, 경남 등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 모니터링이나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요나 개선 요구사항, 만족도 분석 등을 통해 지원사업 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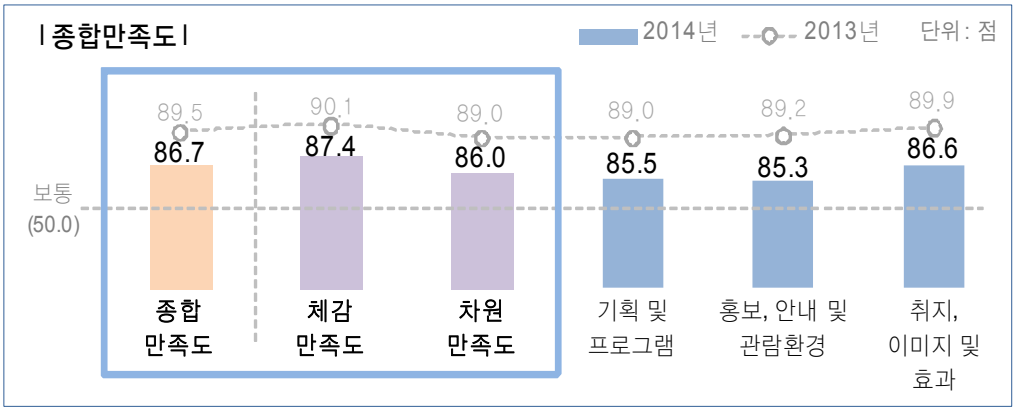
– 광주는 시민모니터링단이 118건의 사업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으며, 외부 전문단체에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단체 118개, 일반시민 591명)를 의뢰하여 홍보 강화, 프로그램 수준 향상,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개선 요인을 밝혀냄.

– 강원은 외부 전문기관의 의뢰하여 4백여 지원사업의 관객 및 예술인에 대해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별도로 평가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을 연구토록 하여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연구보고서(2014.12)와 평가체계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2015.1)로 발간함.

□ 우수사례 : 대구지역

– 모니터링요원 98명을 동원하여 창작활성화 부문 178건과 지역특성화 부문 46건(신진예술가 지원) 등 총 224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단위사업별, 점수대별로 분석함.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4 지역협력형사업 공연/전시 전체 관람객 21,94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종합 만족도는 86.7점(매우 만족하는 수준)으로 용역기관에서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차기연도 성과목표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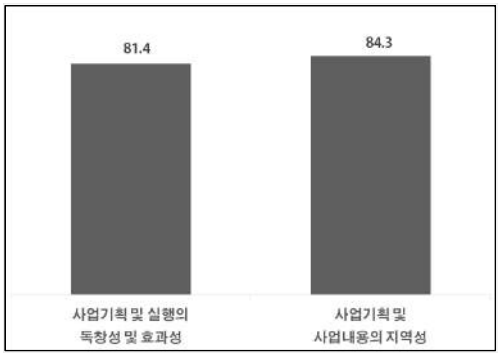


[그림 83] 대구 지역의 2013년 대비 2014년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제1-3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1.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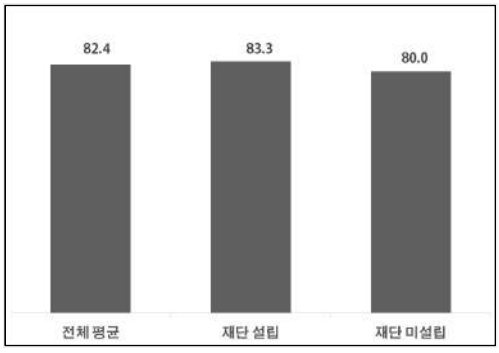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그림 84]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81.4점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84.3점
지표 평균	82.8점

[표 85]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85]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3.3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80.0점
전체 평균	82.4점

[표 86]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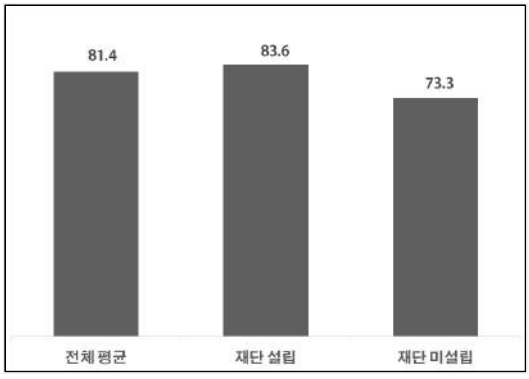
□ 교류활성화 부문은 아웃바운드로서 지역과 국가 경계를 넘어서 타 지역 및 타국의 예술가들과 공통의 기획 행사나 집회를 통해 교류를 하거나, 인바운드로서 타지역인과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교류를 하는 레지던스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가 수행되는 교류 공간의 차별성이라는 성격과 무관하에 교류활성화 사업의 공통점은 예술가 자신의 안목과 창작품을 개방함과 동시에 타 예술가나 예술가 그룹의 작품을 관람하며 소통함으로서 타 문화 및 타 예술품을 이해하고 창작 소재나 창작 방법에 있어서 참신한 자극을 얻음으로써 예술의 수월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는 것이 목적임. 이러한 발전은 교류를 하는 어느 일방의 성과가 아니라 쌍방의 성과라는 점에서 세계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행위로 귀결되어, 모든 나라에서 공공부문의 투입을 아끼지 않고 있음.

- 인바운드는 주로 지역별 창작 거점 공간인 레지던스를 통해서 교류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웃바운드는 해외의 페스티벌 등에의 참여와 공동의 전시나 공연 프로그램의 기획에 참여하는 형태로 수행됨.
- 예술분야의 교류활성화이기 때문에 직업으로서의 예술인 집단이 지니는 특성인 상상력과 창조적 역량으로 인해 기획력이나 독창성, 지역성과 무관하게 교류가 수행되어도 예술가들이 포착해내고 체험하는 일정한 성과를 얻을 것이 전망되지만, 본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재의 투입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높이고, 예술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전에 교류사업의 과정과 예측되는 성과를 분명하게 성취할 수 있는 기획(RBM-Result Based Management)이 요망되며, 그러한 기획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의 기준은 교류의 독창성이며, 교류의 공간이라는 지역의 지역성을 얼마나 충분히 고려하는 것인지가 될 것임.

가.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평가 요소	• 차별화된 사업기획력 반영 여부 • 창의적 사업실행방식의 채택 여부 • 사업실행방식의 효과성 여부
• 평가 참고 자료	• 사업기획의 차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정리자료 및 증빙자료 •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식에 있어서 독창성이 사업 성과로 드러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사업결과보고서, 보도기사, 전문 예술 평론가의 평론 등)



[그림 86]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3.6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3.3점
전체 평균	81.4점

[표 87]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우수사례 1 : 충북지역

- 2013년의 평가결과를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전문가 컨설팅과 국내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2014년 추진전략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정례적 소통채널,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설정한 기획력이 돋보임. 2013년의 상황과 문화예술 환경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며 반성적으로 자기 분석을 하여, 전문 인력과 지역기초자료 부재 및 홍보전략 부재 등을 개선할 것과 창작 및 대안 공간의 부족한 현황을 파악하여 다양한 장르의 교류 및 창작발표의 장이 되는 공간이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역점을 둠.
- 충북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단체 간 협력을 확대하고 기획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 견학 등을 실시함.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획자 역량 향상을 위해 일본 우수 사례(동경, 요꼬하마)를 견학하고, 단체들의 해외 네트워크를 결합한 공동 국제 세미나, 레지던스 공동기획 전시 등 지역 내 역량을 결집하여 사업성과를 향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함.

□ 우수사례 2 : 대구지역

- 교류활성화 사업을 레지던스, 해외레지던스(중국중심)파견, 해외활동지원 등 3트랙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고, 직접, 간접(재정만), 부분지원(정보만)으로 구분하여 지원체계를 매트릭스화 하여 설계하고 구상하였음.

□ 우수사례 3 : 대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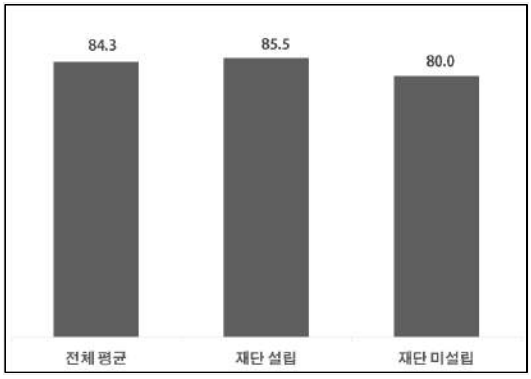
- 대전 지역 예술가들이 '2014 삿포로국제예술제'에 참가하고 일본 연극단체인 삿포로좌가 대전에서 공연하는 등 대전의 자매도시인 일본 삿포로 시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의 국제교류 활동을 뒷받침 함.

□ 우수사례 4 : 충남지역

- 실행단체 간 협력하여 아트파티를 운영할 것을 기획한 것은 바람직함. 4개 단체 36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충남지역의 레지던스 연석회의를 개최했고, 도청에서의 파티를 통해 사무공간이 적극적인 문화향유공간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유인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사업으로 계승될 수 있음.

나.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 평가 요소	• 사업기획 및 내용에 있어서 지역특화문화자원의 연계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사업기획에 있어서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반영한 기획임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식에 있어서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에 대한 활용이 잘 드러난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사업결과보고서, 보도기사, 전문 예술 평론가의 평론 등)



[그림 87]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5.5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80.0점
전체 평균	84.3점

[표 88]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우수사례 1 : 울산지역

– 울산의 모하창작스튜디오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데, 반구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전개하고 있는 주민의 예술 접근성 강화와 소통을 위한 오픈스튜디오 및 성과전시회 개최를 각 2회씩 하는 것은 물론이고,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와 부산 아트 쇼 등에 참여하고 있음. 특히 타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아트 크리틱 캠프에 참가하기도 함. 울산의 지역의 대표적 문화유산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재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대표브랜드로 발전해나갈 가능성이 높음.

□ 우수사례 2 : 강원지역

– 강원 정선지역의 특징적인 폐광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의 자연환경적 특성과 연계된 프로그램 등이 제시됨. 지역의 환경적이고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동해 프로젝트는 동해바다 모티브를 활용하여 지역성을 드러내고 있음. 특히 폐광을 대상으로 한 유휴시설의 지역재생을 위한 공모 사업은 지역적으로나 참여대상에 있어서 그 특징이 뚜렷하다는 장점이 있음.

□ 우수사례 3 : 인천지역

– 레지던스사업의 신청자 혹은 참여예술가(단체)의 50% 이상을 인천연고자로 구성해야 한다는 기준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여, 인천의 지역 정체성을 필수화하고 있음.

인천 연고 기준사항

○ 전문 문화예술 단체
- 인천에서 1년(1년 내 3회 이상) 이상 활동 중인 단체 또는 인천 연고자가 조직한 단체(주민등록초본 또는 졸업증명서 및 활동실적 증빙)

○ 전문 문화예술인(인천 연고자)
- 인천 활동자 : 인천 거주 1년 이상(공고일 기준)이면서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자(주민등록초본 및 활동실적 증빙)
- 인천 출신자 : 인천 출생 또는 인천에서 초/중/고/대학교 중 1개 과정 이상을 졸업한 사람 중 최근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졸업증명서 및 활동실적 증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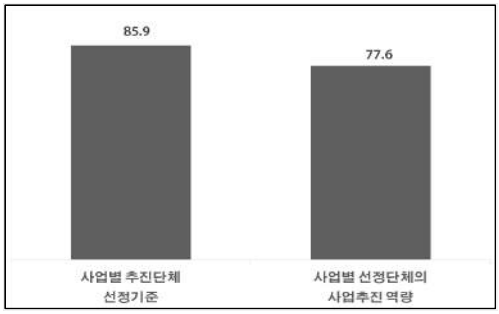
[표 89] 레지던스 사업 신청자 및 참여예술가(단체) 연고 기준사항 - 인천 지역

□ 우수사례 4 : 제주지역

- 교류사업 기획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대한 양의 신화가 전승되고 있는 제주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이 선정된 것은 바람직함. 우리나라와 일본의 신화적 사유를 비교하고, 한일 양국 상호간의 문화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류 상대국을 선정한 기획력도 의미 있음.

2. 사업추진 기초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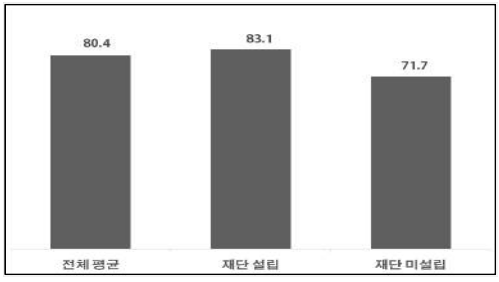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 기준
  -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 추진 역량



[그림 88]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 기준	85.9점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 추진 역량	77.6점
지표 평균	81.75점

[표 90]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89]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0.4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1.7점
전체 평균	80.4점

[표 91]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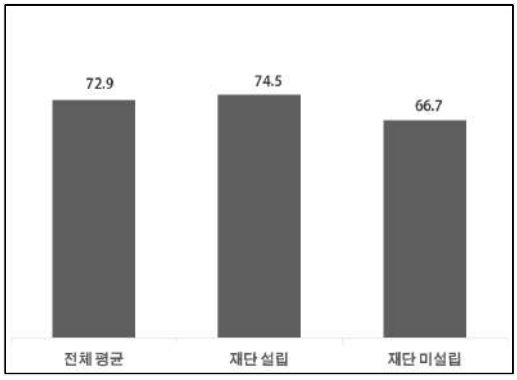
□ 교류활성화 사업이 의미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류 주체로서의 예술단체의 성격이 분명해야 하고, 교류를 기획할 수 있는 인력과 교류할 상대방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창작 콘텐츠가 사전에 구비되어야 함. 따라서 예술단체의 장르별 성격과 교류 경력 혹은 교류 기획력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교류활성화 사업 선정단체는 선정되어야 함.

□ 한편 교류를 기획하는 전문인력은 교류 주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들의 교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교류의 성과목표에 대한 합의를 거쳐 교류할 상대 네트워크와의 접점을 찾아 교류 의사를 타진한 뒤 방법론과 일정을 확정 짓는 구성주의적 태도를 견지해야 함.

- 특히 교류의 방식과 일정 등은 한 번 결정되면 단선적인 절차에 따라 교류가 단계별로 혹은 기계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류 과정에서 주체들의 상호 반응과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절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교류 주체들의 반응을 초기 계획에 따라 강제적으로 유인하거나 몰아가는 등의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 시나리오를 구상해야 함. 이렇듯 교류주체의 상호반응에 의해 교류의 성과가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류 기획에서 구성주의적 태도가 중요함.

가.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 기준

• 평가 요소	• 선정 기준 및 선정율의 적절성 여부 • 평균지원액 규모 및 중복 지원 제한 여부
• 평가 참고 자료	• 부문별 사업에 대한 선정단체 선정 기준과 사업부문별 연차별 선정율 자료 • 사업부문별 평균지원액의 연차별 추이를 볼 수 있는 자료



[그림 90]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4.5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6.7점
전체 평균	72.9점

[표 92]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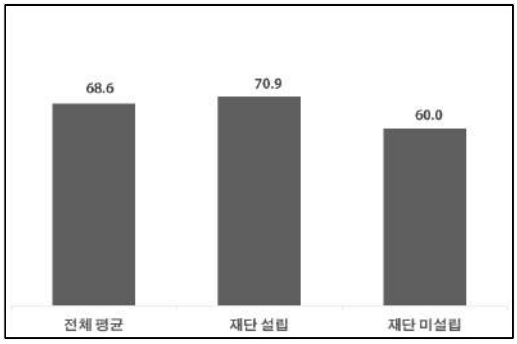
□ 교류사업의 심의기준이 계획 충실성과 타당성(20), 예술성(30), 실현가능성(30), 국제적 파급효과(20) 등으로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선정기준으로 주체 역량, 프로그램 충실성(지역커미셔너 역할 포함), 운영 및 홍보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삼는 등 적절한 것으로 드러남. 다만, 선정 단체 수가 전국 권역에서 공히 다수인 편이 아니어서, 사업 홍보가 부족하거나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여건 구비에 문화예술단체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못지않게, 응모 단체들의 확보와 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심사 단계도 행정심사, 서류심사, 인터뷰나 현장조사 등으로 구분되어, 체계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사업 실행 기관들이 선발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운영의 효과가 기대됨.

□ 그러나 여전히 심사위원 풀은 넓지만, 실제로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소수로 합리적인 규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컨설팅도 병행하게 하는 등 무리가 따르는 지역이 다수이고, 심사위원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인의 적정한 투입이 필요한 실정임. 현지인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위원회의 해당 지역의 지부협력관은 당연직이므로 예외로 삼아야 하며, 그 외 외부인의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나.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 평가 요소	•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비율 • 선정단체가 사업수행에 적절한 단체인가? •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여부
• 평가 참고 자료	• 부문별 선정 단체의 지원 금액 중 최고액과 최저액 지원단체의 단체 소개 및 이력 자료 • 지원사업 안내문에 참여 자격(기준)에 대한 기술 내용 • 부문별 선정단체들의 성격, 지원수혜경력, 전문예술법인(단체)여부 등을 정리한 자료 • 지자체나 재단이 예술단체의 전문예술법인화에 대한 교육, 지원 등 활동 추진 여부 • 부문별 협력 연계 필요기관과의 협력관계 수준 및 협력 활동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



[그림 91]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0.9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0.0점
전체 평균	68.6점

[표 93]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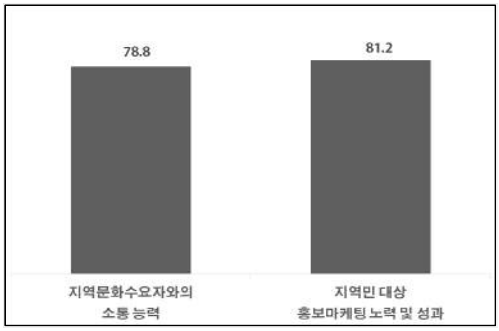
□ 사업추진 역량은 경력을 통해 일차적으로 검증되고, 실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통해 이차적으로 확인된다고 하겠음. 신규보다는 기존 2-3년 동안 사업수행의 경험이 있는 기관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수행 기관들의 사업 추진 역량은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교류의 대상국이 대부분 국외기관의 경우 아시아에 편향되어 있어, 좀 더 타 권역까지 발을 넓혀 문화예술의 세계적인 경향을 강대국 주변 권역을 중심으로만 파악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임.

□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리스트가 다수 존재하나, 사실상 사업 심사, 자문위원 등의 소속 기관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예술인이나 작가들의 교류활동을 지원한 건수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음. 다소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보여주기 위한 업적주의형 기술이라고 판단될 우려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사업 운영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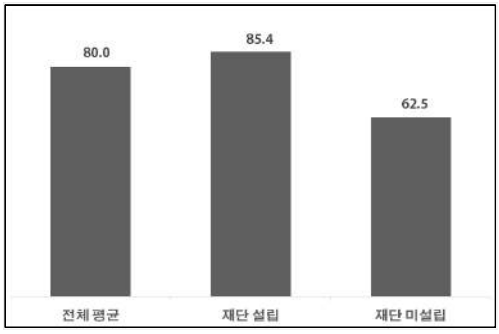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그림 92]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78.8점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81.2점
지표 평균	80.0점

[표 94]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93]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5.4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2.5점
전체 평균	8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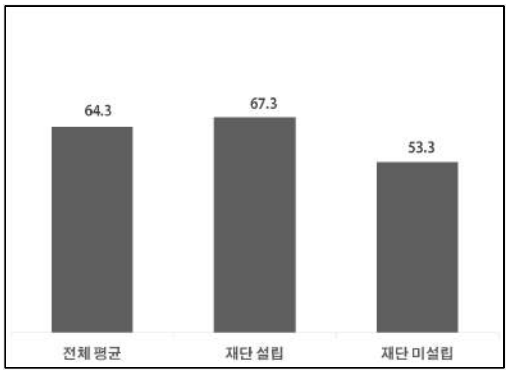
[표 95]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 교류활성화 부문은 교류 현장에서 주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류 주체로서의 예술인의 사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는 주체로서의 예술인이라는 공적 존재감에 근거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부여된 지역민들의 예술인에 대한 수요와 요구를 민감하게 경청하는 것이 교류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적절한 태도임.

□ 교류활성화 사업은 또한 창작 몰입만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과 예술인, 예술인과 관객, 예술인과 지역민, 예술인과 비평가, 예술인과 기획자들의 대면접촉이 전개되는 개방적인 공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방적인 공간은 충분히 공개되고 홍보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홍보와 함께 이 교류사업의 의미를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홍보의 강화를 통해 교류의 주체인 예술인들의 사회적 의미도 사회로부터 다시 재환류되어 예술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됨. 매체들의 교류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환류 될 때, 예술인들은 교류의 충실도를 배가시킬 것임.

가.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평가 요소	•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분석 여부 •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운영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지역문화수요 분석 관련 연구, 조사 여부 증빙자료 • 사업부문별로 지역민들의 문화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업부문별로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을 알 수 있는 자료



[그림 94] 교류활성화 부문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67.3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53.3점
전체 평균	64.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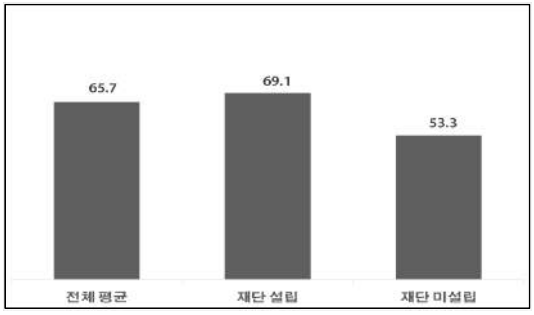
[표 96] 교류활성화 부문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지역의 문화예술계 수요자들과의 포럼 등을 재단이나 광역자치체 차원에서 연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문화예술계의 현안 및 정책토론을 통해 전반적은 문화수요를 파악하고 있지만, 포럼들의 결과로 수렴된 내용이 실제로 교류활성화 사업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 소통능력이란 포럼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의 장착 자체보다는 본질적으로 그 결과 드러난 소통의 내용과 함께 가는 미래, 함께 하는 활동으로서의 교류활성화 사업에의 반영이 중요함.

□ 오히려 실제 사업 집행기관들의 경우에는 참여 작가와 지역주민들이 자문회의에 같이 참여하는 등의 협력 활동을 통해 공동창작과 같은 성격을 보여주며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바람직함.

나.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 평가 요소	• 사업별로 특화된 홍보마케팅 추진 여부 • 지역민 참여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사업부문별로 특화된 홍보마케팅 추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홍보,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림 95] 교류활성화 부문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69.1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53.3점
전체 평균	65.7점

[표 97] 교류활성화 부문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현지 공연을 수행한 결과를 홍보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음.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교류협력을 했다고 했으나, 어떤 매체에 어떤 목표 및 관점과 내용으로 홍보를 하여 사업 수행전이나 수행과정에서 효과를 극대화 시켰는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의 방법과 관련하여 각 선정된 단체의 홍보, 기획, 마케팅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자 워크샵을 개최하는 재단들이 있는데, 이때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도 중요하지만, 강화된 역량을 실제 홍보 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 시기도 중요함. 가능하면 사업 수행 초기인 사업 시작 단계에 그러한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제공함으로서 사업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강화된 역량이 전문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지향해야 함.

□ 매월 개최되는 문화예술 관련 포럼 등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이 있으며, 종합안내소들이 운영되는 등 홍보 마케팅 과정과 현황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홍보 수단과 기구들의 이용객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 어떤 내용의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나 진단은 전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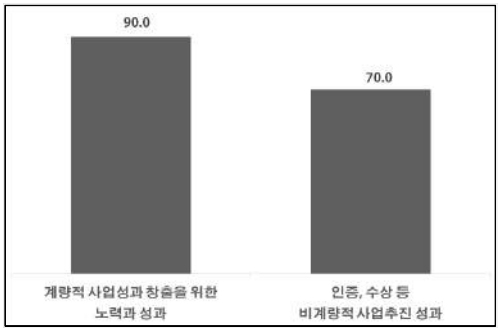
□ 일부지역에서는 언론노출 건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보도자료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전국의 모든 지역과 행정 분야의 모든 부처, 모든 언론과 방송에서 문화부문의 필요성과 문화부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보도자료도 좀 더 전문성 높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음.

□ 우수사례 : 전남지역

- 대담 미술관의 경우 대만 문화부의 후원으로 국제문화교류의 수평적 지원 모델을 제시하고, '한국 기자단 워크숍'을 통해 특화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음.

4. 사업 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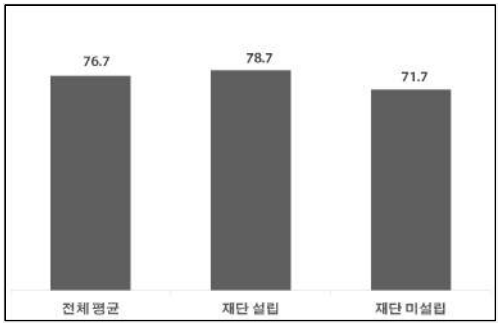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 추진 성과



[그림 96]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90.0점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 추진 성과	70.0점
지표 평균	80.0점

[표 98]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97]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8.7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1.7점
전체 평균	76.7점

[표 99]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교류활성화 사업은 일반적으로 '움직여서 만나는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사업의 성과나 목표에 대해 엄격하게 혹은 일정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기 보다는 '만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다소 느슨한 담론들이 문화계 내부에 산재해 있는 경향성을 보임. 그러나 공적비용을 투입한 사업의 경우, 과정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궁극적으로 공공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고유한 특성을 간과할 수 없음.

– 성과나 목표의식 없이 만나더라도 교류현장의 자극이 예술인의 시각과 촉각 등 모든 감각과의 접점을 통해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관점에서 성과가 누적될 수 있겠으나 과정적으로나 사업종료 직후의 결과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과 등 교류기획자와 교류주체는 교류 사전에 설계하고 합의한 성과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력 발현 필요

– 물론 자기 비용을 투입하여 자율적으로 교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한 느슨한 담론을 적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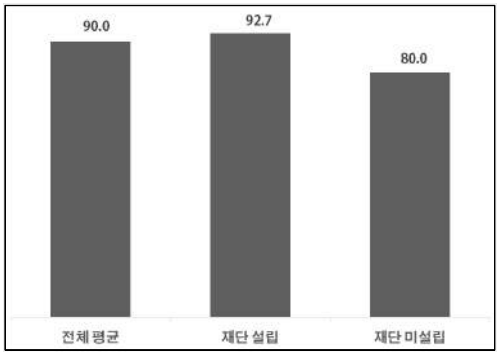
평가한다고 할 때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타당하지 않음. 오히려 그러한 열린 시도들이 교류의 형태와 내용을 풍부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교류활성화 사업의 추진성과는 사전 기획단계의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단순히 기술된다면 교류주체인 예술인들이 얻게 된 정서적, 지적, 예술적인 아이디어와 같은 성과들을 표현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량적인 성과와 비계량적인 성과로 대별해서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서술할 수 있도록 성과 판단의

- 계량적인 내용은 교류 빈도나 교류 참여 주체의 수, 교류현장에 참여한 관객과 지역민 수, 그리고 교류 사업의 비평 및 보도 건수 등임. 빈도나 참여자 수나 보도 건 수 등의 허구성을 주장하면서 냉소적인 비판이 가해지기도 하지만, 대안이 없는 비판에 비해 상대적이고 현실적으로 교류 참여자인 예술가 한 사람 한 사람, 지역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보도하는 홍보인 혹은 매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휴먼웨어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비계량적인 성과로 현재 제시된 평가지표들은 작품의 수상이력과 국내외 페스티벌 공식초청 여부 등인데, 이는 그야말로 예시일 뿐이며, 이 예시에 함몰될 필요는 없으며, 지역 자체적으로 교류 사후에 교류 기획자와 교류주체들의 평가회의를 통해 발화된 다양한 성과들이 일정한 유형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기술될 수 있음.

가.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평가 요소	• 사업목표대비 계량적 사업성과 수준과 적절성
• 평가 참고 자료	• 부문별 사업에 대한 관람객 수, 발표작품 수, 참여예술인 수 등에 대한 입증 자료



[그림 98] 교류활성화 부문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92.74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80.0점
전체 평균	90.0점

[표 100] 교류활성화 부문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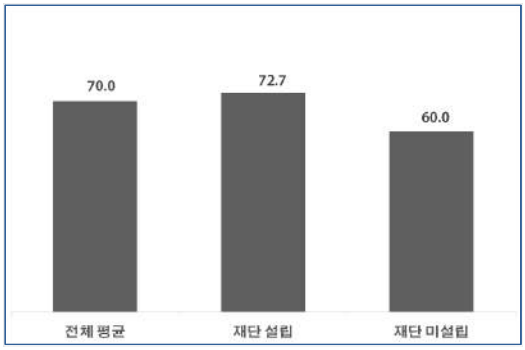
□ 2013년 대비 창작 참여자, 그들의 성과물과 교류 과정의 관람객 수가 계량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폭으로 증대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비롯한 교류활성화 사업이 발전의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국외에서 참여한 입주 작가도 특정 지역의 경우 과반수에 근접하고 있어, 창작 몰입 중에도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몇 몇 지역은 계량적 사업성과를 기술함에 있어서 성과만 보여주고, 그 성과를 있게 한 설계 당시의 목표치와의 비교는 누락시키고 있음. 또한 계량적 성과목표를 '10% 확대' 등으로 설정한 지역들의 경우, 그 10%의 기준이 전혀 보이지 않음.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는 임의적인 성과목표는 설득력이 낮음.

□ 대다수의 지역이 계량적 사업성과를 충분할 정도로 창출하고 있음. 예술인 1인당 평균 관람객이 200명 이상인 것이 기본적인 수준임. 관람객이 예술인 1인당 120명 정도이면 낮은 편에 해당될 정도임. 따라서 이러한 계량적 관람객의 경우, 셈하는 방식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나.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 평가 요소	•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특성화사업 부문별 각 1건의 Best Practice를 선정하여 그 비계량적 성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 제시한 Best Practice(최우수 사례)의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실적, 작품(예술가)의 수상 실적, 국내외 페스티벌 초청(참가) 실적, 핵심 예술시장 유통 실적, 예술작품(공연, 전시 등) 시장 판매 실적 등을 정리한 자료 • 그 외에도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 추진 성과를 보여주는 사업 부문별 우수 사례들에 대한 비계량적 성과 증빙 자료



[그림 99] 교류활성화 부문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2.7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0.0점
전체 평균	70.0점

[표 101] 교류활성화 부문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우수사례 1 : 경북지역

– 비계량성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 수행기관의 학예실장이 '올해의 큐레이터 상' 을 받는 등 증빙자료가 제시됨. 특히 시안미술관 레지던시 입주작가는 작가 프로그램등 지원을 통하여 완성된 창작품들과 그 과정들을 특별기획전시로 구성하여 전시하는데, 입주작가들은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하여 전시의 방향을 세우고 이러한 과정에서 입주기간동안 공동의 목표가 생김으로써 더 높은 창작열의를 위한 동기를 부여받음.

□ 우수사례 2 : 충남지역

– 충남 레지던스프로그램 수행 4개 단체가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신청사에서 지역 사상 최초로 도내 주요 창작공간 공동기획 전시를 '아트파티' 라는 이름으로 개최함. 국내외 작가 36명이 참가하는 등 창작교류를 활성화하고 22,000여 명의 공무원 및 주민들과 레지던스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함

□ 우수사례 3 : 경남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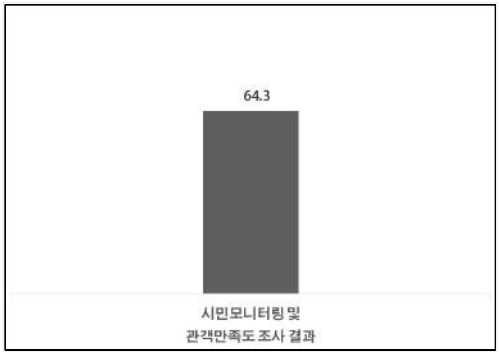
– 정수예술촌은 경남 진주에 위치한 시각분야 레지던스 공간으로 입주작가들의 창작여건 조성을 위한 운영진의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입주작가가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 우수사례 4 : 전북지역

– 문화예술공동체 '감' 은 2014년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성과공유 워크숍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됨.

5. 평가와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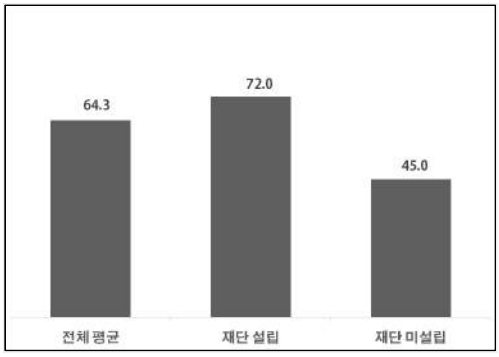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그림 100]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64.3점
지표 평균	64.3점

[표 102]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101]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2.0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45.0점
전체 평균	64.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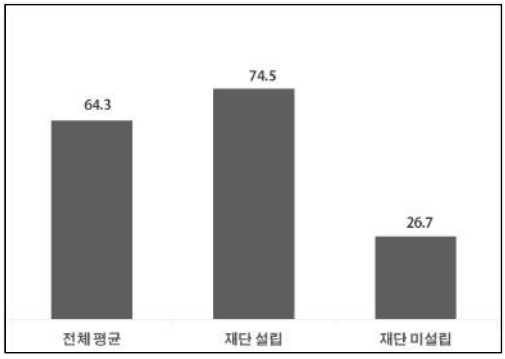
[표 103]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교류활성화 부문의 평가는 교류사업의 전체적인 운영을 전담한 기획자 등 운영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평가와 시민모니터링, 참여한 관객의 만족도 조사 등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됨. 특히 평가 시기의 이러한 다각적인 평가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로 완료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평가 결과의 환류 방식까지 기술하게 함으로써 교류활성화 사업의 발전적인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음.

□ 전문가 평가와 시민모니터링과 관객의 만족도 조사는 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평가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상대적인 만족도의 증감도 등에 대한 단순 통계치 뿐 아니라 증감의 원인에 대한 자체 진단을 가능하게 하여, 향후 교류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을 기대할 수 있음.

가.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 평가 요소	• 사업 부문별 시민모니터링 결과 • 사업 부문별 관객 만족도 조사 결과
• 평가 참고 자료	• 시민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등 관객만족도를 입증할 수 있는 요약 자료 •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첨부자료로 제출



[그림 102] 교류활성화 부문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4.5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26.7점
전체 평균	64.3점

[표 104] 교류활성화 부문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교류활성화 사업이 국외에서 행사로 수행될 경우,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술한 지역이 많았으나, 다각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사전에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지 등을 기획하고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현장에서의 모니터링과 설문조사, 관객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것이 현실임. 한국문화원이 있는 곳은 문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미 교류 대상국과 대상 단체와 대상 개인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모니터링 결과는 자체보고서 내에 제시되고 있으나 평가단이 문제제기한 것들이나 만족도 조사 결과들을 어떤 형태로 차기 년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용방안을 제시한 지역은 희소함. 특히 모니터링 건수를 마치 계량적인 성과처럼 거의 2배 정도 증대시킨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건수 증대가 핵심이 아니고, 증대된 건수를 통해 나온 결과를 어떻게 사업에 반영하여 교류활성화 사업의 질을 증대시킬 것인가가 관건임. 모니터링 건수가 너무 많을 경우,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수행자들이나 기획자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의 기획이 다시 필요해짐.

□ 관객만족도 조사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지역도 다수 있음. 그리고 만족도 조사가 관객 중심이고 실질적으로 교류와 창작의 주체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입주자인 예술인들의 견해들을 수렴하지 않고 있어서, 후속 보완요소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예술인들의 견해가 표현되지 않고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지역도 다수 있음.

□ 우수사례 1 : 부산지역

- 부산에서는 시민평가단 운영이 정례화 되어가고 있어 체계성이 기대됨. 게다가 2013년 우수 평가자 42명을 포함시키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시민들의 모니터링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바람직함. 시민모니터링은 사업평가 뿐 아니라 미래의 예술고객 확보, 즉 예술 향유층 양성과도 직결되는 작업이므로 점진적으로 중요도를 높여 가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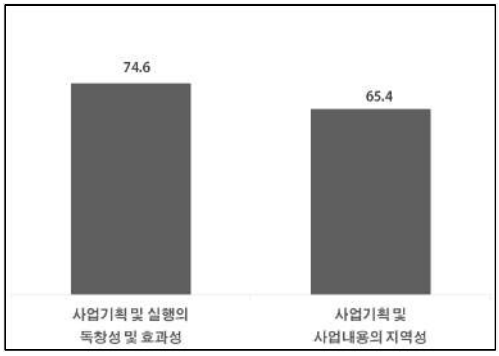
□ 우수사례 2 : 충북지역

- 충북의 북부, 중남부, 선정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모니터링을 전문가와 도민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음. 게다가 문화리포터를 양성하여 시군별 3~5명으로 운영한 점이 체계적 사고를 하는 기관의 면모를 알 수 있게 함.

제1-4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1.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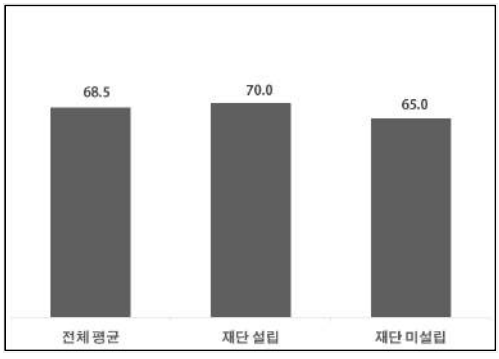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그림 103]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74.6점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65.4점
지표 평균	70.0점

[표 105]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478]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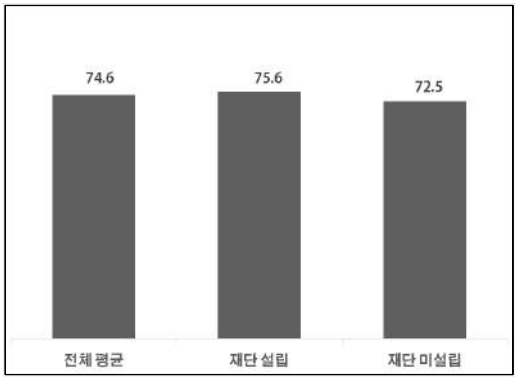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0.0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5.0잠
전체 평균	68.5점

[표 106]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평가는 시민참여활성화 부문이 지역별 차별화된 사업기획력 반영여부와 창의적인 사업실행방식의 채택여부, 사업실행방식의 효과성,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을 평가하는 항목임.

가.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평가 요소	• 차별화된 사업기획력 반영 여부 • 창의적 사업실행방식의 채택 여부 • 사업실행방식의 효과성 여부
• 평가 참고 자료	• 사업기획의 차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정리자료 및 증빙자료 •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식에 있어서 독창성이 사업 성과로 드러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사업결과보고서, 보도기사, 전문 예술 평론가의 평론 등)



[그림 105]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5.6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2.5점
전체 평균	74.6점

[표 107]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이 항목은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5점이 배점되어 있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가락우리마당을 시민참여활성화 부분에 포함시켰고,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개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고 우리가락우리마당 9개, 우리가락우리마당과 시민참여활성화사업 기획 1개, 시민참여활성화사업 기획 3개로 시행하였음.

□ 우리가락우리마당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악의 대중화와 공연장소의 명소화를 사업목표 설정하였고, 프로그램 운영방식과 구성면에서 지역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부산의 경우 생활예술지원사업, 경기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경남 도민예술활동지원, 제주 도민문화표현활동지원 등 지역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기획과 진행을 하였고, 강원의 경우 우리마당우리가락을 재단에서 직접 기획, 운영하며 중장기로드맵을 수립하고, 영동과 영서 2곳에서 진행하였음.

□ 시민참여활성화 사업의 경우 육성지원사업 중 시민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역의 생태나 환경을 반영하여 독창성을 살릴 수 있는 참신한 기획이 필요함.

□ 우수사례 1 : 경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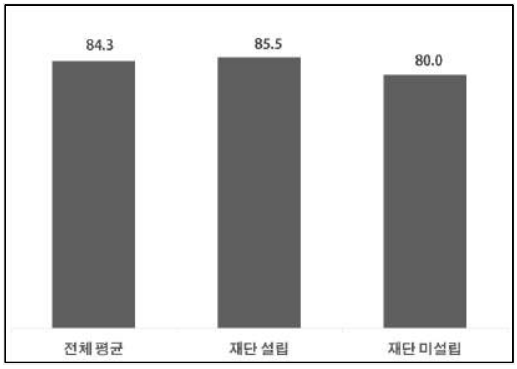
- 경기도의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는 3년간 지속되었던 사업을 시민참여활성화 영역으로 분류하면서 지역공동체와 예술단체 연계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키며 지역문화기반시설을 활성화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우수사례 2 : 부산지역

- 부산지역은 기존 용두산공원에서 진행하던 우리가락우리마당을 부산시민공원으로 공간이전하면서 전체 출연진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였고, 생활예술지원사업으로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관련 시민예술동아리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나.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 평가 요소	• 사업기획 및 내용에 있어서 지역특화문화자원의 연계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사업기획에 있어서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반영한 기획임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식에 있어서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에 대한 활용이 잘 드러난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사업결과보고서, 보도기사, 전문 예술 평론가의 평론 등)



[그림 106]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5.5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80.0점
전체 평균	84.3점

[표 108]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이 항목은 사업기획 및 내용에 있어서 지역 특화문화자원의 연계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10점이 배점되어 있음.

□ 우리가락우리마당의 경우 지역 특화문화자원의 연계에는 한계가 있고, 전통국악의 대중화와 야외공연장의 명소화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임. 지역명인 명창의 초청무대, 신진예술가의 발굴과 참여, 시민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한 초청공연 등 지역의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공연구성과 진행을 대부분 지역에서 반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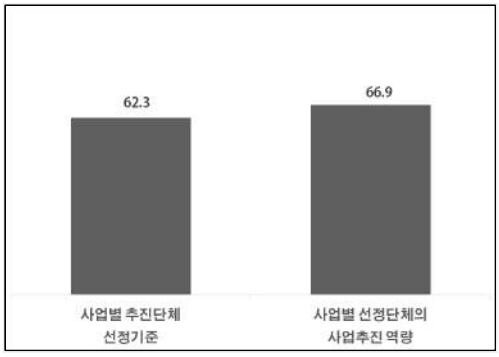
□ 시민참여활성화 사업으로 기획한 부산의 생활예술지원사업, 경기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경남 도민예술활동지원, 제주 도민문화표현활동지원 등은 지역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기획과 진행을 하였음.

□ 우수사례 : 강원지역

- 강원의 경우 우리마당우리가락을 재단에서 직접 기획, 운영하며 중장기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역특화자원 10개 콘텐츠를 활용하여 영동과 영서 2곳에서 진행하였음.

2. 사업추진 기초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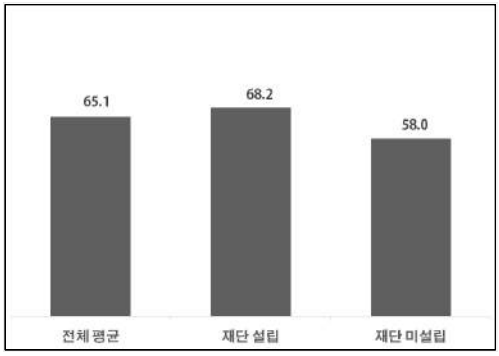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 기준
  -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 추진 역량



[그림 107]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 기준	62.3점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 추진 역량	66.9점
지표 평균	64.6점

[표 109]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108]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68.2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58.0점
전체 평균	65.1점

[표 110]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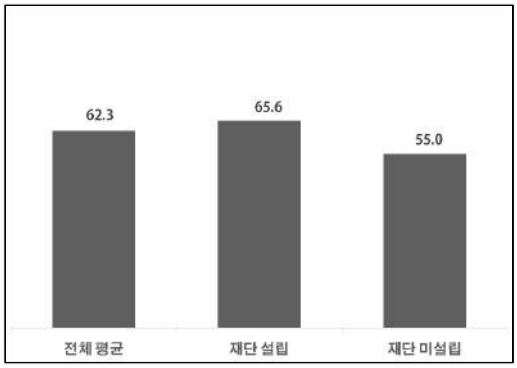
□ 사업별 추진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율의 적정성 여부와 선정단체의 사업추진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5점이 배점되어 있음.

□ 우리가락우리마당의 경우 전문예술법인의 지속적인 참여와 진행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선정기준, 절차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시민참여활성화 사업으로 기획한 부산의 생활예술지원사업, 경기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경남 도민예술활동지원, 제주 도민문화표현활동지원 등은 사업의 성격상 전문예술법인의 참여가 높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가.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 기준

• 평가 요소	• 선정 기준 및 선정율의 적절성 여부 • 평균지원액 규모 및 중복 지원 제한 여부
• 평가 참고 자료	• 부문별 사업에 대한 선정단체 선정 기준과 사업부문별 연차별 선정율 자료 • 사업부문별 평균지원액의 연차별 추이를 볼 수 있는 자료



[그림 109]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 기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65.6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55.0점
전체 평균	62.3점

[표 111]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 기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사업별 추진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율의 적절성 여부와 평균지원액 규모 및 중복지원 제한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2점이 배점되어 있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였는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적절한 선정율 수준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문예술법인을 선정하고 있고, 지역별 선정기준과 신규단체의 참여율을 명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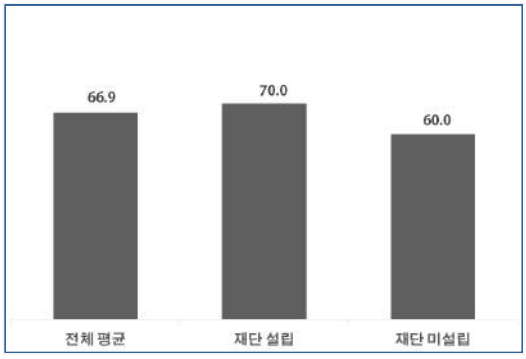
□ 시민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구분하여 독자적인 배분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음.

□ 우수사례 : 경남지역

- 전국 최초로 활동분야별 지원으로 전환하였고, 중앙지침에 의거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원칙, 지원신청대비 선정율 50% 이하를 준수하고 있음. 전문예술단체가 우선순위이며, 창작역량 및 예술활동 능력에 맞추어 활동 분야별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운용하고 있음.

나.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 평가 요소	•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비율 • 선정단체가 사업수행에 적절한 단체인가? •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여부
• 평가 참고 자료	• 부문별 선정 단체의 지원 금액 중 최고액과 최저액 지원단체의 단체 소개 및 이력 자료 • 지원사업 안내문에 참여 자격(기준)에 대한 기술 내용 • 부문별 선정단체들의 성격, 지원수혜경력, 전문예술법인(단체)여부 등을 정리한 자료 • 지자체나 재단이 예술단체의 전문예술법인화에 대한 교육, 지원 등 활동 추진 여부 • 부문별 협력 연계 필요 기관과의 협력관계 수준 및 협력 활동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



[그림 110]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별 추진단체의 사업 추진 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0.0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0.0점
전체 평균	66.9점

[표 112]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별 추진단체의 사업 추진 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의 비율과 사업수행에 적절한 단체인가,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3점이 배점되었음.

□ 우리가락우리마당과 시민교류활성화 기획사업의 선정단체 선정기준이 전문예술법인과 일반시민참여로 다를 수밖에 없음.

□ 광역재단과 기초재단,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인 사업진행과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음.

□ 우수사례 1 : 강원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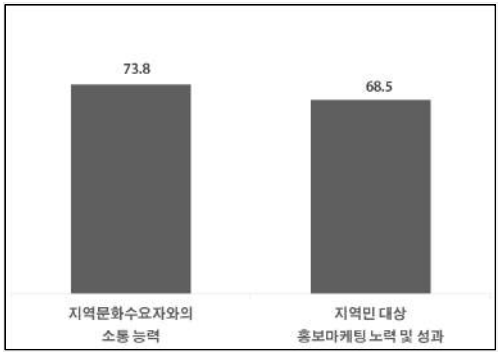
- 강원지역의 경우 전문예술법인의 선정율이 38%이고, 선정기준, 심의절차, 모니터링, 신규단체 참여 확대를 위한 원칙을 제시했으며, 우리가락우리마당 네트워크 체계구축으로 강원문화재단, 지자체, 유관기관의 협력 업무분장을 통해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사업진행 관리체계 구축함.

□ 우수사례 2 : 충북지역

- 충북지역의 경우 주관단체 신청 홍보를 위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선정단체 대상 설명회실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성과 공유 워크숍 실시하였으며, 충청북도, 11개 시·군, 문화예술단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음.

3. 사업 운영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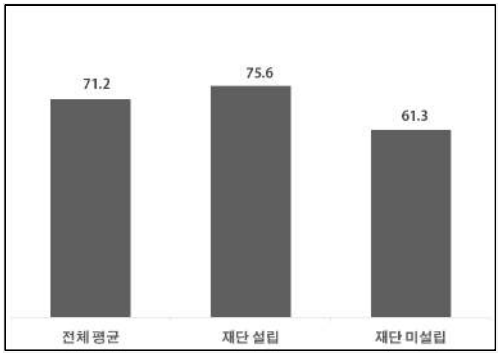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그림 110]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73.8점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68.5점
지표 평균	71.15점

[표 113]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111]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5.6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1.3점
전체 평균	71.2점

[표 114]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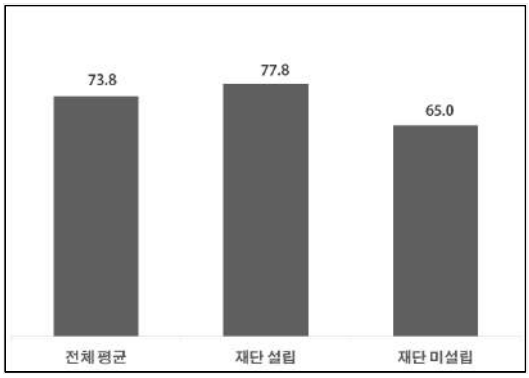
□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과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20점이 배점되었음.

□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분석,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운영수준, 특화되고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 운영수준을 평가함.

□ 지역문화 수요분석과 관련한 연구, 조사여부 및 증빙자료와 워크숍, 포럼,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활동 여부를 근거로 평가하였으며, 특화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과 실행여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자문, 워크숍 등의 추진여부를 토대로 검토하였음.

가.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평가 요소	•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분석 여부 •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운영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지역문화수요 분석 관련 연구, 조사 여부 증빙자료 • 사업부문별로 지역민들의 문화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업부문별로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을 알 수 있는 자료



[그림 112]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7.8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5.0점
전체 평균	73.8점

[표 115]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으로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분석,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운영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10점이 배점되었음.

□ 문화사랑방이나 정기적인 의견수렴 창구의 운영여부, 포럼, 워크숍, 설문조사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자의 참여와 의견수렴 여부를 확인하였음.

□ 지역별 편차가 있기는 하나, 정례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있고, 학습형 프로그램의 시도와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 우리가락우리마다의 경우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특성상 공연중심의 기획으로 부대행사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우수사례 1 : 경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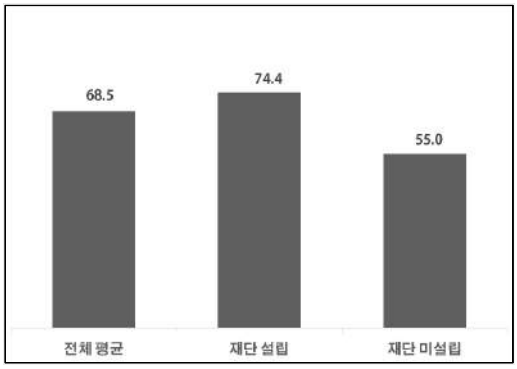
- 경기지역의 경우 12개 시 문화기획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 의견수렴을 위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우수사례 2 : 경남지역

- 경남지역의 경우 선정단체 관람객 대상 관람수기 및 설문조사를 필수로 명시하고 있고, 지역민 참여프로그램 필수, 도민평가단을 활용한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

나.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 평가 요소	• 사업별로 특화된 홍보마케팅 추진 여부 • 지역민 참여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사업부문별로 특화된 홍보마케팅 추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홍보,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림 113]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4.4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55.0점
전체 평균	68.5점

[표 116]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사업별로 특화된 홍보마케팅 추진여부와 지역민 참여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10점이 배점되었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 기획홍보, 이벤트 홍보 등을 병행하는 지역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 수행단체 대상 홍보, 기획, 마케팅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컨설팅,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운영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음.

□ 단순한 보도자료 배포와 포스터, 리플렛 등 소극적인 홍보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과의 편차가 아직은 있어 보임.

□ 우수사례 1 : 전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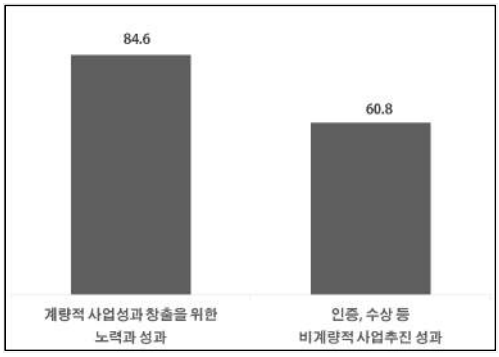
- 전북지역의 경우 문자발송활용, 라디오프로그램 안내방송 22회 진행, 자막광고, 교육청 협력 청소년층 공략, 문화관광프로그램 연계 공동 마케팅추진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 진행하고 있음.

□ 우수사례 2 : 대전지역

- 대전지역의 경우 문화행사 안내소 '문화곳간' 을 운영하고 있고, 수혜단체 대상 기획경영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음.

4. 사업 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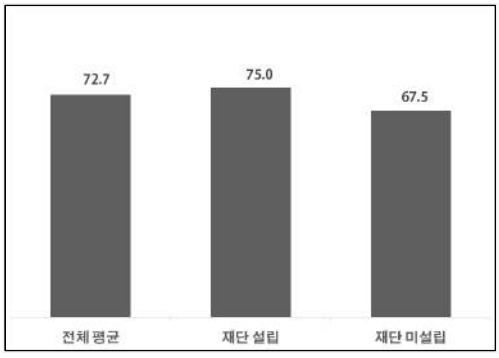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 추진 성과



[그림 114]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84.6점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 추진 성과	60.8점
지표 평균	72.7점

[표 117]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115]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5.0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7.5점
전체 평균	72.7점

[표 118]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10점이 배점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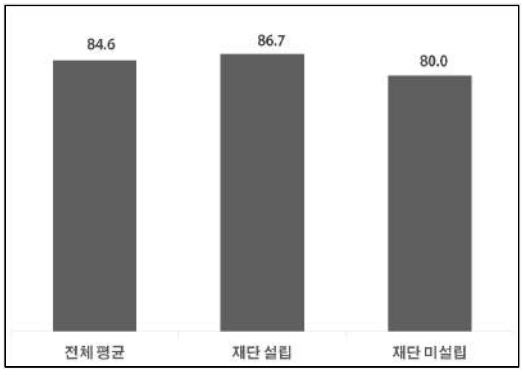
□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를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부문별 사업에 대한 관람객수, 발표작품수, 참여예술인 수 등을 파악하고, 사업의 기획과 구성에 반영하는 여부를 확인하였음.

□ 계량적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단순한 관람객수, 발표작품수, 참여예술인수 등이 많고 적음보다는 분석, 관리, 반영여부를 확인하였음.

□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는 지역대표 브랜드화, 수상실적, 국내외 페스티벌 초청여부 등을 확인하였음.

가.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평가 요소	• 사업목표대비 계량적 사업성과 수준과 적절성
• 평가 참고 자료	• 부문별 사업에 대한 관람객 수, 발표작품 수, 참여예술인 수 등에 대한 입증 자료



[그림 116]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6.7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80.0점
전체 평균	84.6점

[표 119]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사업목표대비 계량적 사업성과 수준과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5점이 배점되었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관람객수, 발표작품수, 참여예술인수를 제출하고 있으나, 신뢰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많고 적음보다는 계량성과의 지속적인 파악과 관리,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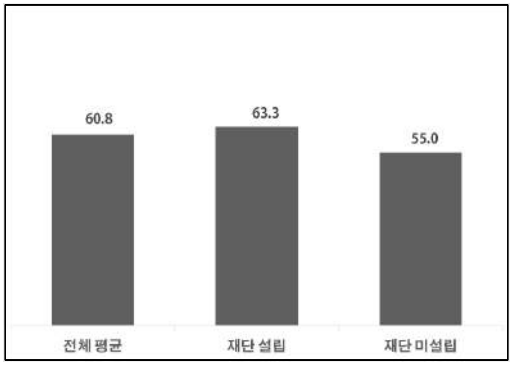
□ 계량성과의 파악도 중요하지만 분석을 통한 기획의 반영, 평가, 환류 등 다각적인 활용이 아쉬움으로 남음.

□ 우수사례 : 강원지역

- 강원지역의 경우 관람객수 166.5%, 관객만족도 110%, 공연 개최수 100%, 예술인단체 참여수 116.7% 를 달성하였음.

나.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 평가 요소	•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특성화사업 부문별 각 1건의 Best Practice를 선정하여 그 비계량적 성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 제시한 Best Practice(최우수 사례)의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실적, 작품(예술가)의 수상 실적, 국내외 페스티벌 초청(참가) 실적, 핵심 예술시장 유통 실적, 예술작품(공연, 전시 등) 시장 판매 실적 등을 정리한 자료 • 그 외에도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 추진 성과를 보여주는 사업 부문별 우수 사례들에 대한 비계량적 성과 증빙 자료



[그림 117]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63.3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55.0점
전체 평균	60.8점

[표 120]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지역 배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5점이 배점되었음.

□ 지역을 대표할 만한 문화브랜드를 만들고 있는지, 우수프로젝트가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지, 수상실적, 페스티벌 초청여부, 유통, 판매 실적 등을 확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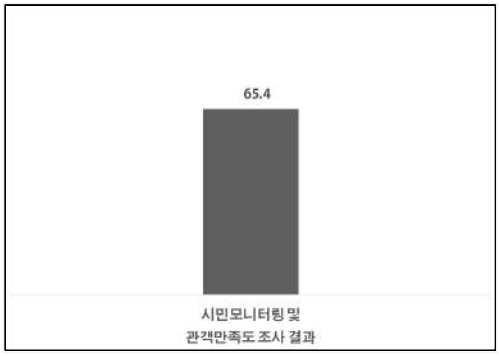
□ 우리가락우리마당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통문화예술공연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고, 야외공연장의 명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수사례 : 경남지역

- 경남지역의 경우 장르별 기금배분에서 활동분야별 지원으로 전환하였고, 도민예술발표 활동을 주민밀착형활동으로 설계하여 예술단체들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둠.

5. 평가와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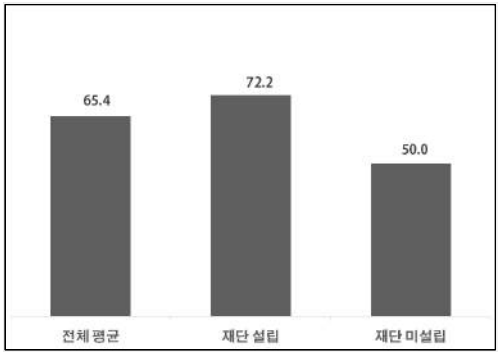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그림 118]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65.4점
지표 평균	65.4점

[표 121]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119]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2.2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50.0점
전체 평균	65.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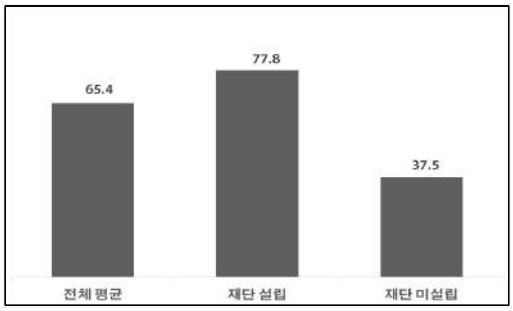
[표 122]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10점이 배점되었음.

□ 사업부문별로 시민모니터링조사와 관객만족도조사, 설문조사가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음.

가.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 평가 요소	• 사업 부문별 시민모니터링 결과 • 사업 부문별 관객 만족도 조사 결과
• 평가 참고 자료	• 시민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등 관객만족도를 입증할 수 있는 요약 자료 •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첨부자료로 제출



[그림 120]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7.8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37.5점
전체 평균	65.4점

[표 123]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재단이나, 수혜단체에서 자체 진행하는 지역과, 전문기관에 위탁용역을 진행하는 지역,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편차가 큰 항목으로 10점이 배점 되었음.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을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으로 진행하는 지역이 늘어가고 있으며, 시민모니터링, 전문가평가, 외부전문기관용역 등 다양한 형태의 관객만족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시민모니터링의 경우 시민평가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지역이 늘어가고 있음.

□ 우수사례 1 : 경남지역

- 경남 지역의 경우 도민평가단을 활용하여 사업별 모니터링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문가평가단, 도민홍보기획단을 운영하였음.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재설정하였고, 지역문화수요조사 실시하였음.

□ 우수사례 2 : 대전지역

- 대전 지역의 경우 충청문화관광연구원에 위탁용역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시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전문위원, 시민위원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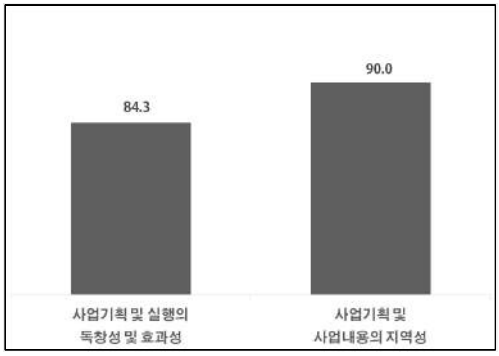
□ 우수사례 3 : 충청 지역

- 충청 지역의 경우 전문기관에 연구 의뢰하였고, 시민모니터링, 관객만족도 조사 진행하였음. 사전워크숍, 중간간담회, 성과공유워크숍 진행하였음.

제1-5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1.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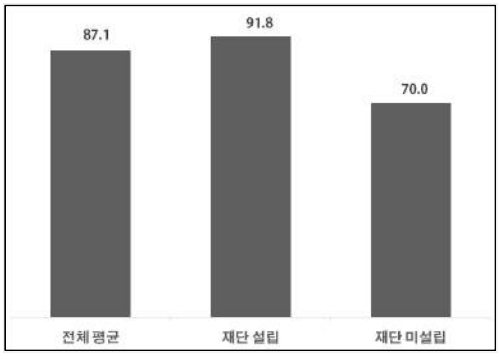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그림 121]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84.3점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90.0점
지표 평균	87.1점

[표 124]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122]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91.8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0.0점
전체 평균	87.1점

[표 125]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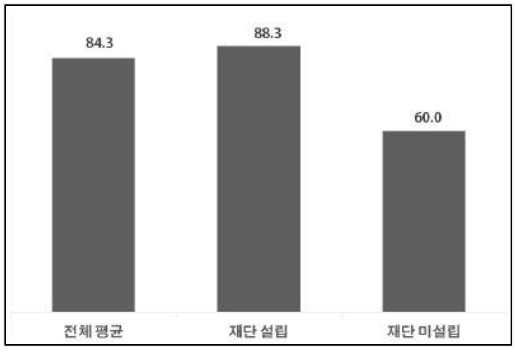
□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은 당해 사업에 대한 기획이 독창적이고 효과성이 있는가를 평가하며, 아울러 기획 및 내용이 지역특성을 잘 반영한 것인지를 평가함.

□ 사업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은 차별화된 사업기획력의 반영여부, 창의적 실행방식 채택여부, 사업실행방식의 효과성 여부를 평가함.

□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은 사업기획 및 내용에 있어서 지역 특화문화자원의 연계수준을 평가함.

가.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평가 요소	• 차별화된 사업기획력 반영 여부 • 창의적 사업실행방식의 채택 여부 • 사업실행방식의 효과성 여부
• 평가 참고 자료	• 사업기획의 차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정리자료 및 증빙자료 •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식에 있어서 독창성이 사업 성과로 드러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사업결과보고서, 보도기사, 전문 예술 평론가의 평론 등)



[그림 123]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8.3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0.0점
전체 평균	84.3점

[표 126]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은 전국 평균 84.3점임. 이를 재단 설립유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단이 설립되어 재단이 추진하는 지역은 88.3점, 미설립 지역은 60.0점으로 추진 주체에 따라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추진방식을 보면, 지역의 특성화된 기획으로 사업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단의 일반적인 사업을 특성화사업으로 인식하고 추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더구나 실행방식에서 창의적인 방식을 모색하거나 실행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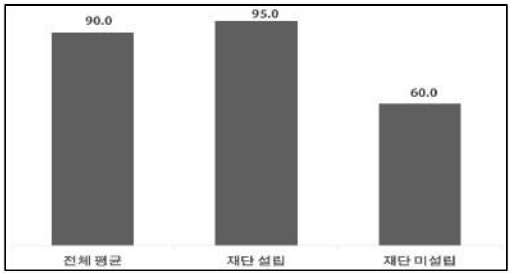
□ 결국, 기획의 독창성이나 콘텐츠의 창의성을 살려서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유한 성질의 장소성을 살려서 개발함으로서 콘텐츠의 효과를 높이는 전략으로 차별화 시키고 있음이 두드러짐.

□ 집행 행정절차상 리스크를 지닌 채 특별한 방식을 채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행방식은 대개 비슷한 실정임.

□ 재단 미설립 지역의 경우에는 이 지표를 실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평가결과 전체 평균보다 24.3점이나 떨어지는 점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문화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일반 행정관점으로는 차별화된 문화기획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임.

나.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 평가 요소	• 사업기획 및 내용에 있어서 지역특화문화자원의 연계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사업기획에 있어서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반영한 기획임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의 내용 및 추진 방식에 있어서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에 대한 활용이 잘 드러난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사업결과보고서, 보도기사, 전문 예술 평론가의 평론 등)



[그림 124]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95.0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0.0점
전체 평균	90.0점

[표 127]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기획 및 사업 내용의 지역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은 사업기획 및 내용에 있어서 지역특화문화자원과 어느 정도로 연계하여 추진하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지역특성화사업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임.

□ 평가결과 평균 점수가 90.0점에 이르고 있음. 그 가운데 재단설립지역의 경우는 95.0점, 재단미설립지역의 경우는 60.0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지역의 사업주체들이 기본적으로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지역고유의 문화사업을 펼치는데 주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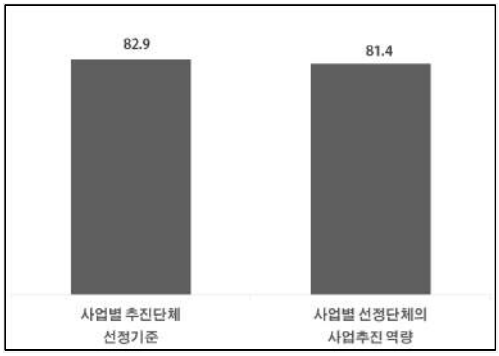
□ 지역의 자연자원, 역사인물, 설화, 전래되어 오는 예술장르를 현대화시킨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개발하여 사업화시킨 사례들이 두드러지고 있음.

□ 우수사례: 부산자연예술인협회가 추진하는 '무빙트리엔날레 메이드인부산' 은 해양도시 부산의 특징을 살린 복합축제로서 지역 문화단체들의 문화협동으로 이뤄지고 있음. 특히 장소성을 살려 기존 문화공간이 아닌 부둣가, 뒷골목, 산동네 등 일상공간에서 '마지막 출구' (전시), '무빙스테이지' (공연, 복합), '부산 문화생태보고서' (아트 투어, 학습) 등을 추진함. 부산의 장소성은 물론이고 지역 내 예술인과 단체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특징 있는 기획임을 알 수 있음.

□ 우수사례: 제주 '꿈꾸는 고물상' 은 방치되었던 감귤 창고를 서울에서 이주한 예술인 6명에게 제공하여 빈집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창작, 발표, 주민소통 공간으로 활성화함. 예를 들면 지역커뮤니티프로그램 '고물데이' , 창작콘텐츠개발 '레이니데이' , 공간정체성 확보 맴버십 프로젝트 '보물섬프로젝트' 를 시행하였음.

2. 사업추진 기초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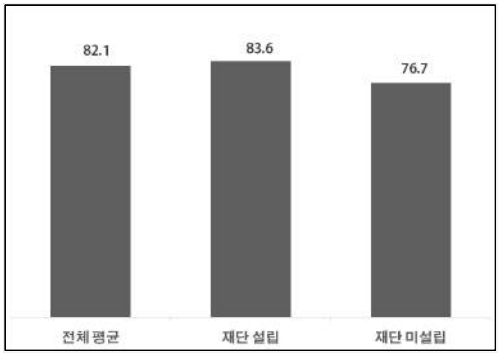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 기준
  -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 추진 역량



[그림 125]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 기준	82.9점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 추진 역량	81.4점
지표 평균	82.15점

[표 128]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126]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3.6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6.7점
전체 평균	82.1점

[표 129]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추진 기초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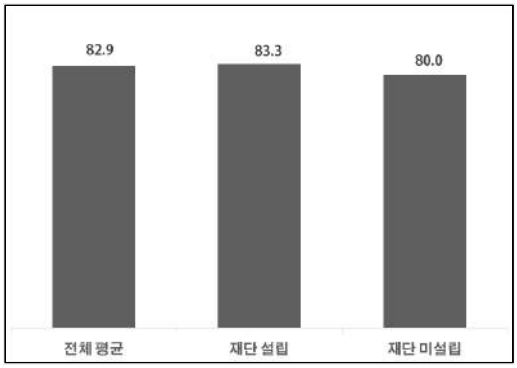
□ 사업추진 기초역량은 사업추진 단체를 적절하게 선정했으며 그 단체들이 사업을 추진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함.

□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은 선정기준 및 선정율의 적절성 여부, 평균지원액규모 및 중복지원 제한 여부를 평가함.

□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역량은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비율, 선정단체가 사업수행에 적절한 단체인가,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여부를 평가함.

가.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 기준

• 평가 요소	• 선정 기준 및 선정율의 적절성 여부 • 평균지원액 규모 및 중복 지원 제한 여부
• 평가 참고 자료	• 부문별 사업에 대한 선정단체 선정 기준과 사업부문별 연차별 선정율 자료 • 사업부문별 평균지원액의 연차별 추이를 볼 수 있는 자료



[그림 127]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 기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3.3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80.0점
전체 평균	82.9점

[표 130]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 기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이 지표는 선정 기준 및 선정율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평균 지원액 규모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적절한지 그리고 중복 지원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점수로 매긴 것임.

□ 전국평균 점수는 82.9점이며, 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인 지역은 83.3점이고 재단 없이 운영 중인 지역의 경우는 80.0점임. 결국 재단 설립유무에 따라 이 지표의 성과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으면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진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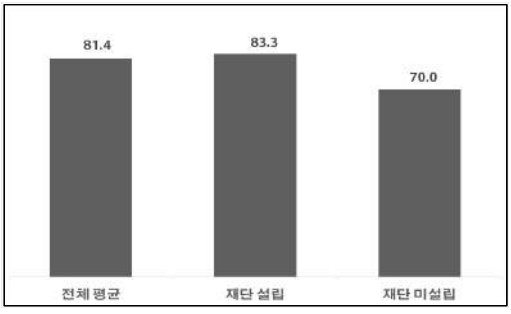
□ 이는 전국 지역들의 문화행정 역량이 거의 평균적으로 향상되어서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고 일을 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며, 각종 조건 제시, 절차 등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지원액 규모나 적정선정율 유지에 고심했음을 알 수 있음.

□ 중복지원 여부는 모든 지역의 사업에서 유의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나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봄. 그러나 사업 명칭을 달리 하거나, 사업 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현실적으로 여러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다고 보이므로 수혜 단체들을 선정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것임.

□ 사업선정에 절차적 합리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또한 중요하므로 매년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실적을 자료화하여 선정 시에 충분히 활용하여 최적 선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지역들이 이러한 부분에 유의해야 할 것임.

나.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 평가 요소	•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비율 • 선정단체가 사업수행에 적절한 단체인가? •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여부
• 평가 참고 자료	• 부문별 선정 단체의 지원 금액 중 최고액과 최저액 지원단체의 단체 소개 및 이력 자료 • 지원사업 안내문에 참여 자격(기준)에 대한 기술 내용 • 부문별 선정단체들의 성격, 지원수혜경력, 전문예술법인(단체)여부 등을 정리한 자료 • 지자체나 재단이 예술단체의 전문예술법인화에 대한 교육, 지원 등 활동 추진 여부 • 부문별 협력 연계 필요기관과의 협력관계 수준 및 협력 활동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



[그림 128]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3.3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0.0점
전체 평균	81.4점

[표 131]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이 지표는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또한 선정단체가 사업수행에 적절한 단체인가, 그리고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가를 평가함.

□ 평가 결과 전국 평균은 81.4점이며, 재단이 있는 지역은 83.3점이고 재단이 없이 운영하는 지역은 70.0점이었음. 이 부분 역시 재단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른 수준에 도달한 행정 절차라고 보임. 오랜 문화행정 경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에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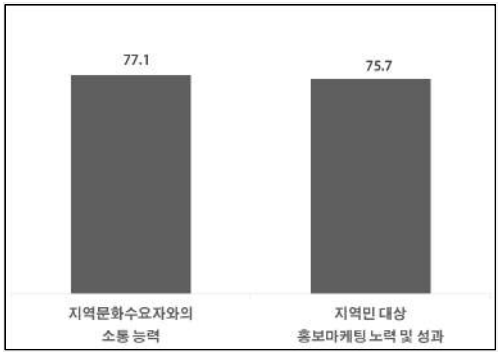
□ 사업 참여 단체의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신규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잘 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 전문예술법인제도가 정착된 수준이지만 지역마다 전문법인 수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전문성 있고 책임 있는 단체를 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노력이 요구됨.

□ 우수사례: 대구 극단 한울림 “황소바람 부는 날” 은 전국 뮤지컬 대본 공모전을 거쳐 저작권을 확보한 우수 콘텐츠를 지역극단 고유 레퍼토리로 육성하기 위해 극단 한울림에 지원한 사업임. 창작초연임에도 전국 8개 지역 순회공연 30회를 추진했고 작품성에 대해서도 호평을 받음. 대본 작가도 성장하여 국내 연극계에서 주목받고 있음.

3. 사업 운영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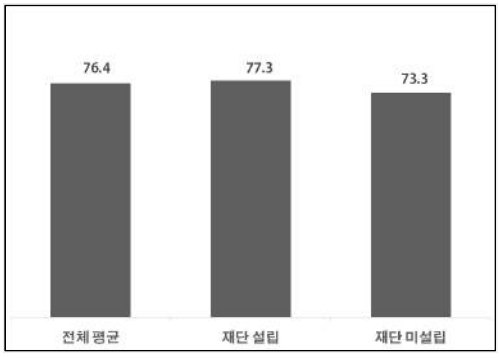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그림 129]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77.1점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75.7점
지표 평균	76.4점

[표 132]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130]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7.3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3.3점
전체 평균	76.4점

[표 133]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 운영의 적절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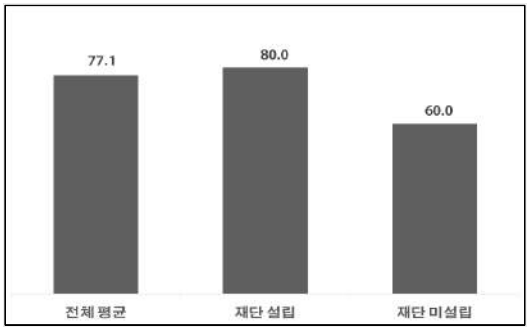
□ 사업운영의 적절성은 사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수요자와 소통을 얼마나 충분히 하였으며,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노력을 했는가에 대하여 평가함.

□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은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분석여부,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운영수준을 평가함.

□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는 사업별로 특화된 홍보마케팅 추진여부, 지역민 참여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을 평가함.

가.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평가 요소	•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분석 여부 •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운영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지역문화수요 분석 관련 연구, 조사 여부 증빙자료 • 사업부문별로 지역민들의 문화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업부문별로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을 알 수 있는 자료



[그림 131] 지역특성화 부문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0.0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0.0점
전체 평균	77.1점

[표 134] 지역특성화 부문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 능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이 지표는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평가결과 전국평균은 77.1점이고, 지역재단이 추진하는 경우는 80.0점이며 재단 없이 추진하는 경우는 60.0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단설립유무가 이 지표를 달성하는데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지역문화사업은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획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추진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사업설계와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 주민대상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을 중시해야함.

□ 문화재단의 사업전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면서 해당 사업의 항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거나, 사업추진단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조사하거나, 각종 워크숍이나 커뮤니티활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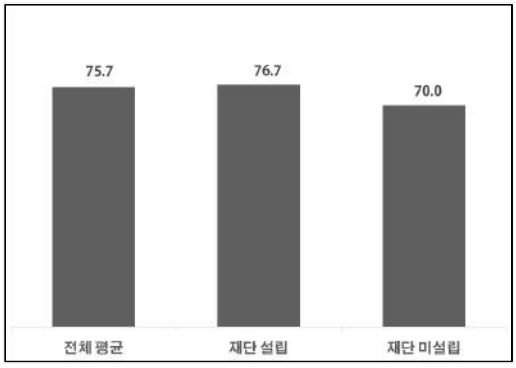
□ 결국 이러한 조사들을 프로그램을 주민관점에서 기획하고 맞춤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므로 기획에 잘 반영하고 맞춤기획을 만드는 데까지 확실하게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 우수사례 : 경남지역

– 경남 통영 연극예술축제위원회의 '색깔과 이야기가 있는 가는 개 공동체 문화마을' 사업은 지역 전문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협력하여 마을 전통문화를 살려내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냄. 이야기가 있는 공동체 문화마을을 조상하여 농식품부, 문화부, 통영시로부터 인정받아 수상실적이 많음.

나.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 평가 요소	• 사업별로 특화된 홍보마케팅 추진 여부 • 지역민 참여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사업부문별로 특화된 홍보마케팅 추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홍보,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림 132] 지역특성화 부문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6.7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0.0점
전체 평균	75.7점

[표 135] 지역특성화 부문 지역민 대상 홍보마케팅 노력 및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이 지표는 사업별로 특화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이 지표 평가결과 전국 평균은 75.7점이며, 재단이 있는 지역은 76.7점이고 재단이 없는 지역은 70.0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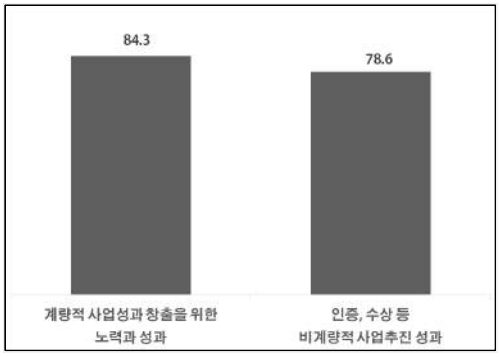
□ 이 지표의 경우는 지역이 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 이유는 마케팅과 홍보는 이제 기본적으로 각종 매체나 채널을 통해서 수행하는 행정 절차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더 바람직한 것은 각종 사업별로 사업특성에 알맞은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대상을 명확히 하는 홍보를 시행하는 것임. 이를 위해 담당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적절하게 활용하며, 온라인의 활용매체도 연령대별 대상자별로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홍보는 성과를 보고하기 보다는 새로운 기획에 도움이 되는 실질정보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 비교 활용토록 해야 함.

4. 사업 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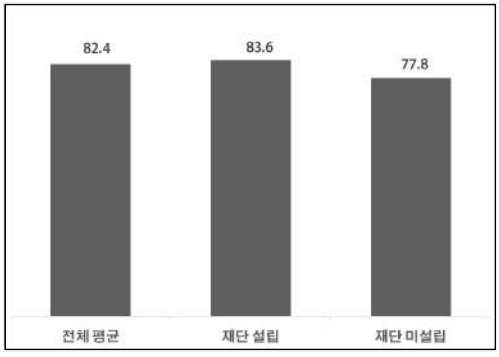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 추진 성과



[그림 133]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84.3점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 추진 성과	78.6점
지표 평균	81.45점

[표 136]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134]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3.6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7.8점
전체 평균	82.4점

[표 137]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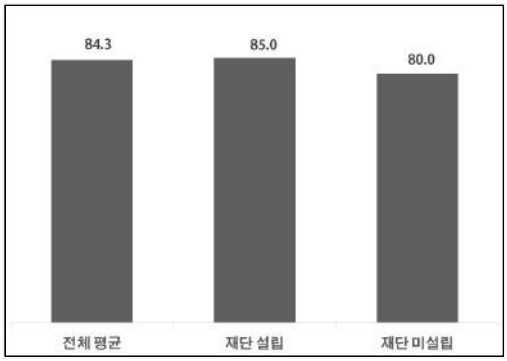
□ 사업추진 성과는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결과 달성한 계량적 성과를 평가하고 비계량적 성과로서 각종 인증과 수상 실적을 평가함.

□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 성과 수준과 적절성을 평가함.

□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성과는 지역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을 평가함.

가.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평가 요소	• 사업목표대비 계량적 사업성과 수준과 적절성
• 평가 참고 자료	• 부문별 사업에 대한 관람객 수, 발표작품 수, 참여예술인 수 등에 대한 입증 자료



[그림 135] 지역특성화 부문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5.0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80.0점
전체 평균	84.3점

[표 138] 지역특성화 부문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이 지표는 설정된 사업목표에 비해서 추진한 사업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그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임.

□ 평가결과 전국평균은 84.3점이며, 재단이 추진한 지역은 85.0점, 재단 없이 추진한 경우는 80.0점으로서 재단주체의 추진 유무에 그리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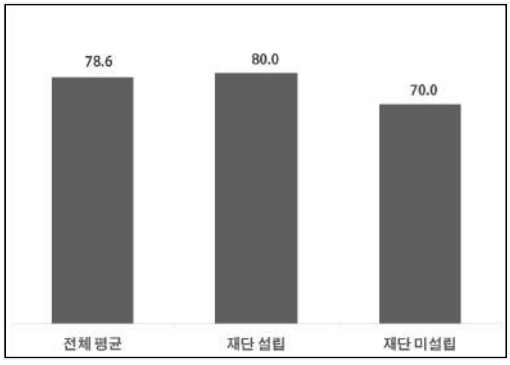
□ 계량적 사업성과는 당초 계량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의 객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표시해야함. 실제 많은 기관들은 전년 대비 기준 목표설정, 합리적 판단에 의한 절차를 거친 목표설정 작업이 없이 성과목표를 계량 수치로 나타낸 정황이 많이 보였음.

□ 계량목표를 설정할 때는 내부 관계자의 주관적 판단 외에도 워크숍, 외부 전문가 자문, 관련 축적된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합당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도 수립해서 일정별 목표치를 설정해야 의미가 있음. 참여업체들이 자체 성과목표로 제시한 수치를 단순 합산하지 말고 타당성 평가를 거친 뒤 수용해야 함.

□ 향후 평가를 할 때는 이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제시하고, 이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관람객수, 발표작품 수, 참여예술인 등에 대하여 일시별 장소별 객관적 데이터를 시계열로 작성하여 경영에 활용하도록 학습해야 할 것임. 지역의 문화행정이 성숙한 단계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 역량 구축에서부터 튼튼하게 반석을 다져야 할 것으로 평가됨.

나.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 평가 요소	•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특성화사업 부문별 각 1건의 Best Practice를 선정하여 그 비계량적 성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 제시한 Best Practice(최우수 사례)의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실적, 작품(예술가)의 수상 실적, 국내외 페스티벌 초청(참가) 실적, 핵심 예술시장 유통 실적, 예술작품(공연, 전시 등) 시장 판매 실적 등을 정리한 자료 • 그 외에도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 추진 성과를 보여주는 사업 부문별 우수 사례들에 대한 비계량적 성과 증빙 자료



[그림 136] 지역특성화 부문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0.0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0.0점
전체 평균	78.6점

[표 139] 지역특성화 부문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이 지표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를 창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의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얼마나 높은지에 대하여 평가함.

□ 평가 결과 전국 평균은 78.6점으로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임. 그 가운데 재단이 주체적으로 추진한 경우는 80.0점, 재단 없이 자치단체 행정력으로 추진한 경우는 70.0점으로 그나마 재단중심의 활동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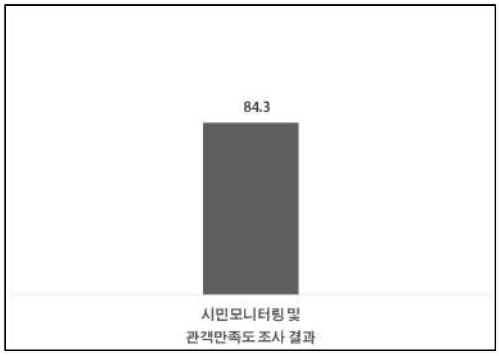
□ 장기간 유사 프로그램을 추진한 지역들은 대표적인 몇 가지 사업에서는 자랑할 만한 브랜드 창출에 성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간 교류와 각종 대회 수상을 이루고 있음. 이러한 실적가운데 글로벌 사업으로 뻗어가는 사례가 있었음.

□ 우수사례 : 대전지역

– '대전문화재단의 아티언스 대전' 사업은 관련 과학기술 연구단체들과 문화협동으로 다양한 결과물을 생산해내고 파격적인 전시장에서 시민과 공유하는 등 대전 지역의 대표적인 브랜드로서의 효과를 거두었음. 최근 예술융복합 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성과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 사업은 글로벌 브랜드로 정착시킬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만함. 다만, 이 사업에서 기술보다는 예술을 항상 우위에 두는 기획력이 돋보이도록 해야 할 것임.

5. 평가와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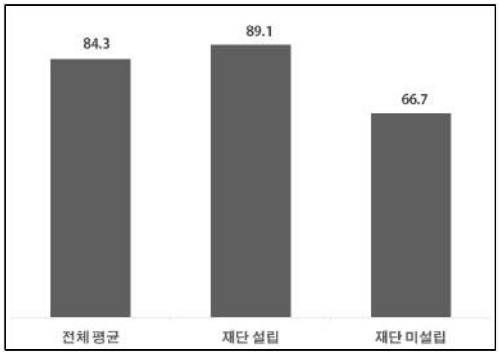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그림 137]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84.3점
지표 평균	84.3점

[표 140]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138]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9.1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6.7점
전체 평균	84.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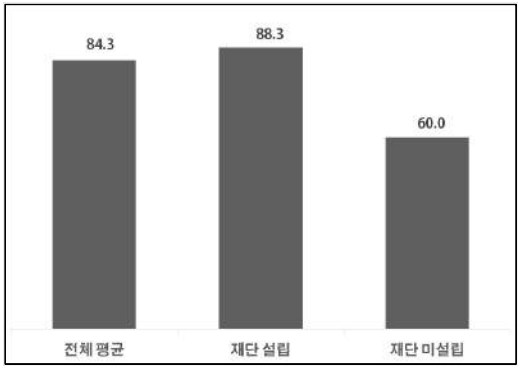
[표 141]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와 환류는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시민이나 관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만족도를 전문기관을 통해 달성하는가를 평가함.

□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결과는 사업부문별 시민모니터링 결과, 사업부문별 관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평가함.

가.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 평가 요소	• 사업 부문별 시민모니터링 결과 • 사업 부문별 관객 만족도 조사 결과
• 평가 참고 자료	• 시민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등 관객만족도를 입증할 수 있는 요약 자료 •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첨부자료로 제출



[그림 139] 지역특성화 부문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8.3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0.0점
전체 평균	84.3점

[표 142] 지역특성화 부문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이 지표는 사업 부문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사업 부문별로 실시한 관객 대상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평가함.

□ 평가 결과 전국 평균은 84.3점, 재단이 있는 지역은 88.3점이고 재단이 없이 사업을 수행한 지역은 60.0점으로 재단 유무가 사업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다른 평가지표와 달리 이 지표는 재단 유무가 중요했음. 재단이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이나 관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확실하게 조사를 위탁하여 성과를 다음 사업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이점에 대하여 재단 없이 문화행정을 펼치는 자치단체들이 학습해야 할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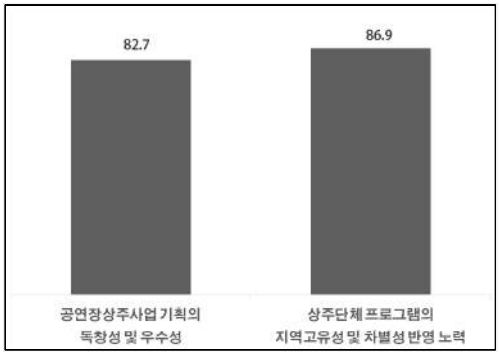
□ 조사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은 외부위탁, 자체조사, 시민평가단, 전문 모니터링단 활용 등 지역마다 매우 다르게 이뤄지고 있음. 가급적 해당 사업에 고유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됨.

□ 자체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체조사가 잘 이뤄지면 문제가 없지만, 주관적인 관점이나 다른 사업을 함께 묶어서 조사하지 않아야 함. 결국, 조사와 그 결과 피드백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도 객관성 유지에 주의해야하며 조사항목 설계를 정확하게 해야 조사결과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제2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1.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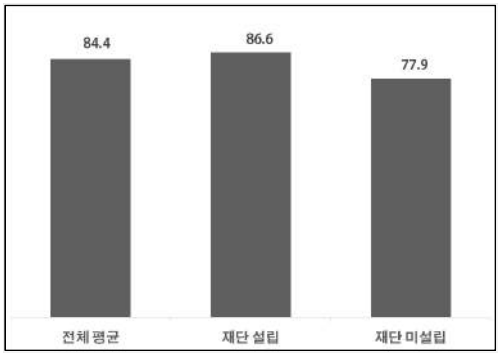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공연장상주사업 기획의 독창성 및 우수성
  - 상주단체 프로그램의 지역고유성 및 차별성 반영 노력



[그림 14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차별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공연장상주사업 기획의 독창성 및 우수성	82.7점
상주단체 프로그램의 지역고유성 및 차별성 반영 노력	86.9점
지표 평균	84.8점

[표 14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차별성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14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차별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6.6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7.9점
전체 평균	84.4점

[표 14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차별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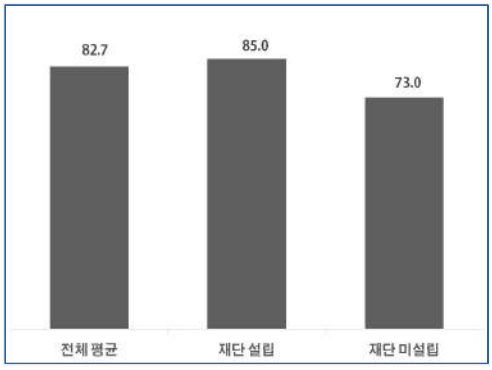
□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차별성' 을 지표는 공연장상주사업에 대한 계획과 추진체계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설계하여 운영하는 독창성을 가졌는지, 상주단체 프로그램이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차별성' 지표에는 20점이 배점되었으며, 백분위로 환산한 전국 평균은 84.4점, 재단 설립지역의 평균은 86.6점, 재단 미설립지역의 평균은 77.9점으로 나타남.

□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공연장상주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상주단체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화된 소재를 활용하여 창작하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음.

가. 공연장상주사업 기획의 독창성 및 우수성

• 평가 요소	• 사도 및 지역문화재단이 수립한 공연장상주사업 운영 및 지원계획의 독창성 및 우수성
• 평가 참고 자료	• 전년대비 상주사업 기획의 변화와 개선내용 정리 자료 • 지역만의 상주사업 운영시스템의 독창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림 14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기획의 독창성 및 우수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5.0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3.0점
전체 평균	82.7점

[표 14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기획의 독창성 및 우수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시 · 도 및 지역문화재단이 수립한 공연장상주사업 운영 및 지원 계획의 독창성, 우수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육성 목표를 설정하여 그 지역만의 독창적인 공연장상주사업 운영시스템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함.

□ 육성 영역 설계(성장단계별, 창작/커뮤니티 활성화), 광역 문화전략 연계, 연차별 단계별 지원, 지역균형지원(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신규 공연장 발굴, 필수 및 권장사항 조정, 질적 교류 확대(창작교류, 융복합 창작 등), 유통판로 개척, 상주방식 집중화(비상주 배제), 간접지원 확대 등 각 지역별 특성과 사업목표에 따라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수사례 1 : 서울지역

- 서울의 경우 재단에서 예술가와 단체의 성장단계별(입문-신진-중견-저명(원로)예술단체) 지원 체계를 설정하고 공연장상주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대상층을 정립함. 2012년부터 '공연예술창작활성화부문'과 '지역문화커뮤니티활성화부문'으로 지원 부문을 이원화하고, 각 부문별로 '새로운 작품 창작활동' 중심 사업, '지역관객수요를 반영한 공연 및 커뮤니티 활동' 중심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의 연극 특화 정책에 부합하여 이를 단체 선정에 반영하였음.

□ 우수사례 2 : 대구지역

- 대구의 경우 재단의 단계별 문화예술육성 지원 체계에 따른 추진 전략, 대구시의 '공연문화중심도시' 전략, 2014년 지역협력형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 추진 전략, 추진 체계, 세부

성과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4년 공연장상주사업의 목적, 사업선정방식, 수행 프로그램 등을 설정함. 또한, 각 공연장 및 상주단체별로 사업방향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특화하여 공연장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함.(지역소재 창작 레퍼토리 극장, 가족 단위 지역관객 개발, 클래식 전용극장, 창작 뮤지컬 등 특화)

□ 우수사례 3 : 강원지역

- 강원의 경우 전문단체 집중육성과 지원의 효과 제고를 위해 비상주 지원을 배제하고 상주단체만을 지원하고, 사업비 지원을 통한 직접지원방식과 교류지원 및 컨설팅 등 간접지원방식을 병행하는 방향을 세움.
- 또한, 단순 교류에서 벗어나 창작 중심의 교류 활동 장려를 위해 교류프로그램을 공모, 운영하여 상주 단체간 교류 1건, 해외 교류 2건, 교류 워크숍 3회, 창작레지던스 프로그램 1회, 창작 작품 2개 제작, 공연 축제 2회 개최함.

□ 우수사례 4 : 부산지역

- 부산의 경우 별도의 특화사업으로 '융복합 프로그램 기획 지원 사업'을 추진함. 상주공연장과 상주단체의 결연이 아닌, 2개 단체(공연장) 이상으로 구성된 페스티벌, 공연프로그램, 예술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술장르 혼합 구성을 지원하여 새로운 유형의 교류프로그램을 모색함.

□ 우수사례 5 : 전남지역

- 전남의 경우 재단과 전남도의 상위 정책, 지역의 문화수요, 2013년 운영 평가 결과 등으로부터 도출된 개선 요구 사항들을 분석하고, 지원사업 과제를 도출함. 2014년도는 특히 지자체와 공연장의 참여 확대, 수행단체의 지역 안착에 주력함.

□ 우수사례 6 : 제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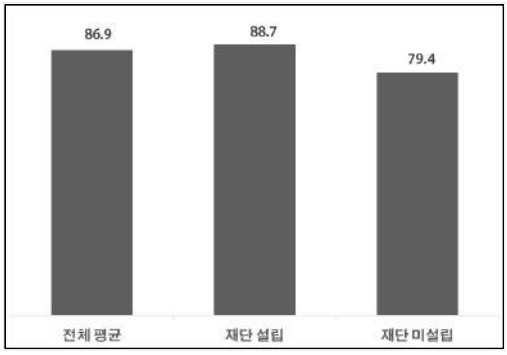
- 제주의 경우 상주단체의 사업수행조건을 대폭 개선함. 기존의 초연 창작품 개발에 추가하여 레퍼토리 공연을 필수화하고, 퍼블릭프로그램 운영과 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 참여를 필수사항으로 조정함. 또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는 컨설팅 체계를 갖춤.

□ 우수사례 7 : 기타

- 경남, 충북, 전북, 제주의 경우 도청 소재지 또는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 역량을 도 전역으로 분산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상주사업을 추진함.(상주단체의 군소시군 상주 권장 등) 대전, 광주 지역의 경우 상주사업이 없는 지역의 가동율이 저조한 공연장을 신규로 발굴하여 상주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지역 내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있음.

나. 상주단체 프로그램의 지역고유성 및 차별성 반영 노력

• 평가 요소	• 상주단체 프로그램의 지역 특화 소재 반영 창작 여부 및 지역 특성의 기획 반영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지원사업 중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반영된 사례, 보도기사 자료 • 사업기획안과 결과보고서 중 공연장상주사업의 차별성이나 독창성이 나타난 자료 • 지역별 상주사업페스티벌 성과보고 및 결과보고 자료



[그림 14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상주단체 프로그램의 지역고유성 및 차별성 반영 노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8.7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9.4점
전체 평균	86.9점

[표 146]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상주단체 프로그램의 지역고유성 및 차별성 반영 노력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상주단체 프로그램의 지역 특화 소재 반영 창작 여부 및 지역 특성의 기획 반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지역고유성 및 차별성을 위해 시 · 도 및 지역문화재단이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지, 상주단체 프로그램이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화 소재로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많은 지역에서 상주단체프로그램에 지역고유성 및 차별성을 반영하도록 단체 선정시 심의기준, 사업성과 평가시 지표에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거나, 워크샵 또는 간담회를 통해 지역 소재에 대한 공유와 작품화에 대한 의견교환 등을 실시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소재로 한 창작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음.

□ 우수사례 1 : 부산지역

- 부산의 경우 원도심을 배경으로 부산 오뎅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소시민의 삶을 재조명한 극단 자갈치의 창작 마당극 '오 마이 갓 뎅',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복지에서 성지로 2', 무용단redstep+극단 자갈치+민주공원의 부마민주항쟁 35주년 기념 상황재현 춤극 '민주꽃바람', 영도다리의 추억을 담은 극단 에저또의 '유랑극단' 등

□ 우수사례 2 : 대구지역

- 대구의 경우 봉산문화회관과 극단 맥시어터의 근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중구 지역의 스토리를 활용한 골목길 시리즈로 시즌 상설공연 레파토리 확보 사례, 대덕문화전당과 극단

초이스시어터의 창작뮤지컬 개발로 우수 창작 레파토리 확보 사례, 대구문화예술회관과 대구심포닉 밴드의 관악 특성화를 추진하는 사례, 대구시민회관과 빅밴드 볼케이노의 재즈밴드 대중화 추진 사례 등

□ 우수사례 3 : 경남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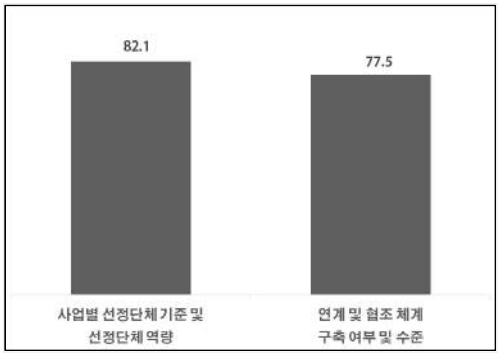
– 경남의 경우 거창원드오케스트라(거창)의 지역 주민이 작사하고 지역 작곡가가 작곡한 창작발표 사례, 큰들(남해, 하동)의 마당극 이순신, 낭랑할배, 순풍에 돛달고, 최참판댁, 정기룡장군, 허균 사례, 극단벅수골(통영)의 동피랑, 극단예도(거제)의 선녀씨 이야기, 극단이루마(김해)의 우리 어무이(어머니), 극단마산(창원)의 歌婢(해동가요) 사례 등

□ 우수사례 4 : 전남지역

– 전남의 경우 극단 선창의 '목포는 항구다', 극단 갯돌의 '국악뮤지컬〈파랑새〉' 등 7개 상주단체 모두가, 강원의 경우 봄내극장과 문화프로덕션 도모의 '처우', 화천문예회관과 문화창작집단 뛰다의 '맨발땅이야기' 등 6개 상주단체 모두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작품을 제작 · 공연함.

2.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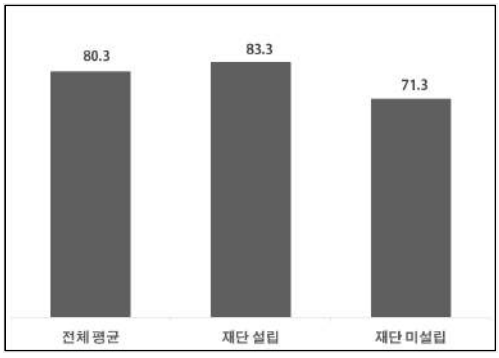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사업별 선정단체 기준 및 선정단체 역량
  -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여부 및 수준



[그림 14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사업별 선정단체 기준 및 선정단체 역량	82.1점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여부 및 수준	77.5점
지표 평균	79.8점

[표 14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14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3.3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1.3점
전체 평균	80.3점

[표 14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지표는 시 · 도 및 지역문화재단이 공연장상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선정된 단체(개인)의 역량,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 수준을 평가하는 항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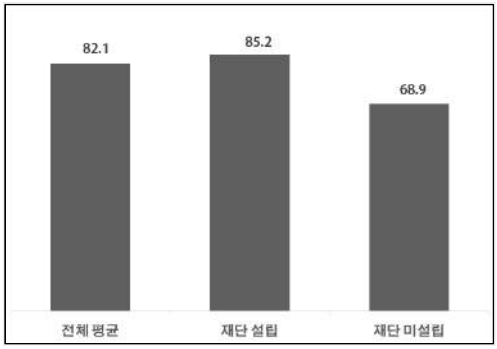
□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지표에는 20점이 배점되었으며, 백분위로 환산한 전국 평균은 80.3점, 재단 설립지역의 평균은 83.3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은 71.3점으로 나타남.

□ 역량있는 지역대표예술단체들과 전문예술단체들이 상주단체로 참여하고 있음. 다만, 전문기획 인력을 보강해야 하는 공연장이 적지 않음.

□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서로에게 기여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가. 사업별 선정단체 기준 및 선정단체 역량

• 평가 요소	• 수행단체 선정 심의 체계의 적절성 • 선정단체 선정 기준의 적절성 • 선정단체 역량의 적절성 • 공연장 전문인력의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사도별 전문예술법인 단체 수, 지원선정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 선정 비율 • 선정예술단체의 대표 및 보유 전문인력 이력 사항 • 사업참여 공연장의 기획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이력사항 • 참여단체 선정 기준 및 선정 체계, 심의위원 구성 관련 자료



[그림 146]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별 선정단체 기준 및 선정단체 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5.2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8.9점
전체 평균	82.1점

[표 149]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별 선정단체 기준 및 선정단체 역량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공연장 상주사업 선정단체 기준 및 선정단체 역량이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공연장상주사업의 선정 심의 체계와 기준이 적절한지, 선정된 단체가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선정된 단체와 공연장이 충분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재단 설립 지역과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가 점수 차이는 16.3점으로 편차가 큼.

□ 대부분 행정 심사를 거쳐 공연장 현장실사(필요시), 전문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외부의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 전문예술단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상주단체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예술단체로 발전하는 지역도 증가하고 있음.

□ 여전히 공연장의 기획 전문 인력을 부재한 지역들이 있으나, 상호 협력하여 자구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시 · 도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공연장이 상주사업에 비중 있게 참여하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시 · 도가 나타나고 있음.

□ 우수사례 1 : 대구지역

- 대구의 경우 공연장의 행정 역량과 공신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공연장을 사업 주체로 세워 행정, 정산 등의 업무를 추진함. 부산의 경우 2013년도에 공연장을 사업 주체로 하여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우선 공연장을 먼저 공모하여 선정하고 공연장과 상주단체를 매칭하는 방법을 택함. 경기의 경우는 공연장이 상주단체를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음.

□ 우수사례 2 : 강원지역

- 강원의 경우 속초문화회관은 상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에서 기획담당자 1명을 채용함.

□ 우수사례 3 : 충북지역

- 충북의 경우 지역공연장을 대부분 공무원이 담당하며 잦은 순환보직으로 사업협력과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에 착안하여 지역공연장의 상주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 제고를 위해 공연장 관련 공무원 회의를 개최하여 상주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연장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함.

□ 우수사례 4 : 전남지역

- 전남의 경우 공연장의 전문성과 기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신청 단계부터 심의 및 평가에 공연장 담당공무원과 공연단체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공연장 담당자와 공연단체의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연장 담당자의 사업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함.
- 극단 갯돌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14 문화예술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전문 인력을 상주공연장인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 배치하여 상주단체 지원사업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연장의 전문 인력 부재 상황을 상주단체가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우수사례 5 : 경남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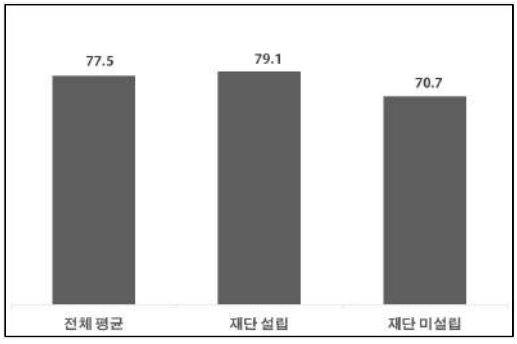
- 경남의 경우 공연장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상주공연장에 담당 직원이 기본적으로 배치되어야 선정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지원신청 접수시 공연장에서 의무적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협약에 명시하도록 함.

□ 우수사례 6 : 기타

- 광주, 울산, 전북의 경우 3개 상주단체의 공연장 20% 예산을 모아 상주단체사업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음.(광주의 광산문예회관, 울산의 북구문예회관, 전북의 부안문예회관, 전북의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여부 및 수준

• 평가 요소	• 상주단체와 공연장 간의 협력 수준 • 상주단체와 공연장의 외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활동 수준 • 사·도 및 지역문화재단과 상주단체, 공연장 간의 협력 수준 • 사·도 및 지역문화재단의 외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활동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지역문화원, 지역소재 대학, 지역축제조직, 공립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관 등 상주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실제 협력사례 자료 • 상주사업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긴밀한 협력관계 수준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지역 내, 타지역과의 상주사업 단체들간의 교류 협력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그림 14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연계 협력 및 협조체계 구축 여부 및 수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9.1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0.7점
전체 평균	77.5점

[표 15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연계 협력 및 협조체계 구축 여부 및 수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공연장 상주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실제로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한 협력 사업을 추진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상주단체와 공연장 간의 협력, 상주단체와 공연장의 외부 협력,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과 상주단체·공연장 간의 협력,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과 외부기관의 협력에 있어 협력체계 구축 여부와 실제 협력 정도가 어떠한지를 평가함.

□ 상주단체와 공연장 간의 협력, 상주단체와 공연장의 외부 협력,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과 상주단체·공연장 간의 협력은 전반적으로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음. 공연장의 인식이 갑을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으며 공연장의 사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음

□ 공연장상주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과 외부기관의 협력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지역이 많지 않음. 다만, 교육청 등 관련 공공기관과 상시 협력하거나, 공연장단체 등과의 실제적인 협력 사례들이 나타남.

□ 우수사례 1 : 서울지역

– 서울의 경우 공연장 선정 시 재단의 지원금 외 공연장의 자체 투자분을 보유할 경우 우대함으로써 재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총 지원 금액(2,920백만원)의 15.3%에 해당하는 금액(446,794천원)을 공연장 측에서 추가로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함.

□ 우수사례 2 : 대구지역

- 대구의 경우 공연장과 상주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매칭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공연장에서 자부담을 전액 부담하여 상주단체가 활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는 공연장도 2개(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시민회관)에 이르고 있음. 특히, 봉산문화회관, 수성아트피아 및 대덕문화전당의 경우 상주단체 지원금으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 우수사례 3 : 인천지역

- 인천의 경우 교육청과 연계하여 방과후에 퍼블릭프로그램 연결하고 있으며 수능 이후 상주단체 공연 관람 등도 연결하고 있음.

□ 우수사례 4 : 강원지역

- 강원의 경우 '문화프로덕션 도모'는 관객개발을 위해 문화 생산자 및 소비자들로 이루어진 '춘천 좋은 문화소비자협동조합'과 '춘천 좋은 문화생산자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지역대학 및 청소년 기관 등 지역 기관과의 MOU를 추진하여 공연티켓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함. '공연창작집단 뛰다'는 화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함.

□ 우수사례 5 : 광주지역

- 광주의 경우 광산문화예술회관이 위치한 광산구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직을 배치하고(광산구 문화기획 전문위원 채용–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2014년도 4월부터 담당코디네이터를 추가 채용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통해 상주단체 프로그램 및 마케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주단체와 공연장의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 2014년도 지역협력형사업 공연장상주사업 최우수사례로 선정됨.
- 상주단체들과 삼성전자 광주공장이 음악회를 공동으로 기획하여 개최함. 전남의 경우 극단 갯돌이 상주지역의 문화여건개선을 위해 지역기관(단체)네트워크를 구축함.(지역아동센터, 노인회, 문화원, 향토사학자, 생태연구소, 기 무예단, 지역민 등)

□ 우수사례 6 : 충북지역

- 충북의 경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페스티벌과 관련 각 지자체의 대표 축제와 함께 상주단체의 협력공연을 유도하여 공연장 상주단체-지자체-지역 동아리 간 연계협력을 추진함.

□ 우수사례 7 : 전남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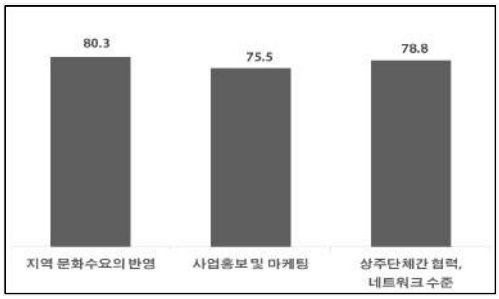
- 전남의 경우 단체, 지자체, 재단이 함께 추진한 공동협력사업 사례로서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대표자 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극단 갯돌 등 상주단체를 중심으로 9개 단체가 참여하여 무안군과 함께하는 어울마당(상주사업 성과발표장)을 개최함.

□ 우수사례 8 : 기타

- 서울, 경기, 강원의 경우 서문연, 한문연 경기지회, 한문연 강원지회 등 공연장 관련 단체들과 재단의 연계협력이 실제적인 사업 협력을 통해 활발해지고 있음.(상주단체 쇼케이스 참여 등)

3. 사업 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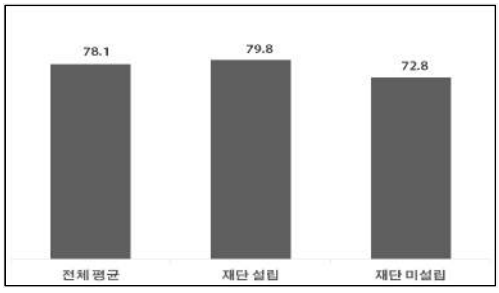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지역 문화수요의 반영
  - 사업홍보 및 마케팅
  - 상주단체간 협력, 네트워크 수준



[그림 14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 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지역문화수요의 반영	75.5점
사업홍보 및 마케팅	78.8점
상주단체간 협력, 네트워크 수준	80.3점
지표 평균	78.2점

[표 15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 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149]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연계 협력 및 협조 체계 구축 여부 및 수준-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9.8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2.8점
전체 평균	78.1점

[표 15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연계 협력 및 협조 체계 구축 여부 및 수준-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사업 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지표는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이 공연장상주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의 문화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여 반영하고 있는지, 사업의 홍보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상주 단체간 협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 '사업 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지표에는 20점이 배점되었으며, 백분위로 환산한 전국 평균은 78.1점, 재단 설립지역의 평균은 79.8점, 재단 미설립지역의 평균은 72.8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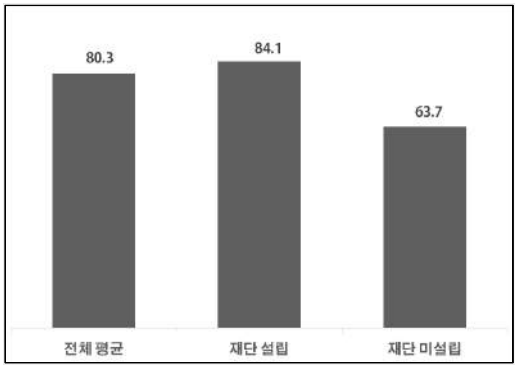
□ 지역의 문화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의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하는 상주단체의 노력도 확대되고 있음.

□ 홍보 마케팅 측면에서는 지원계획과 활용채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 상주 단체간 협력은 질적인 교류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가 두드러짐. 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 상주단체간의 상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지역도 상주단체들이 교류의 실제적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가. 지역 문화수요의 반영

• 평가 요소	• 지역의 공연장상주사업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및 반영 정도 • 지역민 참여프로그램 수준 및 지역민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 여부
• 평가 참고 자료	• 선정된 지역 공연장 책임자 및 담당자들의 의견수렴 활동 및 반영에 대한 증빙자료 • 선정된 지역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활동 및 반영에 대한 증빙자료 • 선정된 단체와 공연장의 지역문화예술 수요자들의 의견 수렴 활동 증빙자료 •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획되거나 개선된 퍼블릭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그림 15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역 문화수요의 반영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4.1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3.7점
전체 평균	80.3점

[표 15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역 문화수요의 반영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이 평가항목은 공연장, 공연예술단체 등 공연장상주사업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정된 공연장과 상주단체가 지역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수용하고 있는지, 지역민 참여프로그램 수준은 어떠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임.

□ 재단 설립 지역과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가결과 편차는 20.4점으로 가장 큼.

□ 사업설명회, 간담회, 자문회의, 각종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포럼, 관계자 워크숍, 설문조사, 현장탐방, 상시 활동 등을 통해 공연장과 상주단체들과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수렴된 의견이 금년도와 차년도 사업에 실제로 반영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지역민 의견을 반영한 주민 참여프로그램 운영이 확대되고 있음. 다만, 일부지역은 지역민 참여프로그램 수준, 지역민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에 대한 제시가 미흡함.

□ 우수사례 1 : 부산지역

- 부산의 경우 공연장상주사업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해 상주사업 관계자 간담회(6회), 현장간담회(25회), 평가회 등을 진행하고,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공연장상주사업 평가단 컨설팅,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적극적인 지역문화수요 반영 활동을 벌임.
- 부산의 경우 퍼블릭 프로그램으로 극단 에저또가 영도문화예술회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야외무대에서 '에저또 아트 페스티벌' 을 개최하여 부산 영도구의 열악한 지리적 환경으로 다양한 공연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영도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콘텐츠의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함.

□ 우수사례 2 : 광주지역

- 광주의 경우 다년간 지원된 상주단체의 휴식년제 등 일몰제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고자 설문조사 및 조사결과 공유, 토론회 등을 실시함.

□ 우수사례 3 : 충북지역

- 충북의 경우 일반인 수요조사, 전국 문화전문가 수요조사, 충북지역 문화예술 전문가(문화예술인, 연구원, 기획자, 정책가 등), 재단직원 및 문화예술 관계자에 대한 다각적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사업을 설계함. 또한, 정기적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협의회를 개최하여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함.
- 지역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함. 극단 꼭두광대의 경우 보은동학을 소재로 한 [눈자라기],[눈자라기vol.2],[하늘별] 제작시 보은지역 주민의 연령별, 세대별 문화 욕구 조사를 위해 보은어린이집 연합회 원장 및 교사들과의 인터뷰, 보은 동광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전담교사 등 교육관계자 면담을 통하여 동학이라는 지역 콘텐츠를 가지고 어린이 공연으로 제작함.

□ 우수사례 4 : 전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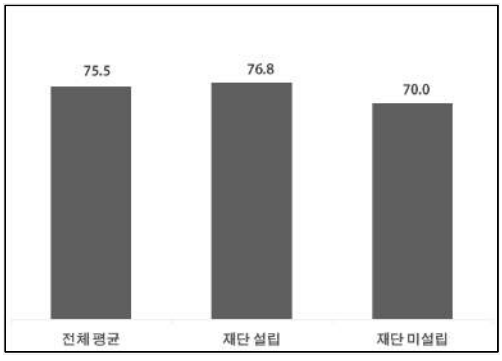
- 전북의 경우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한 '연극하는 사람들 무대지기' 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실버극단을 구성하여 교육프로그램운영과 연극공연을 기획하여 거창실버연극제에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함.

□ 우수사례 5 : 전남지역

- 전남의 경우 지역 문화수요 반영을 위해 라운드테이블(2회), 자문위원회(2회), 담당자 워크숍(5회), 공연예술좌담회(1회), 수행단체대표자/실무자회의(5/5회), 평가워크숍(10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여 사업을 추진함.
- 극단 선창의 청소년연극교실 '연극아 놀자' 에 참가하는 연극동아리 라온은 전국청소년연극제 우수단체상, 전남청소년연극제 최우수단체상 등을 수상함.

나. 사업홍보 및 마케팅

• 평가 요소	• 통합적인 사업홍보 채널 구축 및 운영 수준 • 통합적인 관객 개발 및 마케팅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홈페이지의 상주사업 홍보 코너 소개자료, 정간물 소개 자료 및 발행매체 증빙 자료 •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명의의 상주사업 관련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배표 자료 • 상주사업 선정단체 및 공연장의 홍보, 기획, 마케팅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워크숍 추진 실적 증빙 자료



[그림 15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홍보 및 마케팅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6.8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0.0점
전체 평균	75.5점

[표 15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홍보 및 마케팅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이 평가항목은 시 · 도 및 지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연장상주사업 홍보뿐만 아니라 상주단체의 각종 활동(공연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업홍보 채널 구축 및 운영 수준, 통합적인 관객 개발 및 마케팅 수준이 어떠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임.

□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나 홈페이지, 잡지(소식지), SNS, 뉴스레터, 보도자료, TV · 라디오 방송, 인쇄물, 성과모음집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연장상주사업을 홍보하고 있음.

□ 재단 미설립 지역의 경우 초보적인 수준의 홍보활동이 벌어지고 있음.(도청 홈페이지 게시 등)

□ 공연장상주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사업홍보 채널을 구축하거나, 관객개발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활동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 우수사례 1 : 부산지역

– 부산의 경우 상주단체 공연 1회의 무료관람을 제공하는 프리티켓을 담은 공연장상주사업 통합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음. 또한 공연장과 단체 영상홍보물 제작하여 공연장에서 상영하고, 해외진출단체를 위해 외국어 리플릿 제작(국영문)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상주단체의 서울아트마켓 참여를 지원(극단 맥 초청)하고 있음.

□ 우수사례 2 : 대구지역

- 대구의 경우 공연문화도시 대구를 상징하고 지역 공연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안내센터인 dgtickets를 구축·운영하여 공연전시정보를 제공하고 티켓을 판매함. 구매수량은 많지 않으나, 고객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등 장기적으로 상주사업 유료화 확대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함.

□ 우수사례 3 : 광주지역

- 광주의 경우 재단이 상주단체의 보도자료 배포를 전담함으로써 홍보에 취약한 단체의 보도자료를 담당자가 수정, 작성하여 홍보팀에 의뢰하고 광주문화재단 출입 기자를 통해 배포하여 공연의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있음. 또한, 지역 축제와 연계한 홍보 지원 노력도 함께 하고 있음.(광주세계아리랑축전 '아리랑지기' 500명에게 문화예술카드를 지급하고 상주단체 공연 30% 할인 혜택 제공)

□ 우수사례 4 : 경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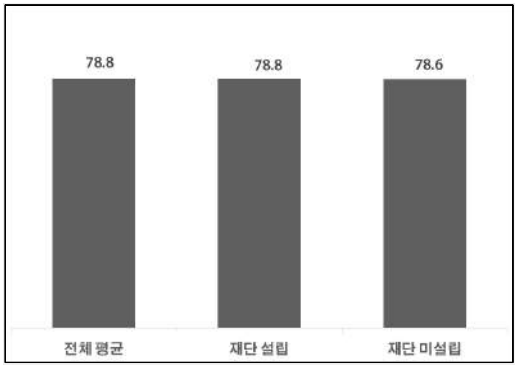
- 경기의 경우 작품 유통판로를 제공하는 아트마켓 형태의 '제1회 경기공연예술 페스타' 개최를 통해 적극적인 상주단체 통합 홍보 마케팅을 실시함. 상주단체페스티벌을 주요한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창출됨.(경기공연예술페스타를 통해 3월 현재 7단체 11건의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총 20개 내외의 계약을 기대하고 있음)

□ 우수사례 5 : 강원지역

- 강원의 경우 상주단체 공연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전국 문화재단 및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 담당자를 초청하고, 한문연 강원지회와 협력하여 쇼케이스를 개최함. 이를 통해 2014년도 한문연 지원을 통한 강원도 및 전국 문화예술회관 순회공연을 도모하였으며, 컨설턴트(11명)를 초청하여 단체별 맞춤 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를 꾀함.

다. 상주단체간 협력, 네트워크 수준

• 평가 요소	• 상주단체간 교류 수준 • 상주사업 페스티벌 개최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상주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상주사업 페스티벌의 특성과 개최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림 15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상주단체간 협력, 네트워크 수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8.8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8.6점
전체 평균	78.8점

[표 15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상주단체간 협력, 네트워크 수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이 평가항목은 상주단체간의 교류 수준이 어떠한지, 상주사업 페스티벌 개최 수준이 어떠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임.

□ 상주 단체간 교류가 초반에는 양적/형식적 교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질적/실제적 교류로 변화하고 있음.

□ 상주단체 협의회가 운영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음.

□ 상주단체 페스티벌 개최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페스티벌 비개최 지역은 대부분 교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기존의 모여서 공연하는 형태의 단순 페스티벌에서 벗어나 유통판로개척, 전국적 교류, 문화소외지역 지원, 서브축제 개발 등 지역상황과 사업방향에 따라 교류축제 기획이 다양하고 활발해지고 있음.

□ 시 · 도 및 지역문화재단이 공모하여 진행하는 교류프로그램도 장르간 융합공연 창작, 타공연장 교류, 비상주공연장 순회공연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우수사례 1 : 광주지역

– 광주의 경우 광주여성필하모닉과 그린발레단의 장르 간 협연, 그린발레단 과 퓨전국악 아이리아 협연으로 국제행사 초청공연에 상주단체 간 동반진출, 놀이패 신명과 푸른연극마을이 함께 개척하여 구도심 공연장을 개발하는 등 실제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통한 상호교류가 활발해짐

□ 우수사례 2 : 울산지역

- 울산의 경우 '전국공연장 상주예술단체 페스티벌' 준비와 개최를 통해 지역 상주단체간의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져 전국적인 교류를 이끌어냄. 또한, 이 기간 중 전국 상주단체 사진전을 개최하여 전국 상주단체 활동사진, 전국 상주단체 맵 등을 전시하고.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함.

□ 우수사례 3 : 경기지역

- 경기의 경우 우수작품 창작과 유통을 목적으로 전략적인 상주ㅋㅌ단체 페스티벌을 개최함. 경기문화재단과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경기지회가 협력하여 '제1회 경기공연예술 페스타'를 개최하여 베스트 콜렉션 3, 기획초청공연, 맛있는 문화간식, 공연중매프로젝트, 예·찬·소, 네트워크 파티 등의 프로그램을 펼침. 특히 중매프로젝트 등 판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주단체페스티벌을 아트마켓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음.
- 상주단체간의 교류사례로 안은미컴퍼니가 7개의 상주단체로 찾아가는 '움직임 워크숍'을 개최하고 안은미 워크숍 수혜단체는 안은미컴퍼니 신작 워크숍에 무료로 공연을 제공함.

□ 우수사례 4 : 강원지역

- 강원의 경우 상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위를 구성하여 공동협의를 통한 상주단체 페스티벌 '강원예술 움 FESTA'를 추진함. 페스티벌 프로그램으로 1박2일의 상주단체 전체 워크샵을 진행함. 또한, 페스티벌 공연은 감동 후불제를 도입하고, 총 수익금은 도내 예술단체를 공모하여 재단과 추진위가 심의 선정하여 지역예술단체에 기부함.

□ 우수사례 5 : 전남지역

- 전남의 경우 자발적으로 상주단체 공연을 서로 관람하고(극단갯돌, 극단미암. 순천필하모닉, 호남필하모닉 등 참여), 관람 후 우수한 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상주단체간 자체 공연 모니터링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체 간 질적 교류 및 교류공연이 확대되고 있음.(전남 상주단체 간 교류공연 3건 증가)
- 상주단체 간 협력을 통한 콜라보레이션 공연이 활발함.(무용과 연극 – 장미영 무용단(무용)+극단미암(연극)+이원국 발레단(무용), 무용과 오케스트라 – 장미영 무용단(무용), 순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음악))

□ 우수사례 6 : 전남 · 전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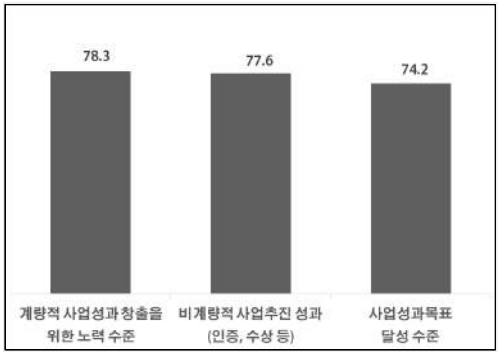
- 전남, 전북의 경우 문화소외지역의 향유 확대를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개최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로부터 특별예산을 지원받아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을 개최함. 공연장상주단체 협의회를 중심으로 재단, 지자체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함.

□ 우수사례 7 : 경남지역

- 경남의 경우 정기적인 '상주지기' 모임(월1회)을 통해 상시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기존의 상주축제 단점을 보완하는 '사랑방 상주축제'를 개발하여 2개 단체가 한 조를 이루어 상호 교차 교류공연을 통해 연중 교류를 진행하고 상주사업이 없는 공연장에도 공연을 제공함.

4. 사업 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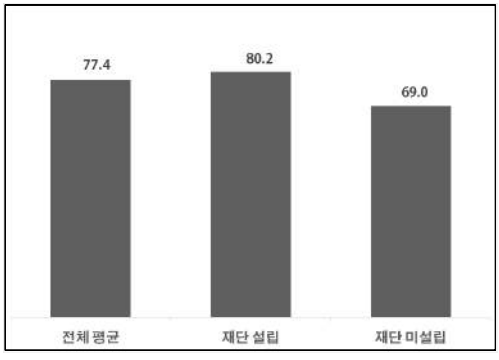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 수준
  -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인증, 수상 등)
  - 사업성과목표 달성 수준



[그림 15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 추진 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 수준	78.3점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인증,수상 등)	77.6점
사업성과목표 달성 수준	74.2점
지표 평균	76.7점

[표 156]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 추진 성과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15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0.2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9.0점
전체 평균	77.4점

[표 15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 추진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사업 추진 성과' 지표는 시 · 도 및 지역문화재단이 공연장상주사업의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 수준,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사업성과목표 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항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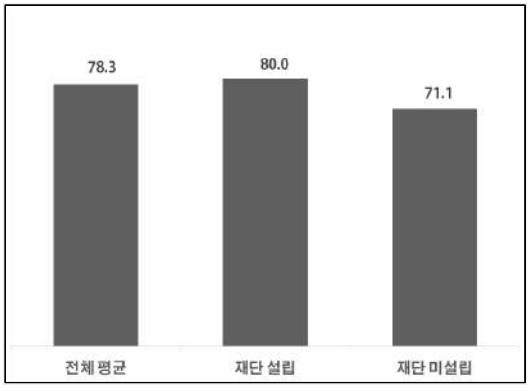
□ '사업 추진 성과' 지표에는 30점이 배점되었으며, 백분위로 환산한 전국 평균은 77.4점, 재단 설립지역의 평균은 80.2점, 재단 미설립지역의 평균은 69.0점으로 나타남.

□ 공연장 가동율 등 공연장상주사업의 계량적 성과와 창작역량 향상 등 비계량적 성과가 증대되고 있음.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상주단체 실적의 단순 합계를 성과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이 적지 않음.

가.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평가 요소	• 공연장 가동률 증가 수준 • 객석점유율 증가 수준 • 유무료 관람객 수
• 평가 참고 자료	• 공연장상주사업의 지원단체별 공연일수, 공연횟수, 객석점유율, 유무료 관객수와 상주사업 전체의 총합계 • 계량적 성과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과 향후 계량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계획



[그림 15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0.0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1.1점
전체 평균	78.3점

[표 15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이 평가항목은 공연장의 가동률 증가 수준, 객석점유율 증가 수준, 유무료 관람객 수 등 계량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2014년도 공연장 가동율의 증가 수준, 전년대비 공연장 가동율 증가 정도, 2014년도 객석점유율 증가 수준, 전년대비 객석 점유율 증가 정도, 관람객 수, 유료관람객 비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 일부 지역은 전년대비 증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유료관람객수 등 평가 참고자료로 제시한 것을 누락하여 제시하거나, 합계치를 기재하지 않고 제시하는 지역이 다수 있었음.

□ 공연장 가동율 등 전반적으로 성과지표가 상승하고 있음.

□ 우수사례 1 : 경남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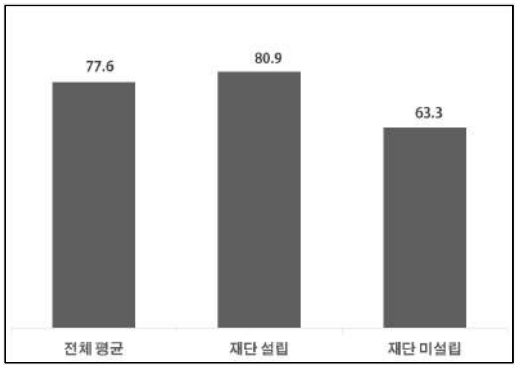
- 경남의 경우 레퍼토리 작품의 정기적 공연체제를 구축하여 상주공연장에서 매월 1회 레퍼토리 공연을 진행하여 공연장 활성화(가동율)와 주민문화향유 확대를 꾀함.

□ 우수사례 2 : 제주지역

- 제주의 경우 상주단체 자작나무숲이 무료공연을 탈피하고 유료화를 시작하기 위해 천원콘서트를 4회 개최함.(공연마다 600여 관객석 거의 매진) 입장수입은 전액 복지시설에 피아노를 기증하는데 사용함.

나.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인증, 수상 등)

• 평가 요소	• 작품의 수상 이력 • 국내외 페스티벌 공식 초청 여부
• 평가 참고 자료	• 작품(예술가)의 수상 실적, 국내외 페스티벌 초청(참가) 실적, 핵심 예술시장 유통 실적, 공연작품의 시장 판매 실적 등 • 선정단체별 대표 작품의 레퍼토리화 성공 사례



[그림 156]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인증, 수상 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0.9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3.3점
전체 평균	77.6점

[표 159]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인증, 수상 등)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이 평가항목은 작품의 수상 이력, 국내외 페스티벌 공식 초청 등 비계량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작품(예술가)의 수상 실적, 국내외 페스티벌 초청(참가) 실적, 핵심 예술시장 유통 실적, 공연작품의 시장 판매 실적, 선정단체별 대표 작품의 레퍼토리화 성공 사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 재단 설립 지역과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가점수 차이는 17.6점으로 편차가 큼.

□ 수상 실적, 페스티벌 초청 실적 등이 활발히 제시되었으며, 예술시장 유통, 레퍼토리화 사례 등도 증가하고 있음.

□ 우수사례 1 : 서울지역

- 서울의 경우 극단 하땅세의 '2014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 아시안 아츠 어워드(Asian Arts Award)' 수상 등 다수의 국내외 대회 수상 및 축제 초청 사례가 제시됨.

□ 우수사례 2 : 부산지역

- 부산의 경우 극단 맥이 아비뇽 오프 페스티벌에 초청되고, 무용단 redstep이 SFC(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에서 '신곡'으로 상하이 초청작에 선정되고 개인상 수상 등의 사례가 제시됨.

□ 우수사례 3 : 대구지역

- 대구의 경우 봉산문화회관 맥 시어터의 2013년도 DIMF 대상 수상, 2014년도 중국동관국제뮤지컬페스티벌 특별 영예상 수상, 대학로 진출 사례가 제시됨.

□ 우수사례 4 : 인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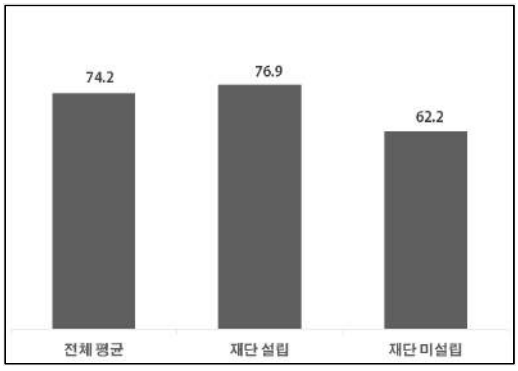
- 인천의 경우 극단 MIR레퍼토리의 도쿄국제예술제 공식초청, 극단 십년후 '소문', '성냥공장 아가씨'의 대학로 공연 등의 사례가 제시됨.

□ 우수사례 5 : 경남지역

- 경남의 경우 각 상주지역의 역사적 인물, 전설, 지역 특성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발굴 창작하여 공연장의 특화 상품화하고 지자체에서 매년 작품을 매입하여 공연이 시행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와 상주단체의 자생력을 확보를 꾀함.

다. 사업성과목표 달성 수준

- 평가 요소
  - 성과목표 수립의 적정성
  - 성과목표 대비 성과달성 수준
- 평가 참고 자료
  - 사업의 성과목표와 달성 여부 증빙 자료



[그림 15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성과목표 달성 수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76.9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2.2점
전체 평균	74.2점

[표 16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성과목표 달성 수준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이 평가항목은 성과목표 수립의 적정성, 성과목표 대비 성과달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작품(예술가)의 수상 실적, 국내외 페스티벌 초청(참가) 실적, 핵심 예술시장 유통 실적, 공연작품의 시장 판매 실적, 선정단체별 대표 작품의 레퍼토리화 성공 사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 재단 설립 지역과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가 점수 차이는 14.7점으로 편차가 큼.

□ 지역마다 공연장상주사업의 방향성에 따른 적정한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하나 상당수 지역이 성과목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임. 공연장상주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목표로 성과목표를 인식한다거나 각 상주단체가 수행한 이행실적, 추진실적 등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음. 어떤 경우는 재단 경영평가를 받기 위한 KPI를 제시하기도 함.

□ 우수사례 1 : 경기지역

- 경기의 경우 공모지원, 교류사업, 평가사업 세 측면에서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달성수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함.

□ 우수사례 2 : 강원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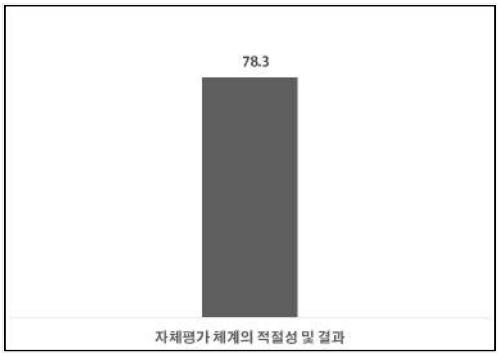
- 강원의 경우 재단의 미션과 비전에 따른 2014년도 팀별 사업별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공연장상주사업의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함. 계량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

□ 우수사례 3 : 전남지역

- 전남의 경우 재단의 중장기발전계획과 도정 목표를 반영하여 재단의 지원 사업 전략과 목표를 도출하고 공연장상주사업의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함. 공연장(단체) 역량강화, 유관기관 및 지자체 협력도 제고, 공연단체 교류활동 활성화, 지역민, 예술인 의견수렴 및 소통 창구 확대를 목표로 추진함. 또한, 목표설정, 목표달성 노력, 성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함.
- 성과목표 관리, 평가환류 관리가 상당히 모범적임. 지역과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평가, 학습, 공유, 환류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연간 계획 하에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

5. 평가와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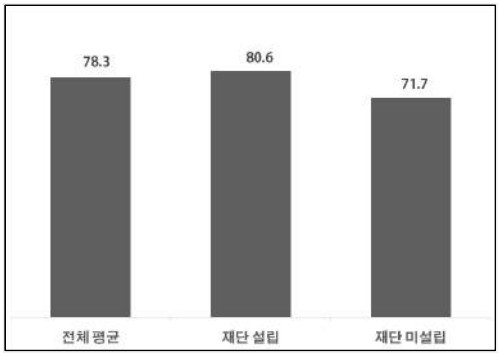
• 세부 평가 지표 • 자체평가 체계의 적절성 및 결과



[그림 15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와 환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평가 지표	평가 점수
자체평가 체계의 적절성 및 결과	78.3점
지표 평균	78.3점

[표 16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와 환류 - 세부 지표별 평가 점수



[그림 159]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재단 설립 여부	평가 점수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0.6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71.7점
전체 평균	78.3점

[표 16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와 환류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평가와 환류' 지표는 시 · 도 및 지역문화재단이 공연장상주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평가하고 있는지, 평가결과를 적절하게 환류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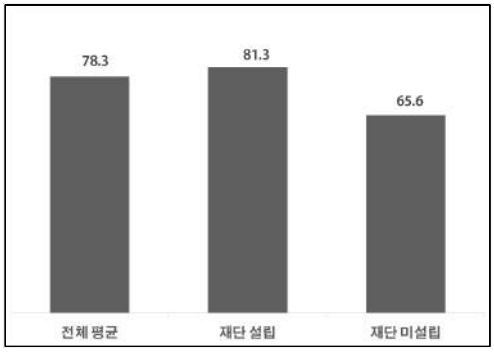
□ '평가와 환류' 지표에는 10점이 배점되었으며, 백분위로 환산한 전국 평균점은 78.3점, 재단 설립지역의 평균점은 80.6점,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균은 71.7점으로 나타남.

□ 전문가 평가, 일반인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을 전문기관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의뢰하여 평가를 추진하거나, 시 · 도 및 지역문화재단이 직접 행정평가, 전문가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음.

□ 평가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보다는 실제로 차기사업 심의에 반영하는 평가환류가 확대되고 있음.

가. 자체평가 체계의 적절성 및 결과

• 평가 요소	• 평가체계 및 설계의 적절성 • 전문가 평가, 시민모니터링, 관객만족도 조사 추진 여부 및 결과 • 평가결과 환류의 적절성
• 평가 참고 자료	• 자체평가 추진계획 및 결과 정리 자료 • 전문가 평가 결과 및 시민모니터링 평가 관련 증빙 자료 (모집, 교육, 활동) •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전년도 자체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및 선정 과정에 반영한 증빙 자료



[그림 16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자체평가 체계의 적절성 및 결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재단 설립 지역 평균	81.3점
재단 미설립 지역 평균	65.6점
전체 평균	78.3점

[표 16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자체평가 체계의 적절성 및 결과 - 재단 설립 여부에 따른 비교

□ 이 평가항목은 평가체계 및 설계의 적절성, 전문가 평가, 시민모니터링, 관객만족도 조사 추진 여부 및 결과, 평가결과 환류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임.

□ 재단 설립 지역과 재단 미설립 지역의 평가 점수 차이는 15.7점으로 편차가 큼.

□ 평가결과는 대부분 익년도 사업 선정시 계속지원 여부, 가(감)산점, 지원금액 등에 반영하여 환류하고 있음.

□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중간 및 최종 성과발표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 학습, 점검하는 성과평가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공연장상주사업에 특정하여 설계된 관객만족도 조사를 하여야 하나,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조사이거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전체에 해당하는 조사로서 극히 일부 표본만 해당하는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우수사례 1 : 부산지역

- 부산의 경우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행정평가, 전문가 현장평가,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음. 전문가 평가는 심의위원 중 분야별 수행평가위원을 선정함. 부산문화재단 시민평가단(제5기 137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모니터링을 실시함.

□ 우수사례 2 : 대구지역

- 대구의 경우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일부공연장의 공연장상주사업 보조금 집행의혹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예산집행사례를 개선하고 위법 부당사항을 시정 조치함. 보조사업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원금집행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예술위 및 지자체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함으로써 지원금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자정 노력, 향후 지원금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함.

□ 우수사례 3 : 경기지역

- 경기의 경우 전문가 평가지표를 공연장상주사업의 연속지원 특성 등으로 인해 연차별 사업진행의 적응과 성과가 다른 것을 고려하여 1~2년차, 3~4년차, 5년차 이상으로 평가의 중점사항을 구분하고 차별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함. 또한, 전문가 평가의견을 재단의 공연장상주사업 개선에도 반영하고 있음.(평균지원금 증액, 의무이행사항 축소, 역량강화를 의무사항으로 전환, 우수작품 중심 페스타 제안 등 반영)

□ 우수사례 4 : 전남지역

- 전남의 경우 지원 단체 선정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 중 2인을 책임평가위원 위촉함으로써 사업기간 동안 현장평가, 컨설팅, 평가워크숍, 최종 평가위원회에 참여토록 하여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성과 평가 시에는 평가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을 수행한 상주단체들 간의 성과(의견)공유와 상호 평가를 통해 사업들 간의 개선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진행함.

제4장

지역별 평가

제 1절: 서울
제 2절: 부산
제 3절: 대구
제 4절: 인천
제 5절: 광주
제 6절: 대전
제 7절: 울산
제 8절: 세종
제 9절: 경기
제10절: 강원
제11절: 충북
제12절: 충남
제13절: 전북
제14절: 전남
제15절: 경북
제16절: 경남
제17절: 제주

제1절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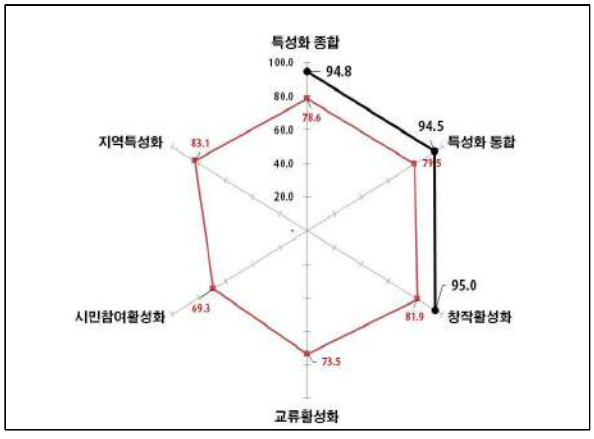
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산출법
  = {(예산 가중치 평가 결과*70%) + (자율 가중치 평가 결과*30%)} – 보고서 제출에 따른 감점 점수

- 예산가중치에 따른 평가 결과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와 각 부문별 합산 점수에 각 예산 가중치를 적용
  = {(특성화 통합+창작활성화)*창작활성화 예산 가중치}+{(특성화 통합+교류활성화)*교류활성화 예산 가중치}+
  {(특성화 통합+지역특성화)*지역특성화 예산 가중치}+{(특성화 통합+시민참여활성화)*시민참여활성화 예산 가중치}

- 자율가중치에 따른 평가 결과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와 각 부문별 합산 점수에 각 자율 가중치를 적용
  = {(특성화 통합+창작활성화)*창작활성화 자율 가중치}+{(특성화 통합+교류활성화)*교류활성화 자율 가중치}+
  {(특성화 통합+지역특성화)*지역특성화 자율 가중치}+{(특성화 통합+시민참여활성화)*시민참여활성화 자율 가중치}

(이하 지역 생략)



[그림 16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서울

(100점 기준)

사업 구분	평가 점수
특성화 종합	94.8점
특성화 통합	94.5점
창작활성화	95.0점
교류활성화	해당없음
시민참여활성화	해당없음
지역특성화	해당없음
평균	94.8

[표 164]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서울

- 예산가중치

(단위 %)

창작활성화	100
교류활성화	–
시민참여활성화	–
지역특성화	–
합계	100

[표 162]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서울

- 자율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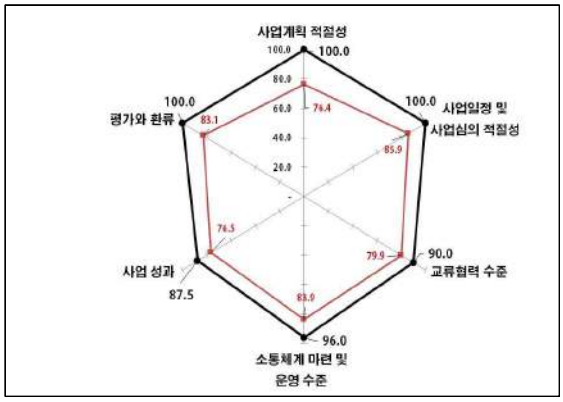
(단위 %)

창작활성화	100
교류활성화	–
시민참여활성화	–
지역특성화	–
합계	100

[표 166]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서울

□ 서울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결과는 94.8점임. 서울지역은 창작활성화 사업만을 추진하였음.

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그림 16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서울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100.0점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100.0점
교류 협력 수준	90.0점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96.0점
사업 성과	87.5점
평가와 환류	100.0점

[표 167]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서울

- 서울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통합지표의 평가결과는 94.5점임.
- 서울지역은 특성화사업(예술창작지원사업)의 세부 장르별로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재단의 비전, 핵심가치, 전략 하에 특성화사업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제시됨. 특성화사업의 중장기 3단계 로드맵(2010~2015)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음. 선정단체 간담회 및 교부시 성과관리 과제를 적절하게 공유하고 있음.
- 서울지역은 주요 고객과 정책 환경을 분석하여 문화부, 예술위와 역할분담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예술지원체계 개선과 지원사업 설계를 위한 내·외부 회의와 7개 장르 총 7회의 간담회를 운영하였음.
- 서울지역은 기획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중 직원 CoP(예술지원, 연극특화)운영, 맞춤형 교육훈련, 해외연수 참가 등의 역량강화 활동을 전개함. 지원체계 개선연구에 내부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지원체계 개선 10대 과제를 바탕으로 수행전략을 도출하였음.
- 서울지역은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사 제척·회피제도, 안배 원칙 등 기본 원칙 설정하고 있으며, 장르별 3배수 심사위원 풀을 구성한 후 수락 여부에 따라 무작위로 확인하여 확정하고 위원 명단과 총평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87명의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223건의 작품에 총 672회 현장 방문, 현장평가 70점 중 시민모니터 10점과 전문평가위원 60점 반영함. 2014년도는 예산부족으로 관객만족도를 측정하지 못하였음. 2014년 12월 재단 홈페이지 회원 등 2,905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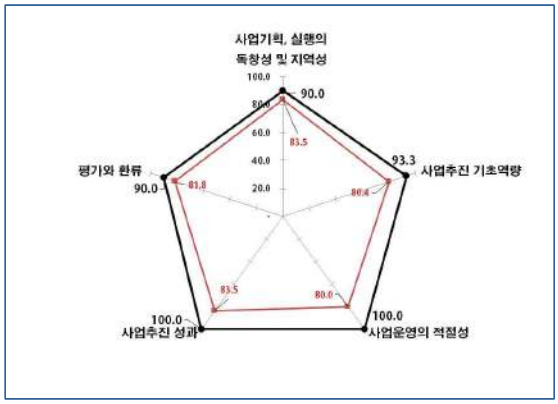
□ 계량성과 정리를 위해서 특성화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투 트랙의 성과관리를 하고 있음.

- 재단 자체 관리 계량 성과지표 설정 : 평균 지원 금액 매년 3~5% 향상, 지원금 전용카드 발급 확대(전년대비 16% 향상), 현장평가 대상사업 확대('13년 54.9% → '14년 57.9%)
- 특성화 사업 공통 계량 성과지표 관리 : 참여예술가 수 및 관객 수('14년 9,379명/651,775명)

□ 비계량 성과에서는 각종 수상, 인증 등 70개 예술단체(예술가)에서 비계량적 성과를 제시하였음. 서울지역의 특성과 문화자원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는 김동희의 '나열된 계층의 집', 차승민의 '골목환상', 불세출의 '불세출 LAB 콘서트 종로 풍악방'을 제시하고 있음.

□ 홍보매체 운영에 있어서는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지원 사업에 대한 영상자료들도 정기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3. 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그림 163]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서울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9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93.3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100.0점
사업 추진 성과	100.0점
평가와 환류	90.0점

[표 168]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서울

□ 창작활성화 부문의 개별지표는 9개 지표 60점 만점으로, 배점 5점의 지표 6개와 배점 10점의 지표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추진 단계별 지표수와 배점은,

[사업계획단계] '사업기획/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개 지표 10점,

[사업집행단계] '사업추진 기초역량' 2개 지표 15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2개 지표 10점,

[사업성과단계] '사업추진 성과' 2개 지표 15점,

[평가환류단계] '평가와 환류' 1개 지표 1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지표별 배점 등에 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평가지표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5점)은 사업기획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는지, 사업실행 방식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정도를 평가함.

- 서울의 창작활성화 사업은 '예술창작지원사업(예술작품지원)' 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역할분담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은 ① 창의적인 예술가/예술단체에 대한 생애주기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 ② 창작공간 등 실험예술 창작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지역으로서의 서울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 ③ 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창작기금 폐지 등으로 인한 창작품/레퍼토리 작품 발표 위축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충분성 제고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이에 따른 추진체계와 수행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함.

- 문화부, 예술위와의 역할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차별화된 기획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비단 서울뿐 아니라 각 시 · 도가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서울문화재단이 설정한 실행전략의 효과성도 크게 기대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5.0점, 서울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 (5점)은, 기획사업 및 개별 지원사업의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함.

- 2013년에는 '서울시 연극발전 종합계획' 을 수립하여 2013년에는 창작활성화 사업(예술창작지원사업) 7개 장르 중 연극분야에 22.5%(장르 평균 14.3%), 그리고 2014년에는 6개 장르 중 연극분야에 23.2%(장르 평균 16.7%)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새로운 공간기능 수요 증가로 인해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의 공간을 재구성함.
- 2014년에는 '서울시 국악발전 종합계획' 을 수립하여 6개 장르 중 전통예술분야에 20.6%(장르 평균 16.7%)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국악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사업은 2015년도에 추진할 예정임. 2014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한 '서울시 연극발전 종합계획' 의 경우 서울문화재단이 중점 지원 대상으로 '연극' 장르를 선택했다는 사실 외에는 연극 장르와 서울지역만의 특화된 문화자원과의 연계에 대한 고민이나 연계 실적이 별로 보이지 않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4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4.7점, 서울 지역 4.0점임.

□ 평가지표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5점)은,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취지에 맞는 선정기준(예컨대, 예술적 수월성)을 설정하고 있는지, 지원 단체 선정율과 평균지원액의 규모가 적정하거나 연차별로 개선되고 있는지,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공연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별로 사업의 질, 운영, 성과에 관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창작활성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질' 의 경우 공연예술은 작품성/예술의 완성도(작품 완성도/독창성, 출연진/스태프의 전문성과 기량), 사업목적의 적합성, 다원예술은 프로그램의 창의적 실험성과 독창성, 사업목적의 적합성 등 장르에 따라 적합한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지원단체 선정율은 '12년 30% → '13년 24% → '14년 23% 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평균 지원액은 '12년 1,110만원 → '13년 1,200만원 → '14년 1,240만원으로 계속 많아지고 있으며,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5.0점, 서울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10점)은,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율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여부, 단체(개인) 지원신청 자격 명시 여부, 선정단체의 사업수행 적합성 정도, 신규단체 참여확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배려 여부,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정도 등을 평가함.

- 장르별로 지원신청 자격을 명시하고 있으며, 신규단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있음. 지원신청을 받은 시기인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서울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수는 142개(‘14년 말 기준 162개, 문화부 지정 16개 별도)로, 이 중 33개 단체가 지원신청하고, 13개 단체가 선정되어 선정율 39%이며, 이는 전체 선정율 25% 보다 14%가 높은 비율임.
- 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단체(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보유단체)를 우대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며,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 평가요소 중 하나인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평가지표 3.1.에서 활발한 수준의 전문가/예술계와의 소통 실적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7.8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5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8.7점, 서울 지역 9.0점임.

□ 평가지표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 (5점)은,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사업 설계 및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서울시민의 문화향수 및 인식 실태, 재단 비전 재설정, 재단 인지도 및 사업 참여도, 문화정보서비스 개선 등에 관해 일반시민 1,000명, 재단회원 3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 지역의 다양한 문화수요(시민, 전문가, 예술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그러한 문화수요를 사업 수행에 반영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은 서울형 예술지원체계인 ‘성장단계별 지원제도’ (2014년에 도입) 중 ‘성장기’ 예술단체/예술가의 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은 시민문화팀, 축제기획팀, 창작공간 등 창작활성화 부문이 아닌 다른 부문에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 8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5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4.8점, 서울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 (5점)는, 특화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주민 참여와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그리고 지원수혜단체의 홍보/기획/마케팅 담당자 대상의 교육, 자문, 워크숍을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재단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통합홍보(수요자 맞춤형 사업설명회, 온/오프라인 광고, 지원사업 안내책자, 기타), 선정 예술단체/예술인 행사에 대한 홍보, 선정단체의 지원금 집행과 세무회계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
- 다만, 신규 문화수요 개발과 주민 참여를 위한 마케팅 운영, 선정단체의 홍보/기획/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4.7점, 서울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5점)는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의 수준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했는지, 그 성과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 2013년 대비 참여예술인 수는 29% 감소한 반면, 관객 수는 209% 증가함. 2015년에는 단체들의 홍보에 관한 기술 및 노하우 전달을 위해 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음.
- 총 관람객 수 '13년 337,268명 → '14년 651,775명, '14년 발표작품 수 창작초연 2,851건, 기존창작품 1,044건, 외국작품 442건, 참여예술인 수 '13년 13,245명 → '14년 9,379명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4.5점, 서울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10점)는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창작활성화 부문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를 창출했는지, 제시한 최우수프로젝트(Best Practice)가 타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국내외 각종 수상(受賞), 인증, 페스티벌 초청/참가, 예술시장에서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평가함.

- 각 장르별로 수많은 수상, 인증, 페스티벌 초청, 예술시장 유통 실적이 있으며, 연극 14건, 무용 15건, 음악6건, 전통 19건, 다원6건, 시각 10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실적 최우수 사례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음. 판소리만들기자(연극단체)의 〈판소리 단편선 1_주요섭〉 은 소설을 판소리 무대화한 작품으로 언론의 조명을 크게 받았고, 무용단체인 춤추는 여자들의 〈당신은 지금 바비레따에 살고 있군요〉 는 관객참여형 감성치유 프로젝트이자 시민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끌어 내는 커뮤니티 댄스로 시민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9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9.5점, 서울 지역 10.0점임.

□ 평가지표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10점)는, 시민 모니터링과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과 결과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평가함.

- 공모를 통해 시민모니터 87명을 모집했으며 1인당 평균 7.7회의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13년 전체 지원사업의 51.4%(173건)를 실시한데 비해 '14년에는 전체의 57.9%(173건)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함. 현장평가는 선정사업 당 전문가 3명, 시민모니터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장평가서는 해당 예술단체/예술인에게 제공하여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점수화 하여 차기연도 심사에 반영함.
- 시민모니터링 개선을 위해 '14년도 시민모니터 29명을 대상으로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의견 등 9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함. '14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으나 '15년 예산에 고객 만족도 조사 경비 21,000천원을 반영한 상태에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9.0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8.5점, 서울 지역 9.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는 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9.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54.4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55.3점, 서울 지역 57.0점임.

4.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 서울 지역은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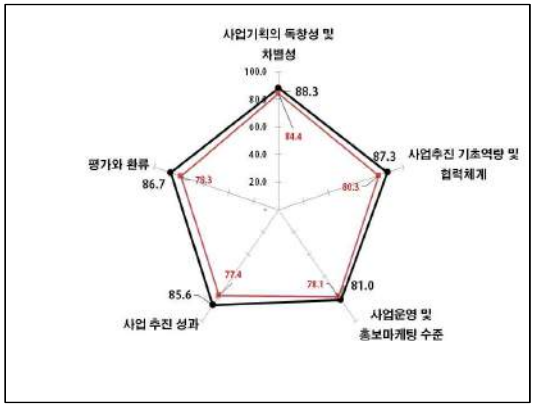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 서울 지역은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음.

6.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 서울 지역은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음.

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16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서울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88.3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87.3점
사업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81.0점
사업 추진 성과	85.6점
평가와 환류	86.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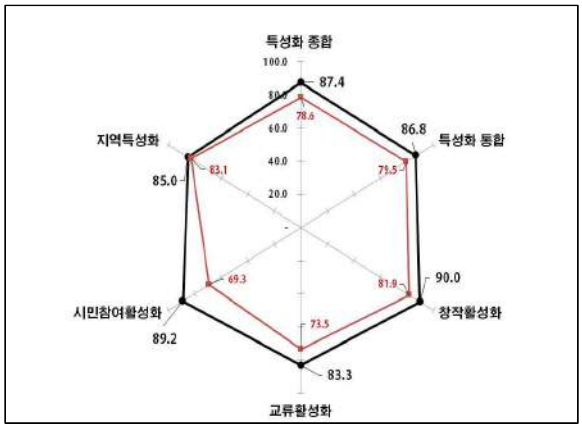
[표 169]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서울

- 예술가/단체의 성장단계별(태동기, 성장기, 안정기, 지속기)로 체계적인 창작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연장상주사업을 안정기에서 지속기로 나아가는 단계의 사업으로 설정하고 안정된 창작역량을 갖춘 단체·공연장과 협력하여 창작품을 보급·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레퍼토리의 구축 · 유통 · 확산을 꾀하고 있음.
- 2012년부터 서울의 상주단체 및 공연장 특성을 반영하여 '공연예술창작활성화부문'과 '지역문화커뮤니티활성화부문'으로 지원 부문을 이원화하고, 각 부문별로 '새로운 작품 창작활동' 중심 사업, '지역관객수요를 반영한 공연 및 커뮤니티활동' 중심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의 연극 특화정책에 부합하여 이를 단체 선정에 반영하였음.
- 서울지역의 역사문화적 고유성,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우수사례로 소극장 연극의 약진을 선도한 극단 골목길과 소극장 시월, 실버세대를 위한 시민 참여형 연극을 기획한 극단 그림연극과 송파구민회관,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지명)을 콘텐츠화한 창작 공연 절대歌인과 소월아트홀, 지역을 켄셉으로 'made in 성수' 레퍼토리화 하는 공연예술제작소 비상과 성수아트홀의 사례를 제시함.
- 1차 재단 (예비)행정심의, 2차 전문가 서류심의, 3차 전문가 심층심의에 이르는 3단계의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하였으며, 전문예술단체가 32%를 차지하는 등 전문역량을 갖춘 단체, 공연장이 선정되었음.
-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전문성강화를 위해 성과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전문가 컨설팅 및 워크숍을 지원함. 향후 창작, 유통, 홍보 등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단의 지원활동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연장 선정 시 재단의 지원금 외 공연장의 자체 투자분을 보유할 경우 우대함으로써 재원의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총 지원금액(2,920백만원)의 15.3%에 해당하는 금액(446,794천원)을 공연장 측에서 추가로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함.
- 공연장과 상주단체간의 협력 수준은 양호함. 연계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주단체와 공연장의 외부 협력, 재단과 상주단체 · 공연장 간의 협력, 재단의 외부기관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부족함.
- 연중 현장 예술인 간담회 개최 및 사업담당자 참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사업설명회, 간담회, 자문회의, 각종 토론회,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 다만, 지역민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주민 수요 파악 활동에 대한 제시가 미흡함.
- 보도자료 배포, SNS 활용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공연장상주사업에 대한 재단차원의 통합적인 사업홍보 채널을 구축하지 못하였음.
- 2014년도에 처음으로 공모를 거쳐 8개 단체의 상주단체간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14 지역문화공간 연합페스티벌'과 연계하여 개최함. 다만, 보다 전략적인 교류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함(아트마켓형 페스티벌 등)
- 상주단체간 협력적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상주단체협의체, 정기모임 등 상주단체간 교류 및 연계협력 활성화를 촉매하는 노력이 필요함.
- 극단 하땅세의 '2014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 아시안 아츠 어워드(Asian Arts Award)' 수상 등 다수의 국내외 대회 수상 및 축제 초청 사례가 제시됨.
- 성과목표를 각 상주단체가 수행한 이행실적, 추진실적 등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음. 재단 차원의 공연장상주사업 성과목표와 목표수준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고 이의 달성수준을 제시하여야하나 개별 상주단체의 실적을 모아 사업추진성과로 제시함.
- 행정평가와 성과보고평가는 재단에서 담당하고, 현장평가(전문가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음. 상주단체 공연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12점(82.4점)으로 나타남. 다만, 시민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 선정시 계속지원여부, 지원금액 등에 반영하여 환류함.

제2절 부산

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그림 165]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부산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특성화 종합	87.4점
특성화 통합	86.8점
창작활성화	90.0점
교류활성화	83.3점
시민참여활성화	89.2점
지역특성화	85.0점
평균	89.4점

[표 170] 특성화지원사업 평가 결과 - 부산

• 예산가중치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7.2
교류활성화	9.3
지역특성화	7.2
창작활성화	76.3
합계	100.0

[표 171]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부산

• 자율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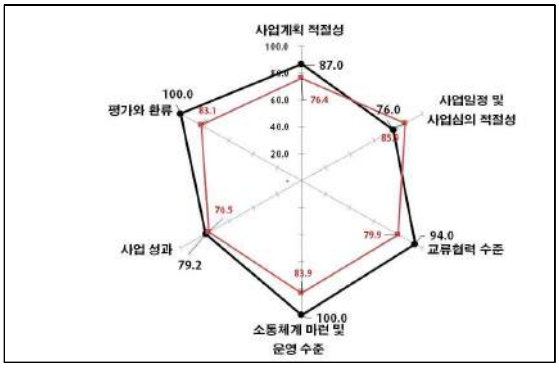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20.0
교류활성화	30.0
지역특성화	50.0
창작활성화	0.0
합계	100.0

[표 172]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부산

□ 부산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는 87.4점임. 부산은 4개 부문의 사업을 모두 추진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고른 평가결과를 얻었음. 창작활성화 부문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그림 166]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부산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87.0점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76.0점
교류 협력 수준	94.0점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100.0점
사업 성과	79.2점
평가와 환류	10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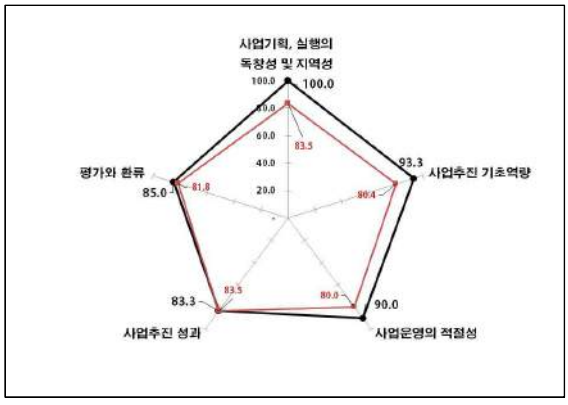
[표 17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부산

- 부산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통합지표 부문의의 평가결과는 86.8점임.
- 부산지역은 특성화 사업별로 재단의 비전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별 목적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있음. 2014년 8월~12월 지원사업 시스템개선을 위한 현장 예술인 의견수렴 및 온라인 설문조사, 자문회의 및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9개 장르에 대한 각 8개 항목의 개선안을 마련함.
- 2014년부터 사업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고 있음. 또한, 문화예술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단체의 실무자,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선정단체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역량 집중교육 4회, 워크숍 1회, 특별강의 2회를 개최하고 '문화충전의 날' 을 시행하고 있음.
- 특성화 사업 모두 계획 상의 일정과 실행 일정이 일치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3월과 4월에 사업안내 공고가 이뤄지고 있는 사업도 있음. 지원금 교부 등 추진일정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
- 특성화 사업 관련 컨설팅, 간담회, 자문회의, 사업설명회, 업무협약 체결, 사업평가회 등 18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또한, 창작공간 네트워크 포럼, 예술가 협업 프로젝트 워크숍 '예술가와 예술가들' 등 외국 작가 초청 포럼, 사례발표 및 토론에 지역 예술가 참석을 통해 교류하고 있음.
- 2014년에 국립부산국악원, 부산문화원연합회 등 6곳과 MOU를 체결했고, 부산시, 부산문화재단 등 35곳 간에 지역 인재 역외 유출 방지 및 인재채용 확대 협약 등
-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사당 2~5명이 참여하여 145개 행사에 395건의 현장평가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평가 100점 만점에 시민현장평가를 20점 반영하고 있음.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52개 사업 수행단체가 자체적으로 1,747명의 관객에 대해 만족도 조사함. 시 · 도기획

지원과 레지던스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부산 시민모니터링단을 위한 교육이 3회 진행되었는데 meet to artist 워크숍으로 시민들이 예술인들을 알기위한 워크숍으로 장르별 3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이 진행됨.

- 전문가 현장평가(사업별 2명), 시민 현장평가(사업별 2~5명), 지원 단체의 결과보고서 접수 등의 자체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부산지역은 중장년층 시민들을 위한 오프라인 홍보를 활성화하고 있음. 지하철 역사내 북카페와 부산 메트로와의 협력을 통해 부산시내 전 역사에 주요사업 홍보가 이뤄지고 있음.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가 있으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 모바일 SNS서비스를 통한 홍보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특성화 사업(4개)에 대해 계량지표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차기 지원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비계량적 성과관리체계도 계량적 성과관리체계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음. 특성화 사업별로 인증, 수상, 비계량적 성과를 제시하였음.

3. 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그림 167]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부산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10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93.3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90.0점
사업 추진 성과	83.3점
평가와 환류	85.0점

[표 174]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부산

□ 창작활성화 부문의 개별지표는 9개 지표 60점 만점으로, 배점 5점의 지표 6개와 배점 10점의 지표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추진 단계별 지표수와 배점은,

[사업계획단계] '사업기획/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개 지표 10점,

[사업집행단계] '사업추진 기초역량' 2개 지표 15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2개 지표 10점,

[사업성과단계] '사업추진 성과' 2개 지표 15점,

[평가환류단계] '평가와 환류' 1개 지표 1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지표별 배점 등에 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평가지표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5점)은, 사업기획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는지, 사업실행 방식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정도를 평가함.

- 부산의 창작활성화 부문은 '지역예술창작지원사업'(영상, 다원예술을 포함한 10개 장르 및 청년예술가 지원) 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산문화재단이 추구하는 3대 가치인 해양, 미래, 순환을 3대 추진영역 중 하나인 '예술창작과 소통'과 접목시켜, ① 해양 : '열린 친수(親水)공간 거리예술'과 국제교류 등 도시 정체성을 고려한 창작환경 조성, ② 미래 : 전통문화와 실험예술 육성, 통섭을 통한 다양성 증진, ③ 순환 : 창작과 소통의 순환을 통한 예술기반 확대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심화인터뷰 시 창작활성화 부문 추진방향에 따른 지원사업 설계, 지원사업 설계를 통한 핵심 키워드 생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 심사기준으로 부산문화재단의 3대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 창의적 사업 실행방식으로 지원시스템 개선 자문회의, 문학, 미술, 음악 장르에 대해 4~7개의 세부 장르로 나눠 별도 심의, 일부 분야에 대한 무기명 작품심의를 통한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이 인정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부산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 (5점)은, 기획사업 및 개별 지원사업의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함.

- 부산지역의 특화 문화자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부산 지역문화의 원형자원 활용, 설화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제작, 환경자원을 활용한 창작활동, 무형문화재 연계 등 네 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로 '안녕 광안리와 함께하는 셔틀매거진(지역순회잡지) 프로젝트', '2014 국제포토그라피 인 부산 〈사진, 경계를 넘다〉', '부산 이야기 〈금정산 고당할미 이야기〉' 등 3건을 제시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4점, 부산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5점)은,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취지에 맞는 선정기준(예컨대, 예술적 수월성)을 설정하고 있는지, 지원단체 선정율과 평균지원액의 규모가 적정하거나 연차별로 개선되고 있는지,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선정기준으로 사업의 지역성, 예술성(작품수준, 기획/연출/구성의 참신성, 창의성, 독창성 등), 신청단체 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충실성, 파급 효과를 설정하고 있음.
- 선정율은 60%(559건 선정/939건 신청)로 높은 편이며, 평균지원액은 490만원(2,756,000천원/559건)임. 중복지원 제한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부산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10점)은,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율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여부, 단체(개인) 지원신청 자격 명시 여부, 선정단체의 사업수행 적합성 정도, 신규 단체 참여 확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배려 여부,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정도 등을 평가함.

- 지역예술창작지원사업 선정 예술단체 229개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은 29개로 선정율 12.7%이며, 부산지역 전문예술법인(단체) 72개 중 29개는 선정율 40.3%임. 일반단체 선정율 60%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정되나 지원 신청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수가 명확하지 않아 확실치는 않음.
- 신청 자격과 제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심의 선정한 단체가 사업수행에 적절한 단체일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며, 개인 연속지원 불가 규정을 통해 신규 신청한 개인 예술가의 선정율을 높이고 있음.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실적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7.8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5점, 부산 지역 9.5점임.

□ 평가지표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5점)은,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 사업 설계 및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지역 문화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문화포럼(4회, 공동주관)을 개최하는 동시에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 예술가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감만창의 문화촌 우리 동네 문화사랑방 프로그램'을 134회(영화상영 83회, 문화나눔 체험프로그램 51회)를 운영했음.
- 심화인터뷰 시 재단 자체사업으로 매년 지역예술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자체평가보고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확인이 필요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5점, 부산 지역 4.0점임.

□ 평가지표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5점)는, 특화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주민 참여와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그리고 지원수혜단체의 홍보/기획/마케팅 담당자 대상의 교육, 자문, 워크숍을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재단 홈페이지, 웹진,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 부산문화정보 애플리케이션, 지하철역 북카페 활용, 지원신청안내서 제작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함. 다만, 선정단체의 홍보/마케팅/기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노력에 대한 언급은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부산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5점)는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의 수준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했는지, 그 성과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 지원금 예산을 확충하고 선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공연/전시 횟수는 줄었으나 참여예술인 수와 총 관람객 수는 증가함.
- 총 관람객 수 '13년 478,507명 → '14년 512,087명, 공연/전시 횟수 '13년 1,087건 → '14년 964건, 참여예술인 수 '13년 2,371명 → '14년 3,262명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부산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10점)는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창작활성화 부문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를 창출했는지, 제시한 최우수프로젝트(Best Practice)가 타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국내외 각종 수상(受賞), 인증, 페스티벌 초청/참가, 예술시장에서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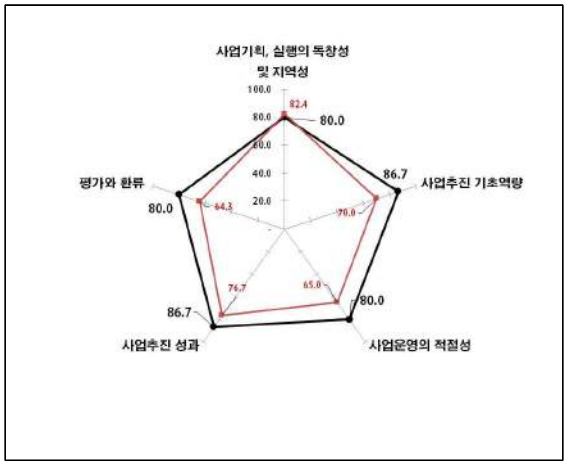
-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로 큰 호응을 얻은 '제4회 창작 단막극제 나는 연출이다'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창작단막극제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희곡작가와 연출가들의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무대, 20분 내외의 단막극을 릴레이식으로 공연, 참여 연출의 세대 간 소통과 열정, 그리고 선의의 경쟁, 관객 전원 유료 예약제로 회당 평균 80명의 관객 확보, 일부 타 지역 해외 예술인의 참여(연출 양지웅, 배우 사카세가와 마이오) 등 주목할 점이 많음.
- 창작활성화 부문의 수상, 인증, 페스티벌 참여 실적, 예술시장 유통실적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9점, 부산 지역 7.5점임.

□ 평가지표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10점)는, 시민 모니터링과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과 결과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평가함.

- 현장평가대상 공연/전시 145건에 대해 사업 당 시민평가자 2~5명이 현장평가에 참여, 총 395건의 현장평가서(20점 만점)를 제출하여 차기연도 심의 시 20%를 반영, 시민평가단을 대상으로 3차례의 워크숍과 중간평가 설명회, 연말평가 보고회를 개최
- 사업 수행단체가 52개 사업에 대해 총 1,747명(남 558명, 여 1,189명)을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예술성과 대중성, 프로그램 만족도, 공연장 시설 만족도)를 조사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9.0점, 부산 지역 8.5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는 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9.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54.4점, 부산 지역 54.0점임.

4.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그림 168]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부산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8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6.7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0.0점
사업 추진 성과	86.7점
평가와 환류	80.0점

[표 175]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부산

□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지역성

- 국내외 예술가를 균형 있게 초대하고, 특히 레지던스 공간에 같이 거주하는 예술가들의 장르를 한 두 장르가 아니라 다변화하여 장르 간 융합이나 참신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독창성이 돋보임. 한편 사업이해도, 우수성,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있지만, 지역 특화문화자원과의 연계 수준이나 고려는 다소 약함.
- 부산문화재단의 문화비전은 소개하고 있지만, 해양, 미래, 순환이라는 핵심가치가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누락되어, 단지 형식적으로 부산의 지역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선언을 유포하는 서술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
- 서울 지역 외에 유일한 메가도시에서 발견 가능한 대안문화 영역의 층을 수용할 수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나, 이러한 차별성이 주목받을 수 있는 사업목표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지역의 풍토, 자연 환경적 요소와 동시에 국내 제2의 국제적인 대도시로 중앙 및 국외와의 연계나 대안문화까지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원하는데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도시특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보다 차별적인 서술이 필요함.

□ 사업추진의 기초역량

-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이나 인적자원 등이 서울과 수도권 외에 가장 강점을 가진 곳인 만큼 선정된 사업의 수준 편차가 크지 않고 경쟁력 있는 사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사설 무용단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그 내용이나 성과 등이 타 사업과 간극이 커 보이며 타당성이 모호함.

-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경우 국내외 예술가들에게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의 전문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 및 프로그램을 공모할 필요가 있음. 2013년에 비해 지원단체수가 10건에서 8건으로 낮아진 점 등에 대한 진단과 향후 개선안 모색이 필요
- 선정율이 8:4이고, 응모단체가 4년 평균 8단체에 머물고 있는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단체들의 응모를 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함.
- 4개 단체 개별 지원액의 평균이 4,750만원으로 개별 지원액이 이전에 비해 250만원 상향되어 사업 수행에 인센티브가 부여된 상황이었음.

□ 사업운영의 적절성

-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있어서 작가들을 동원하여 억지스러운 교육형 참여프로그램을 양적으로 양산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균형감을 가지고 수행하였음. 문화자원이 보다 풍부한 대도시의 레지던스라는 점에서 지역 내부의 단체 활용과 협력적 접근과 함께 전국단위 및 국제적인 관심과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협력채널을 고민해야하며, 이를 위해 중앙이나 국제단위의 채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제시한 사업들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단체에서는 1/4인 1개 단체만 참여했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되는 시민대상 생활밀착형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으로 교류활성화 사업으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음.
- 레지던스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기관 1개의 개별 홈페이지만 있고, 사업결과 자료집은 있으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창작자들의 활동 상황 등을 홍보해주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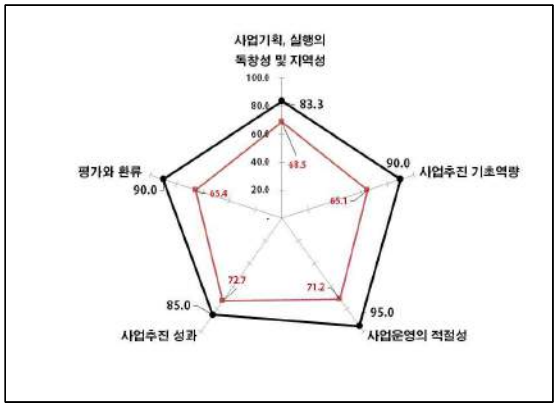
□ 사업추진 성과

- 현재 상태로는 지역대표 브랜드가 창출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나 서브컬쳐, 문학 장르와 연계된 지원에 있어 가능성이 보이며 이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명확히 하여 집중지원을 통한 내용 심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임.
- 계획서에는 4천명 목표 사업의 경우에도 약 8배 이상의 관람객이 향유했다는 결과가 있는데, 얼핏 보면 성과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예상 목표치가 극단적으로 낮았다는 점으로 파악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수요 분석에 착오가 있었다는 양면적인 평가가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할 것임.
- 인증의 공식적인 결과라면 부산의 경우, 단순히 해당 지방지가 아니라 중앙지 증빙자료가 적절할 것임. 중앙지에 게재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디어의 모색과 실천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평가와 환류

- 레지던시 사업의 경우 거주 예술가의 의견을 보다 상세히 반영하여 거주와 창작활동에 불편함 점이나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등을 적극 수합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시민평가단 운영이 정례화 되어가고 있어 체계성이 기대됨. 게다가 2013년 우수평가자 42명을 포함시키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시민들의 모니터링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바람직함.
- 시민모니터링은 사업평가 뿐 아니라 미래의 예술고객 확보, 즉 예술 향유층 양성과도 직결되는 작업이므로 점진적으로 중요도를 높여 가야함.
-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환류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서비스 환경(화장실 등) 개선에 대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중앙 문화예술위 차원의 지원이 요망될 수도 있음.
- 다만,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위한 3회의 워크샵이 기간 차이(6, 10, 11월)를 두고 이루어졌는데, 각 장르가 나누어 진행된 워크샵이므로 1회로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 교육으로서 더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사료됨.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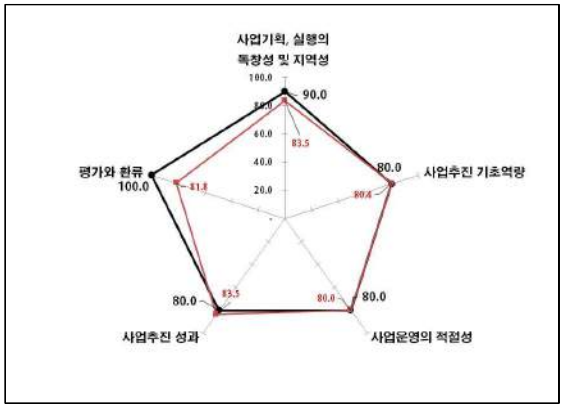
[그림 169]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부산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83.3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9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95.0점
사업 추진 성과	85.0점
평가와 환류	90.0점

[표 176]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부산

- 부산지역은 우리가락우리마당과 생활예술지원사업을 시민참여활성화 영역에 넣었음.
- 우리가락우리마당은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것에서 선정된 전문예술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하였고(공연단체섭외, 계약, 출연료 지급은 재단에서 진행), 용두산 공원에서 진행하던 것을 부산시민공원으로 장소 변경하였음.
- 체험형, 참여형 놀이 확대 진행하였고, 시민참여공연 진행, 출연진 공모진행 하였음. 신규단체 20~30% 공모하였고, 전년 출연단체 중 상위 70~80%가 계속 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시민생활문화동아리 여는 마당을 운영하였고, 관객 참여형프로그램으로 전통민속놀이 체험을 진행하였음.
- 매주 일요일 14시~15시 30분, 연 20회 공연진행, 40개 단체, 438명 출연, 12,100명 누적관객이 참여하였음.
- 생활예술지원사업은 육성지원사업 중 일반시민단체와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였음. 순수 시민동아리 활동이라는 사업취지의 부합성을 선정기준으로 제시하였고, 75건 접수 45건 선정, 선정율 60%, 평균지원금 2,200,000원, 자부담 10%원칙, 109회 공연전시 진행, 689일, 24,159명 관객 참여하였음.
-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홍보, 정보메일링서비스, 웹진발송, 부산문화정보 에플리케이션 운영, 포스터, 리플렛, 부채, 티셔츠 제작 배포, SNS활용 홍보를 진행 하였음.
- 시민평가단 운영, 현장평가 모니터링 진행, 평가단 발대식, 워크숍, 설명회, 보고회를 진행하였음.

6.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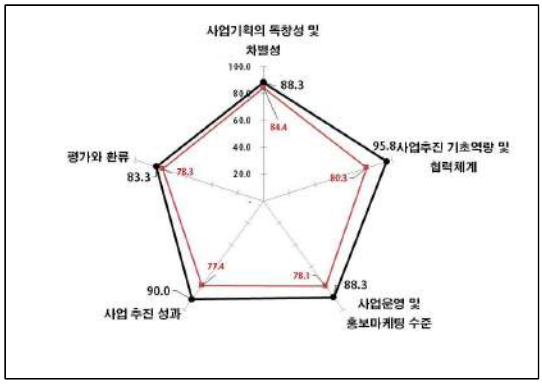
[그림 170]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부산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9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0.0점
사업 추진 성과	80.0점
평가와 환류	100.0점

[표 177]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부산

- 사업기획 실행 독창성은 90.0점, 사업추진 기초역량은 80.0점, 사업운영의 적절성은 80.0점, 사업추진성과는 80.0점, 평가와 환류는 100.0점을 획득하였음.
- 2011~2013년도에 실시한 회춘프로그램, 부산 청년 문화수도, Eco.DIY Project 등은 지역 독창성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실적이 우수했음. 2014년에는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무빙트리엔날레:메이드 인 부산' 을 기획했는데, 독창성이나 지역성이 전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는 특징을 지님. 이는 기획에서 특별한 점에 역점을 두려고 했던 의도로 보임. 다만, 이번 기획에서는 시민과 밀착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며, 대표적인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등의 특징을 보인 것이 두드러지고 있음.
- 지원단체수는 7건이며, 그 중 전문예술법인 1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했음. 지원금액은 평균 1억 9천만원을 지원함. 선정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은 단체별로 차이가 없으나, 지원 단체 중 선정된 단체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사업운영은 지역주민 및 예술가 참여프로그램으로 부산문화예술생태보고서, 하동집문화살롱 등을 열었음. 홍보를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 및 진행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홍보채널을 좀 더 다각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업성과는 관람객 40,500명을 기록했으며, 작품은 초연 60건, 기존 창작 20건, 외국작품 20건을 기록하였음. 특히, 부산자연예술인협회 활동이 대표적으로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시민평가단 137명을 운영하였고,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음.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객설문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추진해서 반영하고 있음.

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17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부산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88.3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95.8점
사업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88.3점
사업 추진 성과	90.0점
평가와 환류	83.3점

[표 17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부산

□ 부산지역은 별도의 특화사업으로 '융복합 프로그램 기획지원사업'을 추진함. 2014년도 선정 공연장 및 상주단체를 대상으로 기존 매칭된 상주공연장–상주단체 결연이 아닌, 2개 단체(공연장) 이상으로 구성된 페스티벌, 공연프로그램, 예술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술장르 혼합구성을 지원하여 새로운 유형의 공연장 상주단체 프로그램을 모색함. 실행단계에서는 컨소시엄 단체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재단이 중심이 되어 회의를 개최하고 내용을 조율함(김옥련발레단 '여우', 4천만원 지원, 무용단redstep, 극단 맥 등 참여)

□ 융복합 프로그램 기획지원사업, 지역소재를 다룬 작품들, 퍼블릭프로그램 활성화, 공연장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선정방식 등 부산의 특별함이 있으나 연계성 없이 각각의 부분적인 개별사업으로 파악됨. 부산지역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드러낼 수 있는 차별적인 공연장상주사업 시스템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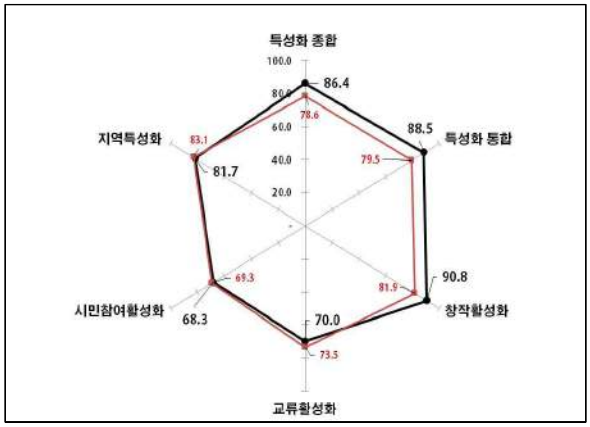
□ 지역특화소재를 다룬 작품으로 부산 원도심을 배경으로 부산오뎅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소시민의 삶을 재조명한 극단 자갈치의 창작 마당극 '오 마이 갓 뎅',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복지에서 성지로 2', 무용단redstep+극단 자갈치+민주공원의 부마민주항쟁 35주년 기념 상황재현 춤극 '민주꽃바람', 영도다리의 추억을 담은 극단 에저또의 '유랑극단' 등을 제시함.

□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우선 공연장을 먼저 공모하여 선정하고 공연장과 상주단체를 매칭하는 방법을 택함. 1차 공연장 현장 심사(공연장 선정)를 거쳐 2차 공연장과 상주단체 서류, PT 심사(상주단체 선정)를 실시하여 선정하였으며, 전문예술단체 선정비율이 100%에 달하는 등 전문역량을 갖춘 단체, 공연장이 선정되었음.

- 상주단체 등 지역예술단체와 지역 기업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모금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함.(기업모금 방법, 태도 등)
- 공연장과 상주단체간의 협력이 전년도보다 강화되었으며, 상주단체와 공연장의 외부 협력, 재단과 상주단체 · 공연장 간의 협력 등도 상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재단의 외부기관 협력에 있어 상주사업과 연관된 내용의 구체적인 제시가 부족함.
- 상주사업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해 상주사업 관계자 간담회(6회), 현장간담회(25회), 평가회 등을 진행하고,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공연장상주사업 평가단 컨설팅,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적극적인 지역문화수요 반영 활동을 벌임.
- 극단 에저또의 경우 퍼블릭 프로그램으로서 영도문화예술회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야외무대에서 '에저또 아트 페스티벌' 을 개최하여 부산 영도구의 열악한 지리적 환경으로 다양한 공연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영도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콘텐츠의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함.
- 활발하게 지역민 참여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나, 지역민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주민 수요 파악 활동에 대한 제시가 미흡함.
- 상주단체 공연 1회의 무료관람을 제공하는 프리티켓을 담은 공연장상주사업 통합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음. 또한 공연장, 단체 영상홍보물 제작하여 공연장에서 상영하고, 해외진출 단체를 위해 외국어 리플릿 제작(국영문)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상주단체의 서울아트마켓 참여를 지원(극단 맥 초청)하고 있음. 다양한 시도가 돋보이나 보다 영향력 있는 통합마케팅 수단의 개발이 필요함.
- 상주단체간 교류활동 뿐만 아니라, 타공연장과의 교류공연도 활발히 진행됨. 극단 맥을 중심으로 페스티벌 추진단을 구성하여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한 여름밤의 꿈〉을 개최함.
- 극단 맥이 아비뇽 오프 페스티벌에 초청되고, 무용단 redstep이 SFC(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에서 "신곡" 으로 상하이 초청작에 선정되고 개인상을 받는 등 국내외 대회 수상 및 축제 초청 사례가 제시됨.
- 성과목표를 각 상주단체가 수행한 이행실적, 추진실적 등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음. 재단 차원의 공연장상주사업 성과목표와 목표수준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고 이의 달성 수준을 제시하여야 하나 개별 상주단체의 실적을 모아 사업추진성과로 제시함.
- 행정평가, 전문가 현장평가,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음. 전문가 평가는 심의위원 중 분야별 수행평가위원을 선정함. 상주단체 공연에 대한 만족도는 20점 만점에 평균 18.5점(92.5점)으로 나타남. 부산문화재단 시민평가단(제5기 137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모니터링을 실시함.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심의에 가산점 부여, 지원여부 등에 반영하여 환류함.

제3절 대구

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그림 172]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대구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특성화 종합	86.4점
특성화 통합	88.5점
창작활성화	90.8점
교류활성화	70.0점
시민참여활성화	68.3점
지역특성화	81.7점
평균	81.0점

[표 179]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대구

- 예산가중치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2.0
교류활성화	12.0
지역특성화	16.0
창작활성화	69.8
합계	100.0

[표 180]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대구

- 자율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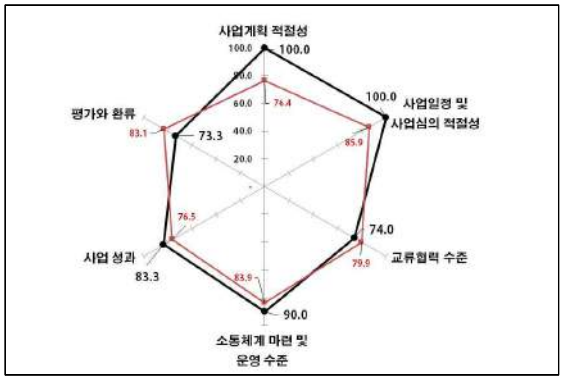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10.0
교류활성화	20.0
지역특성화	30.0
창작활성화	40.0
합계	100.0

[표 181]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대구

□ 대구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는 86.4점임. 대구지역도 4개 부문 사업을 모두 추진하였으며, 창작활성화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부문과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은 낮은 평가를 받았음.

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그림 17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대구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100.0점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100.0점
교류 협력 수준	74.0점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90.0점
사업 성과	83.3점
평가와 환류	73.3점

[표 18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대구

□ 대구지역의 특성화 통합지표 부문의 평가결과는 88.5점임.

□ 대구지역은 2014년 1월 발표한 '재단의 비전 및 전략목표'에 따라 전략목표를 수립하였고, 각종 설명회와 컨설팅, 워크숍, 가이드북 제작 배포를 통해 성과목표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구지역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특성화 사업을 예술창작진흥트랙(3개사업)과 지역밀착형지원 트랙(6개사업)의 양대 트랙으로 사업을 개편하였음. 지역밀착형 지원사업은 지역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기획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연극뮤지컬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예술인 커리어개발 지원사업 등이 있음. 특성화 사업에 대해 5대 추진전략과 11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재단의 비전, 핵심가치, 전략목표, 이행과제 설정을 통해 대구지역의 사업에 반영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전년도 11월('13.11.28)에 공모사업 공고를 관례화하고 있으며, 계획한 일정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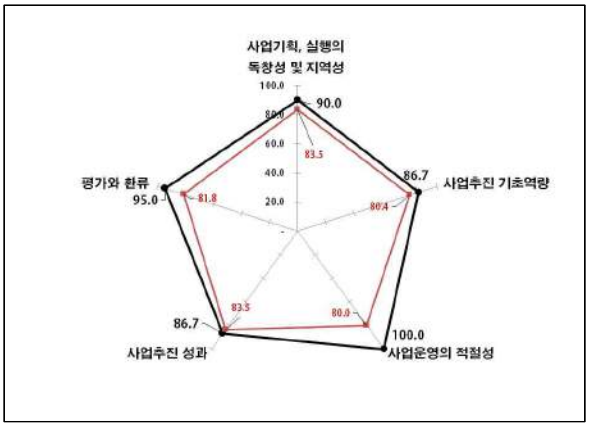
□ 특성화 사업 성격에 따라 다양한 심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예술위원회 인력풀, 전년도 심사위원, 사업 평가위원, 대구시 추천, 예총 추천 인사 등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외부 추천인사 비율은 73%에 달함. 3년 연속 동일사업 심사 참여 불가 및 지역 외 인사 1/3 이상 위촉 원칙을 지키고 있음.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심사위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심사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심사참관인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심사참관인은 1인 보조 1인으로 2인의 참관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심사참관인제의 운영은 시민사회단체에 위탁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 대구지역은 시도문화재단 통합페스티벌 및 네트워크 포럼 참여, 대구-광주 교류협력(달빛 동맹) 협약 체결 및 워크숍 2차례 진행하였음. 해외 레지던스 파견 추진을 위해 중국 항주 지강국가문화창조단지 및 북경 798 문화예술창조산업투자유한공사와 교류협약 체결, 지역작가 6명 파견의

성과를 보임. 한편, 해외활동지원사업을 단회 지원에서 2년까지 교류형태의 사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을 확대하였음.

- 관객만족도 조사, 지역문화예술지표 조사, 간담회, 워크숍, 지원사업자 설문조사, 운영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단체에 의뢰하여 1천만원 이상 지원사업에 대해 고객 만족도 조사(종합만족도 86.7점)를 실시하였음. 대구지역의 문화지표조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2014년 말에 완료되어 2015년과 2016년에 순차적으로 사업기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공연안내센터인 dgtickets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및 마케팅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오프라인(전광판, 동영상, 리플렛, 포스터, 안내판, 포스트잇 등) 및 온라인(인터파크 홈페이지, dgtickets 공연정보센터를 포털사이트에 검색 등록, 문자 발송, SNS,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한 다양한 통합 홍보 및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년 대비 증감율 분석, 특성화 사업 연차별 성과 분석을 시행하고 있음.
- 공연/전시기획자 양성과정의 수준이 높은데, 지역의 예술단체 관계자들과 청년 기획인력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았으며, 재단 직원들도 교육에 참여하였음.
- 대구지역은 책임컨설팅제도라는 것을 시행하였는데, 재단 직원들이 선정단체들에 대한 예산집행과 회계, 정산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10개 선정단체들이 컨설팅을 받았음.
- 대구지역의 특화된 지원사업의 하나인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연출 분야가 추가되고 활동횟수나 활동조건을 지역에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예술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멘토 제도를 운영하여 신진예술가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그림 174]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대구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9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6.7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100.0점
사업 추진 성과	86.7점
평가와 환류	95.0점

[표 183]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대구

□ 창작활성화 부문의 개별지표는 9개 지표 60점 만점으로, 배점 5점의 지표 6개와 배점 10점의 지표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추진 단계별 지표수와 배점은,

[사업계획단계] '사업기획/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개 지표 10점,

[사업집행단계] '사업추진 기초역량' 2개 지표 15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2개 지표 10점,

[사업성과단계] '사업추진 성과' 2개 지표 15점,

[평가환류단계] '평가와 환류' 1개 지표 1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지표별 배점 등에 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평가지표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5점)은, 사업기획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는지, 사업실행 방식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정도를 평가함.

- 대구의 창작활성화 부문은 '창작진흥사업', '학술진흥사업', '공연활동진흥사업', '기초예술진흥사업'(집중기획지원사업, 우수기획지원사업)의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구공연문화도시 육성 중장기계획'(2010~1019)에 따라 대표 콘텐츠 육성을 목표로 예술단체가 지속적으로 레퍼토리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예술의 특성을 살리고자 창작활성화 사업 육성체계를 '예술창작지원Track'과 ' 지역밀착형지원Track'으로 분리함.
- 대구의 차별화된 지원방식으로는, Two Track으로 지원체계 개선, 집중 지원을 통한 지역 대표 콘텐츠 육성,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 선정비율 조정과 평균 지원액 증액, 우수사업 재발굴과 지속 지원 확대, 외부 추천 비율 60% 이상 유지, 심사참관인제(심사참관 1인, 보조 1인) 등이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대구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 (5점)은, 기획사업 및 개별 지원사업의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함.

- 사업 기획 및 시행 전 현장 탐방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 수립, 지역 특화문화자원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학술행사(라운드 테이블) 개최 등에 대해 언급함. 자체평가보고서에는 기획사업 및 개별사업의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 심화인터뷰 시 지역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 〈사랑 꽃〉 이 중국의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특별 영예상을 받고 한문연 전국순회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대구에는 지역자원을 소재로 한 우수한 창작품이 많다고 설명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4점, 대구 지역 4.0점임.

□ 평가지표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5점)은,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취지에 맞는 선정기준(예컨대, 예술적 수월성)을 설정하고 있는지, 지원 단체 선정율과 평균 지원액의 규모가 적정하거나 연차별로 개선되고 있는지,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창작활성화 4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의 적정성, 사업의 발전가능성, 지원사업의 합목적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단체의 활동 실적 등이며,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우수성에 기획/연출/출연진의 역량으로 예측되는 예술적 완성도가 한 요소로 들어가 있을 뿐 작품의 창작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예술적 수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는 않음.
- 지원단체 선정율은 '12년 52.2% → '13년 50.3% → '14년 48.3% 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평균 지원액은 '12년 5,263천원 → '13년 5,517천원 → '14년 5,960천원으로 계속 많아지고 있으며,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대구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10점)은,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율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여부, 단체(개인) 지원신청 자격 명시 여부, 선정 단체의 사업수행 적합성 정도, 신규단체 참여확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배려 여부, 사업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정도 등을 평가함.

- 창작활성화 부문(해외활동지원 포함) 260개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수 29개(총 허가/등록 수 64개)로 11.2%를 차지하고 있음. 1차 일반공모, 2차 기획공모 각각에 대해 공모사업 제한 규정과 단위사업별, 분야별로 지원신청 자격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 심사 제도를 통해 사업 수행에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다만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단체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단체 활동연수와 경력을 배제하고 있음.
- 자체평가보고서에서는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주최행사 참가 실적만을 밝히고 있음. 심화인터뷰 시 중국 항저우 국가창조단지와

MOU 체결로 지역작가 2명씩을 3개월 주기로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힘.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7.8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5점, 대구 지역 8.0점임.

□ 평가지표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5점)은,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사업 설계 및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선정단체의 자체 설문조사와 더불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4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 공연/전시 13세 이상 관람객 전체(106개 단체 3,916명)에 대해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2014 지역협력형사업 관람객 만족도 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함. 만족도조사의 결과를 지원사업 설계 및 설정에 반영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심화인터뷰 시 2014 문화지표조사(연말 완료)를 실시한 사실을 설명함.
-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바우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문화예술진흥, 생활분야)을 통해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5점, 대구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5점)는, 특화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주민 참여와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그리고 지원수혜단체의 홍보/기획/마케팅 담당자 대상의 교육, 자문, 워크숍을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함.

- 공연안내센터인 dgtickets를 구축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티켓을 판매(지역협력형사업의 경우 500매 판매)하고 있음. dgtickets를 이용한 전체 인원은 2.4배('13년 6,345명 → '14년 15,150명) 증가
- 재단 홈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별도의 고정 배너, 공연/전시 월간 일정 페이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에서 운영하는 범어아트스트리트 홈페이지와 문화예술정보센터에서 지역의 모든 문화행사 일정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공연전시 정보제공 스마트폰 어플 '대구 공연/전시 정보마당', SNS(온라인 카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심화인터뷰 시 재단이 운영하는 공연/전시기획자 및 생활예술매개자 양성과정에 대해 설명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대구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5점)는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의 수준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했는지, 그 성과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 계량 총괄수치를 통해 전년대비 2014년 증감률 분석을 시행했으며, '13년 총 관람객 수 734,859명 대비 12.5% 하락한 것은 세월호 사고 여파인 것으로 분석됨.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창작활성화 부문 포함) 총 관람객 수 643,152명(목표치 616,357명), 발표작품 수 창작초연 13,769건, 기존창작품 3,188건, 외국작품 800건, 참여예술인 수 22,225명
- 창작활성화 부문 총 관람객 수 446,852명, 발표작품 수 창작초연 13,540건, 기존창작품 3,051건, 외국작품 680건, 참여예술인 수 19,754명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대구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10점)는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창작활성화 부문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를 창출했는지, 제시한 최우수프로젝트(Best Practice)가 타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국내외 각종 수상(受賞), 인증, 페스티벌 초청/참가, 예술시장에서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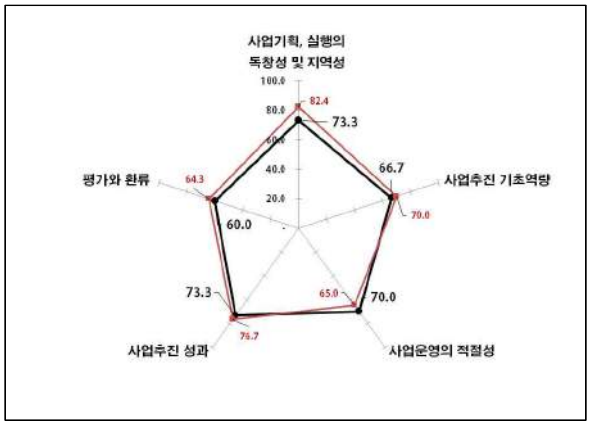
- 분야별 지원체계가 아닌 단계별 육성체계로 지원방식을 브랜드화하고, 지역문화 특화자원 활용 및 우수 작품을 대표 문화브랜드로 지원, 대명공연문화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유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술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 되는 대구의 '공연문화중심지구'로 브랜드화
-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브랜드 사업으로 '2014 대명공연문화거리 활성화 공연프로젝트, 대명동! 길 위에서 길을 묻다! – 생생로드 프로젝트'와 행정자치부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우수사례로 추천한 〈창작국악뮤지컬 복이〉를 사례로 제시
- 이밖에 한중 합작 넌버벌 퍼포먼스 〈런닝맨〉, 도심형 문화축제 'Summer Festival in Daegu 2014 이탈리아, 대구에 빠지다' 등을 제시
- 지역협력형사업 최우수 기관상 수상과 2014 SCF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심사위원장상 수상(이준욱) 외에는 창작활성화 부문의 수상, 인증, 예술시장 유통실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9점, 대구 지역 8.0점임.

□ 평가지표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10점)는, 시민 모니터링과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과 결과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평가함.

- 모니터링요원 98명을 동원하여 창작활성화 부문 178건과 지역특성화 부문 46건(신진예술가 지원) 등 총 224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단위사업별, 점수대별로 분석함.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4 지역협력형사업 공연/전시 전체 관람객(약 21,94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종합 만족도는 86.7점(매우 만족하는 수준)으로 용역기관에서 표준편차를 적용하여 차기연도 성과목표를 제시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9.0점, 대구 지역 9.5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는 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9.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54.4점, 대구 지역 54.5점임.

4.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그림 175]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대구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73.3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66.7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70.0점
사업 추진 성과	73.3점
평가와 환류	64.3점

[표 184]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대구

□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지역성

- 교류활성화 사업을 레지던스, 해외레지던스(중국 중심)파견, 해외활동지원 등 3트랙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고, 직접, 간접(재정만), 부분지원(정보만)으로 구분하여 지원체계를 설계하고 구상하였음.
- 예술창작진흥과 지역밀착형의 투 트랙에서 각기 해외활동 및 레지던스 등을 배치함. 프로그램 매니저와 전문 예술행정인력 배치는 기본요건으로 체계성에서 사업기획력이 돋보임.
- 레지던시의 직영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동시대 예술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스라는 점에 1차적으로 집중하여 그 운영 및 환경 운영 방식의 고민 필요. 운영방식과 작가관계 방식에서의 창의적 접근이나 차별성, 국제교류의 교두보가 되는 중앙미술계의 참고나 교류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한 듯함. 전문 법인인 만큼 차별화된 작업 환경에 대한 보다 높고 깊은 관심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예술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나 작가의 작업 생리를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은 어떻게 고려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
- 가창에 입주하는 해외작가가 중국으로 집중된(2014년 유럽 2인, 중국 6인) 이유에는 어떠한 전략(중국기관과의 협약 자체는 전략이라고 보기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서술하고, 만일 전략적으로 중국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면, 집중이 아닌 편향의 원인을 분석하여 작가 국적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 사업추진 기초역량

- 전문예술법인인 대구문화재단이 직영하고 있는 바, 추진 역량 부분에 대한 신뢰성은 확보되어 있고 본 자료를 통해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봄.
- 입주희망 작가의 타 지역 응모자가 5배 이상 대폭 상승한 것은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 타 기관과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리스트가 20건이 있으나 사업 심사, 자문위원 등의 소속기관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작가들의 교류활동을 지원한 건수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음. 다소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보여주기 위한 업적 주의형 기술이라고 판단될 우려가 있음.

□ 사업운영의 적절성

- 입주 작가들과 2개월에 1회씩 정기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일정 및 이용 수칙 준수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정례적 협의 체계 구축이 바람직함.
- 스튜디오 방문을 6, 10, 11월 3차에 걸쳐 진행한 것은 적절함.
- 월 지원금이 교통비 수준으로 한계가 있으며, 참여 작가수를 늘리는 양적 지원보다 질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 성과

- 레지던스 사업의 특성 상 후속 성과 일부를 제외하고 계량적 평가에 중심을 두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압박으로 양을 채우기 위한 피상적 이벤트 남발은 자제할 필요가 있음.
- 작가들을 위한 환경인만큼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문가 의견을 통한 검토 필요.
-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서 가능한 노력의 성과와 그 실효성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 국제교류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대표 브랜드가 각인되지 않음. 다양한 성과는 나열되었으나, 그러한 성과들의 압축적 시각이나 전체적인 효과에 대한 틀이 구상되지 않음. 그리고 체계적인 기획능력과 운영 시스템과 전문성 부문에서 타 지역에 비해 뒤지지 않는 우수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언론보도나 해외 언론보도 내용은 없어서 아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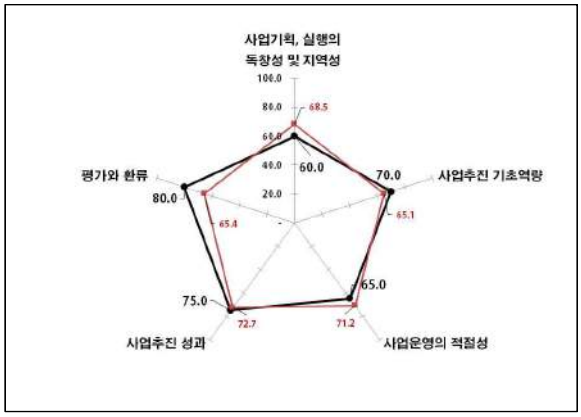
□ 평가와 환류

- 가창 레지던시 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서비스 사업이 아니라 시민을 연계하지만 창작자인 작가들이 주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모니터링은 작가들의 피드백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가창스튜디오는 2012년 폐쇄위기에 처해있었으나 재단이 대구시와

긴급히 협의하여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해 오면서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레지던스 공간임.

- 2014년에는 적극적인 해외 교류를 위해 재단이 직접 중국 항주에 있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작가를 상호 파견하는 등 상호 교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남권을 대표하는 국제교류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으나, 한 국가와의 협약만으로 권역별 거점공간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물론 재단이 협약을 체결한 중국의 기관은 중국 정부가 10대 집중 육성분야 중 문화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설립 지원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 중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창작공간임.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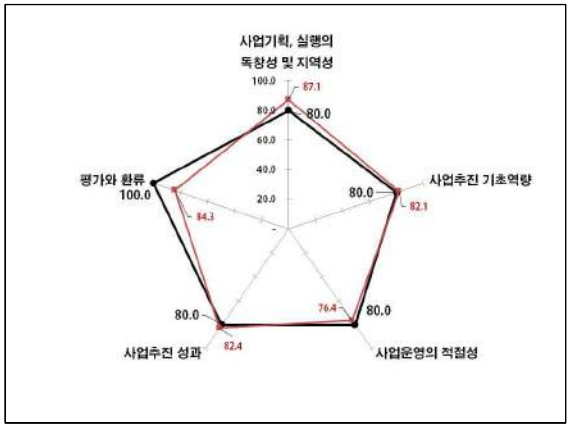
[그림 176]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대구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6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7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65.0점
사업 추진 성과	75.0점
평가와 환류	80.0점

[표 185]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대구

- 대구의 경우 자체평가보고서에 우리가락우리마당 이외에 시민참여활성화사업으로 진행한 범어아트스트리트, 열린예술장터 범어, 금요예술장터 범어, 금요퇴근길 콘서트, 컬러풀 대구페스티벌을 집중 기술하였으나, 문예진흥기금 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평가의 영역에 포함할 수 없음.
- 우리가락우리마당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대구스타디움으로 장소변경 하였음,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대구광역시지회 선정.
- 총7회 공연 진행하였고, 5개 이상의 주제별 프로그램 진행, 63곡발표, 200명 참여, 누적관객 2,000명 참여하였음.
- 14개 공연단체중 신규단체 6개 참여 하였고, 2007년부터 총 162회, 417팀, 6,100명출연, 누적관객 165,800명 참여하였음.
- 국악협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게시판 감상후기 댓글유도 하였고, SNS활용, 친구맺기 이벤트 진행, 신진 국악인 발굴 및 명인초청 공연진행 하였음.
- 우리가락우리마당 평가를 위해 면접원이 회당 10명(총60명)샘플 조사실시 하였음. 공연만족도 조사결과 매우만족 52%, 만족 35%, 보통 11%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40%가 정보습득, 부대행사 23%, 접근성 20%로 나타남.
- 대구지역은 공연장소의 변경, 우리가락우리마당 예산의 축소, 15회 공연운영을 7회 공연으로 축소, 등으로 그동안 안정화되었던 프로그램에 변화가 오면서 새로운 기획과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됨.
- 시민참여활성화사업으로 진행한 범어아트스트리트, 열린예술장터 범어, 금요예술장터 범어, 금요 퇴근길 콘서트,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의 경우 평가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함.

6.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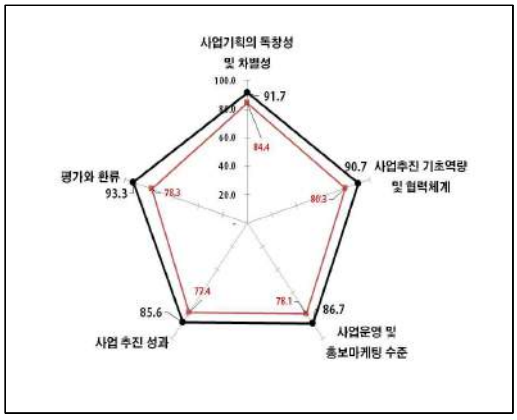
[그림 177]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대구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8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0.0점
사업 추진 성과	80.0점
평가와 환류	100.0점

[표 186]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대구

- 사업기획 실행 독창성은 80.0 점, 사업추진 기초역량은 80.0점, 사업운영의 적절성은 80.0점, 사업추진성과는 80.0점, 평가와 환류는 100.0점을 획득하였음.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평가와 환류부분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나 독창성 및 지역성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술인 지원사업을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점이 특징적임. 역특성화 사업의 본래 취지는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하고 기획 및 사업내용에서 지역성을 제대로 살리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을 잘 파악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함.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까닭을 파악하여 당초취지에 최대한 알맞은 사업기획을 펼치도록 해야 할 것임.
- 예술가 관련 지원, 캐리어 개발, 연극 뮤지컬 콘텐츠제작 지원, 예술인 긴급 생활 지원 등을 사업으로 펼치고 있음. 이 경우에도 콘텐츠 제작지원 대상으로는 전문예술법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개인지원 사업임. 보다 더 창의적인 실행방식으로 전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 사업으로서 예술인 활동에 대한 분석, 기금공모 만족도, 지역주민수요 등을 만들어 가고 있음이 특징임.
- 홍보는 비교적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널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시대발전 변화에 부응하는 조치로서 재단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사업성과는 당초 계획대로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그 성과목표를 적정한 방법으로 타당성 있게 설정하고, 그 성과측정도 객관적인 신뢰성을 인정받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했으며, 한편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관객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음.

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17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대구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91.7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90.7점
사업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86.7점
사업 추진 성과	85.6점
평가와 환류	93.3점

[표 18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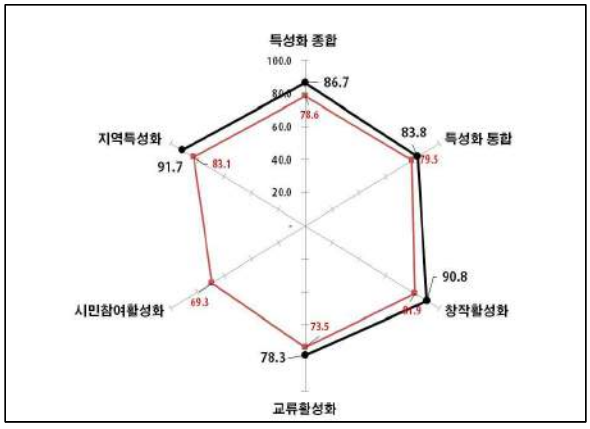
- 재단의 단계별 문화예술육성 지원체계에 따른 추진전략, 대구시의 '공연문화중심도시' 전략, 2014년 지역협력형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 추진전략, 추진체계, 세부 성과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4년 공연장상주사업의 목적, 사업선정방식, 수행프로그램 등을 설정함.
- 각 공연장 및 상주단체별로 사업방향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특화하여 공연장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함.(지역소재 창작 레퍼토리 극장, 가족단위 지역관객 개발, 클래식 전용극장, 창작 뮤지컬 등 특화)
- 대구의 지역특화 소재 사례로 봉산문화회관과 극단 맥시어터의 근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중구 지역의 스토리를 활용한 골목길 시리즈로 시즌 상설공연 레파토리 확보 사례, 대덕문화전당과 극단 초이스시어터의 창작뮤지컬 개발로 우수 창작 레파토리 확보 사례, 대구문화예술회관과 대구 심포닉밴드의 관악 특성화를 추진하는 사례, 대구시민회관과 빅밴드 볼케이노의 재즈밴드 대중화 추진 사례 등을 제시함.
- 대구지역은 공연장을 사업추진주체로 세워 공연장상주사업을 추진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구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연장에서 지원 신청, 지원금 교부, 정산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승인되어 2014년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를 통해 예술단체가 어려워하는 정산에 대한 책임을 공연장으로 분담시킴으로써 예술단체의 정산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공연장에서 상주단체로의 추가 예산지원 등의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효과를 꾀함.
- 12개 공연장을 대상으로 1차 현장 실사를 통해 상주 여건 및 상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7개의 공연장을 선정, 2차 PT 심사를 진행하여 상주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상주단체의 역량 등을 중점 평가하여 선정하였음. 선정된 6개의 상주단체 중 전문예술단체는 2개이며, 전문역량을 갖춘 단체, 공연장이 선정되었음.

- 공연장과 상주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매칭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공연장에서 자부담을 전액 부담하여 상주단체가 활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는 공연장도 2개(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시민회관)에 이르고 있음. 특히, 봉산문화회관, 수성아트피아 및 대덕문화전당의 경우 상주단체 지원금으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음.
- 공연장과 상주단체간의 협력, 상주단체와 공연장의 외부 협력, 재단과 상주단체 · 공연장 간의 협력 등이 상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재단의 외부기관 협력에 있어 상주사업과 연관된 내용의 구체적인 제시가 부족함.
-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일부공연장의 공연장상주사업 보조금 집행의혹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예산 집행사례를 개선하고 위법 부당사항을 시정 조치함. 보조사업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원금집행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예술위 및 지자체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함으로써 지원금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자정 노력, 향후 지원금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함.
- 관람객만족도조사, 지역문화예술지표조사, 선정단체 간담회, 워크숍, 평가회의, 현장탐방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러 수요자의 의견과 현장 상황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각 공연장과 상주단체가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지역민과 함께 하는 지역밀착형 음악회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함. 또한, 각 공연장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민의 요구를 수용함.
- 공연문화도시 대구를 상징하고 지역 공연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안내센터인 dgtickets를 구축운영하고, dgtickets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티켓판매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음. 구매수량은 많지 않으나, 고객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등 장기적으로 상주사업 유료화 확대의 교두보로서 활용이 가능함. 이외에도 공연전시 정보제공 스마트폰 어플 '대구공연/전시 정보마당', SNS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상주단체간 워크숍, 페스티벌, 간담회 등 재단의 채널 뿐만 아니라 상주단체간 자율적인 교류와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제2회 공연장상주단체연합페스티벌 '가을, 예술이 있다'를 교류형과 자체공연형으로 구성하여 6개의 공연장에서 40여일간 릴레이형식으로 진행함.
- 상주단체페스티벌이 형식적 교류로 끝나지 않도록 축제로서의 몰입과 집중을 이끌어내는 방안과 대구지역 예술축제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마켓역할에 대한 검토 등 대안적 모색이 필요함.
- 봉산문화회관 맥 시어터의 2013년도 DIMF 대상 수상, 2014년도 중국동관국제뮤지컬페스티벌 특별영예상 수상, 대구심포닉밴드의 퍼블릭프로그램 '지역브라스밴드 합동아카데미'를 통해 '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은상 수상 등 국내외 대회 수상 및 축제 초청 사례, 예술시장 판매 실적, 레퍼토리화 실적이 제시됨.

- 성과목표를 각 상주단체가 수행한 이행실적, 추진실적 등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음. 재단 차원의 공연장상주사업 성과목표와 목표수준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고 이의 달성수준을 제시하여야하나 개별 상주단체의 실적을 모아 사업추진성과로 제시함.
- 전문평가(전문가 2인), 현장평가(재단 담당부서), 행정평가(사업 담당자)를 진행하였음. 관객만족도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였으며 상주단체 공연에 대한 만족도는 86.7점으로 나타남. 다만, 시민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2년차 사업 지원 금액에 반영하여 환류함.

제4절 인천

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그림 179]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인천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특성화 종합	86.7점
특성화 통합	83.8점
창작활성화	90.8점
교류활성화	78.3점
시민참여활성화	미추진
지역특성화	91.7점
평균	86.3점

[표 188]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인천

• 예산가중치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0.0
교류활성화	18.3
지역특성화	15.0
창작활성화	66.7
합계	100.0

[표 189]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인천

• 자율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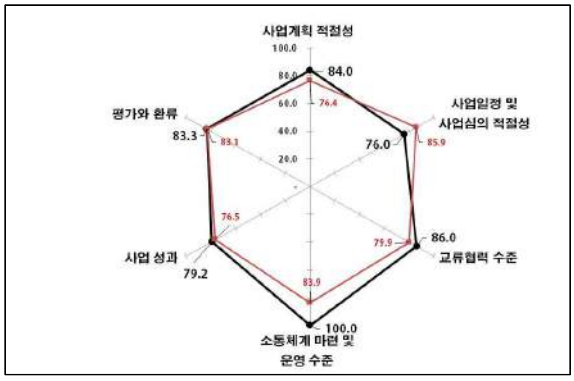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0.0
교류활성화	20.0
지역특성화	40.0
창작활성화	40.0
합계	100.0

[표 190]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인천

□ 인천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는 86.7점임. 인천지역은 시민참여 활성화 부문 사업만 추진되지 않았으며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의 평가가 가장 높았음.

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그림 180]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인천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84.0점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76.0점
교류 협력 수준	86.0점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100.0점
사업 성과	79.2점
평가와 환류	83.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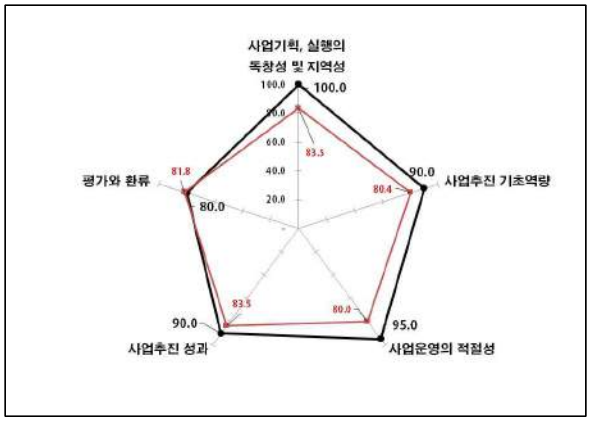
[표 191]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인천

- 인천지역의 특성화 통합지표 부문의 평가결과는 83.8점임.
- 인천지역은 2014년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비전체계와 사업구조를 마련하였으며, 실행전략을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성과지표는 계량화가 어려운 추상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음.
- 각 팀별로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설명회, 정책연구 세미나, 정책협력위원회, 워크숍 등 다양한 모임을 통해 성과목표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예술표현활동, 문화예술국제교류, 문화예술역량강화 사업은 전년도에 사업공고와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레지던스프로그램은 3월~5월 사이에, 지역공동체문화만들기(시도기획지원)는 4월~6월 초까지 사업공고 및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심의위원 위촉방식에 대한 언급 없이 심사위원 명단과 심의절차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음. 심의기피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목요문화포럼 4회, 모금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진행, 사업관련 세미나/워크숍/간담회 등 4회 개최, 특성화 사업 관련 지역 언론 보도 22건 등 지역 예술계와의 소통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인천문화아카이빙 활동가 19명(지역문화 10, 예술교육 4, 문화복지 5)을 모집하여 운영하면서, 각 사업 및 행사 참관 및 회의, 인터뷰 진행, 온/오프라인 활동을 연결하여 참관 뿐 아니라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아카이빙 활동가들의 원고 72건이 접수되었음.
- 사업별로 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재단 직원들이 지원건의 50% 이상을 현장 평가

□ 인천문화예술정보아이큐(IQ) 앱을 통한 홍보 진행, 730여개소 인천문화예술 통합DB 운영시스템을 구축 제공하여 2014.11 현재 38,800명이 다운로드 받아 이용 중으로 빠른 확산을 통해 인천지역의 통합홍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창작활성화 예술표현활동지원 : 전문가평가와 직원 현장평가에서 9개의 평가항목과 10개의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성된 평가체계를 수립(상 10점, 중 7점, 하 5점으로 100점 만점 평가)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 계량지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그림 181]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인천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10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9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95.0점
사업 추진 성과	90.0점
평가와 환류	80.0점

[표 192]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인천

□ 창작활성화 부문의 개별지표는 9개 지표 60점 만점으로, 배점 5점의 지표 6개와 배점 10점의 지표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추진 단계별 지표수와 배점은,

[사업계획단계] '사업기획/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개 지표 10점,
[사업집행단계] '사업추진 기초역량' 2개 지표 15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2개 지표 10점,
[사업성과단계] '사업추진 성과' 2개 지표 15점,
[평가환류단계] '평가와 환류' 1개 지표 1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지표별 배점 등에 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평가지표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5점)은, 사업기획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는지, 사업실행 방식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정도를 평가함.

- 인천의 창작활성화 부문은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전문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문화예술역량강화지원사업(신진예술가지원사업)'의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1년부터 전국 최초, 유일하게 공모 시기를 1년 2회로 정례화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비 집행율이 98.5%에 달함. 1차, 2차 공모의 지원건수와 지원액의 연도별 추이분석을 통해 지원 동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내부 시스템을 구축함.
- 1천만 원 이상 건에 대한 사후지원 방식을 사전지원으로 변경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신청자격 증빙자료를 2차 심사 시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5.0점, 인천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 (5점)은, 기획사업 및 개별 지원사업의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함.

- 지원사업에서 '기획전: 해안선 프로젝트', '인천 동막동 당굿', '인천 염전 밭갈이 놀이' 등 지역 정체성이 담긴 프로젝트 16건, 기획 사업에서 '두근두근 인천산책', '인천 정명 600년, 변모하는 도시', '인천: 바다의 연꽃' 등 지역 정체성이 담긴 8건을 내용과 함께 소개하고, 관련 언론보도 수십 건의 기사제목을 제시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4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4.7점, 인천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5점)은,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취지에 맞는 선정기준(예컨대, 예술적 수월성)을 설정하고 있는지, 지원 단체 선정율과 평균지원액의 규모가 적정하거나 연차별로 개선되고 있는지,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행정심의, 전문가 서류심의, 전문가 인터뷰심의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서류심의에서 사업의 독창성/참신성과 사업수행자의 예술성/전문성이 90점 중 30점, 인터뷰심의에서 사업수행자의 예술성 및 전문성이 100점 중 20점으로 심사기준에서 작품의 예술적 수월성에 대해 배려하고 있음.
- 예술표현활동지원 선정율 32.8%, 평균지원액 7,373천원, 문화예술역량강화지원 선정율 33.3%, 3,857천원이며, 중복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5.0점, 인천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10점)은,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율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여부, 단체(개인) 지원신청 자격 명시 여부, 선정단체의 사업수행 적합성 정도, 신규단체 참여확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배려 여부,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정도 등을 평가함.

- 인천소재 전문예술법인(단체) 28개 중 6개 법인(단체)을 선정하였으며, 공연장상주단체 5개 법인(단체)은 별도임. 지원신청 법인(단체) 수를 알 수 없어 일반 예술단체 선정율(31.9%)과의 비교가 불가능함.
- 전체 선정단체 중 신규단체 선정율은 40.5%(51/126)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기관 및 협회 선정율은 20.6% 수준임. 신규예술가 지원을 위한 사업설명회(2회), 모금역량 강화 교육(6회), 신규 예술가/기획자 양성사업(문화이모작 경인권 사업), 정책연구 세미나, 연극분야 간담회 등을 개최

- 지역 내 인천일보, 경인일보 등과 매체협력 기획사업과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였고, 시청, 군/구청, 기타 유관기관과 협력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으며, 인천환경공단, 인천경총CEO 인재대학, 워터웨이플러스, 인천광역자활센터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7.8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5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8.7점, 인천 지역 8.5점임.

□ 평가지표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5점)은,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사업 설계 및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평가함.

- 2014 인천문화재단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서비스 만족도 78.3점의 결과를 얻었으며, '2012년 인천문화지표 조사연구'(4년마다 조사, 인천문화지표, 문화공공성지표, 인천시민문화수요조사, 인천예술인실태조사의 네 부문으로 구성) 결과를 지원사업 설계에 활용하고 있음.
- 예컨대 '인천예술인실태조사' 결과, 창작지원예산 확충과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요구가 가장 많아 창작관련 직접지원과 기획지원 규모를 해마다 확대('12년 1,923백만 원→'13년 2,331백만 원→'14년 2,492백만 원)하고 있고, 도화2동 가압펌프장 위치에 공연예술 종합연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예술위원회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 협력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목요문화포럼' 4회 개최, 기획/창작/출연/제작 전 과정에 시민이 함께 하는 복합창작공연 프로그램 '인천왈츠'를 추진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5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4.8점, 인천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5점)는, 특화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주민 참여와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그리고 지원수혜 단체의 홍보/기획/마케팅 담당자 대상의 교육, 자문, 워크숍을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인천문화예술정보 모바일 어플 '아이~큐'와 키오스크용 '아이~큐'를 통해 문화예술정보를 홍보하고 있으며, 잡지, 신문 등 언론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음. 또한 작가가 제작하는 공연예술전용 홍보 게시대를 아파트, 도서관, 공원 등지에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선정단체의 홍보/마케팅/기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자문/워크숍 추진 실적에 대한 언급은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4.7점, 인천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5점)는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의 수준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했는지, 그 성과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전문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의 선정율은 31.9%(126/395), 총 관람객 수는 49,135명이며, 전문가 현장평가 수는 총 126건 중 71건임.
- 문화예술역량강화지원사업(신진예술가지원사업) ① 시각예술분야 : 집중크리틱(5명에 대해 일대일 회의 14회), 세미나(2회), 교육프로그램(5회), 기타 창작지원금(1인당 2백만 원), 지역 행사 참관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기획전시 개최 및 도록 발간 지원, 홍보 지원 등 ② 공연예술분야(음악) : 연주회 ‘동행’ 개최(선정자 4명, 비선정자 2명 총 17회), 관련 교육프로그램(2회), 관내/외 행사 참관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연습실 지원, 공연실황 CD/DVD 500매 제작, 홍보 지원 등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4.5점, 인천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10점)는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창작활성화 부문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를 창출했는지, 제시한 최우수프로젝트(Best Practice)가 타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국내외 각종 수상(受賞), 인증, 페스티벌 초청/참가, 예술시장에서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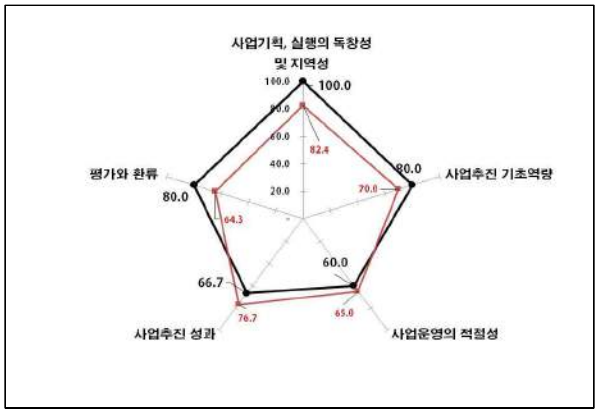
- 시각분야 이철명 작가 ‘제8회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원로작가상 수상, 출판분야 유인채 시인(‘소리의 거처’) 제26회 인천문학상 대상 수상
-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로는 ① 출판분야에서 인천문학상 최종후보작으로 선정된 시집과 수필집, 스페이스 빔 발간 문화비평지, 연조가 오래된 문학지들, 지역정체성을 담은 다큐멘터리물, ② 시각분야에서 인천 해안선의 변화를 관찰 기록한 아카이브 프로젝트 〈해안선은 없다〉 , 녹청자 요지의 전통에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접목한 디자인전, 인천문화의 자생력을 잃고 있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전시회, ③ 공연분야에서 국내초연 음악작품, 미추홀 오페라단의 오페라 〈마술피리〉 , 〈재미있는 CF 속 클래식〉 , 바이브무용단과 이은주무용단의 공연작품, 극단 작은방의 〈정서진별곡〉 , ④ 전통분야에서 인천 전통의 소리/굿/놀이를 발굴하여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이밖에 신진예술가 지원에서는 공연 〈동행〉 시리즈를 대표브랜드로 꼽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9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9.5점, 인천 지역 9.0점임.

□ 평가지표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10점)는, 시민 모니터링과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과 결과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평가함.

-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전문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담당직원 평가, 재단직원 참관 평가, 전문가 현장심의로 이루어지며 평가지표는 정량평가 부분과 정성평가 부분으로 구성돼 있음. 전문가 현장심의의 경우 5개 분야 42개 사업 총 71건의 평가를 진행했으며, 전문가/사업담당/재단직원의 평가 내용을 수치화하여 총괄평가 결과를 도출함.
- 문화예술역량강화지원사업(신진예술가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로 시민모니터링과 관객만족도를 조사했음. 평가지표 3.1.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2014 인천문화재단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서비스 만족도 78.3점의 결과를 얻었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자세한 결과 내용은 설명하고 있지 않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9.0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8.5점, 인천 지역 8.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는 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9.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54.4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55.3점, 인천 지역 54.5점임.

4.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그림 182]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인천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10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60.0점
사업 추진 성과	66.7점
평가와 환류	80.0점

[표 193]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인천

□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지역성

- 국제교류활성화 사업은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역량을 강화하였음. 향유 2년 이내 국제교류를 계획하는 활동 유형(B형)까지 기획하여 지원한 것은 바람직함. 일반적으로 국제교류활동이라는 A형에 치우치는 것에 비해 창의적인 기획력임. 교류권역도 다양하게 기획되고 선정됨.
- 레지던스사업의 신청자 혹은 참여예술가(단체)의 50% 이상을 인천 연고자로 구성해야 한다는 기준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여, 인천의 지역 정체성을 필수화하고 있음.

인천 연고 기준사항

○ 전문 문화예술 단체

– 인천에서 1년(1년 내 3회 이상) 이상 활동 중인 단체 또는 인천 연고자가 조직한 단체(주민등록초본 또는 졸업증명서 및 활동실적 증빙)

○ 전문 문화예술인(인천 연고자)

– 인천 활동자 : 인천 거주 1년 이상(공고일 기준)이면서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자(주민등록초본 및 활동실적 증빙)

– 인천 출신자 : 인천 출생 또는 인천에서 초/중/고/대학교 중 1개 과정 이상을 졸업한 사람 중 최근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졸업증명서 및 활동실적 증빙)

- 배다리 디자인 컨퍼런스는 사업과 공사로 접근하는 원도심 활성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린 공동체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이었으며, 문화공작소 세움의 인천토속음악 발굴 프로젝트도 지역 특화 사업이었고,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의 생활공간 프로그램(경계의 동네, 우리가 만드는 다른 경계)도 작가와 지역 주민들의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기획임.

□ 사업추진 기초역량

- 1,2차 공모로 33건의 신청 결과 중 체계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7건이 선정된 결과를 볼 때, 상당히 고품격의 단체들이 선정되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함. 접수 건 수도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되고 있음. 한편, 문화공작소 세움의 경우 교류활성화 사업 안에서 국제교류 사업(1,300만원)과 레지던스 사업(2,000만원)을 별개로 지원을 받고 있어, 물론 내용적으로 동일한 사업은 아니지만, 한 유형 안에서 이중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
- 행정심사, 서류심사, 인터뷰 등 1,2,3단계로 체계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것에 비해, 심의위원수는 3인으로 다소 취약하게 인식될 여지가 있음.
- 한편 해당 심사위원이 컨설턴트가 되는 등 장르별 전문성과 심의의 전문성을 살린 전문가 매칭 워크샵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시킨 점이 돋보임.
- 교류의 대상인 국외 기관은 주로 아시아에 편향되어 있어 수도권 지역으로서의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타 권역에도 관심 영역을 확장하는 노력이 요망됨.

□ 사업운영의 적절성: 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문화수요 파악 프로그램과 국제교류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과의 유기적인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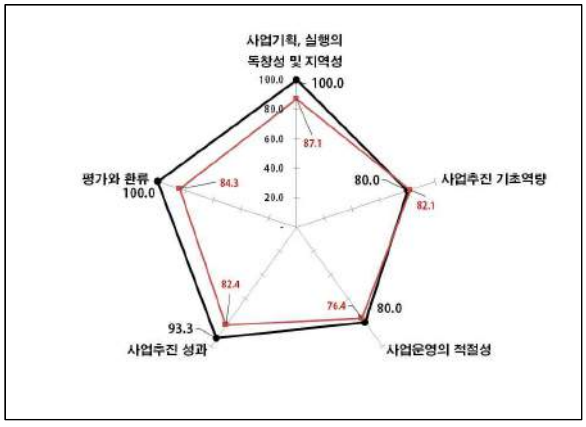
- 목요문화포럼(연간 4회/ 4,6,10,12월) 등 인천지역 내 문화예술 현안 및 정책 토론을 통해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나, 이 포럼의 결과로 수렴된 내용이 무엇이며, 실제로 교류활성화 사업에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인천의 문화예술 정책 연구를 통해 인천의 문화시설 운영, 인천 연극의 활성화를 논의하고, 인천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의 별빛 살롱, 인천대학과의 문화대학원 협력 강좌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실제로 국제교류 사업과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되지 않음.
- 오히려 실행기관들의 경우에는 참여 작가와 지역주민들이 자문회의에 같이 참여하는 등 공동창작과 같은 성격을 보여주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바람직함.
-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현지 공연을 수행한 결과를 홍보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음.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교류협력을 했다고 했으나, 어떤 매체에 어떤 목표 및 관점과 내용으로 홍보를 하여 사업 수행전이나 수행과정에서 효과를 극대화시켰는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사업추진 성과: 문화공작소 세움의 경우 지역민과 접촉하며 채집한 소리로 한국 대중음악상 2개 부문 후보(최우수 재즈 & 크로스오버 음반)가 되는 성과를 올렸음. 2004년부터 시작된 이 대중음악상에서 2014년의 경우 본 후보 작품이 어떤 점에서 왜 후보가 되었는지에 대한 의미의 설명이 없어서, 무조건 수상 후보작이 되었다는 것을 성과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평가와 환류: 국제교류사업 자체는 호응도나 모니터링 결과가 기술되지 않고 있으며,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별 2회 이상 참관이 진행되었으며, 10점 만점의 평가점수 기준에서 8점 이상을 받았으며, 그에 대한 분석이나 결과의 반영 여부는 드러나지 않아서 아쉬움.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 인천 지역은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

6.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그림 183]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인천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10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0.0점
사업 추진 성과	93.3점
평가와 환류	100.0점

[표 194]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인천

□ 사업기획 실행 독창성은 100.0점, 사업추진 기초역량은 80.0점, 사업운영의 적절성은 80.0점, 사업추진성과는 93.3점, 평가와 환류는 100.0점을 획득하였음. 사업실행 독창성, 평가와 환류부분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음. 사업추진 성과부분도 높은 평가를 받았음. 한편 사업추진 기초역량과 운영 적절성은 전국 평균수준을 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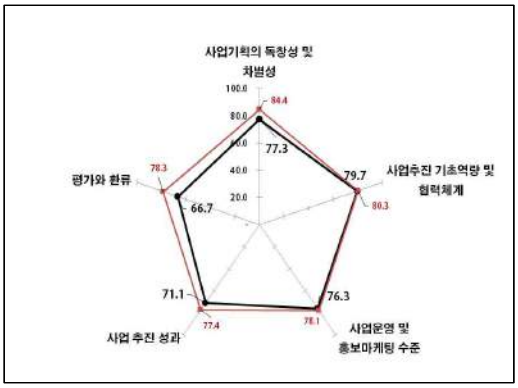
□ 사업 기획에서 있어서 지역의 도시와 섬이라고 하는 공간적 특성을 잘 살려서 특성화소재를 적절하게 발굴하였다고 평가함.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공동체와 지역예술가들의 공감과 활동과정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 가는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정형 · 참여 중심형 사업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가운데서도 지역특성화 사업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역공동체문화만들기' 사업 내 '내가 사는 도시, 내가 사는 섬' 4건, '청년 동네를 상상하다' 3건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선정 건수를 많지 않게 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진행을 보장하는 방식의 선정이라고 평가됨. 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 대한 평균 지원금은 22,141,714원으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수준으로 보임. 이는 동일 사업을 추진한 2012년, 2013년의 최근 2년간 지원 금액에 비해 매우 증가된 수준으로 지원되는 것임. 사업의 특성을 살리고 운영의 내실을 살리는 매우 적절한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소통을 위해 애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기존 사업인 지역공동체 문화기획에 연계해서 커뮤니티를 선정하였음. 또한, 포럼을 통해 이슈와 관련 분야를 찾거나 이슈페이퍼를 정리하고 자료와 연계했음. 매우 바람직한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사업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전년 대비 기준으로 우선 적정한 목표치를 제시하였음.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펀딩과 민관 협력을 통해 기존 사업비에 추가 비용을 마련하여 추진했음. 전국 다른 지역의 경우에 비해 책임성 있게 추진하였으며, 성과에 대한 신뢰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지역공동체문화만들기' 사업 내 '내가 사는 도시, 내가 사는 섬' 사업을 우수 사업으로 평가함. 이는 참여형 과정 중심의 사업으로서 지역공동체 예술역량을 키워가는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참고할 만한 훌륭한 사례임. 본질적으로 지역커뮤니티에 대한 문화예술적 해결과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사업으로 평가됨. 뿐만 아니라 성장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함.
- 이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 스스로 추가적인 재정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이 특이함. 추진 주체가 이를 바탕으로 문화부, 현대제철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간 것으로 평가됨.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본질에 맞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를 사업에 연결하여 추진했음.

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18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인천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88.3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74.7점
사업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71.2점
사업 추진 성과	68.9점
평가와 환류	7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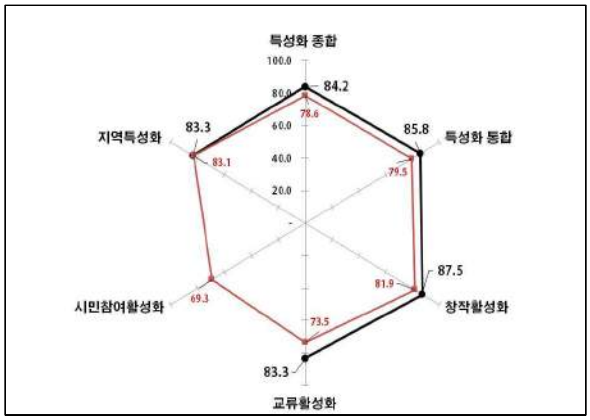
[표 19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인천

- 인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주사업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차별적인 공연장 상주사업계획을 발견하기 어려움. 다만, 인터뷰를 통해 문화소외지역 지원과 공연장 중심 사업구상 등에 대해 밝힘.
- 인천의 역사, 문화,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배우공동체 자투리의 '문학산 연가', 극단 십년후의 '성냥공장 아가씨',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의 '상생의 비나리-인천아라리5'를 제시함. 다만, 상주단체 프로그램의 지역고유성 및 차별성 반영을 위한 재단 차원의 노력이 어떠한지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서류심의, 1차 인터뷰심의, 2차 최종인터뷰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전문예술단체는 5개 팀으로 상주단체 전체 사업의 17.9%를 차지함. 전문역량을 갖춘 단체, 공연장이 선정되었음.
- 문화예술 자생성 강화를 위한 모금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
- 공연장과 상주단체간의 협력, 상주단체와 공연장의 외부 협력, 재단과 상주단체 · 공연장 간의 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부족함. 다만, 공연장에서 메일링, 문자서비스, 티켓할인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 또한, 교육청과 연계하여 방과후에 퍼블릭프로그램 연결하고 있으며 수능 이후 상주단체 공연 관람 등도 연결하고 있음.
- 2014년 선정된 13개 단체의 현장을 모두 직접 방문하여 상주사업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직접 청취하고 사업에 반영하였음. 중간사업 워크샵, 공연장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함.
- 재단 격월간지 '플랫폼', 인천문화예술행사 관련 어플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홍보마케팅 계획과 실행 측면에서 극히 미약한 수준임. 공연장상주사업에 대한 재단차원의 통합적인 사업홍보 채널 구축이 필요함.

- 특성화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함. 기존 예술단체 중심의 사업편제에서 공연장도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연장-예술단체간의 협업 체계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다만, 상주단체간의 교류가 상시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못함. 페스티발은 2년차 사업으로 진행하여 격년마다 개최하므로 금년에는 미실시함.
- 극단 MIR레퍼토리의 도쿄국제예술제 공식초청등 국내외 대회 수상 및 축제 초청 사례와 극단 십년후 '소문', '성냥공장아가씨'의 대학로 공연 등 예술시장 판매실적, 레퍼토리화 실적이 제시됨.
- 지역성, 예술성, 공공성을 지표로 상주사업의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성과를 확인하고 있으나 공연장상주사업의 좀 더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목표수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목표달성 수준에 대한 제시가 누락됨.
- 전문가 현장평가를 실시함. 관객만족도 조사와 시민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음. 사업적으로 평가환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단 잡지에 비평문으로 게재하고 있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추상적 지표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 전 설명, 평가 후 결과 공유, 평가결과 환류 등에 대한 설계를 추가하는 등 보다 전문화, 고도화된 평가체계가 필요함.

제5절 광주

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그림 185]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광주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특성화 종합	84.2점
특성화 통합	85.8점
창작활성화	87.5점
교류활성화	83.3점
시민참여활성화	미추진
지역특성화	83.3점
평균	84.8점

[표 196]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광주

• 예산가중치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0.0
교류활성화	28.9
지역특성화	27.8
창작활성화	43.3
합계	100.0

[표 197]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광주

• 자율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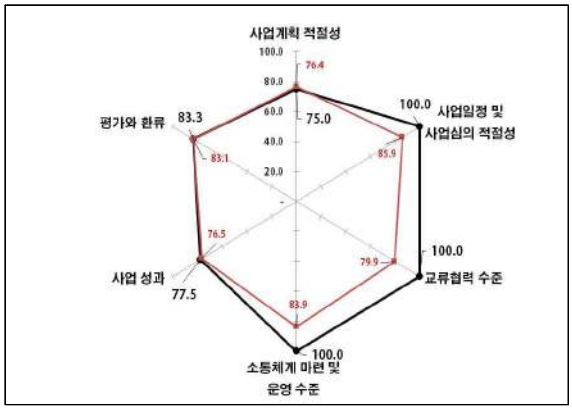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0.0
교류활성화	35.0
지역특성화	45.0
창작활성화	20.0
합계	100.0

[표 198]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광주

□ 광주 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는 84.2점임. 광주지역은 시민참여 활성화 부문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며, 창작활성화 부문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음.

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그림 186]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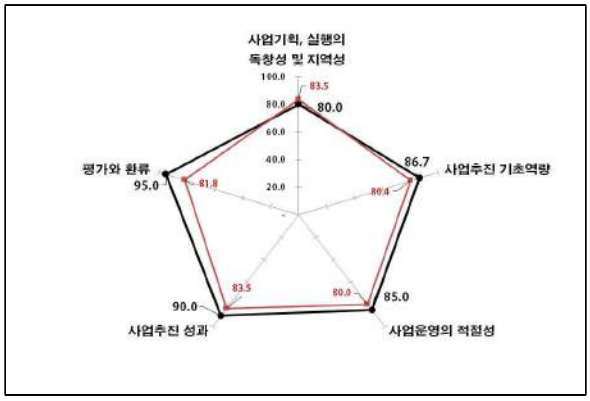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75.0점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100.0점
교류 협력 수준	100.0점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100.0점
사업 성과	77.5점
평가와 환류	83.3점

[표 199]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광주

- 광주지역의 특성화 통합지표 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는 85.8점임.
- 특성화 사업별로 사업목적과 취지를 상세히 설정하고 있으며, 조직 전략체계와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2014년도 달성여부를 제시하고 있음. 특성화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의 사업설명회, 공청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목표를 공유하고 있음.
- 광주지역은 특성화 사업별 사업목적과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광주지역의 특성과 문화자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광주지역은 각종 회의 및 워크숍 참가, 재단시행 회계실무교육(11회), 기획력 향상 · 포토샵 · 스토리텔링 등 위탁교육 프로그램(18회)에 문화예술지원팀 직원 참가를 통해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함.
- 광주지역은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14.9.3~22)을 제외하고, 4개 특성화 사업에 대해 전년도 연말에서 연초에 사업공고 및 접수하고 있으며, 계획 일정과 실행 일정이 일치하며, 교부 및 사업 추진도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음.
- 광주지역은 창작지원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일몰제 관련 인터넷 설문조사(236건 접수)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지역내 소통과 지원사업 홍보를 위하여 문화재단 SNS 및 지역협력형 사업 홍보코너 운영, 재단회원 7,000명에게 이메일 공연알림 서비스, 각종 공연 홍보를 위한 인쇄물(리플릿, 성과모음집, 월간 문화마실 월 7,500부 발간 배포)을 활용하고 있음. 또한 기획홍보팀에 2명, 문화예술지원팀에 1명 등 홍보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광주지역은 지역간 교류를 위하여 레지던스프로그램 광주-대구 '달빛동맹' 상호 교환방문,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에 지역예술인 및 단체 교류활동 지원사업을 2014년에 신설(5건 9,500만원 지원, 참여예술가 67명, 관객 9,200명)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 결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공연('애꾸눈 광대') 오사카 및 북경 교류공연, 중국 상해 및 일본 북해도 문화재단 등과 문화교류, 카자흐스탄 문화예술인과 교류, 특성화 사업(육성지원, 레지던스)을 통한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
- 광주지역은 5개 단위사업별로 시민모니터링단 각 2인 구성 평가, 지원단체(50개) 및 관객(200명) 대상 만족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하였음.
- 광주지역은 지원사업 계량지표 파악을 위한 평가 용역(3,800만원)을 추진하였고, 계량지표 성과 변화의 연차별 추이 분석을 실시하였음.
- 광주지역의 사업성과로 육성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던 극단 '얼 · 아리' 이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젊은작가육성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김연주작가가 특허청장상을 수상하고, 신해철 유골함을 작업하였으며 해외전시를 통해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됨. 레지던스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미테우그로' 는 활발한 해외교류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우수사례로 확인됨.

3. 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그림 187]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광주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8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6.7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5.0점
사업 추진 성과	90.0점
평가와 환류	95.0점

[표 200]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광주

□ 창작활성화 부문의 개별지표는 9개 지표 60점 만점으로, 배점 5점의 지표 6개와 배점 10점의 지표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추진 단계별 지표수와 배점은,

[사업계획단계] '사업기획/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개 지표 10점,

[사업집행단계] '사업추진 기초역량' 2개 지표 15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2개 지표 10점,

[사업성과단계] '사업추진 성과' 2개 지표 15점,

[평가환류단계] '평가와 환류' 1개 지표 1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지표별 배점 등에 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평가지표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5점)은, 사업기획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는지, 사업실행 방식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정도를 평가함.

- 광주의 창작활성화 부문은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다 다양한 장르 많은 예술인들에게 지원 수혜를 줄 수 있는 소액다건 형태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을 지역협력형 세부사업으로 추진했다는 등의 내용 외에는 자체평가보고서에 광주만의 차별화된 기획력과 창의적 실행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없음.
- 심화인터뷰 시 확인한 바로는 지원사업 휴식년제(2~3년 연속지원 단체에 대해 1년 휴식) 또는 일몰제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014년에 1천 명 정도 설문조사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2,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 광주 지역 4.0점임.

□ 평가지표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 (5점)은, 기획사업 및 개별 지원사업의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함.

- 국악, 다원, 문학, 미술, 사진, 음악 장르에 광주의 특화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 24건의 선정단체와 사업명만 간단히 제시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4점, 광주 지역 4.0점임.

□ 평가지표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5점)은,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취지에 맞는 선정기준(예컨대, 예술적 수월성)을 설정하고 있는지, 지원단체 선정율과 평균지원액의 규모가 적정하거나 연차별로 개선되고 있는지,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수월성 등에 대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정율 40.2%, 평균지원액 4,191천원이고 중복지원에 대해 제한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광주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10점)은,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율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여부, 단체(개인) 지원신청 자격 명시 여부, 선정단체의 사업수행 적합성 정도, 신규단체 참여확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배려 여부,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정도 등을 평가함.

- 광주시에 허가/등록되어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은 61개(문화분야 전체 사단/재단 법인 수는 167개)로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기준에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한 우선 지원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지원신청 및 선정 법인(단체) 수와 일반예술단체 선정율과의 비교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음.
- 사업공모 공고 시 창작활성화 부문 세부사업별로 신청자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에 신규단체를 50% 이상 선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2014년도 신규단체 선정율은 65%(89/136)로 상당히 높은 편임.
- 사업설명회(1회), 집행/정산/성과관련 워크숍(3회), 평가/성과관련 컨설팅(3회), 평가/만족도 조사 용역결과 보고회(2회) 등을 개최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7.8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5점, 광주 지역 8.0점임.

□ 평가지표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 (5점)은,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사업 설계 및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시민대상 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단체에 의뢰한 결과, 홍보 강화, 프로그램 수준 향상,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주요 개선 요구사항으로 나타남.

-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중 세부영역인 시민문화향수지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총 41건에 136,000천원의 지원금을 지급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5점, 광주 지역 4.0점임.

□ 평가지표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5점)는, 특화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주민 참여와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그리고 지원수혜단체의 홍보/기획/마케팅 담당자 대상의 교육, 자문, 워크숍을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함.

- '문화마실' 리플릿 발행 배포, 홈페이지 문화예술행사 배너란을 통해 월별 개최되는 공연/전시 등 행사를 홍보하고, 문화재단에 등록된 회원(관계자) 대상으로 메일링 및 SMS 서비스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홍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선정단체의 홍보/마케팅/기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자문/워크숍 추진 실적에 대한 언급은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광주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5점)는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의 수준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했는지, 그 성과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 총 관람객 수 276,560명, 공연/전시/행사 323회, 발표작품 수 4,800건, 참여예술인 수 4,111명이며,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 도출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사업별 성과만을 제시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 광주 지역 4.0점임.

□ 평가지표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10점)는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창작활성화 부문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를 창출했는지, 제시한 최우수프로젝트(Best Practice)가 타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국내외 각종 수상(受賞), 인증, 페스티벌 초청/참가, 예술시장에서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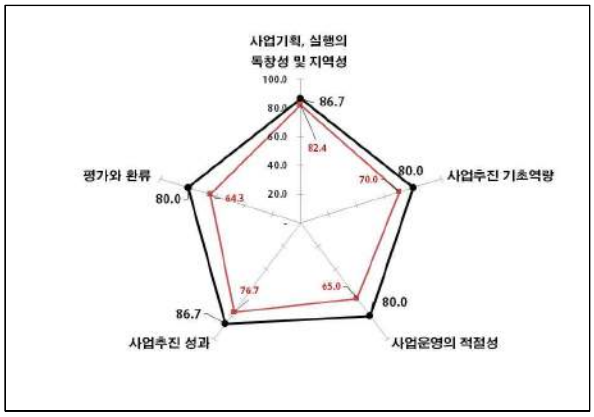
-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로는 ① 연극분야 : 전문예술창작지원단체인 극단 얼·아리가 2014년 제32회 전국연극제 대통령상(대상)과 연출상, 최우수연기상을 수상, ② 시각(공예)분야 : 전문예술창작지원 작가인 김현주가 디자인한 유골함이 2014년 DESIGN KOREA 최우수상(특허청장상)을 수상하고 우수디자인(GD) 상품으로 선정, 지식재산권(특허) 등록하여 8종 보유, 영국 런던 국제현대공예전시회/한중일명인초대전/미국 시카고 SOFA 아트페어 참가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9점, 광주 지역 9.5점임.

□ 평가지표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10점)는, 시민 모니터링과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과 결과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평가함.

- 지원액 500만 원 이상의 사업 118건에 대해 시민모니터링단 17명이 현장평가(정량 및 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분석함.
- 외부 전문단체에 지원사업에 대한 예술단체(118개) 및 일반시민(591명)의 만족도 조사를 의뢰하여 긍정적인 인식요인과 함께 홍보 강화, 프로그램 수준 향상,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다양성 등 개선요인도 밝혀냄.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9.0, 광주 지역 9.5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는 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9.1,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54.4, 광주 지역 52.5점임.

4.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그림 188]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광주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86.7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0.0점
사업 추진 성과	86.7점
평가와 환류	80.0점

[표 201]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광주

□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지역성

- 교류지원 사업을 별도로 정리하였으며, 5개 단체(일본, 캐나다, 러시아, 싱가폴의 작품과 공간을 활용)가 선정되었음. 공모와 자체운영의 트랙 분리 및 종합적 교류는 바람직하지만, 자칫 공모부문에 대한 지원이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
- 광주 근대역사문화마을을 활용해 지역성을 살려서 교류가 이루어졌고, 주민과 관광객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음.

□ 사업추진 기초역량

- 국제교류사업의 심의기준은 계획 충실성과 타당성(20), 예술성(30), 실현가능성(30), 국제적 파급효과(20)로 적절하며,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선정기준으로 주체 역량, 프로그램 충실성(지역커미셔너 역할 포함), 운영 및 홍보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삼은 것이 적절함. 다만 예술적 완성도가 '운영 및 홍보' 부문에 들어있어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판단됨. 사실상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교류사업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창작 몰입을 통한 예술적 완성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이기 때문임.
- 여전히 신청 건수가 한자리 수인 것은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다소 부족한 것일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홍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기존 레지던스 입주예술가 1/3교체 등 지원조건이 구체적이어서, 기존의 수행기관들이 긴장하는 가운데, 기존 연도에 비해 차 년도에는 보완된 사업계획을 구상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사업운영의 적절성

- 용역 만족도조사는 있으나, 프로그램 기획 시 사전 수요를 파악하거나 조사하지는 않았으며, 모두 사후적인 성과 평가형 만족도 조사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임.
-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만족도조사에서 재관람 의향이 97.3%여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결과적으로 만족도가 높으니, 예술인이나 관객의 수요를 충족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반면에 그들의 필요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활동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대응관계 검토가 있어야 확신할 수 있음.
- 선정단체 홍보, 기획,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자 워크샵이 10월에 있음.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시기를 앞당겨 사업 시작 단계에 준비해서 제공함으로서 사업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강화된 역량이 전문적으로 발현되는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추진 성과

- 국제교류사업은 계량적 성과로 67명의 예술가 참여하고 9,200명 관객이 향유한 것으로 나타남. 양적 성과와 목표치와의 관계나 자체평가 및 재단의 평가 결과나 분석이 필요함. 그리고 국제교류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공연의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복합 문화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대인시장의 미테우그로의 문화공간 브랜드화가 성공을 거두고 있음. 태국이 동남아 권역에서 예술트렌드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과의 교류는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교류의 성과가 일국에서 끝나지 않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지역의 브랜드는 가능하면 중앙지에도 게재되거나 소개될 수 있도록 재단 차원에서 홍보부문의 기획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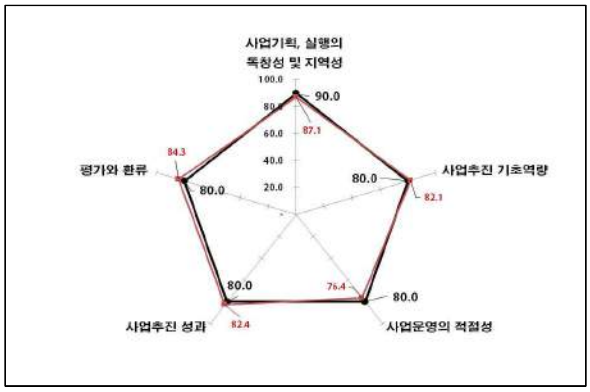
□ 평가와 환류

- '행정평가' 라는 평가기준의 점수가 20-25점대여서 전체적인 평가를 좌우하고 있음. 교류활성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정적이고 다소 기계적이며 편의적인 행정평가 점수가 다소 높게 설정된 것으로 인식되며, 비중을 다소 낮출 것을 권유함.
- 최종적으로 사업 심의위원의 점수 못지않게 사업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견해(컨설팅형)의 수용이 중요하므로, 심사과정에서 작성된 총평 등 전문가들의 견해를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에게 전달하는 초기의 환류 작업도 필요함.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 광주 지역은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

6.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그림 189]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광주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9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0.0점
사업 추진 성과	80.0점
평가와 환류	80.0점

[표 202]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광주

□ 사업기획 실행 독창성은 90.0점, 사업추진 기초역량은 80.0점, 사업운영의 적절성은 80.0점, 사업추진성과는 80.0점, 평가와 환류는 80.0점을 획득하였음. 전국 평균수준에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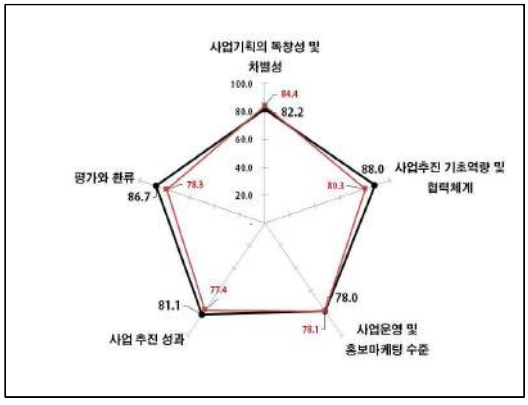
□ 지역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 창작프로그램과 우수 레퍼토리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음. 지역특성화를 감안하여 광주 5월 이야기를 연계시켰음.

□ 25건의 지원을 받아 5건을 선정하여 20%의 선정율을 기록하고 있음. 평균 지원액은 3천5백만원으로서 나타나고 있음. 전문예술가법인 1개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최고지원액은 5천만원, 최저지원액은 3천만원으로서 단체별 큰 차이 없이 지원됨. 사업수행 적정성에 대하여 나름대로 고민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적 규모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근거 기반의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역대표 브랜드화를 염두에 두고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문화 수요자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했음. 이를 위하여 먼저 지역 수요를 분석하였으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홍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의 다양한 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 특별하게 사업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성과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었음. 그런데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목표를 적정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함. 꿈꾸는 예술은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블로그에 광주의 대표적인 열린 음악회로 소개될 정도로 대표성 있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평가환류는 전문가 모니터링만 진행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 진행했음. 이 사업의 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조사 방법으로 전문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므로 세련된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임.

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19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광주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82.2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88.0점
사업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78.0점
사업 추진 성과	81.1점
평가와 환류	86.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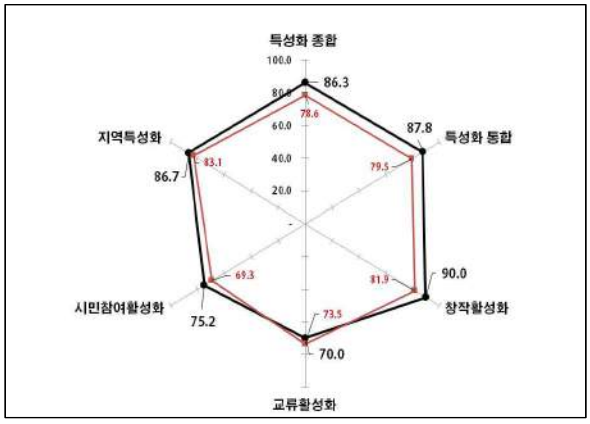
[표 20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광주

- 우수 상주단체를 위한 2차 지원으로서 교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년차 이상 지속지원 단체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공연장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5개 자치구 모두 공연장을 참여시킴.
- 지역고유성 및 차별성 반영 노력으로 상주단체들과 워크샵에서 지역고유성 확보를 위한 작업에 대해 강조하여 논의해오고 있음. 퓨전국악 아이리아, 5.18을 판소리로 풀어낸 (서울)바닥소리의 '방탄 철가방', 놀이패 신명, 오월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등을 제시함.
- 1,400명의 문화예술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매년 280명(장르별 56명씩)으로 압축한 뒤, 지원신청 단체가 해당분야의 명단(56명)에서 무작위 추첨하고 사업담당자가 1순위부터 전화로 참석여부를 물어서 최종 심의위원을 확정하는 심사위원 선정과정을 거침.
- 12개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는 7개 단체로 58.3%를 차지함. 전문역량을 갖춘 단체, 공연장이 선정되었음.
- 광산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직을 배치하고(광산구 문화기획 전문위원 채용–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2014년도 4월부터 담당 코디네이터를 추가 채용함으로써 전문 인력을 통해 상주단체 프로그램 및 마케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주단체와 공연장의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하고 있음.
- 삼성전자 광주공장과 상주단체들이 음악회를 공동 기획하는 등 상주단체와 외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활동이 활발함. 공연장과 상주단체간의 협력, 상주단체와 공연장의 외부 협력, 재단과 상주단체 · 공연장 간의 협력, 재단의 외부기관 협력 등을 사례별로 제시하고 있음.

- ☐ 하반기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일몰제시행 설문조사 결과공유/내년도 지원사업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공연장상주사업에 관한 지역수요 파악활동을 펼침. 또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참여단체 설문조사,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있음.
- ☐ 그린발레단, 아트컴퍼니원 등의 우수 퍼블릭 프로그램 사례를 제시함.
- ☐ 재단 SNS, 이메일 공연알림, 통합리플렛, 성과모음집 등을 통해 공연장상주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재단이 상주단체 보도자료 배포를 전담함으로써 홍보에 취약한 단체의 보도자료를 담당자가 수정, 작성하여 홍보팀에 의뢰하고 광주문화재단 출입기자를 통해 배포하여 공연의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있음. 또한, 지역 축제와 연계한 홍보 지원 노력도 함께 하고 있음(광주세계아리랑축전 '아리랑지기' 500명에게 문화예술카드를 지급하고 상주단체 공연 30% 할인 혜택 제공)
- ☐ 광주여성필하모닉과 그린발레단의 장르 간 협연, 그린발레단 과 퓨전국악 아이리아 협연으로 국제행사 초청공연에 상주단체 간 동반진출, 놀이패 신명과 푸른연극마을이 함께 개척하여 구도심 공연장을 개발하는 등 실제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통한 상호교류가 활발해짐
- ☐ 그린발레단의 요코하마시 초청공연 등 국내외 대회 수상 및 축제 초청 사례가 제시됨.
- ☐ 성과목표를 사업관리목표로만 잘못 이해하고 있음. 재단 차원의 공연장상주사업 성과목표와 목표수준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고 이의 달성수준을 제시하여야 함.
- ☐ 현장평가(전문가평가), 서면평가를 실시함. 만족도 조사는 지역협력형사업 전체에 해당하는 조사로서 공연장상주사업에 적합한 조사로 보기 어려움. 시민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음.

제6절 대전

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그림 19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대전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특성화 종합	86.3점
특성화 통합	87.8점
창작활성화	90.0점
교류활성화	70.0점
시민참여활성화	75.2점
지역특성화	86.7점
평균	82.7점

[표 204]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대전

• 예산가중치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5.3
교류활성화	16.0
지역특성화	15.4
창작활성화	63.3
합계	100.0

[표 205]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대전

• 자율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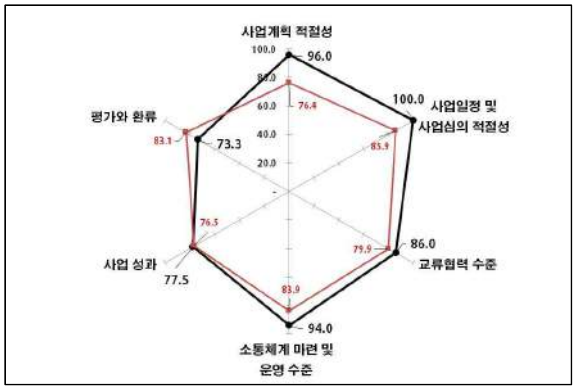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10.0
교류활성화	10.0
지역특성화	40.0
창작활성화	40.0
합계	100.0

[표 206]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대전

□ 대전 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는 86.3점임. 대전지역은 4개 부문의 사업을 모두 추진하였으며, 창작활성화 부문의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교류활성화부문 사업의 평가가 낮았음. 지역특성화부문도 높은 평가를 받음.

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그림 19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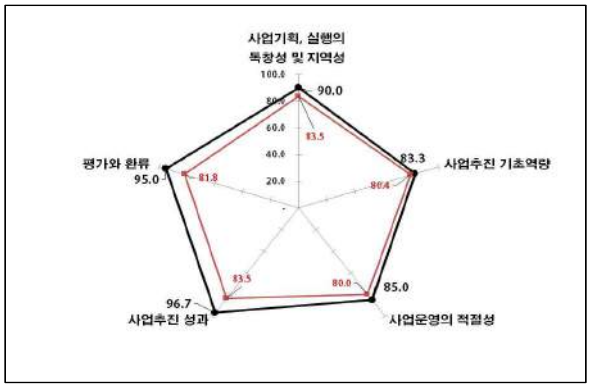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96.0점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100.0점
교류 협력 수준	86.0점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94.0점
사업 성과	77.5점
평가와 환류	73.3점

[표 207]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대전

- 특성화지원사업 통합지표 부문의 평가결과는 87.8점임.
- 대전지역은 특성화 사업별로 적절한 성과목표와 만족도 등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음. 대전문화재단의 미션뿐 아니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 중장기 계획과 연계시킨 목표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사업설명회, 언론광고, 홈페이지, SMS, 뉴스레터(매월 2,000건 발송) 등을 통해 성과목표를 공유해오고 있음.
- 연령별 예술가 지원프로그램 차별화 및 특성화 사업별로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였으며, 아티언스프로젝트 등 과학도시 대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여 특성화하고 있음.
- 대전지역은 기획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채용한 후 15시간에서 60시간까지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부여하여 모두 초과 달성하였으며, 재단 대표이사가 직접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내가 재단이다 3.0' 운동을 전개함.
- 지원사업 탈락단체를 위한 연중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여 차기년도 사업 선정에서 모니터링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대전지역은 2014년 지원사업의 경우 심의결과를 광역문화재단 중 두 번째로 '14.1.29에 발표했으며, 당초 계획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음. 지원금 교부는 교부신청서 접수 후 신청 당일에서 1~2일 사이, 최장 5~6일 이내에 지급하여 빠른 교부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대전지역은 객관적인 절대평가를 제도화 한 다단계 절대평가 심의를 통해 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대전지역은 정책세미나(2회), 막월문화포럼(12회), 아티언스포럼(연 1회), 문화사랑방(수시, 14회), 신년하례회(연 1회), 학술대회(연 1회) 개최, 차세대아티스타 커뮤니티 운영등으로 지역예술인들과의 다양한 소통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대전지역은 전국규모의 공동학술대회 '민선 6기 지역문화재단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당면과제'를 개최('14.6.14, 대전예술의전당)하였으며, 해외교류로는 대전시 해외 자매도시(일본 삿포로시)를 방문하여 문화교류 방안을 협의함. 일본 홋카이도 연극재단 소속단체 초청공연(3회 공연), 지역 시각예술가 2명 '2014 삿포로국제예술제 참가' 지원, 해외 저명 예술가(독일 아힘 프라이어) 초청 특별강연 개최, 아티언스 랩 참여 해외작가 초대등의 국제교류 활동을 전개함.
- 대전지역은 전문단체에 의뢰하여 지원행사 전수 모니터링(평가위원 총 39명, 9개 분야별 각 3~8명, 전문가 2명 대 시민 1명으로 구성)을 진행하였으며, '우리가락 우리마당', '예술창작지원' 사업에 대해 관객 700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 대전지역은 홈페이지, 정기 발행물(뉴스레터 1,530명, 보도자료, 공연안내지 'It's 대전' 등), 라디오 방송 홍보(재단 사무처장이 '김상균의 문화가 산책'을 진행하며 지원행사 홍보), 문화행사 안내소('문화 곳간')를 연극협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음. 또한 문화예술단체의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경영 아카데미를 운영함.
- 대전지역은 계량성과 취합을 위해 외부 전문단체 용역 추진 및 연중 평가위원회를 운영(4명)하고 있음. 지원사업 147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3. 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그림 193]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대전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9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3.3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5.0점
사업 추진 성과	96.7점
평가와 환류	95.0점

[표 208]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대전

□ 창작활성화 부문의 개별지표는 9개 지표 60점 만점으로, 배점 5점의 지표 6개와 배점 10점의 지표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추진 단계별 지표수와 배점은,

[사업계획단계]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개 지표 10점,

[사업집행단계] '사업추진 기초역량' 2개 지표 15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2개 지표 10점,

[사업성과단계] '사업추진 성과' 2개 지표 15점,

[평가환류단계] '평가와 환류' 1개 지표 1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지표별 배점 등에 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평가지표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5점)은, 사업기획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는지, 사업실행 방식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정도를 평가함.

- 대전의 창작활성화 부문은 '예술창작지원', '차세대artiStar지원'의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젊은 예술가 창작활동 육성 지원('차세대artiStar지원', 2년간 지원), 중견 예술가 창작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예술창작지원'), 원로 예술가에 대한 예우를 위한 사업('대전원로예술인 구술채록사업')으로 체계화하였으며,
- 서류 심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탈락단체 현장평가(모니터링)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 2014년에 탈락한 12건을 모니터링하여 차기연도 심의 시 0.5~2.0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이 중 10건이 2015년에 지원 신청하여 9건이 지원 선정됨. 탈락단체에 대한 현장평가 제도가 바람직한가 여부를 떠나 역발상적 사고방식에 의한 매우 독창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대전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 (5점)은, 기획사업 및 개별 지원사업의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함.

- '대전 연극사 및 예술정책 연구', '대전 무형문화재 및 웃다리농악의 태평소 가락 정립' 등 대전지역 문화자원과 연계된 사업 8건을 간단히 소개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4점, 대전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5점)은,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취지에 맞는 선정기준(예컨대, 예술적 수월성)을 설정하고 있는지, 지원 단체 선정율과 평균지원액의 규모가 적정하거나 연차별로 개선되고 있는지,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신청단체(인)의 전문성과 예술성, 예술활동 계획의 독창성과 참신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선정율은 '12년 60.0% → '13년 56.0% → '14년 55.8%로 낮아지고, 평균지원액은 '12년 4,433천원 → '13년 4,686천원 → '14년 4,753천원으로 높아지는 추세임. 중복지원 제한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대전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10점)은,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율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여부, 단체(개인) 지원신청 자격 명시 여부, 선정 단체의 사업수행 적합성 정도, 신규단체 참여 확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배려 여부,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관계 구축 정도 등을 평가함.

-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의 정규사업 실적이 있는 전문문화예술단체 등을 예술창작지원 신청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신규단체에 대해 심의 시 행정점수(모니터링, 정산실적)를 만점으로 반영하여 우대하여 2014년 신규단체 지원 선정율은 37.7%(61/162)임.
- 자체평가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나 심화인터뷰 시 대전시가 허가(등록)한 19개 전문예술법인(단체) 전부에 대해 지원했다는 설명이 있었음.
- 사업관련 기관과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서는 선정단체의 대전예술의전당 스프링페스티벌 참가, 젊은 무용가 초청공연 등에 대해 설명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7.8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5점, 대전 지역 8.0점임.

□ 평가지표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 (5점)은,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사업 설계 및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차세대artiStar 간담회(3회), 정책세미나(2회), 막월문화포럼(12회), 문화사랑방(15회) 등을 통해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여 지원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있음.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 시행 실적에 대한 설명은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5점, 대전 지역 4.0점임.

□ 평가지표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5점)는, 특화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주민 참여와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그리고 지원수혜단체의 홍보/기획/마케팅 담당자 대상의 교육, 자문, 워크숍을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재단 홈페이지 내에 별도의 지원사업 통합홍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뉴스레터/보도자료 발간 배포, 문화안내소인 '문화곳간'(원도심 지역민 대상 홍보 전용 채널)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심화인터뷰 시 시에서 발행하는 무가지 '잇츠대전'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함.
- 제11차 기획/경영아카데미(SNS로 문화예술 홍보하기, '14.6.30~7.4 19~22시), 제12차 기획/경영아카데미(빅데이터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14.11.17~27 19~22시)를 개최하여 각각 문화예술단체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가, 홍보역량을 강화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대전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5점)는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의 수준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했는지, 그 성과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 단위사업별로 성과목표와 핵심성과지표(KPI), 목표값을 설정하고 있음.
- 총 관람객 수 295,677명, 발표작품 수 7,054건, 참여예술인 수 6,670명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대전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10점)는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창작활성화 부문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를 창출했는지, 제시한 최우수프로젝트(Best Practice)가 타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국내외 각종 수상(受賞), 인증, 페스티벌 초청/참가, 예술시장에서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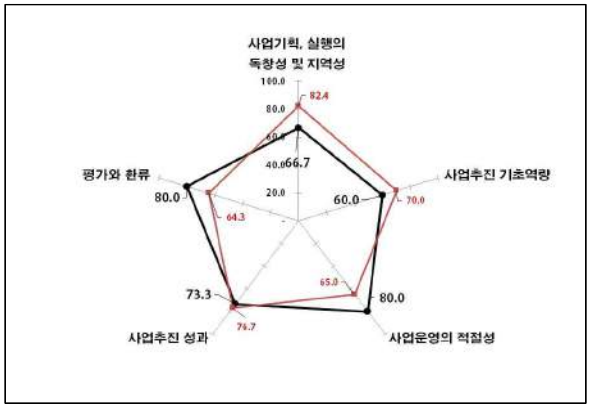
- 지원사업 중 ① 수상실적으로는 제32회 전국연극제 은상, 최우수연기상, 우수연기상, 2014 한국발레협회 올해의 예술가상, 제34회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최우수예술가상, 그밖에 제23회 대전연극제 대상, 최우수연기상, 신인연기상, 연출상, 무대예술상, 2014 대전MBC 한빛대상(문화체육부문), 제9회 한남문인상 대상 등, ② 국내외 페스티벌 초청 실적으로는 3개 예술단체가 2014 대전예술의전당 스프링페스티벌에 참가했고, 제17회 젊은 무용가 초청공연, 일본 도쿄 퍼포먼스극 초청 등, ③ 예술시장 유통실적으로는 작가 이윤희(부산, 파주 헤이리,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아트페어 참가), 윤지선(뉴욕, 파리 아트페어 참가) 등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9, 대전 지역 9.5점임.

□ 평가지표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10점)는, 시민 모니터링과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과 결과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평가함.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10개 분야별 각 3~8명씩(전문가 2, 시민 1 비율) 총 44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228건의 현장평가와 함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전체 평균값 84.05%의 결과를 얻음.
-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고객서비스, 홍보, 주차시설, 무대장치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에 따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편의 제공 방안 모색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9.0점, 대전 지역 9.5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는 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9.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54.4점, 대전 지역 54.0점임.

4.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그림 194]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대전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66.7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6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0.0점
사업 추진 성과	73.3점
평가와 환류	80.0점

[표 209]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대전

□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지역성

- 대전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실무자이자 감독관인 대전문화재단은 안정적인 국제교류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대전 지역 예술가들이 '2014 삿포로국제예술제'에 참가하고 일본 연극단체인 삿포로좌가 대전에서 공연하는 등 대전의 자매도시인 일본 삿포로 시와의 협력으로 지역 예술가들의 국제교류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음.
- 보고서 기술은 매우 잘 구조화되어 있고 제시가 명확한 점이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 값의 경우 만족도를 '70%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다소 안이한 계획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한편 '심의 탈락단체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라는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시스템을 가동하여 금년에 공모하였으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한 탈락 기관들이 후년도에 새로운 문화예술지원 관련 지역사업을 의욕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하고 있음. 탈락 시의 미흡 요건이나 문제점이 해소되고, 계획을 발전시킨 모습이 드러날 경우 선정이 되게 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후발 문화예술단체들의 풀의 저변을 확대하는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하겠음.
- 공모를 통한 간접지원 형식으로 단발적이고 지역 내에 국한되는 협소함을 보이는 이벤트형 초단기 거주형 프로그램이 대부분으로 교류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도라고 보기는 다소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특성이 보임.
- 오프라인으로 지원된 직원 직무교육의 강사가 내부인사로 국한된 것이 자체 역량을 활용하는 효과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극히 주관적이고 폐쇄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저평가될 가능

성 높음. 다변화된 기획력이나 사업 지원 방식에 대한 학습 열의를 독려하기보다 내부 조직체계의 상하관계를 반영한 하향적 지침에 끌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짜투리 시장, 빈집 프로젝트 등의 아이디어는 참신하며, 전국 유일의 판화 레지던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역브랜드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 지역의 문화자원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함. 대전은 70~90년대 초반까지의 특유의 지역 미술현장을 가진 곳이나 현재의 프로그램들은 현장성이 매우 뒤떨어지는 지방주의적 사업기획의 한계만을 드러내고 있음. 현재 대전지역의 지역 특화 문화자원은 도시 구심을 기반으로 하는 젊은 아티스트들의 이벤트형, 커뮤니티형 아트와 판화 등의 장르적 접근을 가진 프로그램 등이 지역적 문화자원과 어떠한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선정 근거 및 그 제시가 부족함.

□ 사업추진 기초역량

- 다단계 절대평가제도의 도입 자체는 우수하지만, 레지던스 프로그램 응모 건수가 3건 밖에 되지 않는 이유 분석이 필요함. 국제문화교류지원 사업도 14건 응모에 7건 선정은 적정하지만, 대전의 지역적 특성이나 규모로 볼 때, 응모 건수가 적어 다소 소극적인 홍보와 응모로 인식되며, 이러한 건수를 예상했을 때 사전에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기획력이 필요했음.
- 각 신청 단체가 제시한 기본 협력관계 이상을 확대하거나 전문성을 증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계 방안, 혹은 이에 대한 보완점이 보고서에 드러나고 있지 않음.
- 기획, 경영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저변 확대 노력이 부각됨. 향후 신규 참여 확대나 지역민 대상 사업 홍보의 채널 역할이 있다고 보여짐.
- 한편 선정된 단체의 최근 3년간 이력은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도표화 하였고, 단체들의 기초역량이 충분히 인정됨. 다만, 신규 사업단체가 진입한 측면이 보이지 않아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확산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형편임.

□ 사업운영의 적절성

- 보다 광범위한 전문 인력 유입과 활용,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의 방법 제고 필요함.
- 예술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전지역 교류기금 및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중앙 현장과의 연계 및 벤치마킹 필요함.
- 보수성을 탈피한 현장성 있는 사고와 지역 예술의 역사 및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기획 마인드가 필요함.
- 매월 개최되는 문화포럼 등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이 있으며, 종합안내소 '문화곳간' 의 지원 및 운영을 홍보현황으로 제시하였으나, 이 종합안내소의 이용객이나 구비한 자료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나 영향력에 대한 서술은 미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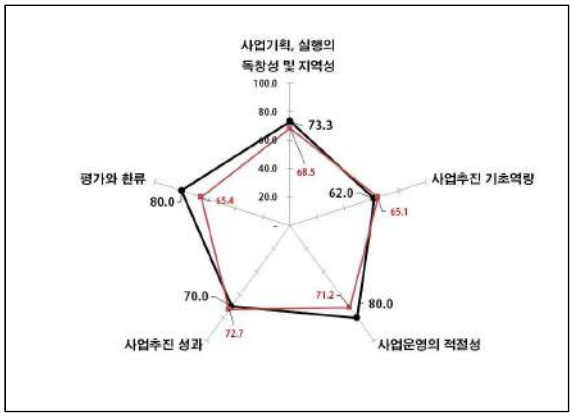
□ 사업추진 성과

- 계량적 성과와 비계량 성과 부분이 고르게 보고되어 있고, 참여자수와 만족도 평점으로 환산되어 있음.
- 시각예술 장르의 사업도 모두 공연 횟수로 뭉뚱그려 계량적 성과를 제시하고 있음. 게다가 계량 성과에 대한 기준이나 유형이 없이 단순 나열되고 있는 상태임. 또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수행단체의 교류프로그램의 내용에서 관람객수를 언급한 것은 다시 계량으로 환원되고 있는 것임. 이는 재단이나 프로그램 기획자나 예술인 사이에 비계량에 대한 합의나 고민이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평가와 환류

- 만족도 조사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당사자들의 피드백이나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보고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후속 보완 요소나 환류 방식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예측되지 않는 한계를 보임.
- 외부 용역업체–충청문화관광산업연구소–를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하여 조사를 수행함. 만족도와 단체별 평점이 80점대를 넘어 무난한 사업수행 결과를 알려줌.
- 다만 재단의 운영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다면 최고 수준의 90점대를 지향하면서, 어떤 문제를 보완할 것인지 혹은 어떠한 장점을 극대화해야 할 것인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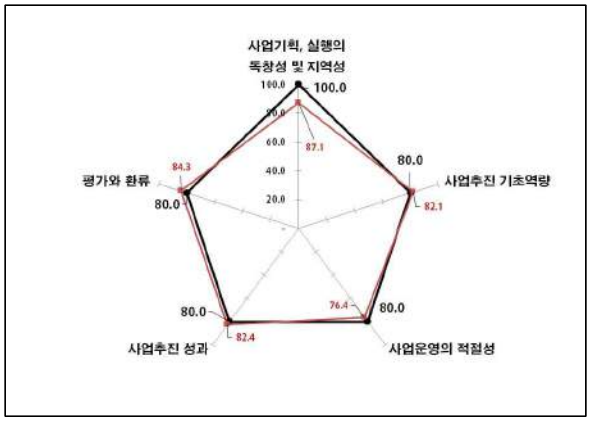
[그림 195]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대전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73.3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62.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0.0점
사업 추진 성과	70.0점
평가와 환류	80.0점

[표 210]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대전

- 대전지역은 우리가락우리마당을 시민참여활성화 영역에 넣었고, 동참마당 9회, 체험마당 10회, 시민참여프로그램 진행하였음.
- 총12회 진행, 평균 350명 관람객이 참여하였고,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전시를 개최하였고, 대전대학교와 협동하여 퓨전프로그램 '사물놀이와 비보이' 를 개발하였음.
-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3년 연속)가 선정되었고, 매회 4장르 이상 구성, 주관단체 10%이상 출연금지, 신생 신진 20% 보장, 타지역 참여율 20% 원칙을 세움.
- 체험마당의 경우 관람객을 모집해 2주간 별도의 교육을 통해 사전공연에 참여하였음.
- 문화행사안내소 문화곳간 운영, 뉴스레터 발행, 기획경영아카데미 운영하였음.
- 유성구 유림공원 문화휴양지로 자리매김하였고, 우리가락우리마당 명소화 추진하였음.
- 충청문화관광연구원 평가용역 진행하였음.(현장평가, 모니터링, 전문가평가, 시민평가)
- 관람객 참여와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

6.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그림 196]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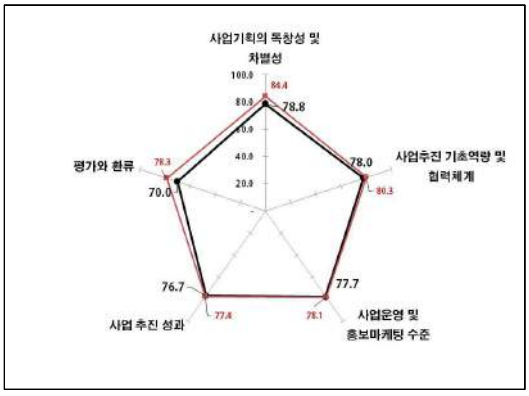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10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0.0점
사업 추진 성과	80.0점
평가와 환류	80.0점

[표 211]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대전

- 사업기획 실행 독창성은 100.0점, 사업추진 기초역량은 80.0점, 사업운영의 적절성은 80.0점, 사업추진성과는 80.0점, 평가와 환류는 80.0점을 획득하였음. 사업실행 독창성에서 전국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 예술과 과학의 결합 브랜드로서 예술가와 과학자, 관련기관, 관련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기술기반의 융합프로젝트가 최근 급증하는 가운데 대전의 사업은 예술기반의 융합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음. 단순한 논리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 활동이며 신규 진입의 문을 만들어 가는 작업으로서 평가받고 있음. 그러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탄탄한 기획력이 돋보이고 있음.
- 대전지역이 오랫동안 구축해 왔던 과학기반의 도시육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이 사업의 기획에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기반의 문화자원 연계콘텐츠를 창출하도록 기획하였고 콘텐츠의 지역차별화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초역량을 충분히 분석했음. 기초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지원신청은 27건이었으며 그 가운데서 3건을 선정하여 10%의 선정율을 기록하고 있음. 관심이 많았지만 사업수행에 적절한 단체를 선정하여 어려운 주제를 잘 해석하면서 추진한 것으로 평가됨.
- 지역 내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분야별 전문매체를 활용하고 온라인으로도 적절하게 홍보한 것으로 평가됨.

- 핵심 성과지표를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사업성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했음. 이 사업에서는 특히 아티언스 랩, 아티언스 포럼, 아티언스 캠프, 아티언스 대전 등에 많은 관객들이 참여했음. 이 참여 아티스트의 해외활동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추진한 점이 책임 있는 집행으로 돋보이고 있음.
- 평가와 환류를 위하여 아티언스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했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19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대전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78.8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78.0점
사업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77.7점
사업 추진 성과	76.7점
평가와 환류	7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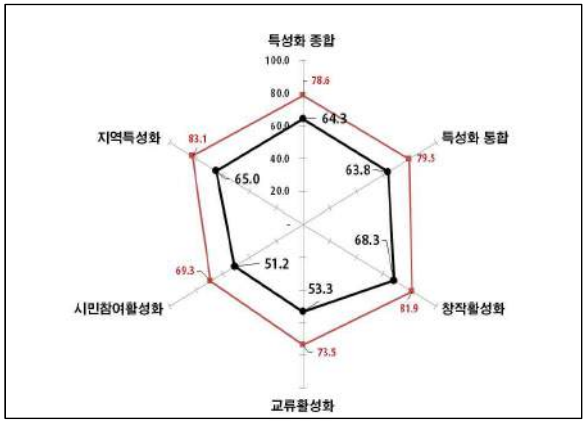
[표 21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대전

- 대전지역의 특성을 살린 상주사업 운영시스템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지역여건상 공연장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자 재단이 노력하여 상주사업 공연장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함. 또한, 상주단체 2개가 탈락하고 3개의 신규단체가 선정되어 일부단체에만 해당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바꾸게 됨.
- 대전에는 소극장이 많으므로 공연장 규모가 작더라도 공익성이 있고, 상주사업의 혁신성과 지역 파급효과를 고양할 수 있는 소극장을 엄선하여 공연장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공연장 인식 변화를 추동할 필요가 있음.
- 과학도시 대전의 특성을 살려 첨단미디어 기법으로 나타낸 권숙진 청연 무용단의 융복합 무용극 '무화과나무' 등을 특화사례로 제시함. 다른 지역보다 지역고유성 사례가 적음. 상주단체 프로그램의 지역고유성 및 차별성 반영을 위한 재단 차원의 노력이 어떠한지 제시할 필요가 있음.
- 1차 행정심의, 2차 서류심의, 3차 인터뷰심의 및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전문예술단체는 2개 팀으로 상주단체 전체 사업의 28.6%를 차지함. 전문역량을 갖춘 단체, 공연장이 선정되었음.
- 공연장과 상주단체간의 협력, 상주단체와 공연장의 외부 협력, 재단과 상주단체 · 공연장 간의 협력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재단의 외부기관 협력에 있어 상주사업과 연관된 내용의 구체적인 제시가 부족함.
- 공연단체 및 공연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3회의 문화사랑방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 (지역 최대 현안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장 상주단체가 원도심 시민을 위한 무료 공연을 추진함)
- 지역민 참여프로그램 수준 및 지역민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에 대한 제시가 없음.

- 재단 홈페이지, 뉴스레터, 보도자료, TV · 라디오 방송, 인쇄물, 월간잡지 등을 홍보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거리의 전시 · 공연 · 행사 종합안내소 '문화곳간'을 운영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다만, 공연장상주사업에 대한 재단차원의 통합적인 사업홍보 채널은 미흡한 실정임.
- 상주단체간 자체적으로 협력 공연 및 상주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함. 또한, 재단의 기획으로 2개 상주단체의 교류공연(페스티벌)을 개최함.
- 마당극패 우금치의 창작 국악극 수상 등 국내외 대회 수상 및 축제 초청 사례가 제시됨.
- 사업성과목표로서 재단의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한 핵심성과지표(KPI)를 제시함. 대전지역 상주사업 방향성에 따른 재단의 성과목표 설정이 필요함.
- 현장평가(모니터링) 및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만족도는 83.21점으로 나타남. 다만, 평가 환류방안에 대한 기술이 없음.

제7절 울산

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그림 198]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울산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특성화 종합	64.3점
특성화 통합	68.3점
창작활성화	63.8점
교류활성화	53.3점
시민참여활성화	51.2점
지역특성화	65.0점
평균	61.0점

[표 213]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울산

• 예산가중치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5.9
교류활성화	8.5
지역특성화	12.7
창작활성화	72.9
합계	100.0

[표 214]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울산

• 자율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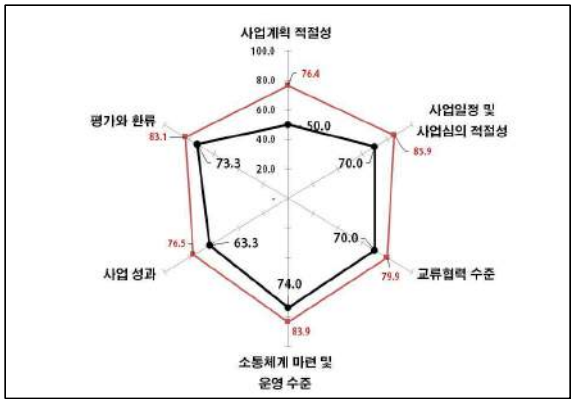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15.0
교류활성화	15.0
지역특성화	30.0
창작활성화	40.0
합계	100.0

[표 215]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울산

□ 울산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는 64.3점임.

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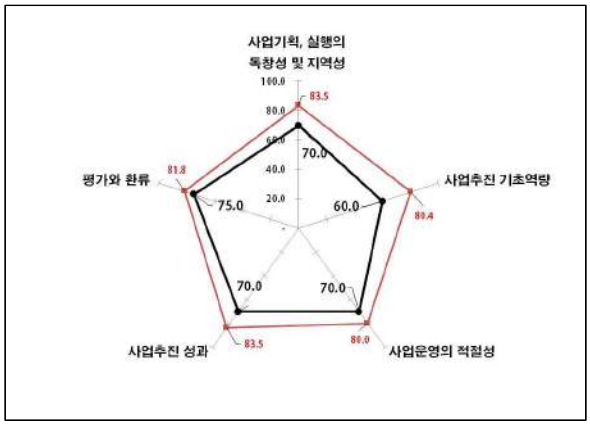
[그림 199]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울산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50.0점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70.0점
교류 협력 수준	70.0점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74.0점
사업 성과	63.3점
평가와 환류	73.3점

[표 216]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울산

- 울산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통합지표 부문의 평가결과는 68.3점임.
- 울산지역은 「울산문화예술 중장기발전 계획(2014~2013)」을 2014년 6월에 수립하였으며, 특성화 사업별로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성과 목표나 지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사업별 성과목표에 대한 공유 노력에 대한 언급도 기술되지 않음.
- 울산지역은 계변천신설화, 울산농요 복원사업, 울산 별곡 등 울산지역의 문화자원을 반영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
- 울산지역은 당연직 11명은 분야별 문화예술진흥위원과 협력관, 위촉직 29명은 예술 기관과 단체 추천자와 예술위에서 통보된 심의 평가위원 중에서 울산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결정함. 외부 심사위원은 위촉직 29명 중 10명을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함.
- 울산지역은 국외선진지 예술탐방, 해외문화탐방 교류, 지역문화예술작품 해외공연(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국제목판화 페스티벌, 아시아미술 교류전, 한일 국제민간교류사업,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해외연수 등 해외교류 활동을 추진하였음.
- 울산지역은 총 126개 사업에 대해 80명의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육성지원사업 96개 사업에 대해서는 76개 사업을 평가(평균 점수 85.5)하였음. 또한, 80명의 시민평가단이 관객 만족도도 조사함.
- 울산지역은 비계량 성과로 신진예술가지원사업 4건, 레지던스 프로그램 2건(모하창작스튜디오, 갤러리 아),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 5건(제22회 울산전국사진공모전 등)을 우수 사례로 제시하였음.

3. 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그림 200]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울산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7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6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70.0점
사업 추진 성과	70.0점
평가와 환류	75.0점

[표 217]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울산

□ 창작활성화 부문의 개별지표는 9개 지표 60점 만점으로, 배점 5점의 지표 6개와 배점 10점의 지표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추진 단계별 지표수와 배점은,

[사업계획단계] '사업기획/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개 지표 10점,

[사업집행단계] '사업추진 기초역량' 2개 지표 15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2개 지표 10점,

[사업성과단계] '사업추진 성과' 2개 지표 15점,

[평가환류단계] '평가와 환류' 1개 지표 1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지표별 배점 등에 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평가지표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5점)은, 사업기획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는지, 사업실행 방식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정도를 평가함.

- 울산시의 창작활성화 부문은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신진예술가분야지원'의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울산지역의 역사, 문화적 고유성과 지리적 생태적 특성, 독창성이 고려되어 사업기획에 반영되었는지와 지역의 문화자원과 스토리를 활용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심사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음.
- 차별화된 기획력과 창의적 실행방법에 대한 2014년 실적이나 실제 사례에 대한 설명이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3.3점, 울산 지역 3.0점임.

□ 평가지표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 (5점)은, 기획사업 및 개별 지원사업의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함.

- 20여개의 작품이 울산 출신의 인물을 재조명 하거나 울산지역의 설화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발굴한 사례로, 울산의 전통 5일장을 사진으로 남긴 것, 울산의 농요를 복원하는 사업 등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작품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않음.
- 울산 설화를 바탕으로 충렬공 박제상의 죽음을 초월한 애정관 등을 춤사위로 표현한 〈그리움 돌이 되다〉 (김외섭창작무용단)의 보도사례(울산매일, ‘14.3.24)만 첨부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4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4.0점, 울산 지역 4.0점임.

□ 평가지표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5점)은,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취지에 맞는 선정기준(예컨대, 예술적 수월성)을 설정하고 있는지, 지원단체 선정율과 평균지원액의 규모가 적정하거나 연차별로 개선되고 있는지,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사업목적에 맞는 선정기준(예컨대, 예술적 수월성)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 선정율과 평균지원액의 적정성과 개선 정도,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기준 설정 여부를 설명해야 하나, 단체, 개인, 신진예술가 별로 신청자격만을 제시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3.5점, 울산 지역 3.5점임.

□ 평가지표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10점)은,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율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여부, 단체(개인) 지원신청 자격 명시 여부, 선정단체의 사업수행 적합성 정도, 신규단체 참여확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배려 여부,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정도 등을 평가함.

- 울산시 소재 전문예술법인(단체) 수는 ’14년 말 기준으로 15개이나, 전문예술법인(단체)과 신규단체 지원선정 현황이나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설명 없이 지원단체 선정 현황만을 제시하고 있음.
- 심화인터뷰 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현황을 추가자료로 제출함(심화인터뷰 시 2014~2016년까지 지원 법인(단체) 수는 6개라고 응답했으나 2014년도에 선정 지원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수를 알 수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7.8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5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7.9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6.5점, 울산 지역 5.5점임.

□ 평가지표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 (5점)은,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사업 설계 및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평가함.

- 80명의 시민평가단을 운영, 육성지원 96개 사업 중 76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현장 목소리와 만족도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여부에 대한 설명은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5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3.0점, 울산 지역 3.5점임.

□ 평가지표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 (5점)는, 특화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주민 참여와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그리고 지원수혜단체의 홍보/기획/마케팅 담당자 대상의 교육, 자문, 워크숍을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시 홈페이지, 각종 보도자료 제공, 본청 전부서 협조,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기관, 문화예술행사 홍보공문 매월 발송, 시청 및 홍보방송 계약 업체인 JCN케이블 방송과 청내 영상미디어보드 활용 방문객 홍보방송, 예총 및 단위지회 홈페이지 상설소개, 각 구군 소속 공공공연장 홈페이지 팝업 게시, 유관기관 및 공공 공연장 관련회원들에게 SNS을 전송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3.1점, 울산 지역 3.5점임.

□ 평가지표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5점)는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의 수준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했는지, 그 성과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 인터뷰 심사 후 확인한 계량 성과는 지원 102건, 관람객 수 166,443명, 발표작품 수 창작초연 2,620건, 기존창작품 262건, 외국작품 22건, 참여예술인 수 6,770명
-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 도출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사업별 성과만을 제시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3.6점, 울산 지역 3.5점임.

□ 평가지표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10점)는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창작활성화 부문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를 창출했는지, 제시한 최우수프로젝트(Best Practice)가 타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국내외 각종 수상(受賞), 인증, 페스티벌 초청/참가, 예술시장에서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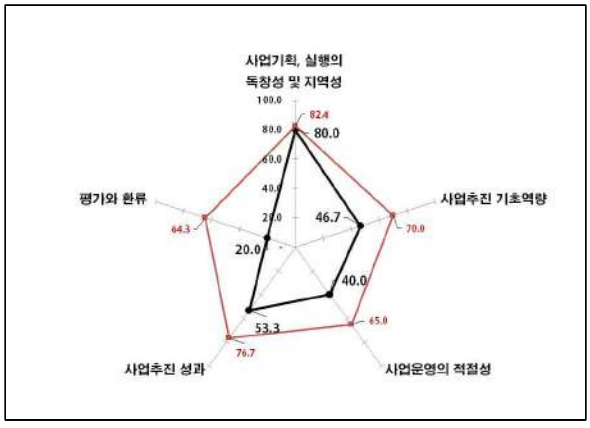
- 울산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로, 〈제22회 울산전국사진공모전〉, 창작 초연작임에도 마니아층을 확보한 극단 물의진화의 연극 〈목이 긴 남자〉, 울산 전통연희단체의 전통을 잇는 풍물예술단 버슴새의 〈전통연희난장 불광불급〉, 무용의 대중성을 확보한 김미자무용단의 창작무용 〈예기 전화행-향기가 짙은 꽃은 가슴에 핀다〉, 울산심포닉밴드의 〈제5회 정기연주회〉를 사례로 제시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9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3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7.0점, 울산 지역 7.0점임.

□ 평가지표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10점)는, 시민 모니터링과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과 결과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평가함.

- 본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이 없으나, 평가지표 3.1.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80명의 시민평가단을 운영, 육성지원 96개 사업 중 76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 모니터링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현장 목소리와 만족도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9.0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4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6.6점, 울산 지역 7.5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는 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9.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54.4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9.4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40.6점, 울산 지역 41.0점임.

4.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그림 201]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울산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8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46.7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40.0점
사업 추진 성과	53.3점
평가와 환류	20.0점

[표 218]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울산

□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지역재생 및 청소년 체험과 교류 공간으로서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획은 적절했고, 모하스튜디오의 반구마을 재생프로젝트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우수사례임.

□ 사업추진 기초역량

- 사업 추진 단체의 선정을 위한 심사 방법은 서류, 인터뷰 심사와 동시에 토론심사도 활용하여 상당히 체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선정 기준에서는 지역민과의 커뮤니티나 사회기여도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지역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고, 사업 자체의 우수성과 별도로 독창성을 고려하고 있거나 추구하고 있지 않아서, 기획력이 다소 약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 사업추진 단체의 사업기획 내용만 표의 형태로 열거되고 있어서, 이들 단체들의 경력이나 전문성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는 난해함.

□ 사업운영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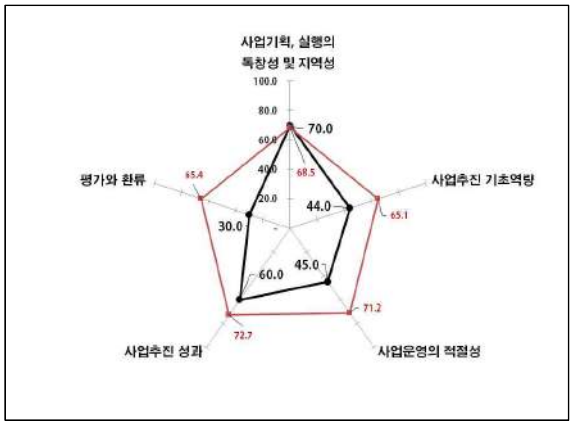
- 지역 문화계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나 요구 사항을 경청하고, 수합하면서 사업을 수행해나가기 위한 수요분석보다는 일반인들에게 울산의 문화정책 방향이나 지원에 대해 이해시키고 호의를 갖도록 유도하는 하향식, 역방향적 소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음. 또한 홍보의 방법으로 보도 자료와 포털, 블로그, SNS를 활용하고 있다는 서술은 있지만 실질적인 증빙자료가 없어서 어느 정도의 홍보로 사업에 대한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 사업추진 성과

– 전시회 횟수 등은 표를 통해 제시하고 있으나, 관객의 참여도 등은 판단하기 어려움. 경상일보와 울산매일의 보도 자료는 증빙자료로 제시되고 있지만,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보도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요청하는 내용의 사전 홍보 활동자료는 증명하고 있으나,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호응과 성과가 있었는지를 제시해줄 수 없음. 어느 정도의 대표브랜드로 각인되었으며, 각인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나 호평의 사례라고 보기에는 자료나 설명이 다소 미흡함.

□ 평가와 환류: 시민모니터링과 관객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음.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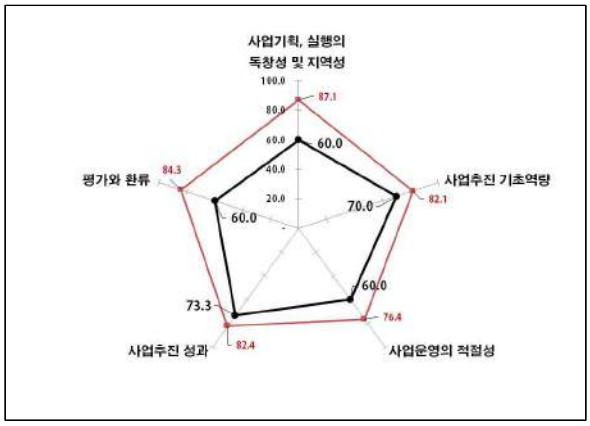
[그림 202]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울산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7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44.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45.0점
사업 추진 성과	60.0점
평가와 환류	30.0점

[표 219]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울산

- 울산 지역은 울산대공원 야외공연장 명소화를 추진하였고, 총10회 공연진행, 700여명이 참여하였음.
-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울산광역지회가 매년추진하고 있고, 창작타악, 판소리, 판굿, 국악실내악, 사물놀이, 등 일반대중이 쉽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구성으로 진행함.
- 전국에서 활동 중인 우수 국악단체 초청 교류공연 진행과 지역예술단체 고루 출연 선정하고 있음.
- 재단이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전문팀을 구성하고 전문계약직 선발하였음.

6.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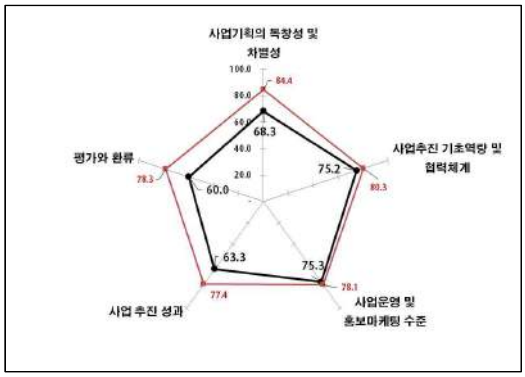
[그림 203]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울산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6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7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60.0점
사업 추진 성과	73.3점
평가와 환류	60.0점

[표 220]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울산

- 이 사업의 평균은 64.7점임. 지표별로 보면, 사업기획 실행 독창성은 60.0점, 사업추진 기초역량은 70.0점, 사업운영의 적절성은 60.0점, 사업추진성과는 73.3점, 평가와 환류는 60.0점을 획득하였음. 이 사업의 컨셉을 정리하고 추진대상을 선정하거나, 추진과정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평가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사업의 본질을 임의로 해석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임.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그에 알맞은 기획안을 마련하는가 여부는 사업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울산지역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서 '전국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지역특성화 사업의 기본 취지인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하고 기획 및 사업 내용에서 지역성을 제대로 살리도록 하는 점과는 거리가 많이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함.
- 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 1개 사업 만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울산공연장상주단체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함.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역 내 문화단체들이나 행정 주체들이 협력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추진하도록 권고하는 사업의 성격이므로 가급적 이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18편의 작품 발표, 20개 단체의 참여로 추진했음. 사업추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성과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애매하며 평가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음.
- 어떤 형태의 사업이라 할 지라도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에 피드백 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갖춰야 함. 그리고 이 평가는 가급적 객관적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되어야 함.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평가함.

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20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울산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68.3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75.2점
사업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75.3점
사업 추진 성과	63.3점
평가와 환류	6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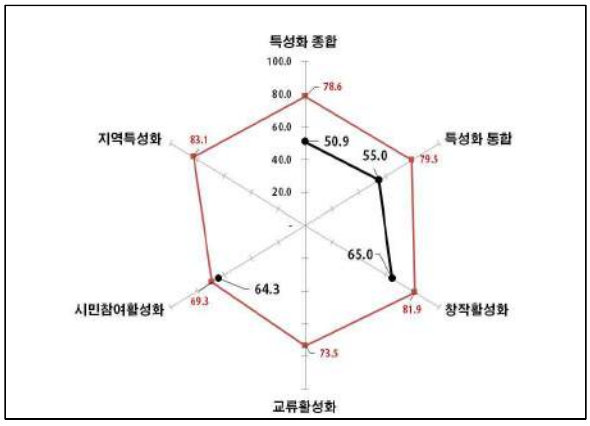
[표 22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울산

- 울산시의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상주사업 운영시스템에 대한 제시는 없으나, 북구문예회관 상주사업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북구상주예술단체협의회 운영, 울산상주예술단체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전국공연장상주예술단체 페스티발을 개최함.
- 상주단체 프로그램의 지역고유성 및 차별성 반영노력 지표에 해당하는 기술이 없음.
- 현장실사와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함. 전문역량을 갖춘 단체, 공연장이 선정되었음. 공연장들이 모두 전문인력 확보하고 있음. 특히, 북구 문예회관 공연장은 세 상주단체의 공연장 사업비 20%를 모두 모아 공연장의 기획전문인력을 채용함.
-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여부 및 수준 지표에 대한 기술이 누락됨.
- 지역 문화수요의 반영 지표에 대한 기술이 누락됨.
- 시 홈페이지, 각종 보도자료 제공, 시 행정 협조, 시 홍보방송 업체 활용, 유관단체 홈페이지 및 SNS 활용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여 홍보를 지원함. 다만, 공연장상주사업에 대한 시 차원의 통합적인 사업홍보 채널은 미흡한 실정임.
- 공연장과 상주단체간의 협력, 상주단체와 공연장의 외부 협력, 재단과 상주단체 · 공연장 간의 협력, 재단의 외부기관 협력에 대한 기술이 없음. 다만, 전국공연장 상주예술단체 페스티벌 준비와 개최를 통해 지역 상주단체간의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져 전국적인 교류를 이끌어냄. 또한, 이 기간 중 전국 상주단체 사진전을 개최하여 전국 상주단체 활동사진, 전국 상주단체 맵 등을 전시하고.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함.
-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지표에서 국내외 대회 수상 및 축제 초청 사례에 대한 기술이 없음.
- 사업성과목표 달성 수준에 대한 기술이 누락됨.

- 전문가 현장평가를 통해 2015년도 사업 선정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음.
- 2015년 1월의 울산시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교체되어 자체평가보고서에 누락된 2014년도의 사업내용 중 일부는 인터뷰평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음. 울산시의 문예진흥담당팀 편성, 계약직 전문인력 채용, 문화재단 설립 추진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예술행정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제8절 세종

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그림 205]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세종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특성화 종합	50.9점
특성화 통합	55.0점
창작활성화	65.0점
교류활성화	미추진
시민참여활성화	64.3점
지역특성화	미추진
평균	58.8점

[표 222]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세종

- 예산가중치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30.0
교류활성화	0.0
지역특성화	0.0
창작활성화	70.0
합계	100.0

[표 223]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세종

- 자율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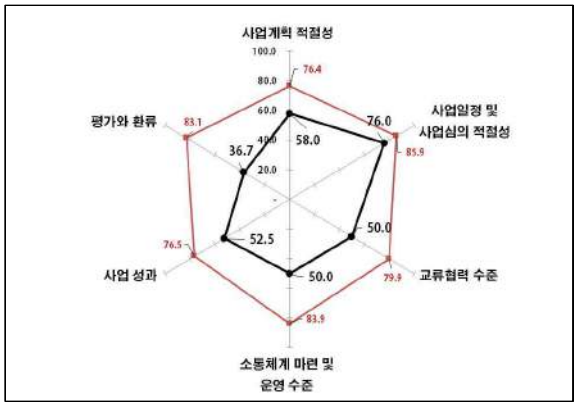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30.0
교류활성화	0.0
지역특성화	0.0
창작활성화	70.0
합계	100.0

[표 224]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세종

□ 세종시의 특성화지원사업 종합평가결과는 50.9점임. 세종시는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과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만을 추진하였음.

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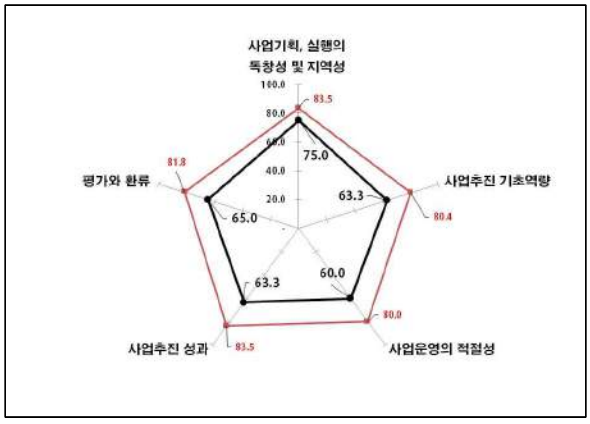
[그림 206]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세종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58.0점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76.0점
교류 협력 수준	50.0점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50.0점
사업 성과	52.5점
평가와 환류	36.7점

[표 225]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세종

- 세종 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통합지표 부문의 평점가결과는 55.0점임
- 세종지역은 특성화 사업별로 사업 목적을 제시하였으며, 성과지표로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 수라는 산출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2014년 결과 제시가 없었음. 한편, 2014~2019년을 3단계로 나눠 문화예술지원사업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음.
- 세종시 지역은 심의에 있어서 지역협력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지역협력관과 책임심의위원 중 1인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음. 위촉직 위원은 조교수 이상,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 심사위원 회피제를 통해 심의 공정성을 갖추고 있음. 2014년 심사위원회는 4개 분과로 각 분과별 4~6인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타 지역 외부인사 16명을 위촉하였음. 심의결과 발표 시 분과별 심의위원 명단 및 심사평을 공개하고 있음.
- 세종시 지역은 사업 추진관련 토론회 3회, 가을예술제 추진관련 예술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예술계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세종시 지역은 시 공식블로그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시 홍보부서(대변인실)와 긴밀한 업무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홍보하고 있음.
- 세종시 지역은 지원사업별 지원공연횟수, 관객수, 참여예술가 수만 제시, 지원단체 수 증가를 계량적 성과로 제시하였음.
- 세종시는 2016년 상반기에 문화재단 설립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그림 207]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세종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75.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63.3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60.0점
사업 추진 성과	63.3점
평가와 환류	65.0점

[표 226]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세종

□ 창작활성화 부문의 개별지표는 9개 지표 60점 만점으로, 배점 5점의 지표 6개와 배점 10점의 지표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추진 단계별 지표수와 배점은,

[사업계획단계] '사업기획/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개 지표 10점,

[사업집행단계] '사업추진 기초역량' 2개 지표 15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2개 지표 10점,

[사업성과단계] '사업추진 성과' 2개 지표 15점,

[평가환류단계] '평가와 환류' 1개 지표 1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지표별 배점 등에 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평가지표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5점)은, 사업기획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는지, 사업실행 방식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정도를 평가함.

- 세종시의 창작활성화 부문은 '예술창작지원', '신진예술가지원'의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평가지표에 따른 설명에서, 시 출범 후 처음으로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을 시행했고, 지역에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기획했다고만 언급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3.3점, 세종 지역 3.0점임.

□ 평가지표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5점)은, 기획사업 및 개별 지원사업의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함.

- 지역 명칭과 관련된 기획프로그램 〈한글과 세계문자서예 동행전〉 (외국 서예가들이 한글 1점과 민족문자 1점씩 작품화)을 통해 한글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종시를 한글문화 창출의 거점 지역으로 부각시켰음.
- 지역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창작공연 〈신 ' 세종뱜뎐 〃〉 은 백제 문화유산에서 공감을 얻어 굿놀이 등 마당극으로 작품화한 것임. 지역 축제와 연계한 〈2014 복숭아축제 세종시 사진예술 연합전〉 을 통해 예술을 통한 지역특산물 홍보 및 지역 축제 참여 유도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4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4.0점, 세종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5점)은,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취지에 맞는 선정기준(예컨대, 예술적 수월성)을 설정하고 있는지, 지원 단체 선정율과 평균지원액의 규모가 적정하거나 연차별로 개선되고 있는지,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선정율 41.3%(19건/46건), 평균지원액 7,368천원, 사업목적에 맞는 선정기준 설정 여부나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 기준 설정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3.5점, 세종 지역 3.0점임.

□ 평가지표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10점)은,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율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여부, 단체(개인) 지원신청 자격 명시 여부, 선정단체의 사업수행 적합성 정도, 신규단체 참여확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배려 여부,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정도 등을 평가함.

- 세종시는 나름대로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그리고 생활(준전문) 예술단체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전문예술법인(단체) 선정비율을 25%(음악협회, 연극협회, 미술협회, 국악협회 세종지회 등 4개)로 답변하고 있으나, 심화인터뷰 시 확인한 바로는 신설 광역시로서 허가(등록)된 법인(단체)이 아직 없다고 함.
- 1천만 원 이상 지원한 8건은 음악 2건, 서예 2건, 연극/무용/국악 각 1건, 종합(민예총) 1건으로 분야별로 안배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에 적절한 단체로 판단됨.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7.8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5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7.9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6.5점, 세종 지역 6.5점임.

□ 평가지표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 (5점)은,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사업 설계 및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사전 사업설명회와 선정단체 대상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요령 설명회 개최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5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3.0점, 세종 지역 3.0점임.

□ 평가지표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5점)는, 특화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주민 참여와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그리고 지원수혜단체의 홍보/기획/마케팅 담당자 대상의 교육, 자문, 워크숍을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온라인 홍보(시청 홈페이지 공고, 예술단체 웹사이트 게시 등), 오프라인 홍보(사업설명회, 안내책자 배포), 언론 홍보 등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3.1점, 세종 지역 3.0점임.

□ 평가지표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5점)는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의 수준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했는지, 그 성과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 총 관람객 수 66,650명, 19건 지원에 공연횟수 24회, 참여예술인 수 733명,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 도출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사업별 성과만을 제시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3.6점, 세종 지역 3.5점임.

□ 평가지표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10점)는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창작활성화 부문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를 창출했는지, 제시한 최우수프로젝트(Best Practice)가 타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국내외 각종 수상(受賞), 인증, 페스티벌 초청/참가, 예술시장에서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평가함.

- 신진예술가로 발굴한 유혜리(〈전통춤과 현대춤의 향연〉)의 2014년 활동실적(10회)을 소개하고, 유혜리 세종무용단을 지역대표 무용단으로 육성 예정임을 밝힘.
- (사)세계문자서예협회의 〈한글과 세계문자서예 동행전〉 개최를 계기로 세종시를 새로운 한글문화 중심지로 브랜드화 할 계획이며, 2015년 세종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세계문자 세종을 알현하다'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9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3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7.0점, 세종 지역 6.0점임.

□ 평가지표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10점)는, 시민 모니터링과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과 결과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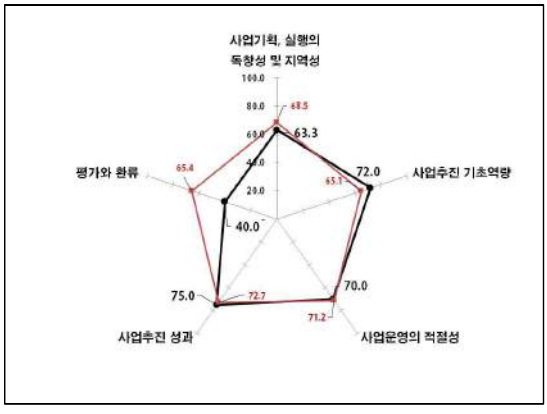
- 시 자치행정과 협조를 얻어 1개 사업 당 2명의 시정모니터를 선정하여 지원사업 전체(19건)에 대해 현장평가했고, 지원사업 실무담당자가 서면평가를 전담 수행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9.0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4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6.6점, 세종 지역 6.5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는 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9.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54.4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9.4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40.6점, 세종 지역 39.0점임.

4.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 세종 지역은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음.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그림 208]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세종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63.3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72.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70.0점
사업 추진 성과	75.0점
평가와 환류	40.0점

[표 227]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세종

□ 세종 지역은 우리가락우리마당을 처음 시행하였으며, '청춘 아리랑' 이라는 주제 선정하여 진행 하였음.

□ 원도심과 신도심 주민들 소통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고, 문화기반시설 열악한 세종시 시민 문화수요 충족에 기여하고 있음.

□ 총11회 공연, 26단체참여, 전문14팀, 신진12팀, 총 관람객 5,500명 참여.

□ 세종호수공원 야외공연장 명소화 추진, 세종시 대표 전통공연브랜드화 진행.

- 해설이 있는 공연, 초청공연, 음악, 춤, 연희 등 3장르 이상 구성, 주관단체 15%이하 출연, 신진 20% 이상 구성하였음.
- 우리가락우리마당 페이스북 개설 및 트위터 가입, 공연프로그램 피드백 강화, SNS활용, 지역민 블로거 활용, 보도자료, 주민자치센터 홍보자료 배포, 현수막, 베너광고, 지역 내 학교 홍보포스터 부착 등 홍보활동 진행.
- 매회 관객 호응도 조사 및 인터뷰진행, '청춘아리랑' 지역 대표 전통문화공연 자리매김 하였고, 2015년 청춘아리랑 두 번째 이야기 선정하였음.
- 시민모니터링, 현장평가, 서면평가 실시하였음.
- 세종 지역의 경우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진행 필요함.

6.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 세종 지역은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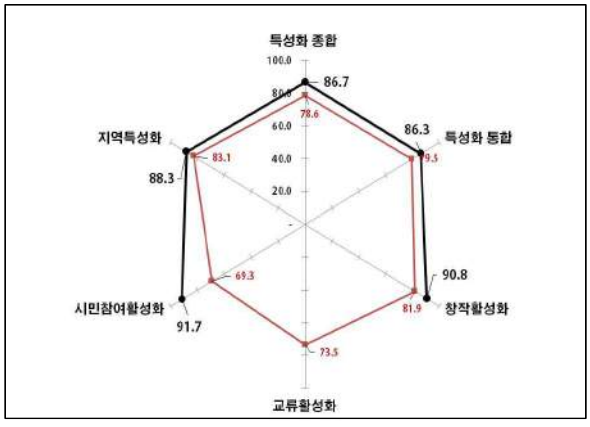
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세종 지역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진행하지 않음.

제9절 경기

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 특성화지원사업 계산식



[그림 209]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경기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특성화 종합	86.7점
특성화 통합	86.3점
창작활성화	90.8점
교류활성화	미추진
시민참여활성화	91.7점
지역특성화	88.3점
평균	88.7점

[표 228]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경기

- 예산가중치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41.0
교류활성화	0.0
지역특성화	21.4
창작활성화	37.7
합계	100.0

[표 229]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경기

- 자율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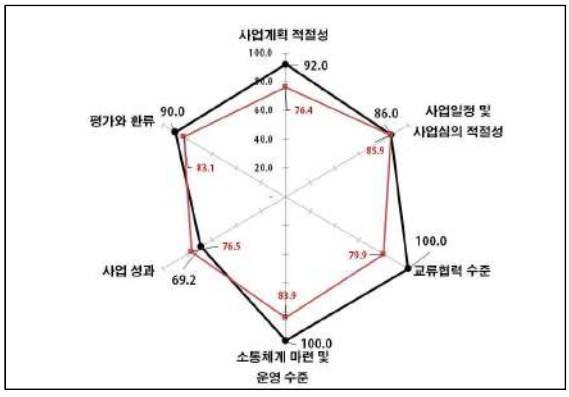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30.0
교류활성화	0.0
지역특성화	50.0
창작활성화	20.0
합계	100.0

[표 230]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경기

□ 경기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는 86.7점임. 경기지역은 교류활성화 부문을 제외하고 3개 부문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민참여 활성화와 창작활성화 부문의 평가 결과가 높았으며 지역특성화도 높은 평가를 받았음.

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그림 210]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경기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92.0점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86.0점
교류 협력 수준	100.0점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100.0점
사업 성과	69.2점
평가와 환류	90.0점

[표 231]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경기

□ 경기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통합지표 부문의 평가결과는 86.3점임

□ 경기지역은 특성화 사업별로 목적을 설정하고 성과목표도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투입지표인 지원건수 위주로 설정하고 있음. 성과목표 공유를 위한 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됨.

□ 경기지역은 특성화 사업별로 사업목적과 프로그램 구성을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며 연계성이 인정됨. 5대 공모지원사업과 4대 기획사업 별로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였으며, 수혜자인 근로자, 재단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예아카데미, 기초재단 순회 워크숍 개발을 시행하였음. 또한, 33회에 걸친 지원단체 간담회 및 워크숍(총 33회 1,107명 참가)을 통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활동을 추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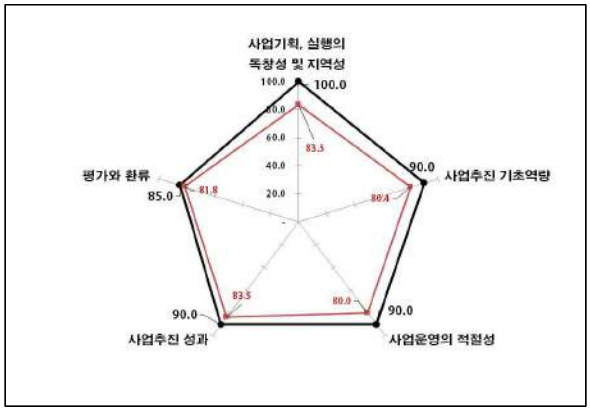
□ 경기지역의 기초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공동체기반 예술워크숍(13회)에 특성화 사업 담당자가 참석하고, 창작분야 전문인력 및 기획자 육성 프로그램인 '예술로 가로지르기 섬머 아카데미(4박 5일)' 에 특성화 사업 담당자 전원이 참가하였음. 또한, '신화와 예술 맥놀이' (6.11~11.26), '부천테크노파크 문예아카데미' (9.19~11.21), 재단 자체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담당자들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함.

□ 경기지역은 심의위원 풀(300여명)을 활용하여 후보자 3배수 추천, 전년 대비 67% 이상 교체, 이해관계자 심의위원 배제등의 심의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사업별로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심의지표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성화 사업목적과 일치함. 심의결과 발표 시 심의위원 명단 및 심사평을 공개함.

□ 경기지역은 2~3개 단체 이상의 공동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하여 예술단체들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시각분야 지원에서는 예술가와 비평가의 매칭을 유도하고 있음. 또한, 공모사업 후속 연계 기획 사업을 통해 예술가(단체)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음.

- 경기지역은 경기도 내 13개 기초문화재단과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수 차례 대표이사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12개 기초문화재단과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협력사업 추진, 부천테크노파크/파주문발공단 후속 협력사업을 진행함. 수원/안산시와 '커뮤니티아트 사이트 만들기' 협력사업, 31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생활문화 공동체 돌아보기' 워크숍, 경기대와 MOU 체결 및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를 진행함.
- 국제교류 활동으로는 신화와 예술 맥놀이 '국제 협업 아트프로젝트' 추진(북남미 4개국 작가 참여), 커뮤니티아트 사이트 해외통신원(각국 8명)을 운영하고 있음.
- 경기지역은 공모지원 대상자 설문조사를 실시(총 54명 참여)하였고,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시민 만족도 조사(공모사업 203건 중 96건, 관람객 1,600명 및 지원사업 참여자 475명 등 총 2,075명 응답)를 실시하였음. 전문예술창작발표 공연분야(경기전문예술 신작 쇼케이스 PAFe 2014) 관람객 1,107명 대상 만족도 조사와 동 시각분야(유망작가 신작 모음전 '생생화화 2014' 관람객 97명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경기지역의 포털 사이트 이용 온라인 홍보, 재단 공식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TV캐스터 노출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함. 또한, 재단 통합 뉴스레터 발송(26,195명), 커뮤니티아트 사이트 운영 및 웹진 4회 발행, 격월간지 '경기문화나루'에 사업을 홍보하고 있음. 지원사업 성과 관련 각종 단행본 발간 배포, 지원사업 언론 홍보 및 옥외 홍보를 추진함.
- 경기지역의 특성화 사업별 지원건수, 참여예술인수, 관람객수 제시, 문학 작품집, 예술비평/연구 자료집 출간 보급 촉진 등 계량성과 제시함.
- 경기지역의 제도개선 → 심의반영 → 사업운영 → 평가 및 컨설팅 → 평가보고서 및 제언 → 제도개선, 심의반영에 환류의 체계로 운영함. 4대 공모지원 사업별로 평가제도 운영, 심층평가 진행, 평가결과 익년도 사업에 환류하고 있음.

3. 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그림 211]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경기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10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9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90.0점
사업 추진 성과	90.0점
평가와 환류	85.0점

[표 232]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경기

□ 창작활성화 부문의 개별지표는 9개 지표 60점 만점으로, 배점 5점의 지표 6개와 배점 10점의 지표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추진 단계별 지표수와 배점은,

[사업계획단계] '사업기획/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개 지표 10점,

[사업집행단계] ' 사업추진 기초역량' 2개 지표 15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2개 지표 10점,

[사업성과단계] '사업추진 성과' 2개 지표 15점,

[평가환류단계] '평가와 환류' 1개 지표 1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지표별 배점 등에 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평가지표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5점)은, 사업기획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는지, 사업실행 방식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정도를 평가함.

- 경기의 창작활성화 부문은 '별별예술프로젝트', '전문예술창작발표', '전문예술연구출판'의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① 예술가/예술단체가 하고파 하는 별별 여러 가지 예술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별별예술프로젝트'는 독창성이 매우 강하며 별도의 전문비평가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 ② '전문예술창작발표' 공연예술분야는 희곡산출 → 쇼케이스 → 지역초연 등 단계별 지원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단체 대표 레퍼토리 육성의 기반이 되고 있음. 시각예술분야는 자천 타천 유망작가 발굴 지원 → 비평가 연계 워크숍 → 유망작가 초대전(생생화화전)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 ③ '전문예술연구출판' 문학분야는 단행본 지원에서 창작지원금 지원방식으로 전환, 연구분야는 경기지역 현대예술사 및 미학 등 지역 특화된 연구주제 설정 및 연구자 발굴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2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5.0점, 경기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5점)은, 기획사업 및 개별 지원사업의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함.

- ① ‘전문예술창작발표’ 공연예술분야에서 경기지역의 역사, 인물, 민담, 설화를 소재/주제로 한 극예술 10건, ② ‘전문예술연구출판’ 문학분야 경기지역의 문화자원, 자연자원을 활용한 신작 시, 수필, 소설, 동화 등 12건(작품 수 72건), 연구분야 경기지역 현대예술사, 미학연구 출판 지원 2건의 목록과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3.9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4.7점, 경기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5점)은,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취지에 맞는 선정기준(예컨대, 예술적 수월성)을 설정하고 있는지, 지원단체 선정율과 평균지원액의 규모가 적정하거나 연차별로 개선되고 있는지,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예술적 역량과 추진능력, 작품의 실험성/우수성/참신성/예술성, 예술적 기여도에 총 70~100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어 예술적 수월성에 대해 중점 배려하고 있음.
- 선정율은 사업별로 21%, 14%, 13%, 평균지원액은 사업별로 13,824천원, 10,777천원, 5,384천원으로, 선정율은 낮고 평균지원액은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청자격 제한과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3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5.0점, 경기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10점)은,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율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여부, 단체(개인) 지원신청 자격 명시 여부, 선정단체의 사업수행 적합성 정도, 신규단체 참여확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배려 여부,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정도 등을 평가함.

- 경기도에는 ’15년 현재 총 76개(’14년 말 기준 69개)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이 있으며, 그 중 별별예술프로젝트 22개 선정단체 중 1개 단체, 전문예술창작발표 10개 선정단체 중 2개 단체가 전문예술법인(단체)임. 지원 신청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수를 알 수 없어 선정율이 일반예술단체보다 높은지 여부는 알 수 없음.
- 각 단위사업별로 지원신청 참여자격을 규정하여 비자격 단체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음.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7.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7.9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8.7점, 경기 지역 8.5점임.

□ 평가지표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 (5점)은,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사업 설계 및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전문예술창작발표 간담회와 평가회(8회), 별별예술프로젝트 모니터링 운영회의/평가환류 워크숍(4회), 지원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민 수요를 파악
-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PAFe 2014 – 경기 전문예술 신작 쇼케이스 개최를 사례로 들고 있으며, 26개 작품이 신청하여 9개 작품 선정 및 공연, 총 관람인원 1,860명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4.8점, 경기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 (5점)는, 특화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주민 참여와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그리고 지원수혜단체의 홍보/기획/마케팅 담당자 대상의 교육, 자문, 워크숍을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전문예술창작발표 PAFe 2014, 생생화화 2014 등 사업별로 각종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함.
- 주민 참여와 신규 문화수요 창출을 위한 특화되고 차별화된 홍보마케팅과 선정단체의 홍보/마케팅/기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자문/워크숍 추진실적에 대한 언급은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4.7점, 경기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5점)는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의 수준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했는지, 그 성과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 창작활성화 공모지원은 지원건수 286건에 총 관람객 수 45,092명, 참여예술인 수 540명이며, 공모지원 후속사업인 'PAFe 2014'와 '생생화화 2014' 기획 운영실적은 관람객 수 7,559명, 참여예술인 수 177명임. 또 문학작품집, 예술비평집, 연구자료집 총 6건의 발간 수량은 4,000부임.
-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 도출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사업별 성과만을 제시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4.5점, 경기 지역 4.0점임.

□ 평가지표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10점)는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창작활성화 부문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를 창출했는지, 제시한 최우수프로젝트(Best Practice)가 타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국내외 각종 수상(受賞), 인증, 페스티벌 초청/참가, 예술시장에서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평가함.

- 인증 및 수상 실적으로 전문예술창작발표에서 해외 레지던시 초대와 두산연강예술상 수상, 별별예술프로젝트에서 국내 레지던스, 대만 아트 프라이스, 대만 국립현대미술관, 이태리 국립현대미술관, 창원 조각비엔날레 등 초대, 영국 디지털 페스티벌 초대 사례, 2013년 상주단체지원을 받은 극단 하땅세의 각종 수상 실적을 제시하고 있음.
- Best Practice 사례로, ① 별별예술프로젝트 : 무늬만 커뮤니티의 〈Cafe in Asia〉 (아시아 지역민의 이야기 속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술의 언어를 찾아 소통을 시도), 심화인터뷰 시 또 다른 우수사례로 공간개조사업 〈다시창고〉 문화공방을 소개함. ② 전문예술창작발표 : 나광호의 〈Infandult(Infant+Adult)〉 (기술복제의 시대에 판화 방식의 프로세스를 통해 예술의 원본성, 고유성, 오리지널리티란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 ③ 전문예술연구출판 : 권민경의 〈행주산성으로〉 등 운문 10편(경기도의 문화자원을 소재로 다룬 시편으로 삶과 죽음, 여행 등 다양한 주제로 접근) 등 제시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3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9.5점, 경기 지역 9.5점임.

□ 평가지표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10점)는, 시민 모니터링과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과 결과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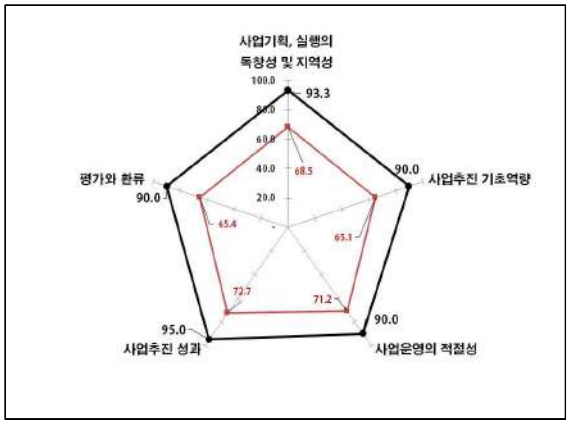
- 별별예술프로젝트는 35건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1건 당 1인의 전문모니터(비평가)가 모니터링 실시, 전문예술창작발표는 전문평가단 6명, 일반평가단 20명의 점수를 산출하고 관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1단계 평가결과는 차기연도 공모 시 반영하고 2단계 평가결과는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3단계 진출단체선정과 연기상을 시상, 평가과정을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 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 대상자 54명 설문조사, 'PAFe 2014' 관람객 1,107명 만족도 조사, '생생화화 2014' 관람객 97명 만족도 조사 등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4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8.5점, 경기 지역 8.5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는 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9.1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9.4점, 수도권 3개 지역 평균 55.3점, 경기 지역 54.5점임.

4.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 경기 지역은 교류활성화 부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음.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그림 212]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경기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93.3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9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90.0점
사업 추진 성과	95.0점
평가와 환류	90.0점

[표 233]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경기

□ 경기 지역은 시민참여활성화 부분에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기획 진행함.

□ 지역공동체연계 및 예술단체 협력프로젝트 우선지원하고, 지역문화기반시설,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프로젝트 지원하고 있음.

□ 기초문화재단과 네트워크 활용하여 협력 사업추진 하고, 배정액 대비 1:1이상 매칭 원칙.

□ 기초재단 공동주최 순회워크숍 14회 개최(피어라 커뮤니티), 상호교류 모니터링 진행(서로에게 보내는 예술편지 자료집 발간), 톡톡커뮤니티와 아트 사이트에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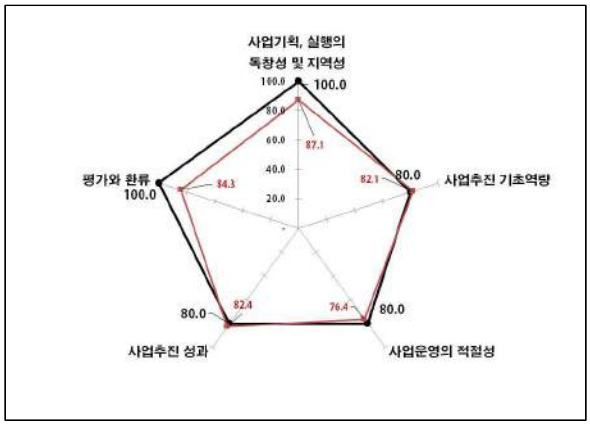
□ 문화소외지역,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우선 예산배정하고, 단체 협력형으로 타 단체가 마을공동체 기반시설 이용을 권장하여, 2개 이상 단체가 진행하는 1개의 사업 지원 원칙.

□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는 사업의 성격상 전문예술법인의 참여가 적음(4%), 462건 지원 203건 선정, 시 군 재단 직접공모선정 67건, 201회 진행, 9,563예술인 참여, 117,888명 관람객 참여하였음.

□ 지역사회의 작은 예술, 공동체, 집단, 함께하고자 지역밀착형, 주민참여형으로 기획하였고, 커뮤니티 기반의 아트 프로젝트로 키우고자 함.

□ 경기 지역은 시민참여활성화 사업에 우리가락우리마당을 진행하지 않고, 재단에서 3년간 진행하던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를 기획하여, 시민과 예술가, 마을과 공동체가 협력하고, 문화기반시설, 문화거점을 활용, 확대하는 전략적 기획이 돋보임.

6.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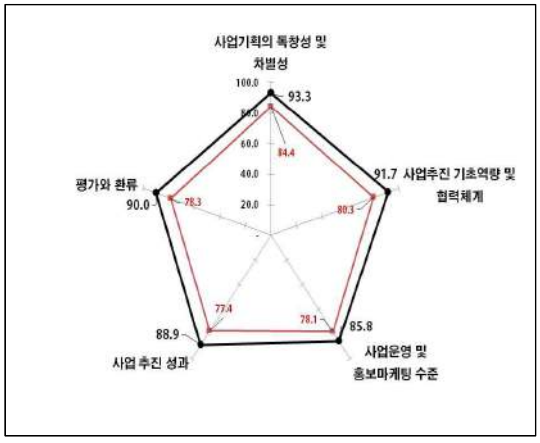
[그림 213]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경기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10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0.0점
사업 추진 성과	80.0점
평가와 환류	100.0점

[표 234]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경기

- 사업기획 실행 독창성은 100.0 점, 사업추진 기초역량은 80.0점, 사업운영의 적절성은 80.0점, 사업추진성과는 80.0점, 평가와 환류는 100.0점을 획득하였음. 기획독창성 부분과 평가환류 부분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임.
- 낙후된 공업단지와 근로자들이 참여하도록 커뮤니티와 아트를 연결하고, 지역의 공단이 참여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였음.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지역특화자원의 활용에서 좀 더 멀어진 사업도 추진하였음.
- 예술이 흐르는 공단(4개, 75,750천원), 커뮤니티와 아트(7개, 12,814천원), 신화와 예술의 맥놀이(1개, 60,000천원)를 선정했음. 전문예술법인은 한 곳도 참여하지 않고 있음.
- 사업선정과 홍보- 예술이 흐르는 공단은 강좌풀 중심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강좌 프로그램을 구성했음.
- '예술이 흐르는 공단' 사업의 설치작품은 전년도 대비 2배증가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했음. 예술이 흐르는 공단(16명), 커뮤니티와 아트(33명), 신화와 예술맥놀이(24명), 예술로 가로지르기(37명) 등이 참여했음.
- 환류와 피드백을 위해서 사업부분별('신화강좌' , '예술로 가로지르기 섬머강좌')만족도를 조사했으며 각 부분별 점수를 확인했고 예를 들어 예술과 맥놀이는 5점 만점에 4.47점을 기록함.

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21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경기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93.3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91.7점
사업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85.8점
사업 추진 성과	88.9점
평가와 환류	9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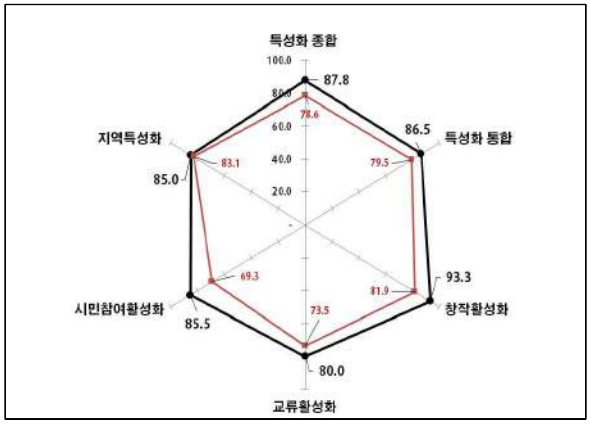
[표 23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경기

- 우수단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예술단체 지역제한을 없앰으로써 서울 등 수도권 우수단체 8팀을 경기도로 유치하고 도내 우수단체의 공연장 매칭 촉진을 위해 공연장의 예술단체 공모를 유도하여 3곳이 상주단체를 공모하여 추진함.
- 완성도 높은 작품 창작을 촉진하기 위해 쇼케이스 작품을 인정하고 컨설팅을 연계시켜 다음해에 창작하는 단계별 제작과정을 통해 매년 신작 제작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고, 이와 연계하여 아트마켓형 상주단체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단체의 우수작품 창작 욕구를 자극하고 유통판로를 개척함.
-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안산문화재단과 극단 몸꼴이 거리극축제로 대표되는 안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야외공간을 축제공간으로 전환하는 마을축제 프로그램과 지역민들과 만나기 위한 거리예술제작 워크숍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다만, 지역 소재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상주단체 프로그램의 지역고유성 및 차별성 반영을 위한 재단 차원의 노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지역 소재 조사, 창작 워크샵 등)
- 행정심의, 서류심의, 인터뷰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전문예술단체는 13개 팀으로 상주단체 전체 사업의 42%를 차지함. 전문역량을 갖춘 단체, 공연장이 선정되었음.
- 상주 공연장이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공동기획·제작하는 협력 사업이 확대되는 등 공연장과 상주단체간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상주단체와 공연장의 외부 협력, 재단과 상주단체 · 공연장 간의 협력이 워크샵, 상주단체 페스타 등을 계기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상주단체와 공연장의 외부 협력에 대한 제시가 부족함.

-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전년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상주단체 페스타의 추진을 결정하고 공연장상주단체워크숍을 통해 이에 대한 상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만, 상주단체 페스타 이외에 상주사업 전반에 걸친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의견 수렴에 대한 제시가 부족함.
- 극단 모시는사람들, 서울발레시어터 등의 우수 퍼블릭프로그램 사례를 제시함.
- '제1회 경기공연예술 페스타' 개최를 계기로 적극적인 상주단체 통합 홍보 마케팅을 실시함. 상주단체페스티벌을 주요한 홍보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창출됨. 다만, 상시적인 통합 홍보마케팅 채널에 대한 제시가 부족함.
- 우수작품 창작과 유통을 목적으로 전략적인 상주단체 페스티벌을 개최함. 경기문화재단과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경기지회가 협력하여 '제1회 경기공연예술 페스타'를 개최하여 베스트 콜렉션 3, 기획초청공연, 맛있는 문화간식, 공연중매프로젝트, 예·찬·소, 네트워크 파티 등의 프로그램을 펼침. 특히 중매프로젝트 등 판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주단체페스티벌을 아트마켓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음(경기공연예술페스타를 통해 3월 현재 7단체 11건의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총 20개 내외의 계약을 기대하고 있음)
- 상주단체간의 교류사례로 안은미컴퍼니가 상주단체 7단체로 찾아가는 '움직임 워크숍'을 개최하고 안은미 워크숍 수혜단체는 안은미컴퍼니 신작 워크숍에 무료로 공연을 제공하는 사례를 제시함.
- 극공작소 마방진의 동아연극상 수상 등 국내외 대회 수상 및 축제 초청 사례, 예술시장 판매실적, 레퍼토리화 실적이 제시됨.
- 공모지원, 교류사업, 평가사업 세 측면에서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달성수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함.
- 심의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9명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가 현장평가를 실시함. 평가지표는 공연장상주사업의 연속지원 특성 등으로 인해 연차별 사업진행의 적응과 성과가 다른 것을 고려하여 1-2년차, 3-4년차, 5년차 이상으로 평가의 중점사항을 구분하고 차별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함. 다만, 시민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음. 수행단체의 평가결과 환류는 지속지원 여부 판정에 반영함.
- 전문가 평가의견을 재단의 공연장상주사업 개선에도 반영하고 있음(평균지원금 증액, 의무이행사항 축소, 역량강화를 의무사항으로 전환, 우수작품 중심 페스타 제안 등 반영)

제10절 강원

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그림 215]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강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특성화 종합	87.8점
특성화 통합	86.5점
창작활성화	93.3점
교류활성화	80.0점
시민참여활성화	85.5점
지역특성화	85.0점
평균	86.4점

[표 236]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강원

• 예산가중치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9.6
교류활성화	10.6
지역특성화	16.0
창작활성화	63.8
합계	100.0

[표 237]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강원

• 자율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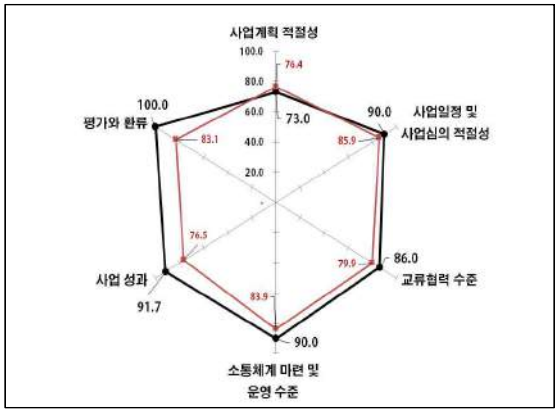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20.0
교류활성화	30.0
지역특성화	20.0
창작활성화	30.0
합계	100.0

[표 238]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강원

□ 강원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종합평가결과는 87.8점임. 강원지역은 4개 부문사업을 모두 추진하였으며, 추진 사업 중에서는 창작활성화 부문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그림 216]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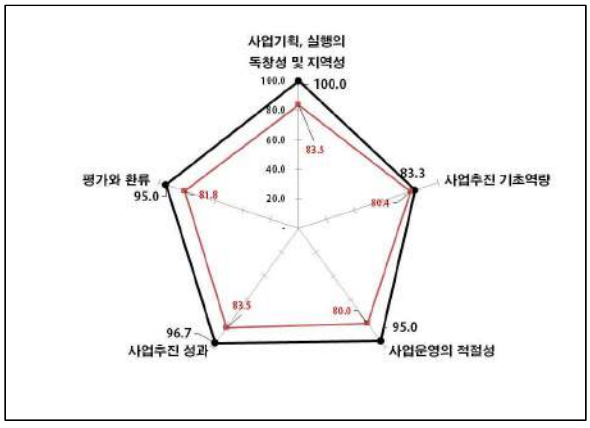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73.0점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90.0점
교류 협력 수준	86.0점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90.0점
사업 성과	91.7점
평가와 환류	100.0점

[표 239]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강원

- 강원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통합지표 부문 평가결과는 86.5점임
- 강원지역은 특성화 사업별로 목적을 설정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비전과 함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목표를 제시하였음.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목표 공유를 하고 있으며, 사업설명회는 춘천권역, 원주권역, 강릉권역에서 개최함.
- 강원지역은 특성화 사업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문화사랑방,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 25회의 모임을 진행하였으며, 강원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우리가락 우리마당, 감자콘서트, 인문학아카데미를 시행하였음.
- 강원지역은 2014년도부터 '개방형 심위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심의위원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14년에는 2명이 선정됨.
- 지역 의견수렴을 위하여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문화사랑방 매월 2~3회 개최하였으며, 지원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문화예술 관계자 토론회 및 6개 예술장르 관계자 간담회를 각 1회 개최하는 등 다양한 그룹의 사업관련 협의모임을 추진해오고 있음.
- 강원지역은 지역내 교류를 위하여 도내 6개 시/군 기초문화재단과 '강원지역문화예술단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월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함.
- 강원지역은 모든 특성화 사업에 대해 전문 또는 일반 모니터 1~2명을 활용하여, 381개 단체 392개 사업에 대해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건당 20~30명 이상 관객 만족도 조사를 진행함. 수요자 의견수렴 채널로는 홈페이지, 문화예술관계자 토론회, 문화사랑방, 분야별 간담회 등이 진행되고 있음.

- 강원지역은 미래기획팀에 홍보업무 전담인력 1명을 충원하였는데, 이 인력을 활용하여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 페이스북, 대표 블로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지원을 하고 있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총 384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강원지역은 특성화 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지표산식 등 지표정의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계량적 성과를 취합하였음. 특성화 사업별로 지원건수, 사업횟수, 사업일수, 발표작품수, 관람객수, 참여예술인 수에 대한 정량데이터와 이에 대한 2012~2014 추이를 제시함.
- 강원지역의 홍보마케팅, 교류협력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모니터링을 의뢰하여 전수 조사, 평가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2015년 평가에 개선방안을 환류하고 있음. 지난해 평가를 통해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기관 단체 협회 선정 비율이 과도(49.1%)하다는 평가에 따라 이를 34%로 낮추었으며, 선정율이 높아 평균 지원액('13년 373만원)이 낮다는 평가에 따라 선정율을 38.7%로 낮춰 평균 지원액('14년 669만 2천원)으로 크게 높였음.

3. 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그림 217]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강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10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3.3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95.0점
사업 추진 성과	96.7점
평가와 환류	95.0점

[표 240]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강원

□ 창작활성화 부문의 개별지표는 9개 지표 60점 만점으로, 배점 5점의 지표 6개와 배점 10점의 지표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추진 단계별 지표수와 배점은,

[사업계획단계] '사업기획/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개 지표 10점,

[사업집행단계] '사업추진 기초역량' 2개 지표 15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2개 지표 10점,

[사업성과단계] '사업추진 성과' 2개 지표 15점,

[평가환류단계] '평가와 환류' 1개 지표 1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지표별 배점 등에 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평가지표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5점)은, 사업기획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는지, 사업실행 방식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정도를 평가함.

- 강원의 창작활성화 부문은 '전문예술육성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4년에 전문예술단체와 전문예술인 인정범위를 마련한 후 이 범위 안에서 신청자격을 부여, 지원액 상한선을 늘리고 무제한으로 가능했던 신청건수를 5건(선정건수는 2건)으로 제한함.
- 개인(전문예술인) 지원비율 확대로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효과를 거둠. 심화인터뷰 시 2014년 새로 도입한 개방형 심사제에 대해 설명함.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를 해서 선정될 경우 지원사업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2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강원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 (5점)은, 기획사업 및 개별 지원사업의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함.

- 역사적 인물 4건, 문화적 고유성 2건, 사회적 특성 2건, 지리적 특성 9건 등 18건의 강원지역 문화자원 연계사업 사례를 자세한 내용과 함께 소개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3.9점, 강원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5점)은,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취지에 맞는 선정기준(예컨대, 예술적 수월성)을 설정하고 있는지, 지원단체 선정율과 평균지원액의 규모가 적정하거나 연차별로 개선되고 있는지,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전문예술육성지원사업’ 선정기준으로 사업의 예술성 및 작품성에 30점(프로그램 우수성, 예술사업 수행능력), 사업 기여도/파급효과에 15점(지역예술계 발전 기여, 문화향유권 증대) 등 예술적 수월성과 예술적 기여도를 심사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중복지원 배제에 관한 뚜렷한 기준이 있으며, 시/군비 중복지원까지 배제 확대
- 2014년도에 ‘전문예술육성지원사업’을 전문예술단체(전문예술인) 위주의 선택과 집중 사업으로 대전환함. 선정율을 ’13년 56.0% → ’14년 38.7%로 낮춰 평균지원액을 ’13년 3,703천원 → ’14년 6,692천원으로 대폭 상승시켰고, 예총/민예총/문화원 지회/지부 선정비율을 ’13년 49.1%에서 ’14년 34.0%로 낮춤.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3점, 강원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10점)은,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율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여부, 단체(개인) 지원신청 자격 명시 여부, 선정단체의 사업수행 적합성 정도, 신규단체 참여확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배려 여부,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정도 등을 평가함.

- 2014년 말 기준으로 강원도에는 81개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이 허가(등록)되어 있으며,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인정범위(시/도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 포함)를 마련하고 신청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에게 집중 지원하도록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의 경우 강원도 내 18개 시/군과 문화사랑방을 개최하였으며, 권역별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홍보와 컨설팅 병행, 2014년도 강원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에 따른 도내 예술단체(개인)에 문자 발송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7.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7.9점, 강원 지역 7.5점임.

□ 평가지표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 (5점)은,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사업 설계 및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전문가토론회는 6일에 거쳐 6개 장르 지역 내 전문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전문예술인의 인정범위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지원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문화예술 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했음. 심화인터뷰 시 지역 예술계와의 소통 및 네트워크 강화는 2014년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설명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강원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5점)는, 특화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주민 참여와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그리고 지원수혜단체의 홍보/기획/마케팅 담당자 대상의 교육, 자문, 워크숍을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예술단체(개인)를 대상으로 도내 5개 지역에서 사업기획서 작성법 등 교육을 실시했고, 지원사업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영상미디어센터 등 여러 기관 및 재단 자체 행사 등에서 상영
- 재단 홍보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충원했고, 언론 홍보와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재단 홈페이지, 페이스북, 대표블로그 등을 통해 지역협력형사업을 활발히 홍보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강원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5점)는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의 수준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했는지, 그 성과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 강원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을 기반으로 문예사업팀의 5개년(2014~18) 성과목표 수립, 재단 전략과제를 기반으로 2014년 문예사업팀의 팀 목표와 미션을 설정하고, 미션에 따른 지역협력형사업과 강원문예진흥사업을 구분하여 성과지표 도출
- 총 173건 지원에 관람객 수 279,645명, 참여예술인 수 8,026명, 예술가 만족도 93.8점, 관람객 만족도 76.0점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강원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10점)는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창작활성화 부문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를 창출했는지, 제시한 최우수프로젝트(Best Practice)가 타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국내외 각종 수상(受賞), 인증, 페스티벌 초청/참가, 예술시장에서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평가함.

- 꿈동이인형극단의 '버드나무를 타고 올라간 용궁' 이 '13년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초청된데 이어 '14년에 뉴욕 한국문화원 기획공연 공모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뉴욕 한국문화원, 뉴욕 세종학당, 브롱스차터스쿨, 뉴저지 버겐 퍼포밍 아트센터 등 총 4회 공연, 또 제5회 전통극예술 2014 페스티벌에 초청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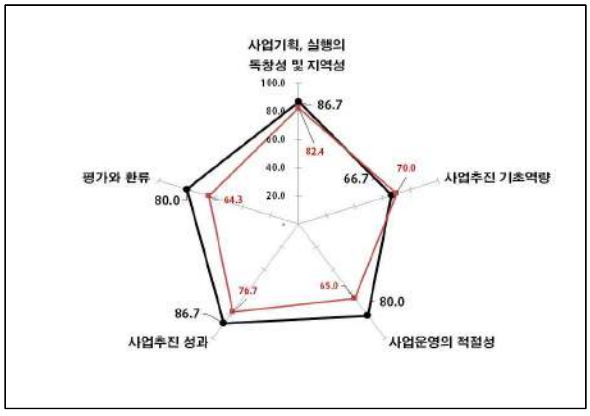
- 조성희 아하댄스씨어터의 '래비토의 꽃섬-난지도 시즌2'(2014 춘천마임축제 도깨비난장 초청), 극단 노뜰 '멕시코 푸에블라 국제레지던스 및 공동창작 쇼케이스' 참가, 전통타악그룹 태극 '2014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국제음악페스티벌' 초청 참가, 풍물아리 '두드림 소리 3' 정선의 풍물팀 풍물아리와 춘천의 타악그룹 태극의 합동 공연, 미협태백지부의 '2014 미술다큐멘터리-탄광촌에 핀 화(花)),화(畵),화(和)-검은 땅에 꽃피다' 지역의 애물단지였던 태백체험공원에 벽화 제작, 미협태백지부의 '한/필 국제교류전-들고 간(看) 뻔(fun)한 것들', 후용공연예술센터 '후용페스티벌-기리타니 나츠코의 쇼케이스 공연', '후용페스티벌-중국연출가 왕청의 스테이지 무비 워크숍 및 레지던시' 등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3점, 강원 지역 9.5점임.

□ 평가지표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10점)는, 시민 모니터링과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과 결과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평가함.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권역별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18개 시군에서 진행되는 4백여 개의 지원사업의 관객 및 예술인에 대해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별도로 평가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을 연구함.
- 그 결과를 '2014 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연구보고서'(2014.12)와 '2014 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체계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2015.1)로 발간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4점, 강원 지역 9.5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는 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9.1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9.4점, 강원 지역 56.0점임.

4.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그림 218]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강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86.7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66.7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0.0점
사업 추진 성과	86.7점
평가와 환류	80.0점

[표 241]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강원

□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지역성

- 강원 정선지역의 특징적인 폐광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의 자연 · 환경적 특성과 연계된 프로그램 등이 제시됨. 유휴시설,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소재 대상으로 한 정선 폐광 활용 사업 뿐 아니라 동해 프로젝트도 동해 바다 모티브를 활용하여 지역성을 드러내고 있음. 특히 폐광을 대상으로 한 공모 사업은 지역적으로나 참여 대상에 있어서 그 특징이 뚜렷하다는 장점이 있음.
- 선정단체에 대한 간접 지원으로 컨설팅과 워크숍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적절한 시간 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한계가 있음.
- 1회적인 사업 중 우수 사업을 파일럿으로 하여 지속해서 지원하는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모를 통한 간접지원 형식으로 단발적인 교류 사업을 운영하는 한계를 보였으며, 다소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인 대상의 커뮤니티 아트가 주류를 이루어 예술기금이 대부분 대중적으로 활용되었다는 한계가 약간 보이고 있음.

□ 사업추진 기초역량

-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되 참여대상을 한정된 지역 예술 커뮤니티로 제한할 경우, 성과의 도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국단위에서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기획단의 참여 및 타 지역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지역을 새롭게 접근하는 시각에 대한 수용 및 유도를 고려할 수도 있는 시점임.
- 24건 신청에서 17%인 4건 선정,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응모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부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새로운 운영 방식이나 예산 배분

혹은 예산 지원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음. 하슬라의 경우 2010년부터 사업을 수행해왔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경우, 지속적으로 지역민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활동의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브랜드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개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임.

□ 사업운영의 적절성

- 상투적인 벽화 그리기 중심의 커뮤니티 아트가 사업간 매우 중복되어 남발되고 있으며, 커뮤니티 아트의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에서 참신성이 부족함. 장기간 방치하거나 미적 취향이 다를 경우 도시 미화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벽화 사업의 문제를 알면서도 그것을 타당성 없이 대중주의적 커뮤니티 아트의 타협책으로 반복 제시하는 사업보고서 내용이 발견됨. 예술가 중심의 시민 참여에 중심을 가진 참신한 커뮤니티아트의 접근 필요함.
- 보다 광범위한 전문 인력 유입과 활용,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의 방법 제고 필요. 예술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강원지역 교류 기금 및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기존의 지엽적 방식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 마케팅방안으로 도록 형식의 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했으며, KTV에서 '작가 김주영 길 위에서 예술을 묻다' 라는 프로그램에 '사북에서 꿈을 꾸다' 는 주제로 방영됨. 지역홍보나 소통을 넘어선 시도로 타 지역의 홍보 관련 학습모델로 고려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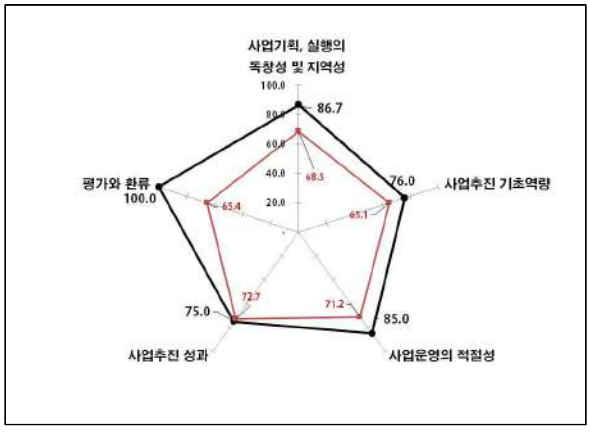
□ 사업추진 성과

- 3년 평균의 3%를 상향조정한 목표치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기계적인 3% 상향 조정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한 후 각 사업별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와 환류

- 교류 사업 중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경우 주 참여자인 작가들을 대상으로한 피드백 자료가 부실함. 시민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한 피드백의 경우 예술기금의 전문적 활용에 대한 평가가 어려우며, 기금의 본 목적에 부합한 활용에 충실하지 못한 접근을 보여줌. 관객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2015년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음.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그림 219]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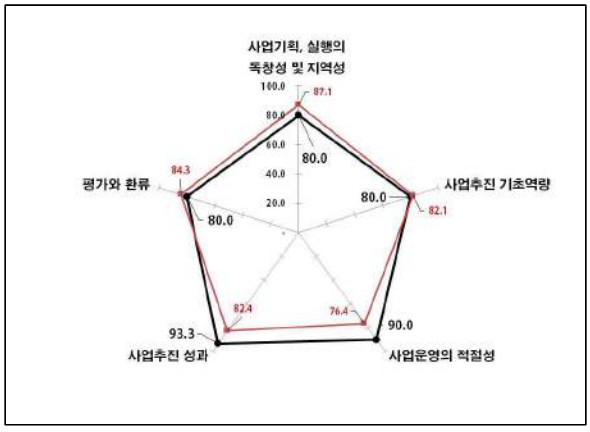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86.7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76.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5.0점
사업 추진 성과	75.0점
평가와 환류	100.0점

[표 242]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강원

- 강원 지역은 시민참여활성화 부문으로 우리가락우리마당을 올해 처음 시행하였음. 재단 자체 기획 진행 하였고, 지역 환경 고려 3개년 단계적 사업실행 추진함.
- 우리가락 우리마당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도별 핵심 추진 과정 선정하였고, 영동 영서 2개 지역에서 진행하였음.
- 총32회, 21개 단체참여, 참여예술인 424명, 13,320명 관객, 관람객만족도 77점, 지역특화자원 10개 콘텐츠 활용 14회 공연하였음.
- 총46건 신청, 32건 선정으로 선정율 69,59%, 18개 시 · 도 자발적 유치신청
- 시민참여프로그램 구성,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재단 담당자 공연 전수모니터링 실시
- 전문예술법인 8단체 38%, 2015년 신규단체 20% 목표
- 관련 기관 업무분장 및 네트워크 체계 구축, 8회 업무회의 및 간담회 진행, 문화사랑방 통한 수요분석진행
- 참여프로그램 구성 진행(체험부스, 재능기부, 엽서이벤트, 스탬프 랠리 이벤트 등), 문화예술진흥시책 반영, 논문 수요도 반영
- 타겟 마케팅, 스탬프랠리, 보도자료, SNS 활용, 방송, 지역간행물 활용 홍보 진행
- 관람객수 166,5%, 관객만족도 110%, 공연 개최수 100%, 예술단체 참여수 116.7% 달성하였고, 강원도형 우리가락우리마당 새로운 모델 제시하였음.
- 우리가락 우리마당 출연단체가 '2014 국제민속축전' 메인 주제 공연 및 개 · 폐막 공연에 초청됨.

- 참여단체 성과간담회 진행하였고, 국악예술단 하서랑 중국 박람회 초청공연, 전국 아리랑 경연대회에서 원주어리랑 장려상 수상함.
- 시민모니터링진행, 전문기관(바라) 연구 용역 진행, 담당자 모니터링 진행, 관람객만족도조사 진행
- 강원 지역은 우리가락우리마당을 처음 시행하였고, 재단이 직접 진행하면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18개 시군과 협력체계구축으로 강원도형 우리가락우리마당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음.

6.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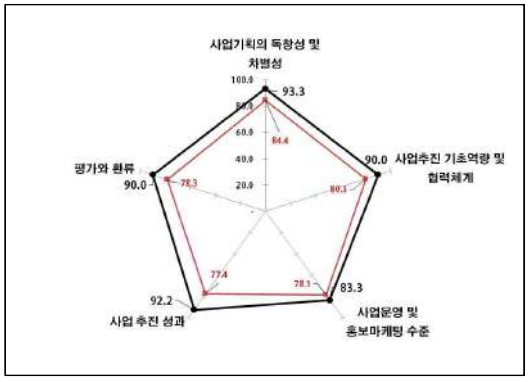
[그림 220]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강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8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90.0점
사업 추진 성과	93.3점
평가와 환류	80.0점

[표 243]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강원

- 사업기획 실행 독창성은 80.0점, 사업추진 기초역량은 80.0점, 사업운영의 적절성은 90.0점, 사업추진성과는 93.3점, 평가와 환류는 80.0점을 획득하였음. 사업운영 적절성과 추진 성과 면에서 전국 평균을 넘는 성과를 거두었음.
- 강원도형 문화예술 공연발굴을 위해 콘텐츠개발과 육성을 위한 기획으로 추진했음. 사업명칭을 감자라는 지역특산물과 연계 브랜드화 하려 했고, 지역기업이나 농가의 참여를 이끌어 냈음.
- 지원 선정이 아닌 재단이 자체 추진으로 용역으로 발주하여 진행함. 강원 인문학 아카데미는 춘천 KBS방송국과 인문콘텐츠 전문 업체(메디치미디어)가 공동으로 추진함.
- 감자콘서트는 2014년 강원지역 클래식 공연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진 점에서 적절했음. 강원 인문학 아카데미는 보도자료 분석 등을 통한 인문학 수요증가를 확인하고 추진했으며 지역전문가 의견을 반영했음.
- 감자콘서트 5회, 인문학아카데미 13회 개최하여 진행했음.
- 외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나타난 점수는 감자콘서트는 82.6점, 인문학아카데미는 88.4점을 기록했음.

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22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강원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93.3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90.0점
사업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83.3점
사업 추진 성과	92.2점
평가와 환류	90.0점

[표 24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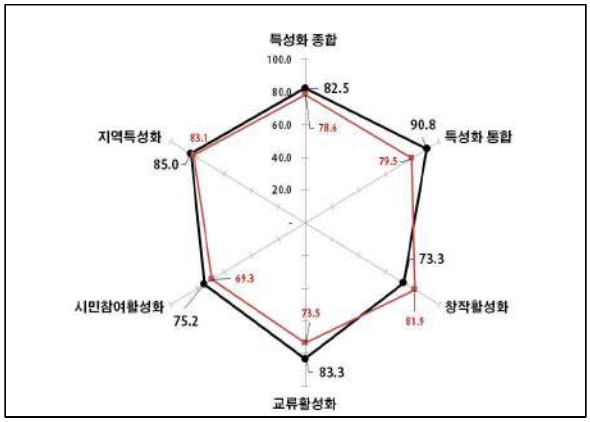
- 전문단체 집중육성과 지원의 효과 제고를 위해 비상주 지원을 배제하고 상주단체만을 지원하고, 사업비 지원을 통한 직접지원방식과 교류지원 및 컨설팅 등 간접지원방식을 병행하는 방향을 세움.
- 단순 교류에서 벗어나 창작중심의 교류활동 장려를 위해 교류프로그램을 공모, 운영하여 상주단체간 교류 1건, 해외교류 2건, 교류 워크숍 3회, 창작레지던스 프로그램 1회, 창작 작품 2개 제작, 공연축제 2회 개최함.
- 지역의 고유성 및 차별성 반영을 위해 2014년도 팀 전략과제로 '강원도형 콘텐츠 개발'을 채택하고, 사업의 성과평가 및 사업심의 시 평가 기준에 이를 반영함.
- 봄내 극장과 문화프로덕션 도모의 '처우', 화천문예회관과 공연창작집단 뛰다의 '맨발땅 이야기' 등 6개 상주단체 모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작품을 제작·공연함
- 행정심의, 현장실사, 최종심의(PT)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전문예술단체는 6개 팀중 5개 팀으로 상주단체 전체 사업의 83.3%를 차지함. 전문역량을 갖춘 단체, 공연장이 선정되었음. 특히, 속초문화회관은 상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에서 기획담당자 1명을 채용함.
- 문화프로덕션 도모는 관객개발을 위해 문화 생산자 및 소비자들로 이루어진 '춘천 좋은 문화소비자협동조합'과 '춘천 좋은 문화생산자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지역대학 및 청소년기관 등 지역기관과의 MOU를 추진하여 공연티켓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함. 문화창작집단 뛰다는 화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함.
- 공연장과 상주단체간의 협력, 상주단체와 공연장의 외부 협력, 재단과 상주단체·공연장 간의 협력, 재단의 외부기관 협력이 상당히 활발하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시됨.
- 공연장상주사업 추진을 위한 워크숍, 각종 간담회,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상주단체 페스티벌 추진위원회와 재단의 협력을 통한 페스티벌 추진 등 재단과 상주단체 · 공연장 간의 협력, 의견수렴과 사업반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속초지역 북청사자 놀음을 활용한 런갯마당의 퍼블릭 프로그램 등 상주단체의 지역민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 프로그램들을 제시함. 관객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도 실시함.
- 상주단체 공연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전국 문화재단 및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담당자를 초청하고, 한문연 강원지회와 협력하여 쇼케이스를 개최함. 이를 통해 2014년도 한문연 지원을 통한 강원도 및 전국 문화예술회관 순회공연을 도모하였으며, 컨설턴트(11명)를 초청하여 단체별 맞춤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를 꾀함. 그 외에도 재단 홈페이지, SNS, 홍보책자, 홍보영상 등을 홍보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음.
-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상주단체 런갯마당-아울의 창작공연 제작교류가 있었음. 상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위를 구성하여 공동협의를 통한 상주단체 페스티벌 '강원예술 움 FESTA'를 추진함. 페스티벌 프로그램으로 1박2일의 상주단체 전체 워크샵을 진행함. 또한, 페스티벌 공연은 감동후불제 도입하고, 총 수익금은 도내 예술단체를 공모하여 재단과 추진위가 심의 선정하여 기부함.('올댓소울' 팀에 전달함)
- 총 6개 상주단체 중 5개 단체의 국내외 공연 페스티벌 초청 공연 등 국내외 대회 수상 및 축제 초청 사례, 예술시장 판매실적, 레퍼토리화 실적이 제시됨.
- 재단의 미션과 비전에 따른 2014년도 팀별 사업별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공연장상주사업의 추진 과제를 도출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함. 계량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
- 평가환류를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전문가와 일반인 모니터링, 관객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음. 상주단체 공연에 대한 만족도는 90점으로 나타남. 평가결과는 지속지원 여부, 지원 금액에 반영하여 환류함.

제11절 충북

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그림 222]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충북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특성화 종합	82.5점
특성화 통합	90.8점
창작활성화	73.3점
교류활성화	83.3점
시민참여활성화	75.2점
지역특성화	85.0점
평균	81.7점

[표 245]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충북

- 예산가중치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8.3
교류활성화	10.3
지역특성화	9.7
창작활성화	71.7
합계	100.0

[표 246]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충북

- 자율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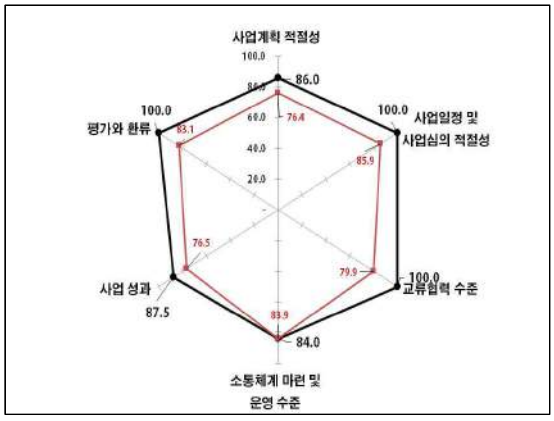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20.0
교류활성화	30.0
지역특성화	30.0
창작활성화	20.0
합계	100.0

[표 247]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충북

□ 충북 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는 82.5점임. 충북지역은 4개 부문 사업을 모두 추진하였으며, 추진 사업 중에서는 지역특성화 사업의 평가결과가 가장 높았음.

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그림 22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충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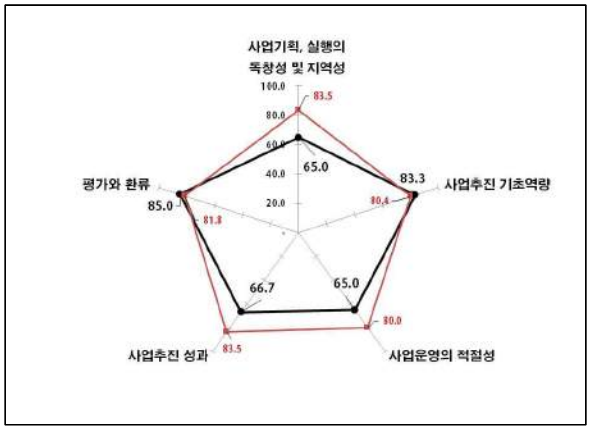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86.0점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100.0점
교류 협력 수준	100.0점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84.0점
사업 성과	87.5점
평가와 환류	100.0점

[표 248]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충북

- 충북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통합지표 부문의 평가결과는 90.8점임.
- 충북지역은 2014년 2월에 「충북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도출한 재단의 비전체계와 단계별 발전전략에 따라 사업별로 2014년도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지원사업 설명회 3회, 지원사업 컨설팅을 사업별로 각 1회 등 총 6회 개최
- 충북지역은 「충북문화재단 중장기 발전연구」의 문화예술 관계자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사업을 설계하였음. 충북지역 특성과 문화자원을 지원사업 설계에 반영하여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3개 권역의 대표 컨텐츠를 사업화하고자 시도함.
- 충북지역은 자치연수원 행정실무, 직무교육, 자체교육, 문화예술일반 등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위원들을 초청하여 충북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사업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직원들의 기획력 및 역량 강화의 결과로 대내외 표창 실적이 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충북지역은 지역 문화예술계 소통채널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연장 상주단체 협의회(3회), 레지던스 기획자 회의 및 세미나(4회),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워크숍(3회), 신진예술가 워크숍 및 라운드 테이블(4회), 문화사랑방(1회), 문화예술단체 워크숍(1회) 등을 운영하였음.
- 충북지역은 타 문화재단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경기, 강원, 대전, 대구, 전남, 특성화 사업 관련팀 각 2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문화재단과 문화기관/언론/지자체 등 유관기관 교류협력 추진, 전문예술단체와 동아리 간 교류협력(남부권, 북부권, 중부권, 통합 페스티벌 개최)을 진행하였음. 또한, 레지던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문화예술기획자(9명)들이 일본 동경 2곳, 요코하마 3곳 등 레지던스 현장을 4박 5일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됨. 이를 바탕으로 2014 레지던스 기획전시 '축적된 순간들' 및 국제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충북지역은 '충북문화재단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의 문화수요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적용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만족도 조사 평가 용역을 진행하였음. 지역별로 5~20명 정도의 도민 모니터링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9개 지역에 27명을 선발하여 참여시켰음. (전문 모니터링단 10명 별도) 또한, 생활문화 활성화 매개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코디네이터(상반기 30명, 하반기 28명)를 선발하고 지역 문화현장 취재를 위한 문화 리포터(53명) 제도를 운영하여 지역 거버넌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충북지역은 홈페이지, SNS(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웹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홍보에 문화 리포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충북지역의 2014년에 외부 전문평가업체에 용역(3,800만원)을 통해 평가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자체평가 결과를 2015년도 사업 심의시 15%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
- 충북문화재단은 문화예술코디네이터와 문화리포터 제도 등 거점지역 중심의 플랫폼 사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문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충북문화재단은 재단의 다양한 외부 사업 및 자체사업의 규모로 볼 때 타 지역 문화재단에 비해 재단 지원사업 및 기획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재단의 기획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추가적으로 영입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그림 224]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충북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65.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3.3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65.0점
사업 추진 성과	66.7점
평가와 환류	85.0점

[표 249]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충북

□ 창작활성화 부문의 개별지표는 9개 지표 60점 만점으로, 배점 5점의 지표 6개와 배점 10점의 지표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추진 단계별 지표수와 배점은,

[사업계획단계] '사업기획/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개 지표 10점,
[사업집행단계] '사업추진 기초역량' 2개 지표 15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2개 지표 10점,
[사업성과단계] '사업추진 성과' 2개 지표 15점,
[평가환류단계] '평가와 환류' 1개 지표 1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지표별 배점 등에 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평가지표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5점)은, 사업기획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는지, 사업실행 방식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정도를 평가함.

- 충북의 창작활성화 부문은 '충북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문예술단체(전문예술인)는 선택과 집중 방식(선정율은 장르에 따라 50~68%)을 통해 평균 지원액 4,200천원('13년 4,162천원), 준전문단체는 소액다건 방식(66~80%)에 따라 2,640천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 전문단체/인의 선정율 50~68%는 선택과 집중 방식이라 보기 어려우며, 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크게 인정받기 어려움. 다만, 심화인터뷰 시 연차적으로 지원단체 선정율을 계속 낮춰 평균지원액을 늘리려는 계획임을 설명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2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충북 지역 3.5점임.

□ 평가지표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 (5점)은, 기획사업 및 개별 지원사업의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함.

- 충북의 경우 문화예술자원 대부분이 청주/충주/청원에 편중되어 있어 기타지역 예술단체 발굴육성과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평가지표 1.1.에서 심사 시 지역의 고유성과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업을 선정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본 평가지표에 대한 실적으로서의 구체적인 사례의 제시는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3.9점, 충북 지역 3.0점임.

□ 평가지표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5점)은,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취지에 맞는 선정기준(예컨대, 예술적 수월성)을 설정하고 있는지, 지원 단체 선정율과 평균지원액의 규모가 적정하거나 연차별로 개선되고 있는지,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선정기준으로 작품 내용의 독창성,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의 기여도 등 예술적 수월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음. 분야별 자격미달 사유와 중복지원 배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전문예술단체(전문예술인) 선정율은 장르에 따라 50~68%, 평균지원액 4,200천원(’13년 4,162천원), 준전문단체의 선정율은 장르에 따라 66~80%, 평균지원액은 2,640천원으로, 전문단체(전문예술인) 선정율이 높은 것은 불가피하게 평균지원액을 낮추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3점, 충북 지역 4.0점임.

□ 평가지표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10점)은,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율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여부, 단체(개인) 지원신청 자격 명시 여부, 선정단체의 사업수행 적합성 정도, 신규단체 참여확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배려 여부,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정도 등을 평가함.

- 충북 내 전문예술법인(단체)은 18개(16개가 청주시, 2개가 영동군에 소재, ‘14년 말 기준으로는 20개)가 지정(등록)돼 있으며, 이중 육성지원사업으로 7개, 공연장상주사업으로 4개 등 11개를 지원하여 상당히 높은 지원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육성지원사업에 대해 분야별 선정기준(전문, 준전문, 개인)을 마련하여 분야별 적합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최소 2년 이상의 창작활동과 예술활동 경력이 필요함.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7.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7.9점, 충북 지역 8.5점임.

□ 평가지표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 (5점)은,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 사업 설계 및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청주시에 문화예술사업이 집중되고 있어 타 지역 문화예술단체/예술인의 발굴 육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육성사업의 특성 상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보다는 공연, 전시 위주의 사업이 많다고 밝힘. 자체평가보고서에 '문화리포터 제도'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고 심화인터뷰 시에 밝힘.
- 심화인터뷰 시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단양, 괴산, 증평 등 3백여 건의 사업에 다녀왔다고 응답함. 또한 심화인터뷰 시 사업설명회 분산 개최, 선정단체 간담회, 그룹별 컨설팅, 사업개선 토론회 등 모든 사업에서 지역민 및 예술가들과 소통과 네트워크를 늘리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함. 다만 지역민의 수요분석과 지원사업 설계에의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충북 지역 3.5점임.

□ 평가지표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5점)는, 특화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주민 참여와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그리고 지원수혜단체의 홍보/기획/마케팅 담당자 대상의 교육, 자문, 워크숍을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함.

- 3.2. 평가지표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음. 심화인터뷰 시 홍보담당자를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통합홍보에서 페이스 북이나 밴드, 웹진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충북 지역 3.0점임.

□ 평가지표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5점)는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의 수준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했는지, 그 성과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 총 관람객 수 481,393명, 발표작품 수 창작초연 5,276건, 기존창작품 1,490건, 외국작품 150건, 참여예술인 수 4,592명,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 도출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사업별 성과만을 제시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충북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10점)는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창작활성화 부문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를 창출했는지, 제시한 최우수프로젝트(Best Practice)가 타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국내외 각종 수상(受賞), 인증, 페스티벌 초청/참가, 예술시장에서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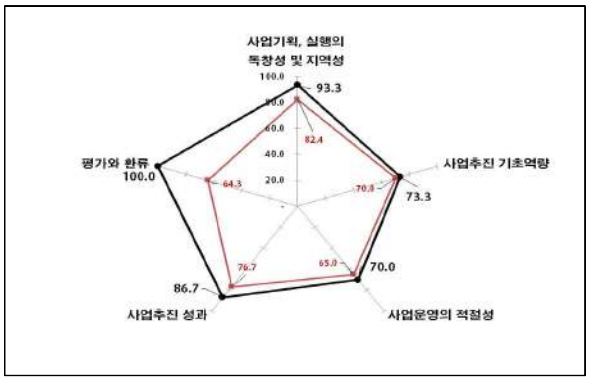
- 자체평가보고서에 4.2. 평가지표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음. 심화인터뷰 시 충북지역의 국악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난계국악제〉를 지역 대표문화브랜드로 제시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3점, 충북 지역 5.5점임.

□ 평가지표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10점)는, 시민 모니터링과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과 결과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평가함.

- 10명의 전문 모니터링단과 각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30명의 도민 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현장평가를 진행했으며 육성지원 21개 예술단체를 모니터링함. 심화인터뷰 시 새로 도입한 문화예술코디네이터, 문화리포터 제도에 대해 설명함.
- 성공적인 모니터링 진행을 위해 사전 워크숍, 중간 간담회, 성과공유 워크숍 등을 개최함. 심화인터뷰 시 2014년 재단 발전방안 연구, 전문화된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위탁 등에 대한 담당자 설명이 있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4점, 충북 지역 8.5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는 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9.1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9.4점, 충북 지역 44.0점임.

4.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그림 225]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충북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93.3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73.3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70.0점
사업 추진 성과	86.7점
평가와 환류	100.0점

[표 250]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충북

□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지역성

- 2013년의 평가결과를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전문가 컨설팅과 국내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였음. 특히 2014년 추진전략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정례적 소통채널,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설정한 기획력이 돋보임.
- 2013년의 상황과 문화예술 환경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며 반성적으로 자기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도 탁월함. 전문 인력과 지역기초자료 부재 및 홍보전략 부재 등을 개선할 것과 창작 및 대안 공간의 부족한 현황을 파악하여 다양한 장르의 교류 및 창작발표의 장이 되는 공간이 육성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함.

□ 사업추진 기초역량

- 세미나 참석 기획자의 소속 단체와 국적이 다양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자극과 경험이 가능할 수 있었음.

□ 사업운영의 적절성

- 문화 분야 중장기계획이나 충북 자체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에서 조사된 수요와 현황을 근거로 전략을 수립한 것은 적절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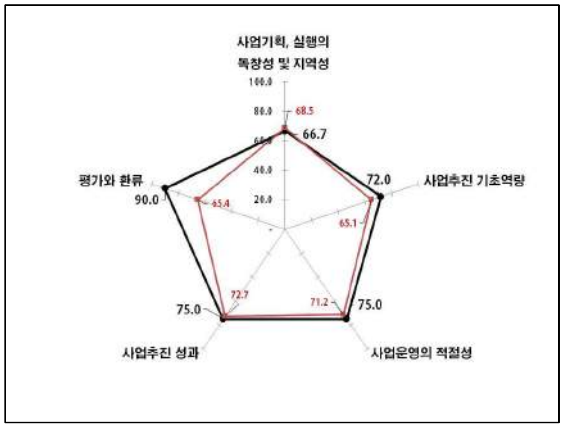
□ 사업추진 성과

- 교류권역이 다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함. 하지만, 계량적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표 작업 등이 필요함. 현재와 같은 방식의 서술 내용으로는 개별성과는 지엽적으로 알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업성과를 파악하기는 난해함.

□ 평가와 환류

- 문화리포터를 양성하여 시군별 3-5명으로 운영한 점이 체계적 사고를 하는 기관의 면모를 알 수 있게 함. 충북의 북부, 중남부, 선정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모니터링을 전문가와 도민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음.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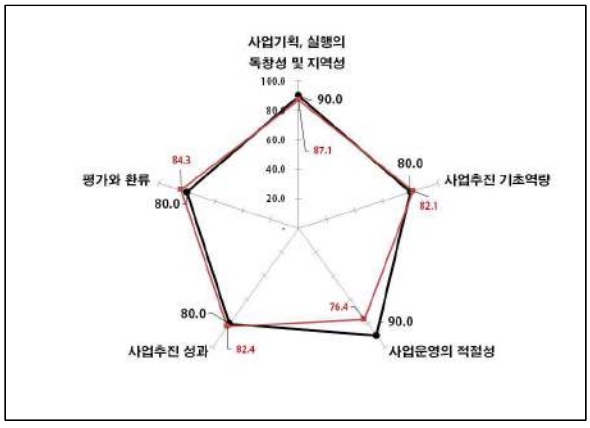
[그림 226]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충북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66.7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72.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75.0점
사업 추진 성과	75.0점
평가와 환류	90.0점

[표 251]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충북

- 충북 지역은 시민참여활성화 부분에 우리가락우리마당을 넣었으며, 청주해금앙상블을 주관단체로 선정하여 신진예술단체 20% 이상 진행하는 등 지역예술단체 높은 참여율 보임.
- 식전행사로 국악동아리 및 꿈나무 연주를 진행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청주지역에 집중되어있는 문화적 격차 분배를 위해 오창호수공원을 명소화 하였으며, 총15회 공연 진행하였음.
- 난계국악기촌 연계하여 해금강습, 국악기제작체험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함.
- 권역별 사업설명회개최, 선정단체 대상 설명회실시, 성과공유 워크숍 실시하였음.
- 누적관람객 20,000명, 21팀 참여, 참여예술인 175명.
- 청원군 오창호수공원 명소화하며, 야외상설무대 활용도가 85%증가 하였음.
- 전문기관 평가진행, 시민모니터링, 관객만족도조사 진행하였음.
- 사전워크숍, 중간간담회, 성과공유 워크숍 진행함.

6.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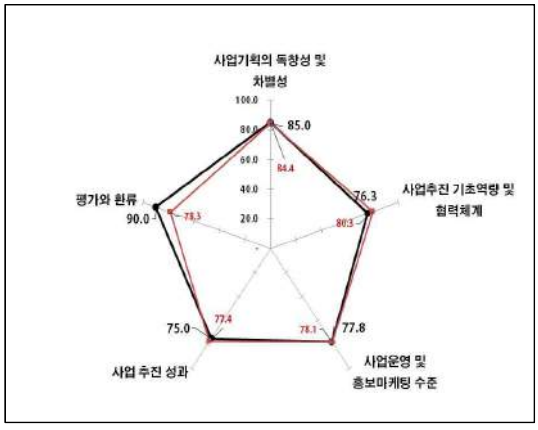
[그림 227]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충북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9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90.0점
사업 추진 성과	80.0점
평가와 환류	80.0점

[표 252]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충북

- 사업기획 실행 독창성은 90.0점, 사업추진 기초역량은 80.0점, 사업운영의 적절성은 90.0점, 사업추진성과는 80.0점, 평가와 환류는 80.0점을 획득하였음. 사업운영 적절성이 전국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음.
- 단순 공모방식을 탈피하고 지역성을 고려한 기획프로그램을 추진했음. 사업들 기획과 선정에서 특성화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이 뛰어남.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기획 실행한 것임.
- 우수사례로 자계예술촌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우수 전문단체 최우수상을 수상, 극단 마당의 프로그램은 상설화로 추진하고 있음.
- 31건이 신청하여 4건 선정되어 13%의 선정율을 기록하며 추진했음. 평균 지원 금액은 35,000천원임. 전문예술법인은 3개로서 선정단체의 75%에 이르고 있음. 지원 금액은 최고 예술나눔 50,000천원, 최저는 자계예술촌 20,000천원임.
- 연구결과물로서 충북문화재단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조사를 했음. 전체적인 중장기 사업이므로 이 사업에 정확히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애매한 점이 있음.
- 예술마당, 극단마당, 자계예술촌, 쉐마미술관 등 4개 사업을 당초계획대로 추진했으며 사업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함.
- 단체들의 활동에 대하여 수상실적이 있으며 이 사업의 성과로 평가될 수 있는 사항임.
- 도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평가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았음. 5점 만점에 4.4점을 받았음.

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22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충북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85.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76.3점
사업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77.8점
사업 추진 성과	75.0점
평가와 환류	9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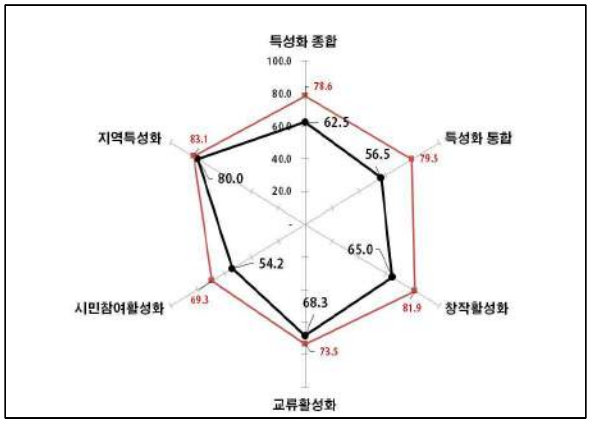
[표 25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충북

- 2012년부터 상주사업에 참여한 신생 재단으로서 도내의 자원과 역량, 정책수요 등에 대한 세세한 파악을 통해 탄탄한 정책근거들을 마련해가고 있음.
- 공연장 상주사업 설계시 지역의 문화 예술현황 및 환경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고령화, 지역인력 자원부족(공급자, 수요자), 도농간 문화격차 해소를 목표로 세우고, 청주지역 예술단체의 문화소외지역 상주 권장, 발전 가능성 있는 지역단체 우선 · 집중지원, 동아리와의 연계를 통한 아마추어와 프로의 접점확대를 사업전략으로 설정하여 추진함.
- 공연장 상주단체 컨설팅을 통해 지역 컨텐츠 및 문화자원의 재발견, 지역문화자원 활용한 작품제작 관련 방향을 논의함.
- 지역자원 활용 및 브랜드 개척사례로서 '12년부터 보은문화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해 온 극단 꼭두광대의 보은 동학관련 작품 제작 및 지역 마당극페스티벌, 옥천문화회관 비상주단체 에일린 예술단의 옥천출신 시인 정지용의 시를 바탕으로 한 창작곡 초연 사례를 제시함.
- 1차 행정심의, 2차 서류심의, 3차 인터뷰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전문예술단체는 9개 단체 중 3개로 33.3%를 차지함. 전문역량을 갖춘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공연장의 기획역량 보강이 필요함.
- 지역공연장을 대부분 공무원이 담당하며 잦은 순환보직으로 사업협력과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에 착안하여 지역공연장의 상주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 제고를 위해 공연장 관련 공무원 회의를 개최하여 상주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연장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함.
-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페스티벌과 관련 각 지자체의 대표 축제와 함께 상주단체의 협력공연을 유도하여 공연장 상주단체-지자체-지역 동아리 간 연계협력을 추진함.

- 공연장과 상주단체간의 협력, 상주단체와 공연장의 외부 협력에 대한 제시는 부족하나, 재단과 상주단체 · 공연장 간의 협력, 재단의 외부기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일반인 수요조사, 전국 문화전문가 수요조사, 충북지역 문화예술 전문가(문화예술인, 연구원, 기획자, 정책가 등), 재단직원 및 문화예술 관계자에 대한 다각적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설계함. 또한, 정기적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협의회를 개최하여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함.
- 지역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함. 극단 꼭두광대의 경우 보은동학을 소재로 한 [눈자라기],[눈자라기vol.2],[하늘별] 제작시 보은지역 주민의 연령별, 세대별 문화 욕구 조사를 위해 보은어린이집 연합회 원장 및 교사들과의 인터뷰, 보은 동광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전담교사 등 교육관계자 면담을 통하여 동학이라는 지역 콘텐츠를 가지고 어린이 공연으로 제작함.
- 홍보채널로서 재단 홈페이지, SNS, 웹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전광판 등 도청과 시군의 행정협력과 지역일간지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또한, 문화예술단체 홍보,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4년 문화 리포터 양성 및 교육을 추진함.(53명 선정)
- 공연장 상주단체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을 개최함.
-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료관객이 없음. 상주단체의 자생력강화를 위해 공연 유료화가 필요함.
- 사물놀이 몰개 등의 국내외 대회 수상 및 축제 초청 사례가 제시됨.
- 충북문화재단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충북형 지원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공연장상주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성과 달성 지표는 전체 공연장 상주사업의 지표라기보다는 개별 단체의 실적 총량을 제시함.
- 2014년 지원사업 평가모니터링 연구용역을 통해 현장모니터링(전문가, 도민)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재단에서 행정평가를 실시함. 상주단체 공연에 대한 만족도는 90점으로 나타남. 평가결과는 지속지원 여부, 지원 금액에 반영하여 환류함.

제12절 충남

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그림 229]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충남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특성화 종합	62.5점
특성화 통합	56.5점
창작활성화	65.0점
교류활성화	68.3점
시민참여활성화	54.2점
지역특성화	80.0점
평균	64.4점

[표 254]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충남

• 예산가중치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8.8
교류활성화	24.0
지역특성화	8.8
창작활성화	58.5
합계	100.0

[표 255]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충남

• 자율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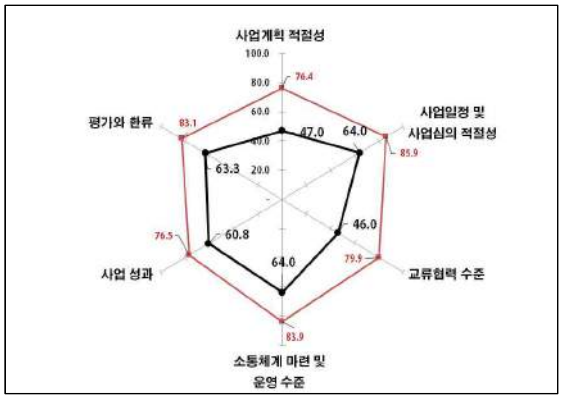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15.0
교류활성화	50.0
지역특성화	15.0
창작활성화	20.0
합계	100.0

[표 256]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충남

□ 충남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는 62.5점임. 충남지역은 4개 사업부문의 사업을 모두 추진하였으며, 지역특성화 사업의 평가가 가장 높음.

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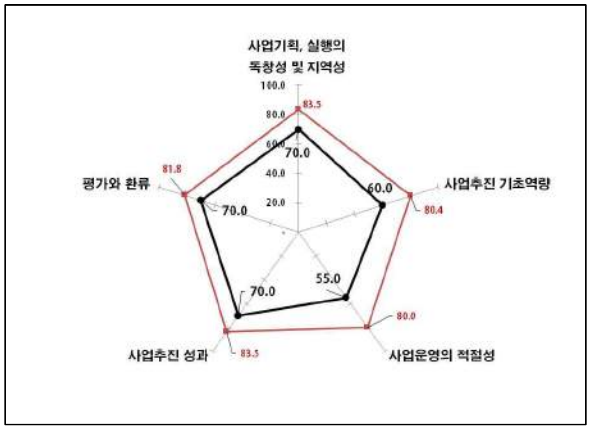
[그림 230]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충남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47.0점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64.0점
교류 협력 수준	46.0점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64.0점
사업 성과	60.8점
평가와 환류	63.3점

[표 257]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충남

- 충남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통합지표 부문의 평가결과는 56.5점임.
- 충남지역은 특성화 사업별 지원계획만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목적도 명확치 않고 성과목표, 성과지표가 설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중장기 비전이나 연차별 목표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지원사업 설명회와 지원단체 워크숍 정도만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충남지역은 기존 문예진흥기금 심사위원, 전년도 사업별 심사위원, 예술위 평가위원(풀) 중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특성화 사업별로 적합한 심의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도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전문가 평가단 및 시민 모니터링단(13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지원사업 17건에 대해서는 전수평가를 진행하였고 기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민과 연구진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함. 관객 만족도 조사는 특성화 사업 관객 2,112명(남 824명, 여 1,2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됨.
- 충남지역은 2014년 문화재단이 출범하였으나, 2014년 사업은 2013년에 기획된 대로 도 공무원이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재단은 전문인력 충원 및 조직정비 등을 통해 2015년 사업을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됨. 충남지역의 문화예술적 잠재력과 가능성에 비해 지원사업 추진 인력의 절대수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취약하여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들이 차기년도부터는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그림 231]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충남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7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6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55.0점
사업 추진 성과	70.0점
평가와 환류	70.0점

[표 258]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충남

□ 창작활성화 부문의 개별지표는 9개 지표 60점 만점으로, 배점 5점의 지표 6개와 배점 10점의 지표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추진 단계별 지표수와 배점은,

[사업계획단계] '사업기획/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개 지표 10점,

[사업집행단계] '사업추진 기초역량' 2개 지표 15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2개 지표 10점,

[사업성과단계] '사업추진 성과' 2개 지표 15점,

[평가환류단계] '평가와 환류' 1개 지표 1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지표별 배점 등에 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평가지표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5점)은, 사업기획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는지, 사업실행 방식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정도를 평가함.

- 충남의 창작활성화 부문은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충남문화재단만의 사업 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과 효과성에 대한 설명보다는 일반적인 수준의 사업계획만 제시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2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충남 지역 3.5점임.

□ 평가지표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5점)은, 기획사업 및 개별 지원사업의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함.

- 충남지역의 고유 문화자산과 관련된 지원프로그램 15건에 대해 단체명과 사업명만을 제시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3.9점, 충남 지역 3.5점임.

□ 평가지표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5점)은,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취지에 맞는 선정기준(예컨대, 예술적 수월성)을 설정하고 있는지, 지원단체 선정율과 평균지원액의 규모가 적정하거나 연차별로 개선되고 있는지,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선정기준으로 문학성, 예술성, 창작성, 전통성, 중요성에 대해 20점의 비중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선정율은 '13년 65.2%, '14년 65.8%로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으로서는 높은 편으로 '13년과 대비하여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평균지원액 역시 '13년 2,797천원, '14년 2,865천원으로 낮은 편으로 '13년과 대비하여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3점, 충남 지역 3.0점임.

□ 평가지표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10점)은,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율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여부, 단체(개인) 지원신청 자격 명시 여부, 선정단체의 사업수행 적합성 정도, 신규단체 참여확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배려 여부,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정도 등을 평가함.

- '14년 말 현재 충청남도에 허가/등록되어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은 11개이나, 지원단체로 선정한 전문예술법인 2건의 단체명과 공연명 외 아무런 설명이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7.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7.9점, 충남 지역 6.0점임.

□ 평가지표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 (5점)은,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사업 설계 및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자체평가보고서에 본 평가지표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으나, 심화인터뷰 시 15개 시/군 문화원, 예총, 자치구 관계자 전체와 워크숍 개최, 충남지역 문화예술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원 중심 1박 2일, 예총 중심으로 1박 2일 일정으로 의견을 수렴한 사실 등 문화예술계 의견수렴 사례를 제시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충남 지역 3.0점임.

□ 평가지표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 (5점)는, 특화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주민 참여와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그리고 지원수혜단체의 홍보/기획/마케팅 담당자 대상의 교육, 자문, 워크숍을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함.

- 도청 홍보부서(공보관실)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 및 단체별 홍보 실시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충남 지역 2.5점임.

□ 평가지표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5점)는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의 수준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했는지, 그 성과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 286건 지원, 관람객 수 590,757명, 발표작품 수 9,120건, 참여예술인 수 17,243명이며,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 도출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분야별 성과만을 제시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충남 지역 3.5점임.

□ 평가지표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10점)는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창작활성화 부문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를 창출했는지, 제시한 최우수프로젝트(Best Practice)가 타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국내외 각종 수상(受賞), 인증, 페스티벌 초청/참가, 예술시장에서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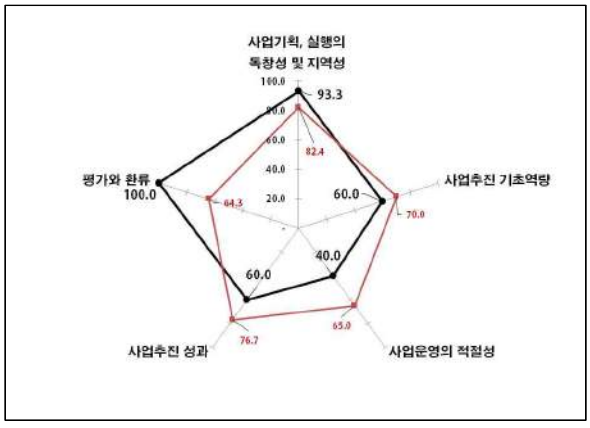
- 부여 백제제례악단의 〈서동 무왕즉위식〉 (부여 궁남지) 재현 : 부여 연꽃축제와 연계하여 관람객에게 백제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지역민에게는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3점, 충남 지역 7.0점임.

□ 평가지표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10점)는, 시민 모니터링과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과 결과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평가함.

- 시민모니터링과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와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평가지표와 조사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음. 심화인터뷰 시 나라장터를 통해 수도권의 전문기관에 평가모니터링을 의뢰하여 정확한 문제점 지적과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평가결과는 2015년 공모심사에 반영했다고 설명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4점, 충남 지역 7.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는 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9.1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9.4점, 충남 지역 39.0점임.

4.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그림 232]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충남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93.3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6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40.0점
사업 추진 성과	60.0점
평가와 환류	100.0점

[표 259]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충남

□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사업실행기관들은 사업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한다고 하는 특성을 공동으로 명기하고 있어, 충남지역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특수성이 형성되어 가는 역사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 실행단체 간 협력하여 아트파티를 운영할 것을 기획한 것은 바람직함. 4개 단체 36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충남지역의 레지던스 연석회의를 개최했고, 도청에서의 파티를 통해 사무공간이 적극적인 문화향유공간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유인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사업으로 계승될 수 있음.
- 사업기관 선정 기준에는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예술적 역량과 동시에 지역홍보 효과 및 타 지역 대비 경쟁력을 심사하겠다고 공표하고 있으나, 경쟁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없어서, 감독기관이 경쟁력이 있는 기관을 선정해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은 파악되지만, 어떠한 경쟁력과 어떠한 지역의 발전을 예상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 기초역량

- 6건 신청에 4건 선정. 2013년 대비 아무런 변화가 없음.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숙성된 수준이 아니므로 좀 더 홍보를 강화하여 신청단체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단체는 없으며, 2~3년의 경력을 가진 기관들의 역량은 인정됨.

□ 사업운영의 적절성

-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 등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수요파악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운영을 한다는 의미인데, 충남지역의 경우 각각의 실행 기관들이 커뮤니티 사업(주민연계 프로그램)을 한 것들을 운영이 적절했다는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
- 충남도청에서 열린 20여 일 간의 아트파티(36명의 참여 중 국외 작가 5인)에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충청투데이 등에서 개관하는 날(11월 26일)에 보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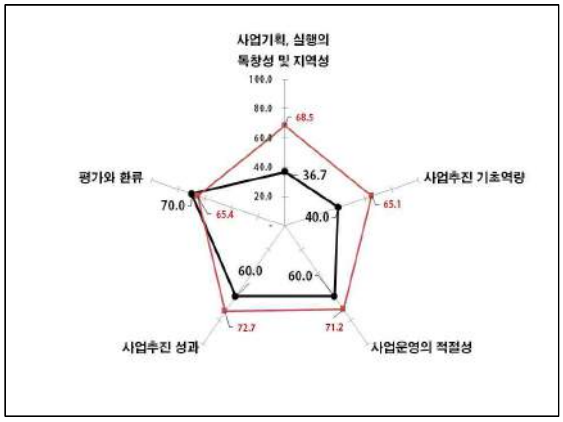
□ 사업추진 성과

- 124명의 예술가, 330개의 작품, 관람객은 97,000명이라는 성과는 계량적인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임. 다만, 목표치 대비 성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비교표가 있으면 바람직하겠음. 비계량으로는 도청에서의 아트파티를 중심으로만 소개하고 있어 예술인, 비평가, 주민들이 느끼는 성과들이 드러나지 않아 다소 미흡함.

□ 평가와 환류

- 모니터링이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전문가, 시민, 관람객으로 나누어 각각의 입장과 관점에 맞추어 수행됨.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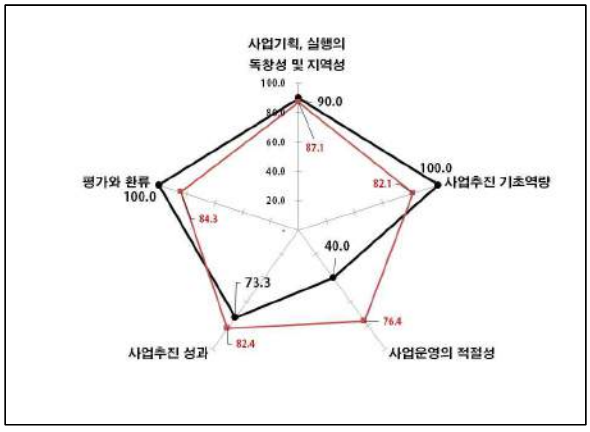
[그림 233]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충남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36.7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4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60.0점
사업 추진 성과	60.0점
평가와 환류	70.0점

[표 260]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충남

- 충남 지역은 시민참여활성화 부문에 우리가락우리마당을 넣었고, 뿌리패예술단 충청남도지회를 3년째 선정하였음.
- 금산다락원 야외공연장에서 총 15회 공연진행, 주관단체 출연 10%미만, 신진예술가 20%이상 확보, 관람객 10,000명, 참여예술인 269명 참여하였음.
- 지원단체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지역민 참여프로그램운영(전통악기체험)하였음.
- 홈페이지, 현수막, 보도자료, 가로등 배너, 온라인홍보 진행 하였음.
- 시민모니터링, 관람객만족도조사 진행하였음.

6.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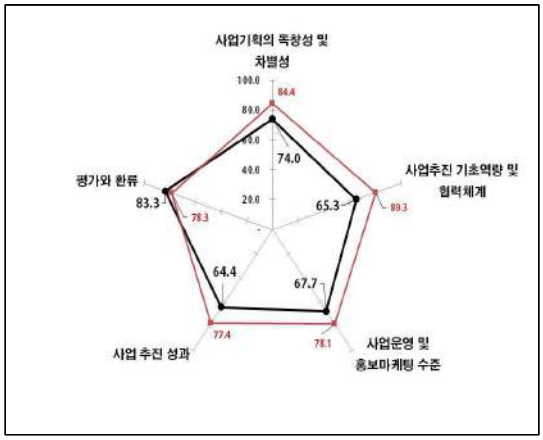
[그림 234]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충남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9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10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40.0점
사업 추진 성과	73.3점
평가와 환류	100.0점

[표 261]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충남

- 사업기획 실행 독창성은 90.0 점, 사업추진 기초역량은 100.0점, 사업운영의 적절성은 40.0점, 사업추진성과는 73.3점, 평가와 환류는 100.0점을 획득하였음. 사업추진 기초역량과 평가환류 부분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사업운영 적절성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수준이었음. 지역특성화사업의 특징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평가함.
- 구체적으로는 김좌진 등 지역 역사인물을 소재로 활용하여 기획하여 지역특성화 자원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정체성과 지역특성화를 잘 살린 기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14개 단체가 지원하여 4개를 선정하여 선정율 28.6%을 기록했음.
- 지원액을 보면, 평균 지원액은 25,000천원이며 전년도 지원수준과 같음. 전문예술법인은 지원받은 4개중 1개임. 지역에 전문예술법인이 많지 않지만 보다 책임 있는 집행을 감안한 선정으로 보임. 최고지원을 받은 단체는 극단 홍성무대이며, 최저액은 한국무용협회 계룡시지부인데 지원금액의 현실화를 바탕으로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으로 평가됨.
- 극단 홍성무대, 우리역사문화협동조합, 마당극단 좋다, 한국무용협회 계룡지부 등이 7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전문예술가들이 참여함.
-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모니터링을 했고 이점은 사업에 다시 피드백 될 것으로 간주됨. 다만, 사업 전반적인 것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으며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5점에 이르렀는데 당초의 평가취지를 충분히 살리도록 한 것으로 평가함.

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23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충남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74.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65.3점
사업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67.7점
사업 추진 성과	64.4점
평가와 환류	83.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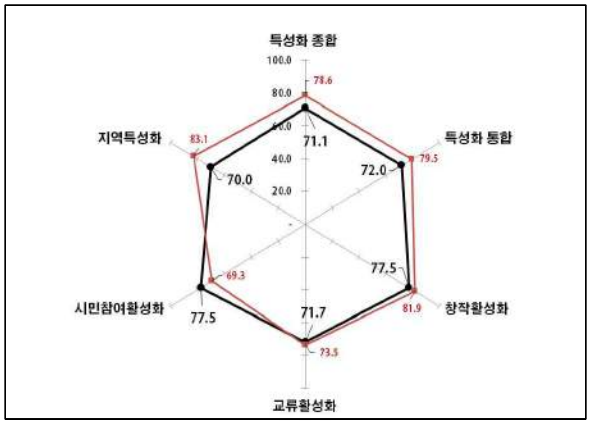
[표 26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충남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충남만의 독창적인 공연장상주사업 계획 및 운영 시스템을 확인하기 어려움.
- 상주단체 프로그램의 지역고유성 및 차별성 반영을 위한 충남도의 노력이 제시되지 않음.
- 지역 특화소재를 반영한 사례로서 전통예술단 혼, 백제가야금 연주단, 충청오페라단, 엄사예술단 등의 사례를 제시함.
- 현장실사, 서면 및 인터뷰 심사(PPT포함)를 거쳐 최종 심사 결정함. 전문예술단체는 8개 단체 중 2개로 25%를 차지함. 대부분 전문역량을 갖춘 단체가 선정되었으나, 전문단원이 부족한 단체도 일부 있음. 새로 설립된 재단 차원의 상주단체 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함. 또한, 공연장의 기획역량 보강이 필요함.
- 상주단체 공연장 휴관(사유: 시설 노후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무대시설 공사)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해 상주단체와 공연장이 협력하여 대응한 사례(대체 공연장 사용 등)를 제시하였음. 극단 천안과 충남교육문화원 협력, 엄사예술단의 노인복지시설 퍼블릭프로그램 협력 사례 등이 제시됨. 충남도와 상주단체 · 공연장 간의 협력, 충남도의 외부기관 협력에 대한 기술이 없음.
- 지역의 공연장상주사업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및 반영 정도, 지역민 참여프로그램 수준 및 지역민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여부에 대한 기술이 없음.
- 홍보마케팅 지원 측면에서 도청 홍보부서(공보관실)를 통한 보도자료 및 단체별 홍보자료 배포에 그치고 있음.

- 8개 상주 단체 간 협의를 통해 '충남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제2회 충남 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을 개최함. 개별공연의 집합이 아니라 유관 장르끼리 상호 협력하여 공동 제작함(혼+엄사, 아산시교향악단+김제영현대무용단 등) 또한, '문화장터' 예매시스템을 통한 홍보 및 티켓팅 실시로 참여단체에게 유료공연으로의 가능성을 제시함.
- 전통예술단 혼 등의 국내외 대회 수상 및 축제 초청 사례가 제시됨.
- 공연장상주사업 성과목표와 달성 수준에 대한 제시가 없음.
- 평가모니터링 연구용역을 통해 현장모니터링(전문가, 도민)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충남도에서 행정 평가를 실시함. 상주단체 공연에 대한 만족도는 83.8점으로 나타남. 평가모니터링 결과를 단체들에게 배포하여 공유함. 다만, 평가결과는 차년도 지원심사에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정도이므로 평가환류 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제13절 전북

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그림 236]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전북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특성화 종합	71.1점
특성화 통합	72.0점
창작활성화	77.5점
교류활성화	71.7점
시민참여활성화	77.5점
지역특성화	70.0점
평균	73.3점

[표 263]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전북

• 예산가중치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5.1
교류활성화	11.1
지역특성화	7.7
창작활성화	76.0
합계	100.0

[표 264]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전북

• 자율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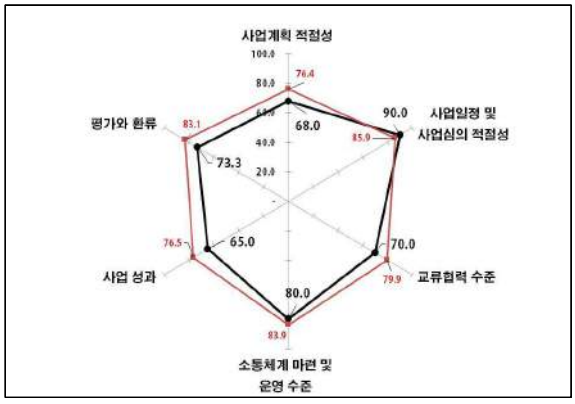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5.0
교류활성화	9.0
지역특성화	10.0
창작활성화	76.0
합계	100.0

[표 265]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전북

□ 전북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는 71.1점임. 전북지역은 4개 부문 사업을 모두 추진하였으며 4개 사업 모두 전반적으로 중상급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그림 237]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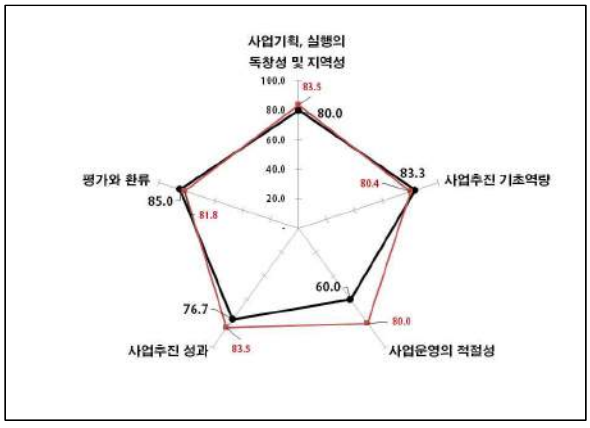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68.0점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90.0점
교류 협력 수준	70.0점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80.0점
사업 성과	65.0점
평가와 환류	73.3점

[표 266]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전북

- 전북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통합지표 부문의 평가결과는 72.0점임.
- 전북지역은 문화재단 비설립 지역으로 부서별로 BSC(Balanced Scorecard)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성화 사업 부문별로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문화예술단체 프로그램 지원 증가율' 이라는 성과지표 하에 창작활성화 중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의 지원실적 건수를 지표화 하고 있음.
- 전북지역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는, 열악한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한 '창작마중물 지원사업' 이 주요 사업으로 제시됨.
- 전북지역은 도 문예진흥기금지원 심의위원, 도내 대학 및 관련단체 추천자 등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타 지역 전문가를 35%정도 참여시키고 있음. 심의결과 발표 시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평 등이 홈페이지에 공개됨.
- 전북지역은 문화포럼을 격월로 개최하여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들과 지원사업 개선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다소 형식적인 개최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성화 사업별로 성과공유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
- 전북지역은 전문가 34명, 도민 모니터 30명(각 사업별 2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150개 단체의 사업을 평가하였음. 모니터링 결과는 100점 만점에 20점의 비중을 자체평가 점수에 반영하고 있음.
- 전라북도 공연/전시 정보사이트 '모여락' 을 개설 운영 하고 있으며, 월 1회 문화예술 홍보지 '얼쑤 전북' 3만 5천부를 발간하여 도내 전 지역에 배포하고 있음.

- 전북지역의 지원사업 중 소극장 지원사업은 작품제작비와 소극장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180일 이상의 가동일수를 지키도록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일주일정도 올려지던 공연이 2~3주간 개최되면서 더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할 수 있게 됨. 공연장 상주사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소극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공연창작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됨.
- 전라북도는 2016년을 목표로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100여명의 인원을 갖추고 지역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관광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북이 그동안 갖춰온 문화예술계의 인프라가 재단 설립을 통해 꽃을 피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3. 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그림 238]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전북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8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3.3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60.0점
사업 추진 성과	76.7점
평가와 환류	85.0점

[표 267]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전북

□ 창작활성화 부문의 개별지표는 9개 지표 60점 만점으로, 배점 5점의 지표 6개와 배점 10점의 지표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추진 단계별 지표수와 배점은,

[사업계획단계] '사업기획/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개 지표 10점,

[사업집행단계] '사업추진 기초역량' 2개 지표 15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2개 지표 10점,

[사업성과단계] '사업추진 성과' 2개 지표 15점,

[평가환류단계] '평가와 환류' 1개 지표 1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지표별 배점 등에 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평가지표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5점)은, 사업기획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는지, 사업실행 방식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정도를 평가함.

- 전북의 창작활성화 부문은 '소극장지원사업', '전북아트페어개최',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3천만 원에서1억 원 이내의 작품제작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소극장지원, 전북미술의 현주소의 재조명, 미술시장 개방화 준비, 역량 있는 작가군 육성, 예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북아트페어('전북 나우 아트페스티벌') 등 전라북도만의 특화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3.3점, 전북 지역 4.0점임.

□ 평가지표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 (5점)은, 기획사업 및 개별 지원사업의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함.

- 본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 소개를 통해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성을 밝혀 줘야 하나, 전북의 역사 문화적 고유성, 지리 생태적 특성을 소재로 한 작품을 제작 공연한 사례 5건의 단체명, 공연명, 지원액만을 소개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4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4.0점, 전북 지역 4.0점임.

□ 평가지표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5점)은,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취지에 맞는 선정기준(예컨대, 예술적 수월성)을 설정하고 있는지, 지원 단체 선정율과 평균 지원액의 규모가 적정하거나 연차별로 개선되고 있는지,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소극장지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의 경우 작품의 예술성, 창작성, 참신성 등을 선정기준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은 작품의 대중성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음.
- 선정율은 각각 60%(소극장), 30.3%(무대공연), 58.9%(지역문화)이며, 평균지원액은 순서대로 62백만 원, 20백만 원, 3.6백만 원으로 각각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3.5점, 전북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10점)은,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율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여부, 단체(개인) 지원신청 자격 명시 여부, 선정단체의 사업수행 적합성 정도, 신규단체 참여확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배려 여부,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정도 등을 평가함.

- 전라북도에 소재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수는 22개(' 14년 말 기준)로 소극장(전체 선정 3개), 무대공연(20개), 육성지원(499개) 사업으로 지원 선정한 전문예술법인은 4개 단체이며, 사업수행에 적절한 단체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7.8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5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7.9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6.5점, 전북 지역 8.0점임.

□ 평가지표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 (5점)은,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사업 설계 및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평가함.

- 본 평가지표에 적합한 설명이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5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3.0점, 전북 지역 3.0점임.

□ 평가지표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5점)는, 특화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주민 참여와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그리고 지원수혜단체의 홍보/기획/마케팅 담당자 대상의 교육, 자문, 워크숍을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자체평가보고서에는 지원사업 설명회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심화인터뷰 시 선정단체 간담회와 문화포럼도 개최하는 것으로 설명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3.1점, 전북 지역 3.0점임.

□ 평가지표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5점)는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의 수준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했는지, 그 성과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 소극장지원사업 3개, 전북아트페어개최 1개,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19개,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499개 단체를 지원함.
- 총 관람객 수 840,456명, 발표작품 수 창작초연 11,160건, 기존창작품 3,482건, 외국작품 516건, 참여예술인 수 13,454명이며,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 도출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육성지원 499개 사업별 성과만을 제시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3.6점, 전북 지역 4.0점임.

□ 평가지표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10점)는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창작활성화 부문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를 창출했는지, 제시한 최우수프로젝트(Best Practice)가 타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국내외 각종 수상(受賞), 인증, 페스티벌 초청/참가, 예술시장에서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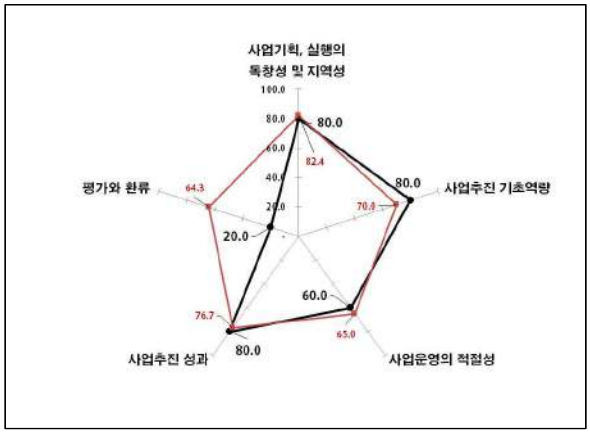
-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로 서동오페라단의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악 전통이 강한 전북지역의 대표브랜드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인터뷰 심사과정에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은 아니나 도비, 국비로 시행하는 전북 대표문화브랜드 공연인 〈뮤지컬 춘향〉의 경우 작년부터 총136회를 공연했으며, 이밖에 전북브랜드 작품으로 〈아리울 스토리〉, 한옥자원을 활용한 공연 등에 대해 설명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9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3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7.0점, 전북 지역 7.5점임.
-

□ 평가지표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10점)는, 시민 모니터링과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과 결과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평가함.

- 전문가 34명, 도민모니터 30명 등 64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으로 하여금 150개 단체(무대공연 19, 육성지원 131)의 행사를 모니터링하고 관객 만족도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차기연도 지원심의에 반영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9.0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4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6.6점, 전북 지역 8.5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는 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9.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54.4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9.4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40.6점, 전북 지역 46.5점임.

4.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그림 239]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전북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8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60.0점
사업 추진 성과	80.0점
평가와 환류	20.0점

[표 268]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전북

□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신규 장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워크숍과 타 지역 사례분석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 것은 바람직했으나, 타 지역 사례분석 및 전문가 컨설팅이 동일인들에 의해 이루어졌음. 효율성 면에서는 바람직하겠으나 컨설팅이 구비해야 할 다각적인 시각과 방법론 제시 및 안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만족될 수 없는 방식임.
- 또한 공연예술분야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전북지역만의 차별화된 기획이라는 논리는 다소 허약하게 인식됨. 타 지역의 공연분야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에 대한 조사에 기초한 차별성이 제시되어야 함.
- 군산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역사성 및 지역읽기 프로그램으로서 우수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음.

□ 사업추진 기초역량: 선정기준은 타당하나 심사위원의 공평성을 판단할 자료가 누락됨.

□ 사업운영의 적절성

- 교류 활성화 부문에서 지역의 문화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수요조사에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활용한 것이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공청회에 참여한 지역 문화계 인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방청객의 상향식 수립 방식에 대한 권고 등에 대한 피드백은 드러나지 않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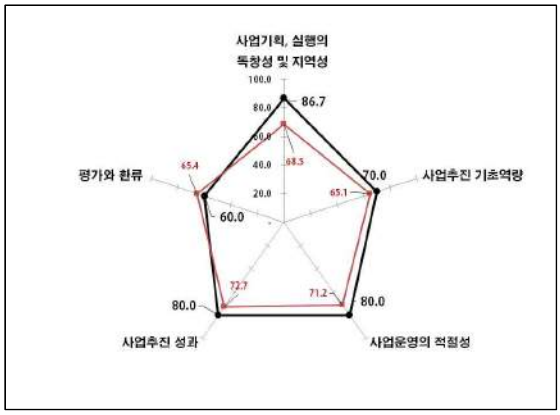
□ 사업추진 성과

- 사업을 수행한 7개 단체의 성격이 공연, 시각으로 구분되는데 행사횟수, 일수, 창작 초연, 기존 창작 등으로 단순 빈도를 내고 있어, 장르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상태임.

- 군산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전북의 대표 브랜드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창작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에 비해 교류활성화의 측면에서는 다소 제한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음. 대구와 부산지역과의 교류가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류 대상의 확대가 모색되어야 할 시점임. 과거의 역사나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역사를 추동해가는 문화예술계의 창작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국외 교류 대상에게도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시각을 넓힐 것이 요망됨.
- 그리고 군산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브랜드화가 진행되어 각광을 받는 것에 비해 다른 레지던시 사업들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희소함.

□ 평가와 환류: 모니터링과 관객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지 않음.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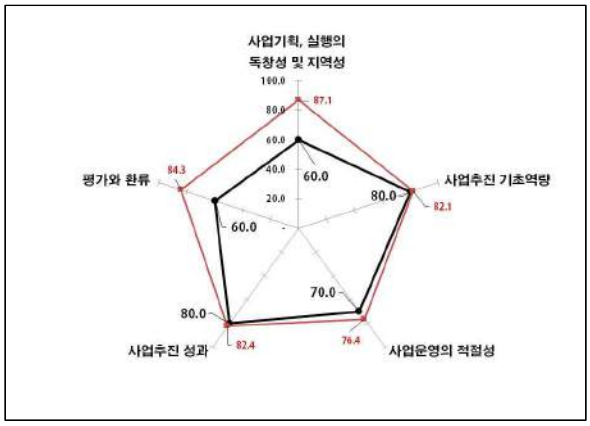
[그림 240]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전북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86.7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7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0.0점
사업 추진 성과	80.0점
평가와 환류	60.0점

[표 269]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전북

- 전북 지역은 시민참여활성화 부문에 우리가락우리마당을 넣었고, 전문가 중심의 조직을 구성하여 총 21회 운영, 20,000명 관람객참여 하였음.
- 전문예술법인 문화예술사회적기업 전통문화마을 선정하였고, 개 폐막 특별기획, 공연전 체험행사, 전래놀이(비석치기, 실뜨기, 나무필통만들기, 오색실팔찌)등 시민참여프로그램 진행함.
- 전북마을기업 마을장터운영, 아름다운 가게 전북본부 찾아가는 나눔장터 개최 등 연계 추진함.
- 테마가 있는 문자보내기, 이야기판작성, 관객스타킹, 프로포즈, 등 다양한 기획홍보 진행.
- 문화취약지역과 함께하는 도민 문화복지를 실현하였고, 문화예술동호회 등 열린무대참여, 우리가락우리마당 중심 커뮤니티 구성하였음.
- 안내데스크 배치, 설문판, 이야기판 게시, 문자발송서비스, 원음방송 안내방송 22회, 자막광고, 라디오 인터뷰 및 방송 등 홍보활동 진행함.
- 마니아층 공략, 교육청협력 청소년 층 공략, 문화관광프로그램 연계 공동마케팅 진행.
- 총43개 단체, 447명 출연, 관람객 20,000명, 지역신문 10개 매체 평균 4회 노출, 방송 평균 2~3회 노출.
- 지역사회 단체, 업체 등과 연계 강화(20여곳에서 300개의 상품제공)
- 전통체험 21회, 동아리 및 시민참여 열린무대 8회, 나눔장터 3회, 문화나눔장터 3회 진행함.
- 전통예술공연 지역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전북도청 야외무대 명소화 추진.
- 시민모니터링, 관람객만족도조사 진행함.

6.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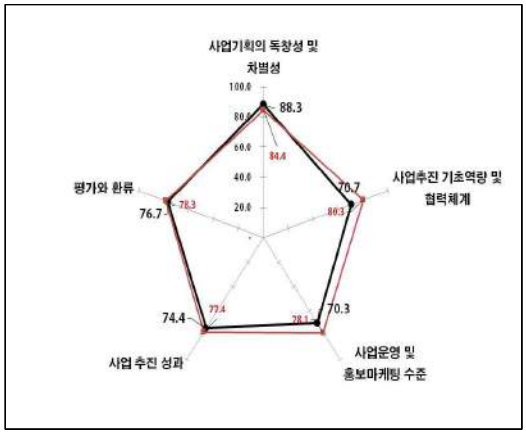
[그림 241]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전북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6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70.0점
사업 추진 성과	80.0점
평가와 환류	60.0점

[표 270]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전북

- 사업기획 실행 독창성은 60.0 점, 사업추진 기초역량은 80.0점, 사업운영의 적절성은 70.0점, 사업추진성과는 80.0점, 평가와 환류는 60.0점을 획득하였음. 사업기획 독창성과 평가환류 부분이 전국 평균 수준에 미달하고 있음.
- 지역특성화사업의 취지인 지역 특화문화자원과 연계성이 높지 않게 기획하였으며, 추진 방법상 독창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평가됨. 실행방식에 있어서도 특별히 효과적인가를 먼저 파악하여 사업을 지속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외전시 지원을 하고 있음. 이 사업은 단지 개별적인 사업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지역특화사업으로 분류하여 본래 취지를 맞춘 사업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 전라북도 해외전시사업(8개), 창작마중물지원사업(20명)을 선정했음. 평균 지원 금액은 해외전시지원 17,500천원, 창작마중물 지원 5,000천원이었음. 지원 선정율과 평균 지원 금액은 전년도 14,000천원보다 다소 상향된 수준으로 이루어졌음. 이 사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사업운영의 대상이 소수 작가들에 한정되는 점이 사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아쉬움. 그 과정에서 주민전체에 대한 의견수렴 필요가 없었으며,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수요를 파악하는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보임. 절차적인 면에서 당연한 사업방식이지만 주민들이나 예술단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봄.
- 해외전시지원과 창작마중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이 때 총 추진 사업은 28개로서 적정한 것으로 보임.
- 사업성과에 대하여 시민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 등을 별도로 시행해야하는데 이 점을 소홀히 하고 있음. 해외전시에 대한 시민평가는 어렵기 때문으로 보임.

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24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전북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88.3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70.7점
사업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70.3점
사업 추진 성과	74.4점
평가와 환류	76.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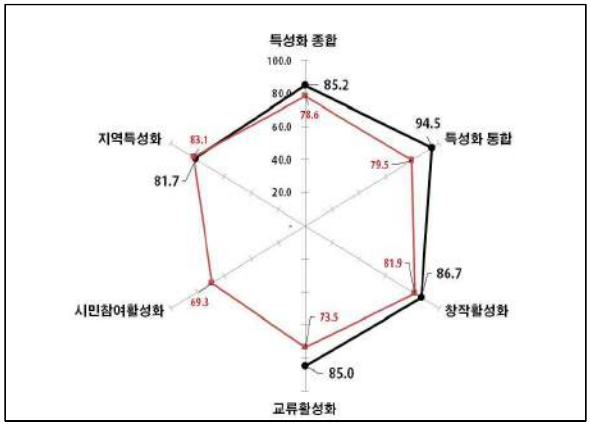
[표 27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전북

- 전라북도내 주요 도시에 위치한 시설이 우수한 공공공연장의 경우 공연장 대관수요가 높아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의 참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관수요가 적은 시군문예회관과 지역 내에서 공익성을 유지하며 공연예술계와 지역에서 파급효과가 큰 민간공연장을 수용하여 5개 공연장중 민간공연장 2개소가 참여함.
-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공연예술단체의 대부분이 전라북도의 중심지인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시군문예회관의 경우 해당 시군지역에서 상주단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 공연예술단체를 시군문예회관에 매칭하고, 문화소외 시군지역 공연장을 3개소 선정함.(정읍사예술회관, 김제문화예술회관, 부안예술회관)
- 선정심사기준에 지역 고유성을 포함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상주단체 프로그램의 지역 특화소재 반영 사례로서 극단 까치동의 지역 스토리텔링을 반영한 '은행나무 꽃' 과 지역 특산품(문화자원)을 활용한 '한지인형극 동동동 팥죽할멈' 공연 창작 사례를 제시함. 지역의 역사성을 담은 창작 작품으로 사단법인 드림필의 창작 뮤지컬 '인월' 사례를 제시함
-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내부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함. 외부 심사위원 비중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전문예술단체는 9개 단체 중 3개로 33.3%를 차지함. 전문역량을 갖춘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공공 공연장의 기획역량 보강이 필요함. 민간위탁중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세 상주단체의 공연장 사업비 20%를 모아 공연장의 기획전문인력을 채용함.

- 상주단체 협력제작, 전북–타지역 협력 작품 제작과 인적교류 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상주단체와 전북 브랜드 공연팀도 교류하고 있음. 다만, 공연장과 상주단체간의 협력, 상주단체와 공연장의 외부 협력, 전북도와 상주단체 · 공연장 간의 협력, 전북도의 외부기관 협력에 대한 기술이 충분하지 않음.
- 교육, 간담회, 워크샵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15회의 공연장상주단체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함.
-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로 활동한 '연극하는 사람들 무대지기'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실버극단을 구성하여 교육프로그램운영과 연극공연을 기획하여 거창실버연극제에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함.
- 전라북도 공연전시 통합 홍보를 위하여 구축한 '모여락'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연장 상주단체 공연을 홍보하고 있음. 홍보마케팅 채널의 다각화 필요함.
- 지자체 공모를 통해 부안을 개최지로 선정하고 부안군으로부터 특별예산(11백만원)을 지원받아 제2회 전북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을 개최함. 개최지 선정부터 페스티벌 기획/운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공연장상주단체협의회의 협력을 통해 추진됨.
- 극단 까치동, 극단 무대지기 등의 국내외 대회 수상 및 축제 초청 사례가 제시됨.
- 성과목표를 각 상주단체가 수행한 이행실적, 추진실적 등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음. 전북도 차원의 공연장상주사업 성과목표와 목표수준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고 이의 달성 수준을 제시하여야 함.
- 전문가 평가, 행정평가를 진행하였으나, 관객만족도 조사와 시민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2년차 사업 계속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에 반영하여 환류함.

제14절 전남

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그림 243]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전남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특성화 종합	85.2점
특성화 통합	94.5점
창작활성화	86.7점
교류활성화	85.0점
시민참여활성화	미추진
지역특성화	81.7점
평균	86.6점

[표 272]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전남

• 예산가중치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0.0
교류활성화	21.4
지역특성화	30.7
창작활성화	47.9
합계	100.0

[표 273]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전남

• 자율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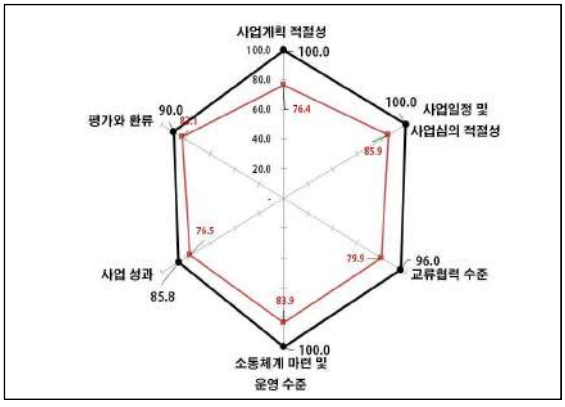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0.0
교류활성화	100.0
지역특성화	0.0
창작활성화	0.0
합계	100.0

[표 274]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전남

□ 전남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는 85.2점임. 전남지역은 시민참여 활성화 부문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으며, 추진한 사업들은 평균 80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음.

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그림 244]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전남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100.0점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100.0점
교류 협력 수준	96.0점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100.0점
사업 성과	85.8점
평가와 환류	90.0점

[표 275]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전남

□ 전남지역의 특성화 지원사업 통합지표 부문 평가결과는 94.5점임

□ 전남지역은 재단 비전, 전략, 중점사업의 체계와 연도별 재단 발전방안에 따라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성화 사업별로 목적의 설정이 비교적 명확하고 계량적/비계량적 성과목표 제시와 함께 그 성과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음.

□ 수행단체 대표자회의(10회), 재단 내 스터디(10회), 연구모임 '글로컬'(5회), 수행단체 실무자 회의(5회), 문화예술 좌담회(3회), 기타 자문위원회, 교육지원센터 공동워크숍, 라운드테이블 등 각 2회의 재단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또한, 문화예술 전문기획자 양성과정(총 13주)을 2년째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면서 지역 문화기획인력 양성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전남지역은 심의 결과를 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있는 전남도 조례를 '14.6월 폐지하였으며, 심의위원은 당연직(지역협력관) 1명, 위촉직 4명(외부위원 50% 이상 위촉)으로 구성하고 심사 진행 과정과 결과, 심의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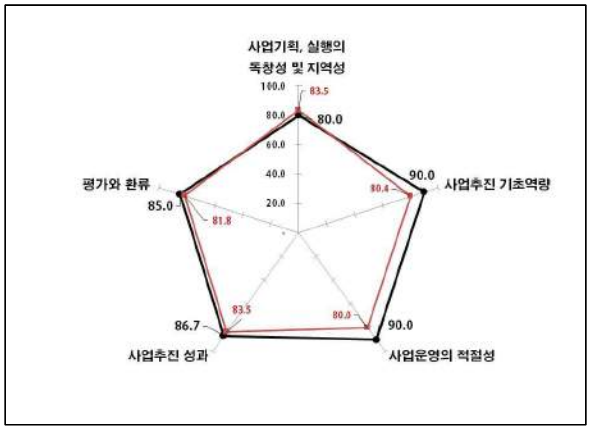
□ 전남지역은 협력네트워크 구축, 공동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예술단체(예술인)들과 소통 및 교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음. 관계기관 및 예술인 소통을 위한 SNS(밴드) 개설 활용 및 라운드테이블, 자문위원회, 좌담회 등 8개 유형의 소통채널을 통해 31회 모임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

□ 지역내, 지역간 교류로는 도내 각종 기관/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예술위, 광주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서울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한국메세나협회 등과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음. 국제교류활동으로는 중국 시안 비림박물관과 서예교류전,

대만 문화부와 국제교류전 업무 협약, 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전시를 위한 업무 체결 외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해오고 있음.

- 모니터요원 23명을 선정하여 3백만원 이상 지원사업 127건을 모니터링하였으며, 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 2차례 워크숍을 진행함. 자체평가 결과는 차기년도 지원단체 평가에 5%를 반영하고 있음. 관객만족도 조사는 재단 직원 및 도민 모니터요원이 직접 85개 지원사업 관객 5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됨.
- 장기 홍보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홍보 추진, 재단 지원사업 홍보물 '아트도도' 연 2회 각 3,000부 및 재단 소식지 '문화랑' 연 2회 각 3,000부를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재단 지원사업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SNS와 Youtube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음.
-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체계와 환류시스템 개선, 그리고 구체화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계량적 성과목표를 관리하고 있음. 2014년에 5개 계량적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됨. (지원예산 확대, 참여예술인 확대, 신규단체 선정비율 확대, 평균지원액 증가, 선정율 50% 유지 등)
- 전남지역 지원사업 중 무안군과 함께한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자체평가되었으며, 지역내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지원 역량을 끌어올리고 지역민들의 문화적 안목을 높이는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그림 245]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전남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8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9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90.0점
사업 추진 성과	86.7점
평가와 환류	85.0점

[표 276]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전남

□ 창작활성화 부문의 개별지표는 9개 지표 60점 만점으로, 배점 5점의 지표 6개와 배점 10점의 지표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추진 단계별 지표수와 배점은,

[사업계획단계] '사업기획/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개 지표 10점,

[사업집행단계] '사업추진 기초역량' 2개 지표 15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2개 지표 10점,

[사업성과단계] '사업추진 성과' 2개 지표 15점,

[평가환류단계] '평가와 환류' 1개 지표 1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지표별 배점 등에 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평가지표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5점)은, 사업기획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는지, 사업실행 방식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정도를 평가함.

- 전남의 창작활성화 부문은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각 장르 지원과 함께 신진예술가 지원, 도민 한울타리 생활문화 지원, 이주민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재단목표 설정에 재단 중장기발전계획과 전남도의 도정목표와 중장기정책을 반영하고, 6대 전략과 10대 중점사업, 세부사업 설정 등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업체계 구축 시 전남의 지역적 고유성을 반영하였음.
- 사업기획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구성하고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개편했으며, 공정한 지원사업체계 확립과 사업운영 평가결과 환류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였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2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전남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5점)은, 기획사업 및 개별 지원사업의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함.

- 예술계의 자율적 창작생태계 조성 및 지역문화 육성 노력, 지역특색 반영을 위한 심의기준 마련과 기획체계, 채널 구축 등 전남지역 특색 발굴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 찾아가는 좌담회, 도민 한울타리 생활문화 지원, 이주민 공연예술 및 문화축제 지원,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지원, 아카이브 구축, 신진예술가 지원 등 6건을 전남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나 연계 정도와 독창성이 다소 약한 사례로 판단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3.9점, 전남 지역 3.5점임.

□ 평가지표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5점)은,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취지에 맞는 선정기준(예컨대, 예술적 수월성)을 설정하고 있는지, 지원 단체 선정율과 평균지원액의 규모가 적정하거나 연차별로 개선되고 있는지,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창작활성화 부문 선정기준으로는 작품의 예술적 수월성에 대한 배려는 약한 편이나, ’14년 선정율 51.4%(’13년 51.7%), ’14년 평균지원액 3,252천원(’13년 2,660천원)으로 평균지원액에서 개선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신규단체 선정비율이 58.0%로 ’13년 대비 22.0% 상승했고, 예총 등 협회에 대한 지원은 18.4%로 ’13년 대비 6.4%가 감소하는 바람직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중복지원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3점, 전남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10점)은,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율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여부, 단체(개인) 지원신청 자격 명시 여부, 선정단체의 사업수행 적합성 정도, 신규단체 참여확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배려 여부,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정도 등을 평가함.

- 전남지역 등록 전문예술법인(단체) 29개(’14년 말 기준) 중 진돗개공연단 등 문화예술 지원으로 부적합한 4개 단체를 제외하고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17개,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으로 8개 등 25개 법인(단체)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심사 특별기준으로 지원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신규단체 우대를 명시하여 신규 단체 선정율 ‘13년 36.4% → ‘14년 58.0%로 증가함.
- 선정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구성하고 컨설팅(상시), 워크숍(5회), 현장평가(2회), 현장견학, 전문가 초청강연, 전문기획자 양성교육(13주), 찾아가는 좌담회(2회), 지역거버넌스 좌담회, 심포지엄, 중간점검보고서 검토, 상호평가워크숍, 대표자/실무자 회의(사업별 5회), 결과보고집 제작 보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레지던스 사업 실적과 섞여 있기는 하나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남도, 22개 시 · 군, 상상문화발전소 등 6개 수행단체, 광주은행, 농협, 미디아트, 도내 언론기관 및 교육기관 등, 그리고 예술위, 전북도, 6개 광역문화재단, 한국메세나협회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7.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7.9점, 전남 지역 9.0점임.

□ 평가지표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5점)은,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사업 설계 및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지역사업에 관해 지역예술인, 22개 시/군 문화예술관계자들이 지역민의 수요를 조사하고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이를 사업 수립에 반영하고 있음. 특히 재단 직원과 도민 모니터요원이 8개월에 걸쳐 85개 지원사업에 참여한 고객 587명(남 244, 여 335)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여론 전문조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매우만족/만족 응답자가 80.4%로 집계됨. 예술인과 관객들의 개선 요구사항 네 가지를 지원사업에 반영하여 전면 개편함.
- 지역 예술인들과 상호 소통과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소통 채널로 라운드테이블(2회), 자문위원회(2회) 공동워크숍(2회), 문화예술좌담회(3회), 연구모임 글로컬(5회), 평가워크숍(2회), 수행단체 대표자회의(10회), 실무자회의(5회)를 개최하였음. 이밖에도 지역예술인, 그리고 무안군과 함께 하는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전남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5점)는, 특화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주민 참여와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그리고 지원수혜단체의 홍보/기획/마케팅 담당자 대상의 교육, 자문, 워크숍을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함.

- 홍보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하고 있어 장기적인 홍보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도 대변인실, 언론기관과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언론 보도자료를 아카이브화 하고 있음. – 재단 지원사업 홍보물 '아트도도'(상/하반기 2회 각 3,000부), 재단 소식지 '문화랑'(상/하반기 2회 각 3,000부), 재단 사업을 124개 영상물(다큐, 단편 등)로 제작하여 SNS를 통해 홍보하고 광주 MBC, 목포 MBC '시청자가 만드는 TV세상'에서 상시 방영하고 있음. 이밖에 아르코 웹진,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월간지 '예향' 등에 홍보기사 게재
- 선정단체의 홍보/마케팅/기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자문/워크숍 추진실적에 대한 언급은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전남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5점)는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의 수준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했는지, 그 성과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계량적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2014년도 5개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음.
- 총 관람객 수 479,791명, 발표작품 수 창작초연 19,773건, 기존창작품 5,080건, 외국작품 202건, 참여예술인 수 18,293명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전남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10점)는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창작활성화 부문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를 창출했는지, 제시한 최우수프로젝트(Best Practice)가 타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국내외 각종 수상(受賞), 인증, 페스티벌 초청/참가, 예술시장에서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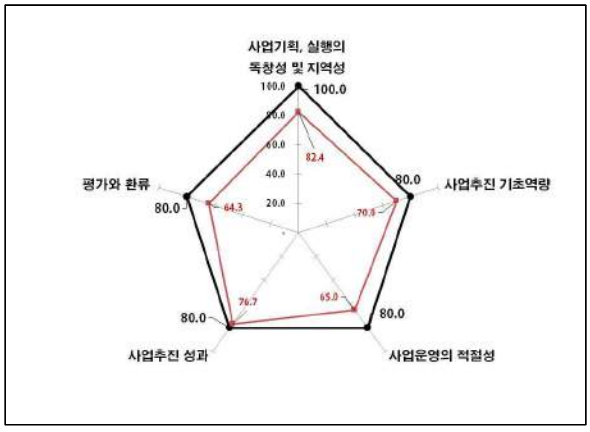
- 지역문화예술인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맞춤형사업을 추진했으며, 구체적인 성과로 찾아가는 좌담회(지원사업 컨설팅), 도민 한울타리 생활문화 지원(동호회 등 도민의 자생적 문예활동을 통한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이주민 공연예술 및 문화축제 지원(이주민과의 문화격차 해소와 이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지원(타 시/도 및 국제 문화교류 지원), 신진예술가 지원(도내 신진예술가 발굴 육성으로 예술창작의 저변 확대) 등의 사례를 제시
-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와 그 수준, 최우수프로젝트(Best Practice)의 상대적 우수성, 수상/인증/국내외 페스티벌 초청참가/예술시장 유통판매 실적에 대한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적절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3점, 전남 지역 8.5점임.

□ 평가지표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10점)는, 시민 모니터링과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과 결과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평가함.

- 총 23명의 도민 모니터요원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3백만 원 이상 지원사업 127건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차기연도 지원 심의 시 5% 반영, 심화인터뷰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집중지원사업의 경우는 사업 당 3명, 소액다건 사업은 사업 당 1명이 평가했음.
- 재단직원 및 도민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85개 지원사업에 참여한 관객 587명(남 244, 여 335)에 대해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만족도는 80.4%이며 개선 요청사항을 사업 개선에 반영할 계획임.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4점, 전남 지역 8.5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는 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9.1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9.4점, 전남 지역 52.0점임.

4.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그림 246]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전남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10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0.0점
사업 추진 성과	80.0점
평가와 환류	80.0점

[표 277]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전남

□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심의기준 자체에서 예측되는 성과 내용으로 지역의 특색을 얼마나 반영하였는지의 반영도를 넣는 등 기획력을 발휘하였고, 결과적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 수행기관 6개 모두 지역 특화소재를 반영한 활동이 전개되었음.

□ 사업추진 기초역량

- 응모 기관 수가 거의 정체되어 있어서, 전년도 지원의 성과나 결과에 대한 문화계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선정단체 수를 유지한 것은 안정성 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홍보 미흡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
- 선정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을 추진한 점은 바람직함.
- 전문예술법인과 단체의 독려를 개선방안으로 자체 제시하고 있음.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숙박시설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킬 법인과 단체가 많지 않다는 결론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단체들이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임. 전수조사를 통해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미래 방향 등을 설계해야 함. 전문예술법인과 단체가 29개이므로 전수조사가 가능

□ 사업운영의 적절성

- 관객 만족도가 1.2%(79.2% → 80.4%) 상승 했는데, 조사대상은 587명이었음. 이 내용 외에도 예술인이나 관객들의 개선 요청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나 교류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언론 노출 건수는 2012년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보도 자료는 2012년보다 적은 횟수로 배포되었음.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부처, 모든 언론과 방송에서 문화부문의 필요성과 문화부문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시대의 추세에 비해 이러한 홍보 관련 언론 노출 증가 건수가 낮은 것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함.

□ 사업추진 성과

- 교류 건수가 4건에서 22건으로 증가하였고, 국외 다양한 권역의 기관들과 교류가 수행되었음.
- 국내에서도 다양한 지역과 교류를 수행했으며, 수행단체 성과목표 대비 계량적 성과를 제시한다는 서술은 있지만, 목표치는 제시됨이 없이 성과치만 존재하고 있음.
-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경우 계량적 성과목표는 지원예산과 참여예술인 확대를 10% 이상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했으나, 10%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단순히 레지던스 실무자회의 3회 → 5회, 국제교류지원 2건 → 4건으로 확대된 것을 상기 기준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본다면 다소 기계적이라는 평가 가능
- 지역 대표브랜드가 된 사업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정도의 여론과 합의에 의해 브랜드로 인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나 설명보다는 계량적 성과만 다시 한번 반복하여 기술되고 있음. 이는 지역 대표 브랜드에 대한 개념이 문화행정가와 기획자들에 의해 정립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음. 사진학회 등에서 최우수작품 선정, 국내외 페스티벌 참가 실적 등은 인정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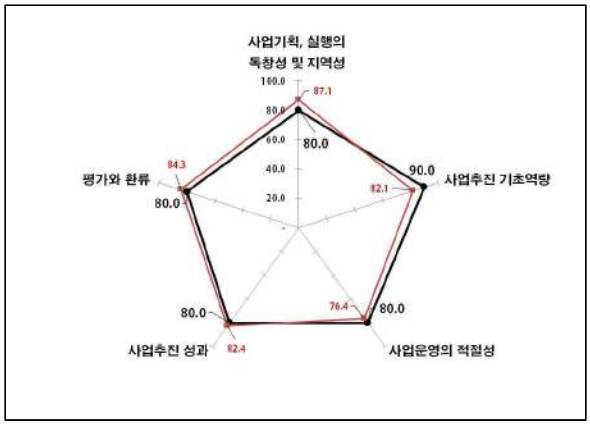
□ 평가와 환류

- 모니터링 건수가 336건에서 587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평가결과는 인센티브로 반영하고 있음이 서술은 되고 있고, 모니터링 건수의 증가는 바람직하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규모가 확대되었을 경우, 그러한 모니터링 건수가 실제 사업 수행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다건의 모니터링의 결과가 과연 환류 되어, 실제 사업수행자들의 차기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체계화되어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일 수 있음.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 전남 지역은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

6.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그림 247]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전남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8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9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0.0점
사업 추진 성과	80.0점
평가와 환류	80.0점

[표 278]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전남

□ 사업기획 실행 독창성은 80.0 점, 사업추진 기초역량은 90.0점, 사업운영의 적절성은 80.0점, 사업추진성과는 80.0점, 평가와 환류는 80.0점을 획득하였음. 각 항목에서 전국 평균 수준을 고르게 유지하고 있음.

□ 재단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 가운데 일부는 지역특성화 자원과 연계시켜 추진했다는 점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징적인 추진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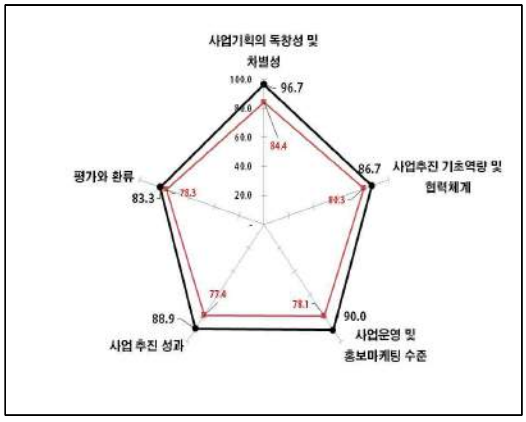
□ 사업선정은 79개 신청을 받아서 13개를 선정하여 선정율은 16.4%로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 평균 지원 금액은 43,230천원으로서 전년지원금 33,285천원 보다 다소 증액되었음. 17개 지원수혜법인 중 전문예술법인은 1개로서 선정율이 낮은 편임.

□ 평가와 환류에서는 개별사업을 단위로 하는 평가라기보다는 재단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하는 수준에서 추진했음.

□ 사업별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도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음. 이를 추진하는 방법은 주민의 관심을 이끌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관점에서 워크숍 등의 방식으로 추진했음.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전반에 걸쳐서 도민 모니터링단을 추진하였으며, 전문적인 평가는 추진하지 않았음.

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24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전남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96.7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86.7점
사업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90.0점
사업 추진 성과	88.9점
평가와 환류	83.3점

[표 279]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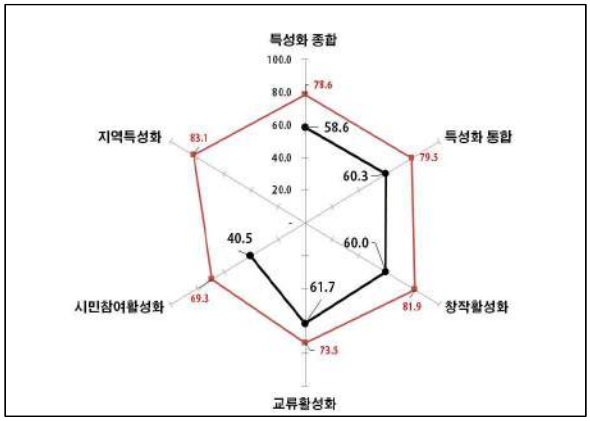
- 재단과 전남도의 상위 정책, 지역의 문화수요, 2013년 운영 평가 결과 등으로부터 도출된 개선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지원사업 과제를 도출함. 2014년도는 특히 지자체와 공연장의 참여 확대, 수행단체의 지역 안착에 주력함.
- 상주단체 프로그램의 지역특색 반영을 위해 평가지표에 지역 특색 반영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재단 담당자 역량강화, 전문가 자문회의 & 예술인 의견수렴, 도내외 관계기관 협력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 특색 발굴을 위한 사업 기획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극단선창의 '목포는 항구다', 극단 갯돌의 '국악뮤지컬〈파랑새〉' 등 7개 상주단체 모두 지역 특화소재를 반영한 창작 작품을 제작 공연함.
-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평가(필요시), 3차 종합토론(인터뷰평가)을 거쳐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7개 단체 모두 전문예술단체로서 전문역량을 갖춘 단체가 선정되었음.
- 공연장의 전문성과 기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신청 단계부터 심의 및 평가에 공연장 담당공무원과 공연단체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공연장 담당자와 공연단체의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7/31) 공연장 담당자의 사업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함
- 특히, 극단 갯돌의 경우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14 문화예술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전문인력을 상주공연장인 승달문화예술회관에 배치하여 상주단체 지원사업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연장의 전문인력 부재 상황을 상주단체가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상주단체 간 협력을 통한 콜라보레이션 공연이 활발함(무용과 연극 – 장미영 무용단(무용)+극단미암(연극)+이원국 발레단(무용), 무용과 오케스트라 – 장미영 무용단(무용), 순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음악))

-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협력사업, 협력네트워크. 업무협약. 역량강화 분야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협력을 꾀하고 있음. 공연장과 상주단체간의 협력, 상주단체와 공연장의 외부 협력, 재단과 상주단체 · 공연장 간의 협력, 재단의 외부기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자발적으로 상주단체 공연을 서로 관람하고(극단갯돌, 극단미암. 순천필하모닉, 호남필하모닉 등 참여), 관람 후 우수한 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상주단체간 자체 공연 모니터링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체 간 질적 교류 및 교류공연이 확대되고 있음(전남 상주단체 간 교류공연 3건 증가)
- 단체, 지자체, 재단이 함께 추진한 공동협력사업 사례로서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대표자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극단 갯돌 등 상주단체를 중심으로 9개 단체가 참여하여 무안군과 함께하는 어울마당을 개최함.
- 지역 문화수요 반영을 위해 라운드테이블(2회), 자문위원회(2회), 담당자 워크숍(5회), 공연예술 좌담회(1회), 수행단체대표자/실무자회의(5/5회), 평가워크숍(10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여 사업을 추진함.
- 지역의 연극 관련 환경과 수요를 분석하여 퍼블릭 프로그램에 반영한 극단 선창, 극단 미암, 극단 갯돌의 사례를 제시함. 극단 선창의 청소년연극교실 '연극아 놀자' 에 참가하는 연극동아리 라온은 전국청소년연극제 우수단체상, 전남청소년연극제 최우수단체상 등을 수상함.
- 홍보채널로서 재단 지원사업 홍보물, 소식지, 영상기록화, SNS, 홈페이지, 웹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홍보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하고 있음. 상주단체의 홍보마케팅 활동이 활발함. 다만, 재단 차원에서 상주단체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및 채널 다각화가 필요함.
- 지자체 공모를 통해 강진을 개최지로 선정하고 강진군으로부터 특별예산(10백만원)을 지원받아 전남 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 '남도 신명 樂 페스티벌' 을 개최함. 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 대표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재단, 강진군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함.
- 상주단체들간의 교류가 상시적이며 생활 속 교류가 활발해짐.(공연협력, 체육대회, 단원들간의 교류 등)
- 총 7개 상주단체의 국내외 공연 페스티벌 초청 공연 등 국내외 대회 수상 및 축제 초청 사례, 예술시장 판매실적, 레퍼토리화 실적이 제시됨.
- 재단의 중장기발전계획과 도정 목표를 반영하여 재단의 지원사업 전략과 목표를 도출하고 공연장 상주사업의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함. 공연장(단체) 역량강화, 유관기관 및 지자체 협력도 제고, 공연단체 교류활동 활성화, 지역민,예술인 의견수렴 및 소통 창구 확대를 목표로 추진함. 또한. 목표설정, 목표달성 노력, 성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함.

- 전문가 현장평가, 행정평가, 성과평가, 도민모니터링을 실시함. 공연장상주사업의 관객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평가결과는 차기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에 반영하여 환류함.
- 지원단체 선정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 중 2인을 책임평가위원 위촉함으로써 사업기간 동안 현장평가, 컨설팅, 평가워크숍, 최종 평가위원회에 참여토록 하여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성과 평가시에는 평가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을 수행한 상주 단체들 간의 성과(의견)공유와 상호 평가를 통해 사업들간의 개선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진행함.

제15절 경북

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그림 249]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경북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특성화 종합	58.6점
특성화 통합	60.3점
창작활성화	60.0점
교류활성화	61.7점
시민참여활성화	40.5점
지역특성화	미추진
평균	56.2점

[표 280]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경북

• 예산가중치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13.5
교류활성화	12.5
지역특성화	0.0
창작활성화	74.0
합계	100.0

[표 281]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경북

• 자율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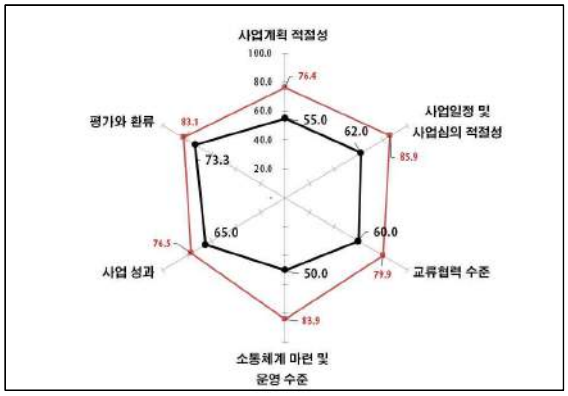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15.0
교류활성화	25.0
지역특성화	0.0
창작활성화	60.0
합계	100.0

[표 282]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경북

□ 경북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결과는 58.6점임. 경북지역은 지역특성화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나머지 3개 부문 사업만 추진한 것으로 확인됨.

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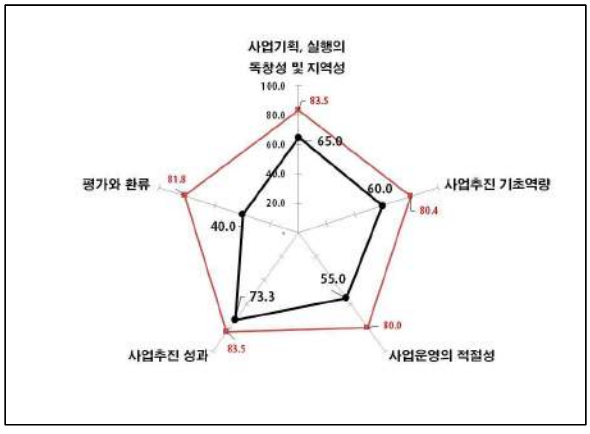
[그림 250]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경북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55.0점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62.0점
교류 협력 수준	60.0점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50.0ㅍ
사업 성과	65.0점
평가와 환류	73.3점

[표 28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경북

- 경북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통합지표 부문 평가결과는 60.3점임.
- 경북지역의 특성화 사업별로 사업목적을 제시하고 성과 목표와 다양한 지표도 제시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에 수립한 「경상북도 문화정책발전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비전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경북지역의 육성지원사업 사업공고는 '13.12.27, 심사결과 발표는 ' 14.3.4, 사업공고는 당초 계획일정보다 앞당겼으나 심사결과 발표는 계획일정보다 늦어진 것을 확인됨. 다른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됨.
- 경북지역은 심의위원 위촉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신청단체 연고자 배제, 지역 내부 대 외부 심의위원 수를 5 : 5로 유지하고 있음.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경북지역은 지역문화예술계 의견수렴을 위해 경북여성예술인 포럼(4개 분과 53명)을 개최하였고, 경북지역 예술동아리(40여 단체)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경북지역은 지역간 교류를 위하여 영호남 문화예술 교류사업인 2014 특화공연 공동제작 순회공연 '영호남 아라리요'(경북도립국악단 및 전남도립국악단 110명)공연을 고령과 장성에서 진행하였음. 또 2014 경북 · 전북 문화 공연 '함께 판, 나눔 판, 문화 판' 을 격년제로 경북도립무용단과 전북도립무용단이 방문 공연을 실시하고 있음. 국제교류에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지 않음.
-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메인 채널로 활용,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 지역 전문예술법인 및 예술인들의 사업을 홍보하고 있음.
- 경북지역은 선정단체에 대해 사업목적 및 성과도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간점검을 위해 자체평가계획에 따른 과정평가(현장평가)를 시행함. 최종 성과는 공연장 상주단체와 지역특성화 부문으로 구별하여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측정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3. 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그림 251]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경북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65.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6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55.0점
사업 추진 성과	73.3점
평가와 환류	40.0점

[표 284]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경북

□ 창작활성화 부문의 개별지표는 9개 지표 60점 만점으로, 배점 5점의 지표 6개와 배점 10점의 지표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추진 단계별 지표수와 배점은,

[사업계획단계] '사업기획/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개 지표 10점,

[사업집행단계] '사업추진 기초역량' 2개 지표 15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2개 지표 10점,

[사업성과단계] '사업추진 성과' 2개 지표 15점,

[평가환류단계] '평가와 환류' 1개 지표 1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지표별 배점 등에 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평가지표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5점)은, 사업기획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는지, 사업실행 방식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정도를 평가함.

- 경북의 창작활성화 부문은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문화예술기획지원'의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목적과 심의 기준을 검토해 볼 때 경북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은 창작활성화 부문이 아닌 시민참여활성화 부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은 문화역량 업그레이드와 주민밀착형 생활문화 확산에 목적을 두고, 아마추어 및 시민문화 예술단체 선정 비율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보다 많은 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문화예술기획지원'은 지역 특성 반영, 참신성과 독창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 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과 효과성에 대한 설명은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3.3점, 경북 지역 3.0점임.

□ 평가지표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 (5점)은, 기획사업 및 개별 지원사업의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함.

- 경북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거나 연계 수준이 높은 8건의 사례를 단체명, 공연명, 공연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4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4.0점, 경북 지역 3.5점임.

□ 평가지표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5점)은,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취지에 맞는 선정기준(예컨대, 예술적 수월성)을 설정하고 있는지, 지원단체 선정율과 평균지원액의 규모가 적정하거나 연차별로 개선되고 있는지,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선정기준으로 육성지원은 경북의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기여 사업, 기획지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참신성과 독창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함. 심화인터뷰 시 기존의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하는 심의제도를 2014년에 개선했음을 설명함.
- 다만 선정단체만 공개하고 탈락단체들의 공격 가능성 때문에 심사위원 명단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함.
- 선정율과 평균 지원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일반지원은 200~500만원, 집중지원은 500~1,000만 원 등 사업 규모 및 내용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음.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3ㅍ,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3.5점, 경북 지역 3.0점임.

□ 평가지표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10점)은,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율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여부, 단체(개인) 지원신청 자격 명시 여부, 선정단체의 사업수행 적합성 정도, 신규단체 참여확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배려 여부,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정도 등을 평가함.

- 경북에는 '14년 말 현재 20개 전문예술법인(단체)이 지정되어 있으나, 육성지원사업은 문화향수를 목표로 한 소규모 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기획지원사업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은 아니지만 도내 유수한 단체에 지원함. 심화인터뷰 시 2014년에 6개 정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답변함.
-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사항으로는 예술위원회 영남협력관의 심의위원 당연직 위촉 및 수시 연락체계 구축 등을 언급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7.8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5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7.9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 · 도 평균 6.5점, 경북 지역 6.0점임.

□ 평가지표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5점)은,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사업 설계 및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평가함.

- '해당 없음'으로 표기했으나, 심화인터뷰 시 예술인들의 문화수요는 연합회, 지회, 지부를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5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평균 3.0점, 경북 지역 2.5점임.

□ 평가지표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5점)는, 특화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주민 참여와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그리고 지원수혜단체의 홍보/기획/마케팅 담당자 대상의 교육, 자문, 워크숍을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함.

- 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활용하고 언론 홍보와 선정단체별 언론 홍보활동으로 지역민 참여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음. 심화인터뷰 시 도내 23개 시군의 소식지(월간)에 문화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 · 도 평균 3.1점, 경북 지역 3.0점임.

□ 평가지표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5점)는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의 수준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했는지, 그 성과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 275건 지원, 관람객 수 563,125명, 발표작품 수 275건, 공연횟수 595회, 참여예술인 수 18,252명으로 밝히고 있으나,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 도출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분야별 성과만을 제시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4.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 · 도 평균 3.6점, 경북 지역 3.5점임.

□ 평가지표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10점)는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창작활성화 부문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를 창출했는지, 제시한 최우수프로젝트(Best Practice)가 타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국내외 각종 수상(受賞), 인증, 페스티벌 초청/참가, 예술시장에서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평가함.

- 극단 영주의 청백리 성이성 '창작뮤지컬 이몽룡'은 지역브랜드 창출과 영호남교류 활성화 공로로 경상북도 문화상을 수상, 지역문화예술 창달 및 이몽룡마을문화제 등 공연문화 진흥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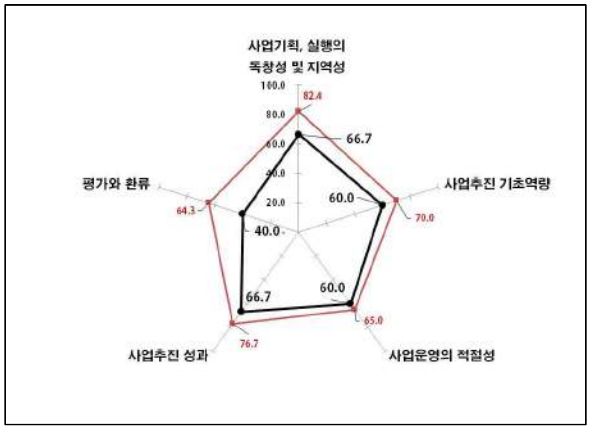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8.9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3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 · 도 평균 7.0점, 경북 지역 7.5점임.

□ 평가지표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10점)는, 시민 모니터링과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과 결과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평가함.

- '해당 없음' 으로 표기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9.0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4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 · 도 평균 6.6점, 경북 지역 4.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는 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9.1, 문화재단이 있는 6개 시 지역 평균 54.4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9.4점, 문화재단이 없는 시 · 도 평균 40.6점, 경북 지역 36.0점임.

4.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그림 252]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경북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66.7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6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60.0점
사업 추진 성과	66.7점
평가와 환류	40.0점

[표 285]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경북

□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지역재생과 신문화자원 창출이라는 목적의 지향은 적절했음. 전통계승과 해외작가 초빙, 지역공동체지원 프로그램의 강화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볼 때, 종합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문화재를 활용한 공연예술무대로 문화소외계층 없는 문화혜택 제공의 의도도 적절했음.

□ 사업추진 기초역량

- 선정기준으로 신진예술가의 안정적 창작 공간 및 대외적 인지도 확산과 문화 복지 증진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 내용들은 다소 추상도가 높아서, 잘못하면 결국은 주먹구구식으로 판단되고 운영될 수 있는 위험이 내재
- 사업 수행 기관 선정 시 영남협력관을 심의당연직으로 위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심의의 공평성을 위해서는 외부 위원의 비율 등이 제시되어야 함.

□ 사업운영의 적절성

- 프로그램은 잘 운영되었지만, 과연 수요분석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필요
- 인터넷 홈페이지와 단체별 개별 언론 홍보활동에 의존하고 있음. 새롭게 기획된 홍보 계획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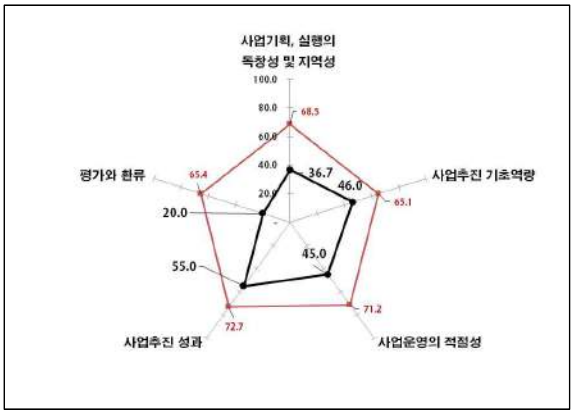
□ 사업추진 성과

- 2013년 대비 창작 참여자와 성과물과 관람객 수가 계량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폭으로 증대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비롯한 교류활성화 사업이 발전의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국외에서 참여한 입주 작가도 40%를 차지하고 있어, 창작 몰입 중에도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비계량성과로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수행기관의 학예실장이 '올해의 큐레이터 상' 을 받는 등 증빙자료가 제시되었고, 의미 있음. 특히 시안미술관 레지던시 입주작가는 작가 프로그램 등 지원을 통하여 완성된 창작품들과 그 과정들을 특별기획전시로 구성하여 전시하는데, 형태만으로 볼 때에는 오픈스튜디오나 결과 및 리포트 전시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매년 확보된 일정한 전시기간에 미술관 전관이 이 사업의 결과물을 통한 특별기획전시 공간으로 조성되는 특성이 있음.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입주할 당시부터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기획과 별도로 당 해의 전시기획을 별도의 기획을 통하여 진행하여, 입주작가들은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하여 전시의 방향을 세우고 이러한 과정에서 입주기간동안 공동의 목표가 생김으로써 더 높은 창작열의를 위한 동기를 부여받음.
- 이 특별기획전시는 시안미술관의 정식 연중기획으로 포함되어 양질의 도록제작과 인터뷰 및 홍보동영상제작을 통하여 전국 미술관을 비롯한 관련기관에 자료로 제공되어 입주작가들의 창작품의 가치를 드높이고 이들의 창작의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차후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음.

□ 평가와 환류: '해당 없음' 으로 기술됨.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그림 253]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경북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36.7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46.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45.0점
사업 추진 성과	55.0점
평가와 환류	2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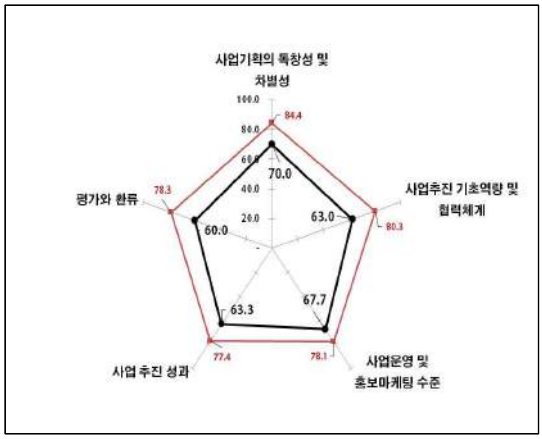
[표 286]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경북

- 경북 지역은 시민참여활성화 부문에 우리가락우리마당을 넣었고, 실내체육관 및 생활체육공원 일대를 문화향유 명소화 하였음.
- 신진예술가, 꿈나무, 동아리 활성화, 및 국악관련단체 상호교류 공연 진행함.
- 한국국악협회 경산지부 2012~2014년 계속진행 함.
- 지역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프린지 공연 실시, 다양한 장르 교육 체험 기회제공 함.

6.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 경북 지역은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음.

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25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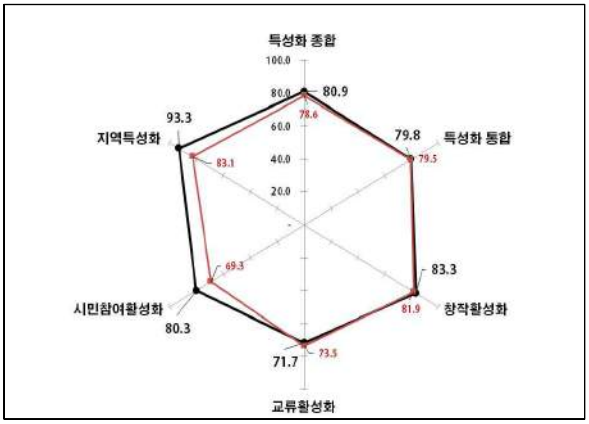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7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63.0점
사업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67.7점
사업 추진 성과	63.3점
평가와 환류	60.0점

[표 28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경북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북만의 독창적인 공연장상주사업 계획 및 운영 시스템을 확인하기 어려움.
- 상주단체 프로그램의 지역고유성 및 차별성 반영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이 제시되지 않음.
- 지역 특화소재를 반영한 사례로서 포항오페라단, 풍악광대놀이예술단, 안동국악단 등의 사례를 제시함.
- 내 · 외부 5:5 비율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던 심의를 개선하여 단체와 공연장이 심사에 참석토록 하였으며 불참시 탈락시킴. 전문예술단체는 10개 단체 중 5개로 50%를 차지함. 전문역량을 갖춘 단체가 선정되었으나, 공연장의 기획역량 보강이 필요함.
-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여부 및 수준 지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정한 기술이 없음.
- 지역 문화수요의 반영 지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정한 기술이 없음.
- 사업홍보 및 마케팅 지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정한 기술이 없음.
- 상주단체간 협력, 네트워크 수준 지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정한 기술이 없음.
-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제시가 없음.
- 사업성과목표 달성 수준 지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정한 기술이 없음.
- 자체평가 체계의 적절성 및 결과 지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정한 기술이 없음.
-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특성에 따른 사업계획, 운영체계, 사업수행 역량, 성과 등에 있어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경북도의 경우는 초보적인 수준의 퇴행적인 사업운영을 하고 있음.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 특히, 전문성 확보가 시급함. 전북도와 울산시의 사례처럼 예술지원전담팀 편성, 계약직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한 조직적/인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제16절 경남

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그림 255]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경남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특성화 종합	80.9점
특성화 통합	78.9ㅍ
창작활성화	83.3점
교류활성화	71.7점
시민참여활성화	80.3점
지역특성화	93.3점
평균	81.6점

[표 288]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경남

• 예산가중치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55.1
교류활성화	17.3
지역특성화	11.1
창작활성화	16.6
합계	100.0

[표 289]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경남

• 자율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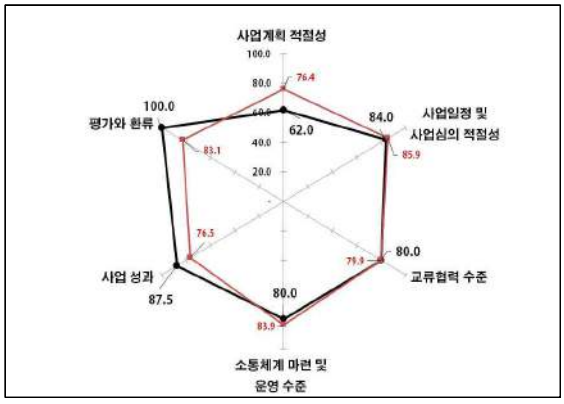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20.0
교류활성화	25.0
지역특성화	40.0
창작활성화	15.0
합계	100.0

[표 290]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경남

□ 경남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는 80.9점임. 경남지역은 4개 부문 사업을 모두 추진하였으며 지역특성화 사업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교류활성화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그림 256]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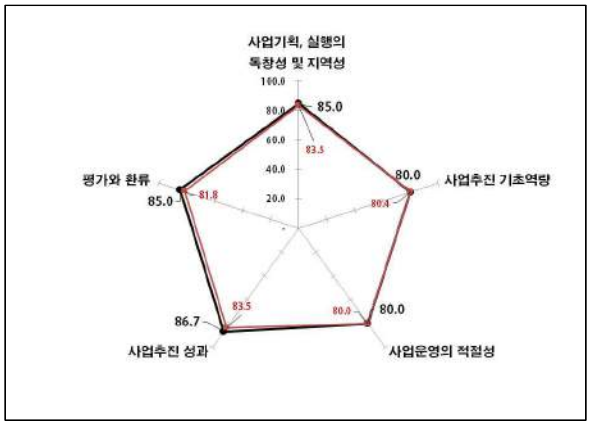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62.0점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84.0점
교류 협력 수준	80.0점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80.0점
사업 성과	87.5점
평가와 환류	100.0점

[표 291]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경남

- 경남지역의 특성화 통합지표부문 평가결과는 78.9점임.
- 경남지역은 특성화 사업별로, 최종목표(ultimate goal)에 대한 언급 없이, 지나치게 구체화된 수준의 하위 사업목적만을 제시하고 있음. 중장기 비전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특성화 사업별로 성과 목표나 지표의 설정과 관리가 제시되지 못함. 특성화 사업별로 워크숍과, 중간 성과발표, 최종 성과발표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경남지역은 시·도 기획지원의 경우 경남지역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문화브랜드 발굴사업으로 설계하여 추진하였음.
- 경남지역은 예술위 풀, 각 대학 및 예술단체 추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공개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타 지역 위원 위촉은 30%를 유지함.
- 문화예술계 의견수렴을 위한 모임으로 레지던스 기획자 모임인 '큘러' 정기모임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예술단체 간담회 2회 개최, 2014 경남 지역문화 정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경남지역은 시·도기획 사업을 통한 지역간 교류활동으로 밀양/진도/정선 3대 아리랑 공동교류 추진과, 충북/제주문화예술재단의 골목길사업 현장 밴치마킹,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통영가는개 마을 사업 현장 벤치마킹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레지던스 사업을 통한 국제교류 사업이 추진되었음. (수로요도예/정수예술촌/부곡예술촌/하동평사리 입주작가)
- 경남지역은 매년 2월 도민평가단을 공모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별 모니터링과 고객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도민 홍보단도 공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경남지역은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원사업 홍보, 뉴스레터를 통한 지원사업 성과 홍보, 진흥원 자체에 도민 홍보단(상반기 6명, 하반기 6명)을 조직 운영하는 등 재단 지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경남지역의 계량성과는 예술위원회 평가지표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취합하여 차기년도 사업 개선자료로 활용함, 최근 3년간 총괄 계량성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 경남지역은 도민평가단을 통해 사업별 모니터링과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지원정책에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가평가단을 별도 구성하여 책임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집중지원사업(레지, 기획, 상주)은 전국 최초로 중간성과 발표와 최종성과 발표를 구분하여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
- 경남지역은 소액다건 사업에 있어서 '장르별 배분'을 '활동중심 배분'으로 변경하면서 육성사업의 변화를 추구하여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 경남지역은 지원사업 담당직원 절대 인원에서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이로 인해 경남지역의 높은 지역문화예술 역량을 사업적으로 담아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원사업 담당자 수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3. 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그림 257]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경남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85.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0.0점
사업 추진 성과	86.7점
평가와 환류	85.0점

[표 292]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경남

□ 창작활성화 부문의 개별지표는 9개 지표 60점 만점으로, 배점 5점의 지표 6개와 배점 10점의 지표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추진 단계별 지표수와 배점은,

[사업계획단계] '사업기획/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개 지표 10점,

[사업집행단계] '사업추진 기초역량' 2개 지표 15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2개 지표 10점,
[사업성과단계] '사업추진 성과' 2개 지표 15점,

[평가환류단계] '평가와 환류' 1개 지표 1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지표별 배점 등에 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평가지표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5점)은, 사업기획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는지, 사업실행 방식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정도를 평가함.

- 경남의 창작활성화 부문은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예술창작발표활동)',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예술연구서적발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예술기획전문가양성)'의 3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을 2013년도 장르별 지원(문예일반, 생활예술 포함 10개 장르)에서 예술창작발표활동, 예술연구서적발간, 예술기획전문가양성, 도민예술발표활동, 지역(광역)간 예술교류협력 등 5개 활동분야별 사업으로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으며, 앞의 3개 단위사업이 창작활성화 부분에 해당함.
- 장르별 나눠 먹기식 심리 타파, 장르별 실질적 창작활동 유도, 자생적 경쟁구도 확립에 목표를 두고 전국 최초로 활동 분야별 지원으로 전환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2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경남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 (5점)은, 기획사업 및 개별 지원사업의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함.

- 진주풍류춤연구소의 창작탈춤 '떨거지들', 진주문화연구소의 '진주교방과 민간 전래의 소리 탐구', 문화두레 어처구니의 '참 쉬운 공연기획'을 창작활성화 부문 지역특화 문화자원 연계 작품으로 제목만 제시하고 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3.9점, 경남 지역 4.0점임.

□ 평가지표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5점)은,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취지에 맞는 선정기준(예컨대, 예술적 수월성)을 설정하고 있는지, 지원단체 선정율과 평균 지원액의 규모가 적정하거나 연차별로 개선되고 있는지,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지역문화육성 5개 단위사업의 평균 선정율은 48%, 평균 지원액은 3,552천원이고, 창작활성화 부문의 선정율은 예술창작 23%, 예술연구 55%, 예술기획 11%임. 선정기준과 중복지원 제한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3점, 경남 지역 4.0점임.

□ 평가지표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10점)은,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율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여부, 단체(개인) 지원신청 자격 명시 여부, 선정단체의 사업수행 적합성 정도, 신규단체 참여확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배려 여부,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정도 등을 평가함.

- 경남도 내 총 94개의 전문예술법인/단체('14년 말 기준) 중 20개 법인/단체가 지원 신청하여 20개 단체 모두 선정되었으며(육성지원 전체 선정율 48%), 전체 선정건수 대비 비율은 5.6%(20/357)임. 사업 수행에 적절한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3년 활동실적 단체, 신작창작 및 전문예술단체, 신규 지원신청단체, 1단체 1개 사업 지원, 지원신청 제외단체 및 자격제한 명기 등의 요건을 정해 놓고 있음.
- 지원신청 대비 2014년도 신규단체 신청 대비 선정율은 60%(127/211)로 이는 전체 선정율 48%보다 높은 비율임.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7.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7.9점, 경남 지역 8.0점임.

□ 평가지표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 (5점)은,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사업 설계 및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선정단체로 하여금 관람객 대상 관람수기 및 설문조사를 필수사항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별도로 도민평가단을 통해 현장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

- 진흥원 중장기발전계획 재설정(콘텐츠, 영상 업무 통합) 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수요 조사를 실시함. 수요조사 결과의 지원사업 설계에의 반영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경남 지역 4.0점임.

□ 평가지표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5점)는, 특화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주민 참여와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그리고 지원수혜단체의 홍보/기획/마케팅 담당자 대상의 교육, 자문, 워크숍을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함.

- 선정단체에 대해 지역 언론, 공공기관, 연고지 학교, 기업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사업성과 보고 시 홍보 관련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선정단체 워크숍을 통해 홍보와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함.
- 심화인터뷰 시, 오프라인 홍보물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으나 SNS(페이스북 등), 뉴스레터, 메일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음.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경남 지역 4.0점임.

□ 평가지표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5점)는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의 수준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했는지, 그 성과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 매년 취합하여 차기연도 지원신청 및 심사 시 평가환류 자료로 활용함. 지원 단체 및 선정건수, 발표작품 수 '12년 ~ '14년 추이 변화 제시
- 총 관람객 수 595,655명, 발표작품 수 창작초연 14,628건, 기존창작품 7,714건, 외국작품 97건, 참여예술인 수 23,951명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경남 지역 5.0점임.

□ 평가지표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10점)는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창작활성화 부문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를 창출했는지, 제시한 최우수프로젝트(Best Practice)가 타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국내외 각종 수상(受賞), 인증, 페스티벌 초청/참가, 예술시장에서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평가함.

- 통영연극축제위원회의 2014농촌현장포럼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4억 5천만 원)/ 통영시 창조마을 선정(1억 2천만 원)/ 2014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우수사례워크숍에서 우수상 수상 등, 정수예술촌의 진주 권역별사업 선정 협약(46억 원 확보), 수로요보천도예의 남원국제도예캠프 초청/ 중국 광저우 미술대학 교류 협약, 부곡예술촌 입주작가 전체 홍콩 아트페어 전시 참가, 에레오노흐/김나영 작가 문래창작공간 초청전시, 시인 4명의 수상, 미술작가 8명의 수상/초청전시/아트페어 유통실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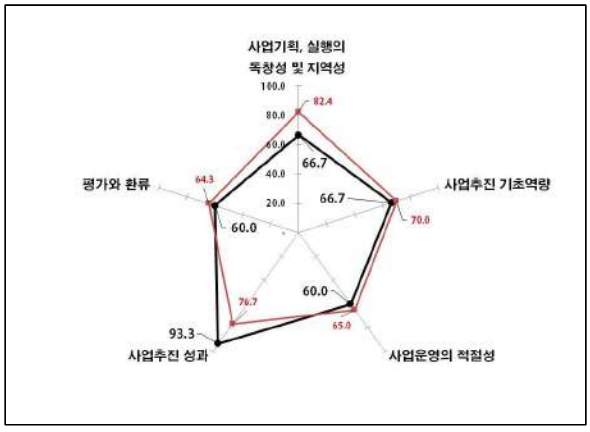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3점, 경남 지역 8.0점임.

□ 평가지표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10점)는, 시민 모니터링과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과 결과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평가함.

-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도민평가단(규모 미상)과 도민홍보단(상/하반기 각 6명)을 구성하여 사업별 모니터링과 고객만족도 조사와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각 사업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선정한 사업에 대해 직접 확인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또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중/장기 발전계획' (2014.12)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문화수요조사를 실시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4점, 경남 지역 8.5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는 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9.1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9.4점, 경남 지역 50.0점임.

4.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그림 258]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경남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66.7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66.7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60.0점
사업 추진 성과	93.3점
평가와 환류	60.0점

[표 293]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경남

□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지역성

- 생활문화 거점 중심의 교류거점을 형성하고 있는 데, 왜 시각, 문학 분야만 지원하는 것이 경남의 특징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즉 다른 분야를 누락시키는 것의 타당성은 누락되어 있음.

□ 사업추진 기초역량

- 신청자격에서 프로그램 장르를 특화했고, 레지던스에 충분한 환경과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신규 우선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등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됨. 다만, 신규지원단체가 3년간 활동 실적이 없을 가능성에 대응하는 항목도 필요해보임. 총 6건의 사업 중 4건이 신규지원단체여서 역동성이 기대됨.
- 6건의 기관 중 2개 기관(정수예술촌, 전통공예체험조합)의 프로그램 지원서와 단체력이 나와 있고, 나머지 건의 추진역량은 파악할 수 없음. 최고, 최저액 단체의 이력자료에 충실한 것은 좋으나, 타 단체들의 경력 등을 종합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의 작성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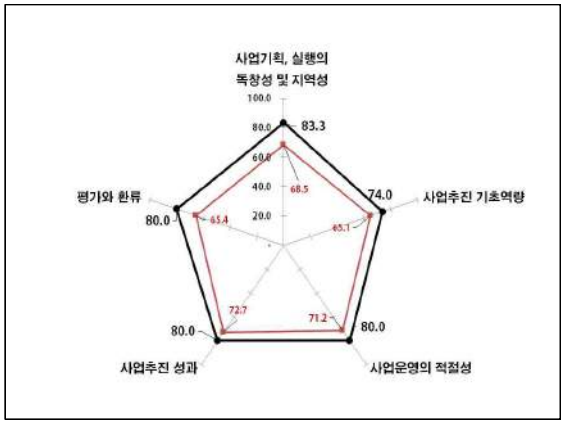
□ 사업운영의 적절성

- 문화수요의 반영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 2012년 경남의 중장기발전계획에서는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누락됨.
- 마을주민들과의 자매결연협약서(부곡예술촌) 체결 당시와 협약체결 이후 어떠한 협의와 협동활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음.

□ 사업추진 성과: 아시아(홍콩, 중국, 싱가폴 등)와의 교류 통로를 개척한 성과가 돋보임.

□ 평가와 환류: 모니터링 결과는 본보고서 내에 제시되고 있으나 도민평가단이 문제제기한 것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 반영할 예정인지에 대한 계획도 수반될 필요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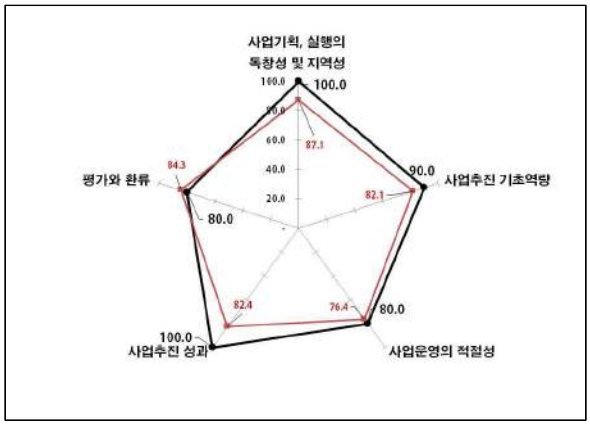
[그림 259]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경남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83.3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74.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0.0점
사업 추진 성과	80.0점
평가와 환류	80.0점

[표 294]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경남

- 경남 지역은 시민참여활성화 부문에 도민 예술발표 활동 지원을 넣었음.
- 경남지역에 맞도록 설계하여, 육성지원사업 중 주민참여형 활동으로 생활예술단체 지원하였음.
- 창작활성화, 교류활성화로 분류하여 전국최초로 활동분야별 지원으로 전환 함.
- 시민참여활동 29개 단체 지원, 지원신청대비 선정율 50%, 도민예술발표 활동 1백만~5백만지원, 신청 450건 선정 310건 선정율 68%
- 신작창작, 전문예술단체, 신규 지원신청단체 우선지원 원칙
- 선정단체 관람객대상 관람수기 및 설문조사 필수 명시, 지역민 참여프로그램 필수 진행 함.
- 도민평가단 활용 현장모니터링 진행,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중장기발전계획 재설정,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문화수요조사 실시 함.
- 결과보고시 홍보관련 가산점 제도 운영, 선정단체 워크숍으로 홍보와 문화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교육실시 함.
- 통영연극축제위원회 농촌현장포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수상, 정수예술촌 진주 권역별사업선정 협약 46억 확보
- 도민평가단 사업별 모니터링,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전문가평가단, 도민홍보단 운영

6.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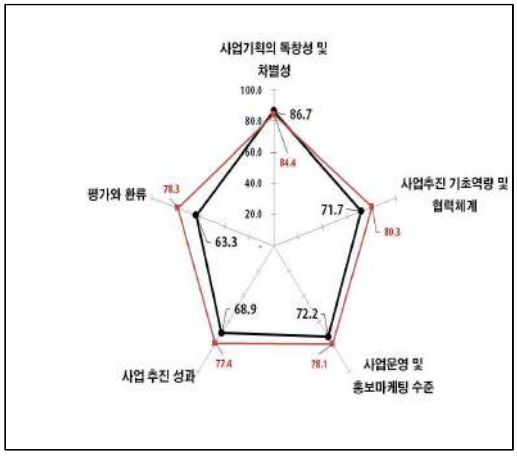
[그림 260]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경남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10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9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0.0점
사업 추진 성과	100.0점
평가와 환류	80.0점

[표 295]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경남

- 사업기획 실행 독창성은 100.0 점, 사업추진 기초역량은 90.0점, 사업운영의 적절성은 80.0점, 사업추진성과는 100.0점, 평가와 환류는 80.0점을 획득하였음. 사업기획의 독창성과 지역성은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게 평가를 받았음. 사업추진 성과 면에서도 전국 평균 수준을 뛰어넘고 있음. 사업추진 기초역량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평가를 받고 있음.
- 사업기획에서는 지역의 향토성, 무형자산 활용, 공공예술사업으로 한정하였음. 이 점에서 기획 독창성과 지역성을 살리고 있음이 뚜렷하여 좋은 평가를 받게 됨. 특히, 주민이 배우가 되고 시인이 되는 등 참여형 방식으로 사업효과를 크게 거두었음.
- 선정된 사업은 모두 지역특화자원을 연계하여 기획했음이 특이하게 나타남으로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었음.
- 경남 통영연극예술축제위원회' 의 사업이 예술위원회의 특성화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상을 받았으며 좋은 반응을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운영을 보면, 전체 33건이 지원해서 3건이 선정(선정율 9%)되었음. 전년도 선정율 11.4%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단체에 대한 평균지원액은 64,666 천원이고 전년 지원금액 47,500천원보다 상향된 금액임. 3개 선정된 단체가운데 2개가 전문예술법인임. 최고지원액은 통영연극예술축제위원회 70,000천원이며, 최저금액은 무용협회 밀양지부 54,000천원이었음.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음.
-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파악하기위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을 완료했음. 그런데 이 지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주민모니터링과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임.
- 무협 밀양지부, 골목길 사람들, 통영연극예술축제위원회 등 3개 사업을 당초 계획에 맞춰 추진했음.
- 도민평가단을 운영하여 평가했음. 전문단체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

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26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경남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86.7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71.7점
사업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72.2점
사업 추진 성과	68.9점
평가와 환류	63.3점

[표 296]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경남

□ 경남 지역의 특성을 살려 2014년도 사업을 설계함. 공연장활성화 등 공연장상주사업의 성과가 높아 관내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각 시군 공공공연장을 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1개 공연장에 1개 단체만을 매칭하고, 지역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반드시 상주하도록 하고, 2년 상주 후 차기 사업 지원 시에는 타 공연장에서 상주하도록 하여 신규 공연장에 기회를 부여하고 상주단체에게 긴장과 변화를 줌. 상주단체들이 다른 공연장으로 이동하여 2/3이상이 신규 선정 공연장임.

□ 또한, 레퍼토리 작품의 정기적 공연체제를 구축하여 상주공연장에서 매월 1회 레퍼토리 공연을 진행하여 공연장 활성화(가동율)와 주민문화향유 확대를 꾀하고, 기획자모임을 통해 경험 있는 단체의 노하우를 신규단체에게 전수하고, 먼저 상주하였던 지역의 특성 등을 공유하도록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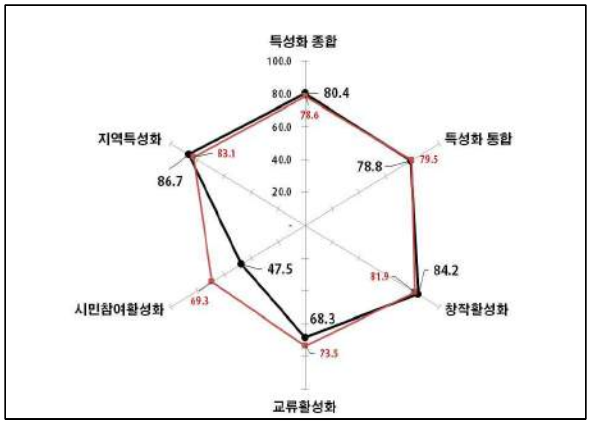
□ 각 상주지역의 역사적 인물, 전설, 지역특성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을 발굴 창작하여 공연장의 특화 상품화하고 지자체에서 매년 작품을 매입하여 공연이 시행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와 상주단체의 자생력을 확보를 꾀함.

□ 지역의 자원을 발굴 이용한 창작 작품 사례로 거창원드오케스트라(거창)의 지역주민이 작사하고 지역 작곡가가 작곡한 창작발표 사례, 큰들(남해, 하동)의 마당극 이순신, 낭랑할배, 순풍에 돛달고, 최참판댁, 정기룡장군, 허균 사례, 극단벅수골(통영)의 동피랑, 극단예도(거제)의 선녀씨 이야기, 극단이루마(김해)의 우리 어무이(어머니), 극단마산(창원)의 歌婢(해동가요) 사례 등을 제시함.

- 심의 소위원회를 도내 70%, 타 지역 30%로 구성하고 합의 심사로 진행하였으며, 선정된 10개 단체 중 8개 단체가 전문예술단체로서 전문역량을 갖춘 단체가 선정되었음.
- 공연장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상주공연장에 담당 직원이 기본적으로 배치되어야 선정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지원신청 접수시 공연장에서 의무적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협약에 명시하도록 함.
- 공연장과 상주단체간의 협력, 상주단체와 공연장의 외부 협력에 대한 제시는 부족하나, 재단과 상주단체 · 공연장 간의 협력, 재단의 외부기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공연장 관계자 간담회, 상주지기 모임(매월 1회) 등을 통해 수요자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각 상주단체별로 지역민 수요조사 후 지역민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함.
- 홍보채널로서 각 시군 홈페이지, 사랑방축제 등을 통해 홍보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음. 2014년도는 모든 홍보예산을 상주단체에 배분하여 각 지역 상황에 맞게 홍보하도록 함. 다만, 재단 차원에서 상주단체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및 채널 다각화가 필요함.
- 정기적인 '상주지기' 모임을 통해 상시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기존의 상주축제 단점을 보완하는 '사랑방 상주축제'를 개발하여 2개 단체가 한 조를 이루어 상호 교차 교류공연을 통해 연중 교류를 진행하고 상주사업이 없는 공공 공연장에도 공연을 제공함.
- 총 7개 상주단체의 국내외 공연 페스티벌 초청 공연 등 국내외 대회 수상 및 축제 초청 사례, 예술시장 판매실적, 레퍼토리화 실적이 제시됨.
- 체계적인 성과목표 제시가 필요함. 재단 차원의 공연장상주사업 성과목표와 목표수준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고 이의 달성수준을 제시하여야 함.
- 전문가 현장평가, 공개 성과평가(중간/최종), 도민모니터링을 실시함. 평가결과는 차기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에 반영하여 환류함.

제17절 제주

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그림 262]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평가 결과 – 제주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특성화 종합	80.4점
특성화 통합	78.8점
창작활성화	84.2점
교류활성화	69.5점
시민참여활성화	47.5점
지역특성화	86.7점
평균	74.3점

[표 297] 특성화지원사업별 평가 결과 – 제주

• 예산가중치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6.6
교류활성화	2.1
지역특성화	36.1
창작활성화	55.2
합계	100

[표 298] 특성화지원사업별 예산가중치 – 제주

• 자율가중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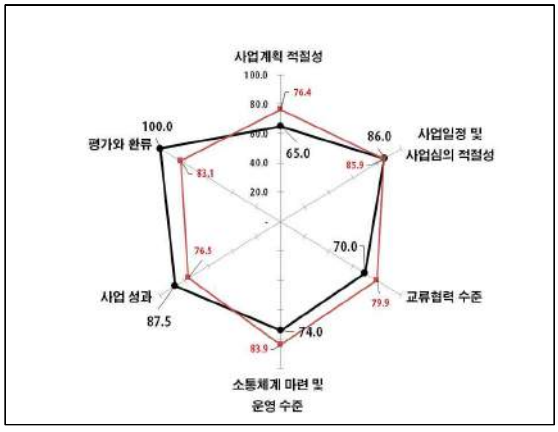
(단위: %)

시민참여활성화	7.0
교류활성화	3.0
지역특성화	55.0
창작활성화	35.0
합계	100

[표 299] 특성화지원사업별 자율가중치 – 제주

□ 제주지역의 특성화지원사업 종합평가결과는 80.4점임. 제주지역은 4개 부문 사업을 모두 추진하였으며, 지역특성화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시민참여 활성화 부문에서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그림 263]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평가 결과 -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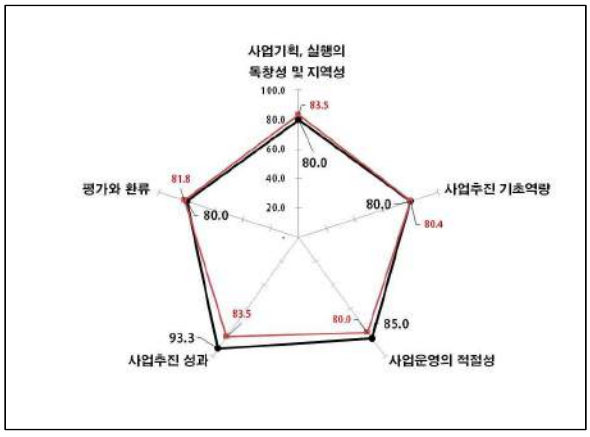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65.0점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70.0점
교류 협력 수준	70.0점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 수준	74.0점
사업 성과	87.5점
평가와 환류	100.0점

[표 300]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지표별 점수 - 제주

- 제주지역의 특성화 통합지표 부문 평가결과는 78.8점임.
- 제주지역은 지역협력형 사업 전체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사업별로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음. 하지만, 특성화 사업별로 명확한 사업목적 제시나,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의 설정이 제시되지 않음.
- 제주지역은 추진 목표 및 과제와 특성화 사업을 연계시키고 있으며, 추진전략의 구체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움.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제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과 '전문 문화예술기획자 양성사업'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음.
- 신진예술가지원사업 지원사업자에 대해 멘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문화예술기획자 양성사업(문화예술단체 인턴제)을 시행하여 27명이 참여하였음.
- 제주지역은 일반예술활동 지원의 경우 사업공고 '13.12.26, 접수기간 '13.12.30~ '14.1.17, 심의결과 발표 '14.2.20 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됨.
- 제주지역은 언론보도를 통한 공개 추천(예술단체 및 예술인, 재단 추천 등), 예술위 심의위원 풀 활용 등을 통해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심의위원 명단, 심의 총평, 분야별 심사평 등을 심의결과 발표 시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제주지역의 문화예술계 의견수렴 활동으로는 문화이주자 및 제주예술인 네트워킹 파티 '동네방네 수다'(2회) 개최와 오픈하우스 워크숍(3회) 개최, 신진예술가지원사업 기획워크숍(1회) 개최 등이 진행됨.
- 지역간 교류활동으로는 호남권 지역협력형 라운드 테이블 2회(각 1박 2일) 실시, 2014 창작공간 통합 페스티벌 참가 등이 추진됨.

- 제주지역은 문화서포터즈 '제주컬처랑'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음. 도민모니터 31명, 자원봉사자 문화드리미 20명, 제주사랑티켓 모니터 10명, 블로그기자단 12명으로 구성, 워크숍 4회, 커뮤니티 프로그램('따로 또 같이') 3회를 진행하였음.
- 지역협력형 사업 홍보를 위한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CULTIZEN을 매월 1,000부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내 월간 문화예술행사 코너를 운영하고 있음.
- 제주지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따라 계량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제주문예연감' 발간을 통해 전년도 장르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평가, 유형별 활동 및 증감내역 등 진단 결과 및 문제점을 수록하고 있음. 또한 지난 3~4년간 현황 분석(월별, 장르별 통계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차기년도 목표 설정 및 세부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음.
- 비계량성과도 조사하여 매년 '제주문예연감'에 수록하고 있으며 장르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평가 등과 함께 차기년도 목표 설정 및 세부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제주지역은 다면평가(전문가, 모니터, 행정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특성화 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평가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전년도 평가결가를 차기년도 심사에 가감점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A는 5점 가점, B는 3점 가점, D는 3점 감점, E는 심의 제외)
- 제주지역은 레지던스 사업으로 출발했던 '빈집 프로젝트'가 창작공간 프로그램 사업으로 발전되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014년 서귀포 문화충전소 '밧데리'가 개관하면서 지역문화활동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여 서귀포 지역의 창작활성화와 지역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그림 264] 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제주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8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5.0점
사업 추진 성과	93.3점
평가와 환류	80.0점

[표 301] 창작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제주

□ 창작활성화 부문의 개별지표는 9개 지표 60점 만점으로, 배점 5점의 지표 6개와 배점 10점의 지표 3개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추진 단계별 지표수와 배점은,

[사업계획단계] '사업기획/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2개 지표 10점,

[사업집행단계] '사업추진 기초역량' 2개 지표 15점, '사업운영의 적절성' 2개 지표 10점,

[사업성과단계] '사업추진 성과' 2개 지표 15점,

[평가환류단계] '평가와 환류' 1개 지표 1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는 두 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지표별 배점 등에 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고 각각 지표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 평가지표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5점)은, 사업기획 내용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되어 있는지, 사업실행 방식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정도를 평가함.

- 제주의 창작활성화 부문은 '일반예술활동지원', '제주신진예술가지원', '문화예술역량강화지원', '전문문화예술기획자양성사업'의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예술활동지원의 경우, 전시분야는 사설갤러리를 대관하여 추진하는 사업, 공연분야는 유료공연, 사회적기업, 제주를 소재로 한 창작작품 등을 우대하고 있으며,
- 장르 간 융합 및 통섭을 통한 새로운 복합예술을 창작하는 사업을 '다원예술'로 지원, 신진예술가지원사업의 경우엔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
- 본 평가지표는 전국 평균 4.2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제주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5점)은, 기획사업 및 개별 지원사업의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함.

-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 수준에 대해서는 제주신진예술가지원사업, 전문문화예술기획자양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전문인력 인턴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평가지표 1.2.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음. 다만, 다른 지표에 대한 설명에서 지원 선정 시 제주를 소재로 한 창작 작품 등을 우대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음.
- 본 평가지표는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3.9점, 제주 지역 3.5점임.

□ 평가지표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5점)은,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 취지에 맞는 선정기준(예컨대, 예술적 수월성)을 설정하고 있는지, 지원 단체 선정율과 평균지원액의 규모가 적정하거나 연차별로 개선되고 있는지,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선정기준으로 사업내용의 예술성(배점 45점)에서 작품의 예술적 우수성, 참신성과 독창성, 예술적 기량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일반예술활동지원과 신진예술가지원의 경우 60.2%(신청 191건 중 115건 선정)로 높은 편이며, 평균 지원액 5,291천원(일반 5,139천원, 신진 9,500천원)으로 적정 수준으로 판단됨. 중복지원 제한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과 집중지원사업은 1건, 단체 기타 사업 신청 시는 2건까지 지원 허용
- 본 평가지표는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3점, 제주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10점)은,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율과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여부, 단체(개인) 지원신청 자격 명시 여부, 선정단체의 사업수행 적합성 정도, 신규단체 참여확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배려 여부,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정도 등을 평가함.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단체는 총 9개('14년 말 기준)로 이중 2개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선정율은 1.8%(2/115)이며, 법인(단체) 지원신청 건수를 알 수 없어 일반 단체와의 선정율 비교는 어려움.
- 대체적으로 사업 수행에 적합한 단체가 선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여부나 정도에 관한 설명은 없음.
- 본 평가지표는 전국 평균 7.8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7.9점, 제주 지역 7.5점임.

□ 평가지표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 (5점)은,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지원사업 설계 및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평가함.

- 2013년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제주도민 문화의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역예술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간담회, 포럼, 라운드테이블 등을 개최함.
- 본 평가지표의 전국 평균 3.9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제주 지역 4.0점임.

□ 평가지표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 (5점)는, 특화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주민 참여와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 수준, 그리고 지원수혜단체의 홍보/기획/마케팅 담당자 대상의 교육, 자문, 워크숍을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함.

- 문화예술정보지 CULTIZEN을 매월 1,000부씩(‘15년부터 2,000부) 제작하여 배포, 재단 홈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달력’ 코너 운영, 블로그 홍보 등
-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개최한 ‘문화예술분야 홍보 마케터 캠프’에 재단 담당자가 참가했고, 심화인터뷰 시 중간매개자를 양성하는 과정을 재단이 직접 운영하여 문화예술기획자 27명이 참여한 사실을 밝힘.
- 본 평가지표는 전국 평균 4.1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0점, 제주 지역 4.5점임.

□ 평가지표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5점)는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의 수준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했는지, 그 성과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함.

- 신진예술가지원 총 관람객 수 4,380명(4건, 참여예술인수 6명, 발표작품수 75건, 지원액 38,000천원), 문화예술역량강화 총 관람객 수 9,490명(5건, 참여예술인수 82명, 발표작품수 30건, 지원액 23,500천원)
- 본 평가지표는 전국 평균 4.3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4점, 제주 지역 4.0점임.

□ 평가지표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10점)는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창작활성화 부문의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를 창출했는지, 제시한 최우수프로젝트(Best Practice)가 타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국내외 각종 수상(受賞), 인증, 페스티벌 초청/참가, 예술시장에서의 유통/판매 실적 등을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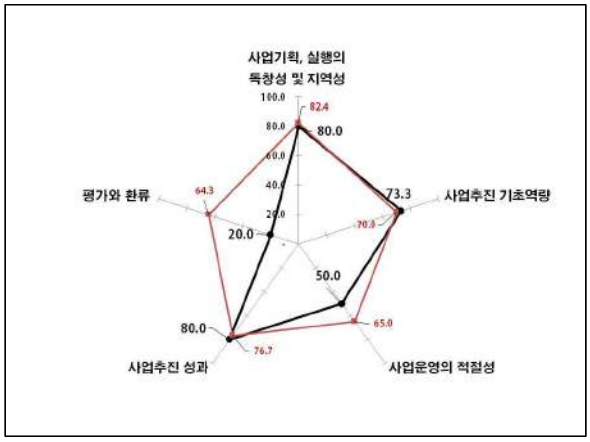
- 비계량성과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자료 및 성과증빙자료를 통해 취합하여 이를 ‘제주문예연감’에 수록하고 있어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 신뢰성이 인정됨.
- 2014년 성과 사례로 특성화지원사업 4건(고남수 소치올림픽 초청 전시, 한글서예사랑모임 제33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및 세종한글서예대전 우수상, 정현영 창작공간통합페스티벌 참가)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역 대표브랜드 창출 사례로 체코, 포르투칼, 독일과의 국제교류 프로젝트인 현대무용가 주정민/김정현의 ‘리서치 몸풍경(Body Landscape) 프로젝트’의 성과를 제시
- 본 평가지표는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3점, 제주 지역 10.0점임.

□ 평가지표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10점)는, 시민 모니터링과 관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과 결과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평가함.

- 도민 모니터 31명, 블로그 기자단 12명을 활용했으며, 시민모니터링 결과는 81.5점임. 관객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본 평가지표는 전국 평균 8.2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8.4점, 제주 지역 8.0점임.

□ 창작활성화 부문 개별지표는 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9.1점, 문화재단이 있는 7개 도 지역 평균 49.4점, 제주 지역 50.5점임.

4.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그림 265] 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제주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8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73.3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50.0점
사업 추진 성과	80.0점
평가와 환류	20.0점

[표 302] 교류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제주

□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지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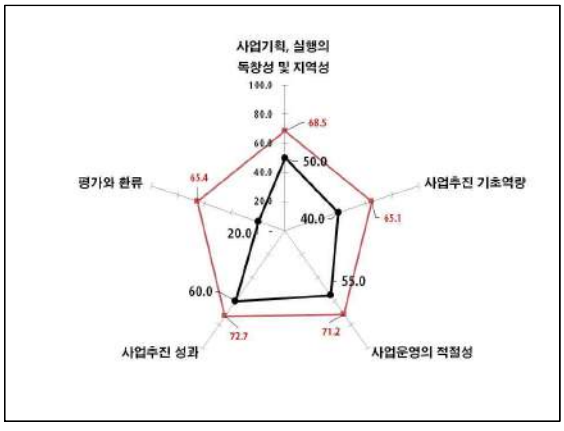
- 교류사업 기획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대한 양의 신화가 전승되고 있는 제주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이 선정된 것은 바람직함. 우리나라와 일본의 신화적 사유를 비교하고, 한일 양국 상호간의 문화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류 상대국을 선정한 기획력도 의미 있음.
- 6건 신청에 2건이 선정되었음. 엄격한 심의를 통해 2건만 선정되었음. 앞으로는 가능하면 다소 조건에 미흡한 단체라도 재단의 컨설팅 등을 통해서 국제교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선정 건수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교류의 경험이나 실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의 준비나 새로운 모색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건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국제교류를 하기 위한 신규단체의 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지원이 필요함. 인천지역의 국제교류를 위한 준비 프로젝트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추진 기초역량: 교류와 창작을 공동 지원하는 기존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대체한 창작공간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선정 건수가 많은 편은 아님. 기존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필수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숙박시설의 구비 등과 같은 부담을 덜고, 창작에 몰입할 수 있는 창작공간 지원으로의 정책적 전환이 지역의 예술생태계를 고려한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음.

- 다만, 기존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보여 준 교류와 창작 활동이 장기적으로 지역의 예술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것이 요망됨.

- 사업운영의 적절성: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전체 홍보를 위한 '컬티즌'을 제작하고, 홈페이지 '컬처랑'을 제작하여 운영하였으나, 그러한 컬티즌과 컬처랑이라는 채널을 통해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수요가 수렴되었으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보장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난이함.
- 사업추진 성과: 참여예술가 수는 총 74명이고 관람객은 8,700명임. 관람객의 절대규모는 적지 않지만, 타 지역과 비교하면 예술가 대비 관람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아님, 한편 신화의 일본 순회 전시를 비롯하여 신화교류전이 5회째 지속되고 있어,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과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브랜드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음.
- 평가와 환류: 국제행사로 모니터링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술했으나, 여러 가지 모니터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제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주베트남 한국문화원에서 이루어진 탈춤 공연의 경우 현지인 500여명이 관람하면서 우리의 전통문화에 관심을 보였다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지 등을 기획하고 준비했다면 얼마든지 현장에서의 모니터링과 설문조사, 관객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상황이었음. 물론 한국문화원 등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모니터링 예산 등의 새로운 투입은 난제일 수 있음. 이런 경우에는 단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통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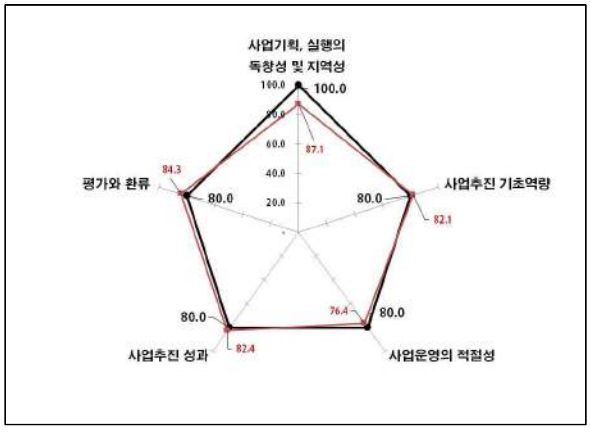
[그림 266] 특성화지원사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제주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5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4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55.0점
사업 추진 성과	60.0점
평가와 환류	20.0점

[표 303]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제주

- 제주지역은 시민참여활성화사업 평가에 문화예술보급 및 조사연구 활동을 넣었으나, 제주시담당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평가하지 않고, 육성지원 사업 중 도민문화표현활동지원을 평가하였음.
-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문화활동지원, 19건 접수 15건 선정 78.9% 선정율
- 지역예술가와 선정분야별 예술가 간담회 진행함.
- 포럼, 라운드테이블 상설화, 문화예술활동 달력(컬티즌)제작, 홈페이지, 블로그 활용 홍보 진행
- 공연전시행사 53회, 74일, 320개 발표작품수, 394명 관람객, 319명 참여예술가임.

6.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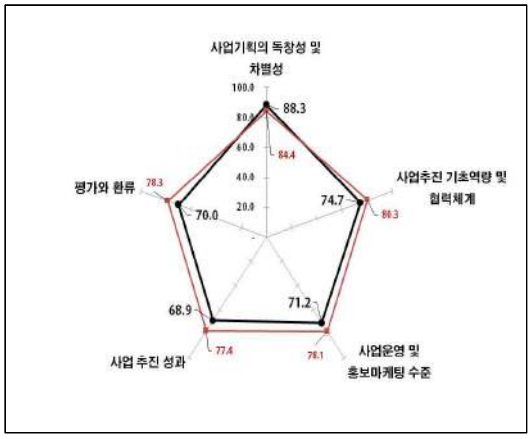
[그림 267] 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 제주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100.0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80.0점
사업 운영의 적절성	80.0점
사업 추진 성과	80.0점
평가와 환류	80.0점

[표 304] 지역특성화 부문 지표별 점수 - 제주

- 사업기획 실행 독창성은 100.0점, 사업추진 기초역량은 80.0점, 사업운영의 적절성은 80.0점, 사업추진성과는 80.0점, 평가와 환류는 80.0점을 획득하였음. 사업기획 독창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거두었음.
- 지역의 빈집을 활용하여 주민과 예술인이 공동체를 이루는 사업, 창작공간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원했음. 지역의 실정을 활용하여 예술인 활동을 불러오는 사업으로서 특징을 갖고 있음.
- 빈집프로젝트 1개,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5개를 선정하였음. 평균지원액은 빈집프로젝트의 경우는 100,000천원,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은 66,000천원임. 창작지원프로그램은 문화공간양 80,000천원이 최고지원액이었고, 최저는 제주도 좋아에 60,000천원이었음. 특성화사업에 전문예술법인은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함.
- 사업수요 파악은 문화 공간 양의 경우 마을회의를 거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주민들이 작품제작에 참여하는 등의 바람직한 모델로 나아가고 있음. 지역협력을 거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행정 절차면에서 매우 안정적인 방식으로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업별로 특화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며 사업별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바람직함.
- 제주아트프로젝트, 꿈꾸는 서물상, 재주도 좋아, 문화공간 양, 아트창고 등의 총 5개 사업을 추진했음. 당초 계획에 맞춰 추진했다고 보고 있으나, 계량성과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없었음이 아쉬움.
-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빈집프로젝트는 평균 85점,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은 83.6점을 획득했음. 이 밖에도 전문가 집단의 만족도도 조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그림 26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 제주

사업 구분	평가 점수 (100점 기준)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88.3점
사업추진 기초 역량 및 협력 체계	74.7점
사업운영 및 홍보마케팅 수준	71.2점
사업 추진 성과	68.9점
평가와 환류	70.0점

[표 30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표별 점수 - 제주

- 상주단체의 사업수행조건을 대폭 개선함. 기존의 초연 창작품 개발에 추가하여 레퍼토리 공연을 필수화하고, 퍼블릭프로그램 운영과 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 참여를 필수사항으로 조정함.
- 지역협력형사업 추진위원회 자문회의를 두어 2014년 지역협력형사업 관련 전문가 그룹 · 제주문화예술재단 · 지원사업자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 컨설팅, 심의 및 평가(모니터링),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진행함.
- 제주시에 역량자원이 집중되어 있어서 서귀포지역 등으로 확산하고자 노력중임.
- 제주의 문화아이콘 '해녀'와 '4.3'에 관한 연극 및 전통분야 공연 사례로서 민요패 소리왓, 놀이패 한라산 등을 제시함.
- 1차 행정심의, 2차 단체별 사업계획 검토, 3차 현장심사(필요시), 4차 인터뷰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전문예술단체는 6개 단체 중 1개로 16.7%를 차지함. 전문역량을 갖춘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공연장의 기획역량 보강이 필요함.
- 제주의 공연장 인프라가 취약하고, 사업이해가 낮았으나, 사업을 통해 점점 더 공연장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공연장 담당자의 협력이 좋아지고 있음.
- 또한,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영화관을 공연장상주사업을 위한 마당극 공연장소로 개조하여 신규 참여함으로써 공연장인프라를 확충함.
- 공연장과 상주단체간의 협력, 상주단체와 공연장의 외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단과 상주단체 · 공연장 간의 협력, 재단의 외부기관 협력에 대한 제시가 부족함.

- 공연장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라운드테이블 등을 실시하여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다만, 지역민 참여프로그램 수준 및 지역민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여부에 대한 기술이 없음.
- 홍보채널로서 재단 문화예술 정보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활용하고 있음. 다만, 재단 차원에서 상주단체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및 채널 다각화가 필요함.
- 상주단체간의 상시적인 교류는 아직 미약하나, 6개 상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제주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페스티벌을 처음으로 개최함.
- 5개 상주단체의 국내 대회 수상 및 축제 초청 사례가 제시됨.
- 성과목표를 각 상주단체가 수행한 이행실적, 추진실적 등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음. 재단 차원의 공연장상주사업 성과목표와 목표수준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고 이의 달성수준을 제시하여야하나 개별 상주단체의 실적을 모아 사업추진성과로 제시함.
- 전문가 현장평가, 도민모니터링을 실시함. 문화서포터즈 '제주컬러랑'을 도민모니터로 참여시킴. 평가결과의 환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함.

제5장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개선 과제와 방향

제1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제1-1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총평
1. 평가 총평
2.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1-2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통합 부문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1-3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1-4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1-5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1-6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1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제1-1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총평

1. 평가 총평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된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2014년은 지역문화와 관련해서 지난 수십 년 간의 지역문화 정책의 변화를 합친 것 만큼이나 큰 정책적 · 제도적 변화가 발생한 시기임. 2014년까지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지역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변화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2015년에 이미 가시적인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 지원사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큰 변화가 예상됨.

□ 앞으로 1~2년 사이에 이뤄질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체계 변화는 지금까지 정부와 중앙 문화예술계가 주도하던 문화지원사업의 토대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이 자리잡고 있음. 그만큼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예술계의 발전과 변화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 큰 영향을 미쳐 왔다고 할 수 있음.

□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체계는 아직 이러한 지역문화의 변화 흐름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음. 2014년에 추진된 지원사업은 2013년 말에 수립된 지원방침과 예산계획을 반영하고 있어서 아직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함. 하지만, 문화예술위원회의 나주 시대를 통해 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에 대한 관점변화가 사업방침과 관리정책에 제도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음.

□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체계의 형식적 변화는 크게 '특성화지원사업과 공연장 상주사업의 분리 평가', '성과관리 중심 평가의 강화', '현장평가 모니터링을 심화인터뷰로 대체', '보고서 작성 부담의 경감' 등을 들 수 있음. 이러한 평가 형식의 변화와 함께 지역이 스스로 사업부문을 결정하고 사업별 가중치를 결정하는 사업별 평가부문의 선택과 가중치의 자율적 적용이라는 내용적 변화 또한 2014년 평가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음. 실제로 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면서 가중치의 변화에 따른 평가점수의 차이를 보이는 지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함.

□ 대표적인 집중지원사업인 공연장 상주사업은 사업의 특성과 목적이 명확하고 정책지원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특성화지원사업과 차별성이 큼. 또한 지역의 물리적 여건과 문화예술 수요 및 문화적 환경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하나의 평가기준으로 전 지역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공연장 상주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전체에 대한 합산방식의 종합 평가를 폐지하고, 상주사업과 특성화지원사업을 분리하여 평가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것이 2014년 평가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지역은 지역의 지원사업 설계 및 기획역량에 따라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의 설계 및 추진의 성과에 따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음.

□ 특성화지원사업을 4개 사업부문으로 나눈 것은 지역별로 2014년 추진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의 내용별 그룹핑을 통해 나눈 것으로 매년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변화됨에 따라 사업부문에 포함되는 예시사업이 달라지거나, 사업부문 자체가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음. 변화무쌍한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의 설계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차별화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아야 함. 또 한편으로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우선적인 지원목적을 방기할 경우 지역의 민원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지원사업이 될 우려 또한 존재함.

□ 2014년 특성화지원사업은 지난해 지역별로 지원사업 설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지역별 여건에 맞춘 특성화 사업의 설계로 지역별로 새로운 사업분야와 사업명이 생겨나고 사업의 구분체계가 다양해지기 시작함.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평가체계로 17개 시도의 지원사업을 일률적인 평가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달라진 지원사업 운영체계에 따른 평가체계의 재설계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함.

□ 공연장 상주사업은 공연장과 공연단체간의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으며, 상주사업 단체들의 페스티벌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등 기존의 성과가 축적되면서 지역별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됨. 한편, 지역별로 몇몇 우수 공연단체가 지속적으로 상주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면서 지역의 공연 단체들 간에 역량의 편차가 심해지기도 하고, 신진 공연단체들이 큰 폭의 성장을 도모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기도 함.

2.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이미 특성화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사업설계에 있어서의 통일된 개선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게 되었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이 이 지원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매년 지원사업 추진의 중간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설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차기년도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설계하기 위한 전문가와 재단 실무자가 함께하는 지역별 지원사업 기획자문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지원사업 설계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설계된 지원사업에 대해 지역 예술계와의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매년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 가면서 지역맞춤형 지원사업체계가 수립될 수 있을 것임.

□ 내년도에 특성화 지원사업 평가를 위한 개선방향을 몇 가지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사업부문의 재정리 필요

· 2014년도 사업부문 구분은 2014년도 지역특성화지원사업 추진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부문

을 구분한 것으로 2015년 사업부문의 구분은 2015년도 사업추진현황 분석을 통해 새롭게 설정해야 함.

· 2016년까지 3개년 간의 사업부문 구분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최소 5년간 변화되지 않는 평가체계와 지표를 확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평가체계 및 지표 재점검

· 2014년 지원사업 평가지표와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변별력이 낮은 지표를 재조정하고 사업부문별로 평가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표들도 분류하여 변별력과 보고서 작성이 용이한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 수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평가 편의를 위해 통합한 지표들로는 적합한 평가가 어려운 사업들이 존재할 수 있음. 따라서, 지역 맞춤형 평가지표를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자율지표 부문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셋째, 자율 가중치 부여방식과 예산가중치와의 비율 재조정

· 지역별 자율가중치는 올해 평가에 처음 도입되었던 것으로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 설계를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지역별로 특정 사업의 가중치를 0%로 설정한다거나, 특정사업에 100%로 너무 편중된 가중치를 정하는 등 평점 결과만을 고려한 가중치 배정의 사례가 발생하여 가중치 설정의 기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예산가중치와의 비율도 재설정에 대한 요구가 높으면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는 70:30으로 되어 있는데 육성지원사업의 가중치가 너무 높아 자율가중치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수 있으므로 예산가중치의 비율을 낮추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넷째, 예술인 설문조사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 제도 마련

· 지난해까지 현장 평가시 시행되었던 예술인 설문조사를 지역별로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별 예술인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음. 따라서, 2015년에는 다소 과업의 부담이 있더라도 지역별 지원사업 선정 예술단체(예술인)들과 선정에서 탈락한 예술단체(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협력관의 지역 우수사례 제시 제도화

· 올해는 시범적으로 지역 현장 모니터링 경험이 많은 지역협력관의 지역 우수사례 제시를 제안하여 일부 참고하였는데 이것을 제도화하여 협력이 담당한 지역의 지원사업별 우수사례를 제안토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심화인터뷰 제도의 지속 및 강화

· 올해 처음 현장평가를 대체하여 시행된 심화인터뷰 제도는 이번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평가의 내용적 완성도를 갖추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차기년도 평가에도 현장평가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심화인터뷰 제도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제1-2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통합 부문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 특성화 통합부문 평가는 2013년 처음 생겨나 공통평가항목과 별도로 분리되어 평가되었으며, 2014년에는 공통평가 항목까지 흡수하여 특성화 통합부문으로 평가되기 시작함. 사업계획적절성(10),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5), 교류협력수준(5), 소통체계마련 및 운영수준(5), 사업성과(12), 평가환류(3)점으로 총 6개의 평가항목에 12개의 평가지표로 총 40점으로 구성됨. 계량성과 및 비계량성과 등 사업성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항목으로 설정되었고 사업계획적절성이 두 번째로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설정되었음.

□ 2015년도 특성화 통합부문 평가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 몇 가지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를 통한 산출지표 제시 필요
  - 지역별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수준이 달라 사업부문별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예시 지침을 정리해서 전달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량적 성과를 설정하기 힘든 사업이 많고 정량적 성과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 표준화된 산출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차례 간담회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 둘째, 지역문화재단 관계자들의 기획역량강화 필요
  - 지역별로 재단 직원들을 위한 역량강화 노력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상당수 지역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교육에 참관, 운영을 위한 참여를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됨.
  - 지역문화지원사업과 지역문화 관련된 정보 소통, 지원사업 설계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전문적인 지역문화지원사업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함.
- 셋째, 계량성과 정리 체계 미비를 보완하고 연차별 분석이 필요
  - 지역별로 정량성과 정리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신뢰성 있는 계량성과 평가에 한계가 존재함. 지역별로 지원사업 백서 발행 등으로 정량성과를 정리하거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하고 객관적인 정량성과 정리체계를 갖춘 곳도 존재하므로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정량성과 취합 및 정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
  - 정량성과 정리는 연간 성과에 대한 정리도 중요하지만, 연차별 비교분석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계량성과의 변화추이를 통해 지역별 지원사업의 성과창출 수준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1-3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 평가지표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사업기획 내용이나 사업실행 방식이 전혀 독창적이거나 차별화 되지 않은, 이미 타 시·도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거나 통상적인 기획 내용이나 방식을 본 평가지표의 실적으로 서술한 경우가 일부 있었음.

□ 평가지표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특히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의 추진 기본방향이 지역마다 고유한 전통과 자원에 바탕을 둔 특화된 사업의 확대에 있음에도, 이에 무관심한 시·도가 전체의 1/3에 이름. 이에 대해서는 한지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도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 설정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지역특화 문화자원과의 연계 수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공유되지 않아 초점이 어긋난 실적을 나열한 시·도가 상당수 있었고, 사업방향이나 심사기준으로 지역특화문화자원과의 연계를 중요시한다고 설명만 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실적으로서의 사례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 평가지표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의 경우 지원 심의기준으로 예술적 수월성과 관련된 기준이 설정돼 있어야 하나 이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시·도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
- 창작활성화 부문은 그 성격상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이 적합한 분야임에도 지원 선정율이 60%가 넘는 시·도가 전체의 1/3이 넘음.

□ 평가지표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 몇몇 시·도 외에는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실적이 매우 부족한 형편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 시·도가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평가지표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

- 지역민과 예술인들과의 각종 모임을 통해 소통하거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는 응답은 많았으나, 수요 분석 결과를 어떻게 지원사업 설계와 선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 시·도는 극소수에 불과함.
- 이러한 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 많은 비용을 들여 각종 모임이나 수요조사를 실시하지만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며, 시 · 도 별로 이에 대한 자체점검과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 평가지표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

- 신규 문화수요 개발과 주민 참여를 위한 마케팅 운영, 선정단체의 홍보/기획/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자문, 워크숍에 대해서는 각 시 · 도에서 별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한지협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평가지표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의 수준과 적절성을 평가하되,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측정했는지, 그 성과의 수준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나,
- 성과 목표와 지표 설정 체계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계량적 결과만을 제시하는 시 · 도가 많아, 체계적인 성과 목표 및 지표 설정 체계의 구축에 대한 한지협 차원의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평가지표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를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이나, 심지어 지역협력형사업도 아닌 사업 성과에서 변칙적으로 제시하거나,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평가요소와는 많이 동떨어진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음.
- 창작활성화 부문에 통산 수백 건의 단위 지원사업이 있으므로 각 시 · 도에 해당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국내외 각종 수상(受賞), 인증, 페스티벌 초청/참가, 예술시장에서의 유통/판매에 대해 전혀 실적을 제시하지 않은 시 · 도가 많았음.

□ 평가지표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 시민모니터링이나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만 제시하고 실시 과정이나 참여 및 대상 인원수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은 사례가 몇 건 있었음.

□ 창작활성화 부문 자체평가보고서 관련 공통 사항

- 창작활성화 부문에 대한 평가임에도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실적을 창작활성화 부문 사업이 아닌 지역특성화, 교류활성화,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사업, 심지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부문에서 끌어다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음.
- 특정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실적을 다른 평가지표에서 기술하거나 심화인터뷰 시 평가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밝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음. 이는 해당 평가지표에 관련된 실적이 있음에도 설명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함.

- 평가지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초점이 어긋나게 설명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으며, 평가요소 중 일부 요소에 대해서만 설명한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평가지표 확정 후 재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음.
- 일부 문화재단의 경우 의욕이 지나쳐 하나의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이 수십 쪽을 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설명을 한 두 줄, 혹은 '해당 없음'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음. 해당 평가지표와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마구잡이로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핵심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음.
- 따라서 올해 처음 시도한대로 자체평가보고서 전체 분량을 제한하는 동시에 평가지표 당 설명 분량(가령 5쪽 이내)도 제한하고 설명이 길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요지'를 먼저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능률적인 평가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봄.
- 차기연도 평가 시행 시에는 평가지표, 평가요소, 보고서 작성 주안점 및 별첨자료 예시 간에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합성(整合性)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전체적으로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봄.

제1-4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 사업영역의 새로운 설정에 따른 단계적 접근 및 발전적 전망

- 2013년 대비, 2014년 '교류활성화' 사업의 경향성
- 교류활성화 사업은 2014년에 처음으로 지역협력형 사업 중 특성화 단위사업으로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타 분야에서 이루어진 국제교류 사업들이 평가대상으로 기술되었음.
-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관성이 있어서, 레지던스 프로그램 자체의 창작 몰입 결과와 공동체 커뮤니티성 사업들의 성과 및 국내외 예술가들의 교류성 접촉과 활동성과들이 독립적으로 다루어지거나 통합되어 자체평가됨.
  - 예컨대, 14개 지역 중 총괄형 기술은 9개 지역 -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부산, 울산, 전북, 충남, 충북 등 -이며, 분리형 기술은 5개 지역 -대구(해외파견, 직접 레지던스), 대전, 인천, 전남, 제주(국제문화예술교류와 창작공간 프로그램) 등 -에서 나타남.
  - 한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서울, 경기지역은 '교류활성화' 부문을 기존의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동일시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
  - 신규로 확정된 '교류활성화' 사업의 국제적인 활동으로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되,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고유 특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공간 안의 국내 · 외 예술가 간 교류, 지역 주민과의 교류, 국내 동일 장르 예술가 간 교류 등도 성과로 다룰 수 있도록 최소한 향후 3년간은 성과목표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후 평가를 통해, 성과목표들의 성과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성과의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설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의 취지와 성격 및 목표에 대한 공론화와 상호 이해 및 합의 도출

- 교류활성화가 목표인가 과정인가의 문제 제기
  - 교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류는 방법론일 뿐 실제 교류에 활용되는 콘텐츠는 예술이라고 할 때, 교류활성화는 방법론으로서의 과정임.
  - 예술가들이 자기 창작의 세계에 몰입하는 시간이 계획보다 길어질 때 혹은 창작의 지속적인 과정 속에서 창작결과물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전문적인 평가나 반응을 참고하고자 할 때, 또는 창작의 새로운 영감을 얻거나 나누려고 하는 의식이 배가될 때, 도전적인 자극을 통해 지역 예술계와 예술가에게 창조적 영감을 주고, 활기를 불어 넣음으로서 의외의 발상으로 창작의 소재를 발굴하고, 장르 내외의 협업을 추구하는 등 교류 자체를 목적으

로 여기는 '교류활성화' 사업이라면 그 자체가 방법론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기획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역과 예술작품을 접촉하고, 예술인으로서의 자신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사고 영역을 넓히고 사고를 심화시키는 성과를 얻게 됨. 따라서 '교류활성화' 자체가 목적인 교류사업을 안정화시키려면, 모든 영역의 사업 중 교류를 목적으로 기획된 사업들을 독립시켜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성과들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해야 할 것임.

- 국외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작가들을 수용한 뒤 작업을 진행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처음부터 작가들의 작품 경향과 의도가 반영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작가 자체의 방향 설계를 요구하는 등 자율적인 기획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연이나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가들은 교류 사업을 통해 프로그램 수행 이전부터 예술 창작의 장르, 방법론 등 기획력과 협업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음. 이런 경우 교류 사업은 단순히 방법론적인 과정 중심의 사업으로 머물지 않음.

□ 교류사업의 유형화는 가능한가?

– 이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내의 '교류활성화' 사업 외에도 국제교류 사업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 특히 문학과 시각예술 등의 참여가 가능한 장르별 국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명을 제시하고 지원자가 응모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있음.

- 장르별 국제교류 종합프로그램: 문학,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등 장르 별 민간국제예술교류, 해외 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 ARKO-PAMS 협력사업
- 교류 내용별: 해외 기관 · 단체 등과의 공동 제작 및 발표,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교류사업의 참가, 국제 네트워크 및 글로벌 역량 강화 활동, 해외 저명 예술인 초청 국내 교육연수 프로그램,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 문화예술 교류 사업, 2013~2014년도 커넥션사업 사후 협력 프로젝트, 국내 · 외에서 개최되는 남북 문화교류사업

– 따라서 기존의 국제교류 사업의 유형화는 장르별, 그리고 교류방식별로도 가능함. 또한 지역협력형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국내의 다각적인 교류, 장르 간 교류, 사업 간 교류 등도 고려할 수 있음.

– 물론 예술가들이 자체적인 교류수요와 성과목표에 대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아직은 일반적인 유형화가 아니지만, 창작소재 및 창작방식의 발굴형, 창작결과의 발신형, 네트워크 조성형, 예술가 간 소통추구형, 문화다양성 체험형, 장르 간 접촉과 융합적 도전형 등 세부적인 유형화도 점진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기존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의의와 배치 문제

– 레지던스 사업 특유의 정주공간으로서의 숙박시설 구비라는 환경적 조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의적으로 그 전통적인 특수한 조건을 벗어던져도 좋은가? 레지던스 사업이 교류활성화만 추진하더라도 사업의 성과나 완성도는 높아지는가?

-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숙박시설을 구비하는 특수성 혹은 고유성을 가지는 것은 국내나 국외의 예술계에서 공히 통용된 담론이자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물론 예술가의 존재이유로서 부르디외(Bourdieu)가 언급한 '항상 새로운 변화를 지향하는 예술가' 로서의 전위(Avantgarde)적인 역할을 고려한다면, 개인으로서의 예술가는 어떠한 관행이나 담론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프로그램이나 작품을 기획하는 파격을 지향할 수 있고, 그 파격 자체가 예술적 행위나 용기로 칭송되거나 평가될 수 있음.
- 그러나 한편 예술계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조건 – 경계를 넘어 타 지역과 타 문화 이해 및 창작 소재 · 방식 · 의도에 대한 예술가 간 지속적인 소통, 장르 간 협업과 영감의 교환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경험적 삶과 창작의 공간 – 으로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것으로 널리 용인되고, 계승되어온 정주형 예술창작 프로그램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해 특별히 색다른 취지나 가치 부여나 도전적인 명분이 없이 그 조건을 간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현실적으로도 숙박시설의 설치나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정주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폐해 때문이라거나 새로운 도전적 창조성으로 인한 변화는 아님. 따라서 오히려 숙박형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방향이나 신규 레지던스 시설 건립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임.
- '교류활성화' 를 예술가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일회성 접촉 행사로 협의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고, 레지던스 프로그램 자체를 정주형 창작을 통한 교류활성화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함. 따라서 레지던스 사업이 교류활성화만 추진하더라도 사업의 성과나 완성도가 높아지는가? 라는 질문은 교류활성화를 예술 창작이 목적시 되지 않는 일회성 행사로 인식하는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음.

□ 사업의 고유한 특징에서 나타난 부수적인 문제들의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

– 부수적인 문제들의 내용에 따라서 관리 주체는 달라질 수 있음. 예술가들은 자신들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나 교류프로그램을 기획할 당시의 성과목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고, 재단 실무자들은 예산의 집행과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사업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 실무자와 예술가들의 역량개발 워크숍이나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 사실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지역 레지던스 프로그램 내에 소속된 큐레이터나 기획자가 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가 관리해야 하며, 주민들은 향유권, 참여권이 주어질 뿐, 사실상 관리나 참여의 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사업의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방향

– 창작몰입형 레지던스와 공공 커뮤니티형 레지던스 사업의 평가기준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창작몰입형 레지던스는 창작활성화 사업에 해당하고, 공공 커뮤니티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지역주민과의 교류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의 고유성에 따라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함. 하나의 사업명이지만, 지역의 예술가 초청 환경과 지역의 문화 정책적 목표를 기준으로 그 성과목표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평가보고서에서는 지역 실무자들과 프로그램 수행자들의 기획단계의 합의와 사후 성과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별도로 나뉘어 기술될 수 있음.

□ 비계량적 성과로서의 축제와 페스티벌에 초청된 내용들이 자체평가서의 주요 리스트로 작성되어 올라와 있는데, 그러한 초청행사의 리스트가 비계량적 성과를 대표하는가?

– 초청행사의 리스트는 마치 계량성과에 가까운 성격을 보여줌. 초청행사 리스트에 나열된 행사 빈도는 정량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임.

– 따라서 초청행사에 참여한 예술가의 작품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작가들은 그 행사에 참여해서 어떤 새로운 체험과 학습을 하고 자극을 얻었는지, 그 행사에 대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획자나 국제교류 활동 기획자의 평가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로서의 후기가 서술되는 것이 좀 더 적합할 것임.

□ 사업의 성과 확산 및 결과 관리 · 활용 방안

– 교류사업들의 데이터베이스는 광역 레벨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외예술지원 정보DB, http://online.arko.or.kr)’가 국내외 지원사업들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해 운용하고 있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들은 2015년의 정보도 소개해서 안내해 주고 있지만,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성과 등에 대해서는 2012년 정도에서 ‘사업참여 후기’와 관련된 블로그를 안내하고, 정보들이 멈춰있는 상태임.

• 각 지역의 재단들이 사실상 자체 홈페이지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 등이 연동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지역재단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수준에서라도 중앙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기능하여, 신진예술가들에게 국내외 레지던스나 교류프로그램의 정보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국내에서도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자는 지역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재단의 홈페이지들을 일일이 검색하는 수고를 아낄 수 있는 정보망이 있다면 무척 편리할 것임.

□ 레지던스 사업 참여자 전체의 아트페어는 불가능한가? 작품은 팔려야 하는가?

- 아트페어나 아트페스티벌은 가능할 것임. 문예위 지역협력관의 전문적인 정보에 의하면 특정 지역(예: 군산지역)에서 전국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 예술가들이 합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트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역 순회를 통해 예술가들의 성과물을 공유하고 교류하고 유통의 통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그러한 비용을 전담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무리한 기획은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아트페스티벌로의 연결을 담보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예술가들의 작품이 모이고, 관객이 모여서, 우리나라와 세계를 향한 창작 발신의 광장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플랜이 필요함.
- 예술가의 존재이유를 '세상을 다르게 보게 하는 것을 창조하는 행위자' 라고 한다면, 사실상 작품의 판매라고 하는 자본취득과 수익창출의 활동이 이 시대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순응이고, 이러한 순응에 대한 저항이나 극복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레지던스 사업 참여자 전체의 아트페어에서의 판매란 단순히 경제적 수입원의 획득이 목표가 아니고, 성과보고형 축제에 참여한 관객들과의 공감과 소통의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술가로서의 존재의미를 강화시킬 수 있는 현장의 관계 맺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교류활성화 사업들이 남겨준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Fair는 불가능한가?

- 아트페어와 같이 국내외 문화교류 사업의 성과공유가 가능함. 예컨대, 유네스코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네스코 아프리카 브릿지 3기(2014년) 활동' 을 아프리카 5개국에서 수행 완료한 3기 활동가 8명이 2015년 3월 18일~3월 19일까지 귀국보고회를 가졌음. 르완다, 남아공,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5개국에서 9개월 간 활동을 한 이들이 지역별 · 사업별로 상세한 진행 결과를 보고하였고, 이러한 현장경험자들의 보고에 대한 관심층의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피드백도 이끌어내었음.(유네스코 뉴스레터 2015년 4월호 참조, www.unesco.or.kr)
- 이와 같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 국제교류와 국내교류를 한 사업성과에 대해 사업 참여자들이 성과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틀 정도의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 것임. 이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심과 추후 교류를 기획하고 있는 전국 예술계의 관심층들이 빠짐없이 성과보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의 적극적인 안내도 필수임. 이러한 성과보고형 페어는 국내외 교류가 예술가 개인 레벨의 경험이나 후일담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과가 후속 예술가에 의해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는 정보원으로 작동하며, 국내외 예술계와의 네트워크가 간신히 맺어졌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계와 네트워크의 밀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음.

제1-5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시민참여활성화사업 분야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개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고 우리가락우리마당 9개, 우리가락우리마당과 시민참여활성화사업 기획 1개, 시민참여활성화사업 기획 3개로 시행하였음.
- 8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우리가락우리마당의 브랜드 이미지가 전통국악공연의 형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음.
- 전통국악의 대중화와 야외공연장의 명소화를 이루면서, 고정 관람객과 매니아 층이 형성되고 있고 생활문화속의 공연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음. 장르의 다양화와 신진예술가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전통국악의 보존과 현대적 일상화에 기여하고 있음.
- 야외공연장 또는 야외특설무대를 우리가락우리마당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국악공연의 장소성과 전통문화예술의 향유권 신장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며 공연장의 국악공연 명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다수의 지역에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 지속적인 운영으로 관람객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고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생활 공감형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
- 야외공연장의 국악 명소화와 함께 우천시 대비, 기반시설의 열악함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 다수의 지역에서 신진예술가, 신진단체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고, 명인 명창, 시민동아리 초청공연 등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어, 특정단체나 특정 장르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구성을 통한 예술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시민참여활성화 영역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우리가락우리마당을 넣었지만, 부산의 경우 생활예술지원사업, 경기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경남 도민예술활동지원, 제주 도민문화표현활동지원 등 새로운 기획과 기존 육성지원사업 중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시민참여활성화에 포함하였음. 경기도의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는 3년간 지속되었던 사업을 시민참여활성화 영역으로 분류하면서 지역공동체와 예술단체 연계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키며 지역문화기반시설을 활성화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시민참여활성화 영역은 전문예술가 지원이 아닌 만큼 시민참여형, 아마츄어동아리형, 예술가와 시민 협력형, 등 일반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와 참여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과 기획이 필요함.

-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가락우리마당을 시민참여활성화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국악의 대중화와 장소의 명소화 못지않게 시민참여를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 보임.
- 육성지원사업 중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시민참여활성화 영역으로 분류하거나, 새로운 기획으로 시민참여활성화 영역의 확대가 예상 되나, 단순히 육성지원사업 중 시민동아리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보다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획과 접근이 필요해 보임.
- 본 평가는 서면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현장평가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제한적 평가로 활용에 한계를 가질 수 있음.

제1-6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지역자원, 지역특성 활용 취지에 대한 이해 차이

- 특성화사업 취지는 지역의 문화자원, SW를 창작소재로 적극 활용하는 데에 있음. 그러나 이 취지에 대하여 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사업계획에서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극단적인 예로 울산의 경우는 상주단체사업을 특성화로 추진).
-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평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낮은 점수를 맞고, 전반적으로 점수 차이가 많게 됨.

□ 적정목표 설정여부

- 자치단체들이 사업목표를 제시하고 이의 달성여부를 평가함.
-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제시한 목표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사업의 자율성을 외면한 채 목표기준을 객관적으로 일방적인 제시는 할 수 없음.

□ 양적 · 질적 평가의 자의성

- 자체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성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임.
- 이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데서부터 시작됨.
- 따라서 양적 질적 목표달성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움.

□ 업무수행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표준화되어 있음.

-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일상적 절차인 공모, 심사, 자체평가 등은 이미 모든 자치단체들서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실제평가에서 이 항목은 지역 간 추진 여부를 파악하는데 더 이상 변별력 있는 지표가 되지 못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것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 이 지역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추진해야 함.

□ 교육학습 개선

- 명확한 이해를 도와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담당자에게 충분히 숙지시켜야 하며, 사업진행에 관련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업무 가이드북을 제작, 보급해야 함.

제2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1. 문제점 및 개선과제

- 공연장상주사업은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협력사업으로서 공연장의 참여가 중요하며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공연장의 협력과 사업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함. 전문인력 채용을 필수사항으로 두고 공연장 사업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주단체와 협의하여 상주사업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음. 평가 우수시에 공연장에 지원되는 인센티브 혜택 등 공연장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함.
- 다년간 연속으로 하위의 평가결과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 예술단체들이 제대로 된 예술행정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촉진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개선의 노력을 취하지 않을 경우 지원 중단, 지원금 감액, 평가 거절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개선책과 자구노력을 제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재단 설립, 전담 예술지원팀 구성, 전문계약직 채용 등)
- 본 사업은 사업운영 인력과 조직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의 적정규모 전담인원 확보, 업무 연속성/관련성 있는 인사이동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업무협조, 사업운영지침 제시 등이 필요함.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인사이동과 인력 미비로 인해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사업발전이 정체되거나 사업성과가 위축되고, 몇몇 지역은 상당기간 동안 체계적인 예술행정 지원으로부터 방치되어 왔음. 그 폐해는 고스란히 예술단체의 활동성 약화, 창작역량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예술향유에 사업 취지가 충분히 도달되지 못하게 됨.
-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의 보다 적극적인 통합홍보와 관객개발 활동이 필요함. 공연장과 상주단체들의 DB를 공유하고 통합하여 관객을 관리하고 홍보하거나, 상주단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언론홍보 부분을 재단이 적극적으로 통합 지원하거나, 상주단체의 관극회원을 확대하도록 기업,단체와 연계하여 후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또한, 서포터즈와 시민모니터를 블로그와 SNS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대중교통(버스 등)의 실내 전광판을 후원받는 등 다각적인 시도가 필요함.
-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이 공연장과 상주단체에 대한 평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요구사항을 차기년도 사업에 환류하고, 이와 더불어 공연장상주사업을 운영하는 시 · 도 및 지역문화재단 스스로의 자체 평가로 진전시키는 평가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역의 경우 복지적 입장, 세입 처리 문제 등 도 차원의 정책으로 인해 상주공연을 유료화하기가 곤란한 상황임. 상주사업의 취지 중의 하나가 상주단체의 자생력 확보에 있는 바, 유료공연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지역에서는 상주사업에 대해 호감도가 높고 안정적인 창작기반 마련에 대한 기대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데 반하여, 공연장상주사업의 지속 여부와 정책적 연속성에 대해서는 상주단체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사업의 큰 틀이 자주 변경되는 것은 정책적 효과나 행정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사업의 취지를 살리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의 생산적 변화가 필요함. 또한, 공연장 가동율 제고, 공연예술단체의 자생력 제고 등의 기존 사업목표와 취지 이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따른 자율적 사업운영을 통해 효과가 확장되고 있는 현재의 부가적 상황에 대한 분석과 반영도 필요함(공연장상주사업을 통해 공공공연장을 활용한 문화소외지역의 균형적 문화발전과 문화향유 확대, 문화소외지역 문화예술단체 설립 확대, 레퍼토리화를 통해 상주단체 창작역량의 제고,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전문성 강화, 아트마켓형 상주축제를 통해 유통판로 다각화, 질적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 문화역량 제고 등)
-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기본 성과 통계(공연장: 가동률, 객석점유율, 관람객 수 등/ 공연단체: 연간 공연작품, 관람객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제6장

평가 분석과 시사점

제1절: 2013년도 평가 결과와 비교

1.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종합 부문 평가 등급 비교
2.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 평가 등급 비교
3.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등급 비교
4.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등급 비교
5.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업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등급 비교
6.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등급 비교
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등급 비교

제2절: 2010~2014년도 5년 간 평가 결과 비교

1. 2010~2014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지역별 · 등급별 · 연차별 비교

제1절 2013년도 평가 결과와 비교

- 2013년과 2014년도 평가는 평가부문과 평가체계의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평가부문에 대한 비교가 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만을 가진다는 한계점을 이해하고 비교결과를 참고해야 함.
- 2013년과 2014년도 평가결과 비교는 먼저 2013년도 종합평가 등급과 2014년도 특성화지원사업 종합평가 등급을 비교하였는데, 2013년도는 공연장 상주사업의 결과까지 합친 종합평가이므로 단순비교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하기 바람.
- 두 번째는 2013년도 공통평가지표 평가결과와 특성화 통합평가 결과를 2014년도 특성화 통합부문과 비교하였음. 2014년도에는 특성화 통합평가가 2013년도 공통평가의 지표 일부를 삭제하고 특성화 통합부문과 합쳐서 이뤄진 평가이므로 전년도 2개 평가부문과 금년도 특성화 통합 부문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세 번째로는 사업부문에 대한 비교로 2013년도 육성지원사업과 2014년도 창작활성화 부문을 비교하고, 2013년도 레지던스 사업부문과 2014년도 교류활성화 부문을 비교하고, 2013년도 시도기획사업과 2014년도 지역특성화 사업부문을 비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3년도 우리가락 우리마당사업과 2014년도 시민참여활성화 부문을 비교해보았음.
- 4개 부문의 사업비교는 사업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2014년도 사업부문 결정에 전년도 4대 사업이 각각 연관될 수 있도록 사업부문을 결정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평가 결과 비교가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2013년도 평가지표와 2014년도 평가지표는 상당부분 차이를 갖고 있으므로 평가등급의 비교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각 지역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참고자료로서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함.
- 2절의 2010~2014년도 5년 간 평가 결과 비교는 5년간 동일한 사업명으로 추진되어 온 공연장상주사업만을 비교하였음.

1.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부문 평가 등급 비교

지역	등급		변화
	2013 종합	2014 특성화종합	
서울	가	가	–
부산	나	가	▲
대구	가	나	▼
인천	다	나	▲
광주	다	다	–
대전	나	나	–
울산	라	라	–
경기	나	나	–

지역	등급		변화
	2013 종합	2014 특성화종합	
강원	다	가	▲
충북	라	다	▲
충남	마	라	▲
전북	다	라	▼
전남	라	다	▲
경북	마	마	–
경남	나	다	▼
제주	다	다	–
세종	–	마	신규

[표 306] 특성화지원사업 종합 부문 2013~2014년 등급 비교

□ 2013년의 종합평가 결과와 2014년의 특성화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를 비교한 등급변화는 아래와 같음.

– 전년도와 변화가 없는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북, 제주 등 7개

–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역은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등 6개

– 전년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은 대구, 전북, 경남 등 3개

□ 위 비교표는 공연장상주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종합평가 결과와 2014년 공연장상주사업을 제외한 평가결과를 비교한 것임. 공연장상주사업은 별도로 평가결과를 비교하였음.

□ 비교한 것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기를 기대함.

□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아 등급간 격차가 미미함. 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들이 보고서 작성수준에서 크게 부족함으로 인해 재단이 설립된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별 자체 절대평가로 볼 때는 실제 사업 추진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새롭게 평가지역으로 포함된 세종시는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아직 사업규모가 적어 타 지역과 동일한 평가지표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 평가 등급 비교

지역	등급			변화
	2013 공통 항목	2013 특성화 통합	2014 특성화 통합	
서울	가	가	가	–
부산	나	가	나	–
대구	가	나	나	▼
인천	다	나	다	–
광주	다	나	다	–
대전	나	다	나	–
울산	마	라	마	–
경기	가	나	나	▼

지역	등급			변화
	2013 공통 항목	2013 특성화 통합	2014 특성화 통합	
강원	다	다	나	▲
충북	라	라	가	▲
충남	마	마	마	–
전북	라	라	다	▲
전남	라	다	가	▲
경북	마	마	마	–
경남	다	다	다	–
제주	라	다	라	–
세종	–	–	마	신규

[표 307] 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 2013~2014년 등급 비교

□ 2013년과 2014년의 특성화 통합부문의 평가결과 등급변화는 아래와 같음.

- 전년도와 변화가 없는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역은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등 4개
- 전년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은 대구, 경기 등 2개

□ 한편, 2014년에는 공통평가 부문이 없어져서 특성화 통합부문이 공통평가를 대체하는 평가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재단이 설립된 지역의 평가편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평가보고서 작성 역량이나 물리적인 작성여력이 부족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재단 설립지역과 평가면에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등급 비교

지역	등급		변화
	2013 육성지원사업	2014 창작활성화	
서울	가	가	–
부산	가	나	▼
대구	가	나	▼
인천	나	나	–
광주	나	다	▼
대전	나	나	–
울산	라	라	–
경기	나	나	–

지역	등급		변화
	2013 육성지원사업	2014 창작활성화	
강원	나	가	▲
충북	라	라	–
충남	마	마	–
전북	다	라	▼
전남	다	다	–
경북	마	마	–
경남	다	다	–
제주	다	다	–
세종	–	마	신규

[표 308] 특성화지원사업 - 창작활성화 부문 2013~2014년 등급 비교

□ 2013년 육성지원사업과 2014년의 창작활성화 부문 평가 결과 등급변화는 아래와 같음.

- 전년도와 변화가 없는 지역은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역은 강원 등 1개
- 전년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4개

□ 2014년 창작활성화부문의 평가는 기존 육성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전문예술창작지원 관련 사업들과 신진예술인육성 관련 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육성지원사업 보다는 확장된 사업부문임. 하지만, 의미 있는 비교를 위하여 전년도 육성지원사업과 비교해본 결과임.

4.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평가 등급 비교

지역	등급		변화
	2013 레지던스 사업	2014 교류 활성화	
서울	미추진	미추진	미추진
부산	가	가	–
대구	나	다	▼
인천	가	나	▼
광주	가	가	–
대전	다	다	–
울산	라	마	▼
경기	미추진	미추진	미추진

지역	등급		변화
	2013 레지던스 사업	2014 교류 활성화	
강원	나	나	–
충북	다	가	▲
충남	라	라	–
전북	다	다	–
전남	나	가	▲
경북	마	마	–
경남	다	다	–
제주	나	라	▼
세종	–	미추진	미추진

[표 309] 특성화지원사업 – 교류활성화 부문 2013~2014년 등급 비교

□ 2013년의 레지던스 지원사업과 2014년의 교류활성화 부문 지원사업의 평가결과 등급 변화는 아래와 같음.

- 전년도와 변화가 없는 지역은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
-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역은 충북, 전남 지역 등 2개
- 전년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은 대구, 인천, 울산, 제주 등 4개
- 서울, 경기와 세종에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

□ 2014년 새롭게 도입된 교류활성화부문 사업은 레지던스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에 육성지원사업 영역에 있던 '국제교류활성화 부문' 의 지원사업이 교류활성화 부문에 포함되었음.

□ 2013년 레지던스 사업과 비교해볼 때 향상된 지역보다는 낮아진 지역이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남.

5. 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평가 등급 비교

지역	등급		변화
	2013 우리가락 우리마당	2014 시민참여 활성화	
서울	미추진	미추진	미추진
부산	가	가	-
대구	가	다	▼
인천	미추진	미추진	미추진
광주	나	미추진	미추진
대전	나	나	-
울산	다	라	▼
경기	미추진	가	

지역	등급		변화
	2013 우리가락 우리마당	2014 시민참여 활성화	
강원	미추진	가	
충북	다	나	▲
충남	라	라	-
전북	나	나	-
전남	미추진	미추진	미추진
경북	라	마	▼
경남	미추진	나	
제주	미추진	라	
세종	-	다	신규

[표 310] 특성화지원사업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2013~2014년 등급 비교

□ 2013년의 우리가락우리마당 지원사업과 2014년의 시민참여활성화 부문 지원사업의 평가결과 등급 변화는 아래와 같음.

- 전년도와 변화가 없는 지역은 부산, 대전, 충남, 전북 등 4개
-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역은 충북 등 1개
- 전년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은 대구, 울산, 경북 등 3개
- 서울, 인천, 광주, 전남에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

□ 시민참여활성화 부문은 전년도 '우리가락 우리마당' 사업과 생활문화 및 시민주도형 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부문으로, 2013년 우리가락 우리마당 사업과 비교해 보았음.

6.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등급 비교

지역	등급		변화
	2013 시도기획 지원사업	2014 지역 특성화	
서울	미추진	미추진	미추진
부산	가	나	▼
대구	가	다	▼
인천	나	가	▲
광주	나	다	▼
대전	나	나	-
울산	미추진	마	
경기	나	나	-

지역	등급		변화
	2013 시도기획 지원사업	2014 지역 특성화	
강원	다	나	▲
충북	라	나	▲
충남	마	라	▲
전북	라	라	-
전남	다	다	-
경북	마	미추진	미추진
경남	다	가	▲
제주	다	나	▲
세종	-	미추진	신규

[표 311] 특성화지원사업 - 지역특성화 부문 2013~2014년 등급 비교

□ 2013년의 시 · 도 기획사업 평가 결과와 2014년 지역특성화 부문 평가 결과 등급변화는 아래와 와 같음.

- 전년도와 변화가 없는 지역은 대전, 경기, 전북, 전남 등 4개
-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역은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 6개
- 전년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 서울과 울산, 세종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

□ 2013년 시 · 도 기획사업과 2014년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의 평점 평균 비교를 해 볼 때 전년도에 비해 가장 높은 평점 향상도를 보였던 사업임. 2014년에 지역특성화부문 사업에는 지역특화기획 사업과 기타 특성화 부문 지원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역특성화 부문' 사업으로 묶어 각 부문 사업을 추진한 지역을 평가하였음.

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등급 비교

지역	등급		변화
	2013	2014	
서울	가	나	▼
부산	다	가	▲
대구	가	가	–
인천	라	라	–
광주	다	다	–
대전	나	다	▼
울산	나	마	▼
경기	다	가	▲

지역	등급		변화
	2013	2014	
강원	다	가	▲
충북	라	다	▲
충남	마	마	–
전북	다	라	▼
전남	나	나	–
경북	마	마	–
경남	가	라	▼
제주	라	라	–
세종	–	미추진	미추진

[표 31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2013~2014년 등급 비교

□ 2013년과 2014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평가결과 등급 변화는 아래와 같음.

- 전년도와 변화가 없는 지역은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7개
-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역은 부산, 경기, 강원, 충북 등 4개
- 전년도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은 서울, 대전, 울산, 전북, 경남 등 5개
- 세종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

□ 2013년 공연장상주사업과 2014년 공연장상주사업의 평가는 동일 사업부문으로 유의미한 비교가 가능한 사업이며, 세종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14년에는 광역도단위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제2절 2010~2014년도 5년간 평가 결과 비교

1. 2010~2014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 결과 지역별 · 등급별 · 연차별 비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	★		★						★							
나						★		★								★
다				★	★							★	★			
라		★					★			★				★	★	
마																
미추진											★					

2010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	★		★													
나		★		★				★	★						★	
다					★	★										★
라							★						★	★		
마										★	★	★				

2011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	★		★													
나		★						★	★						★	
다				★	★	★	★					★				
라										★			★	★		
마											★					★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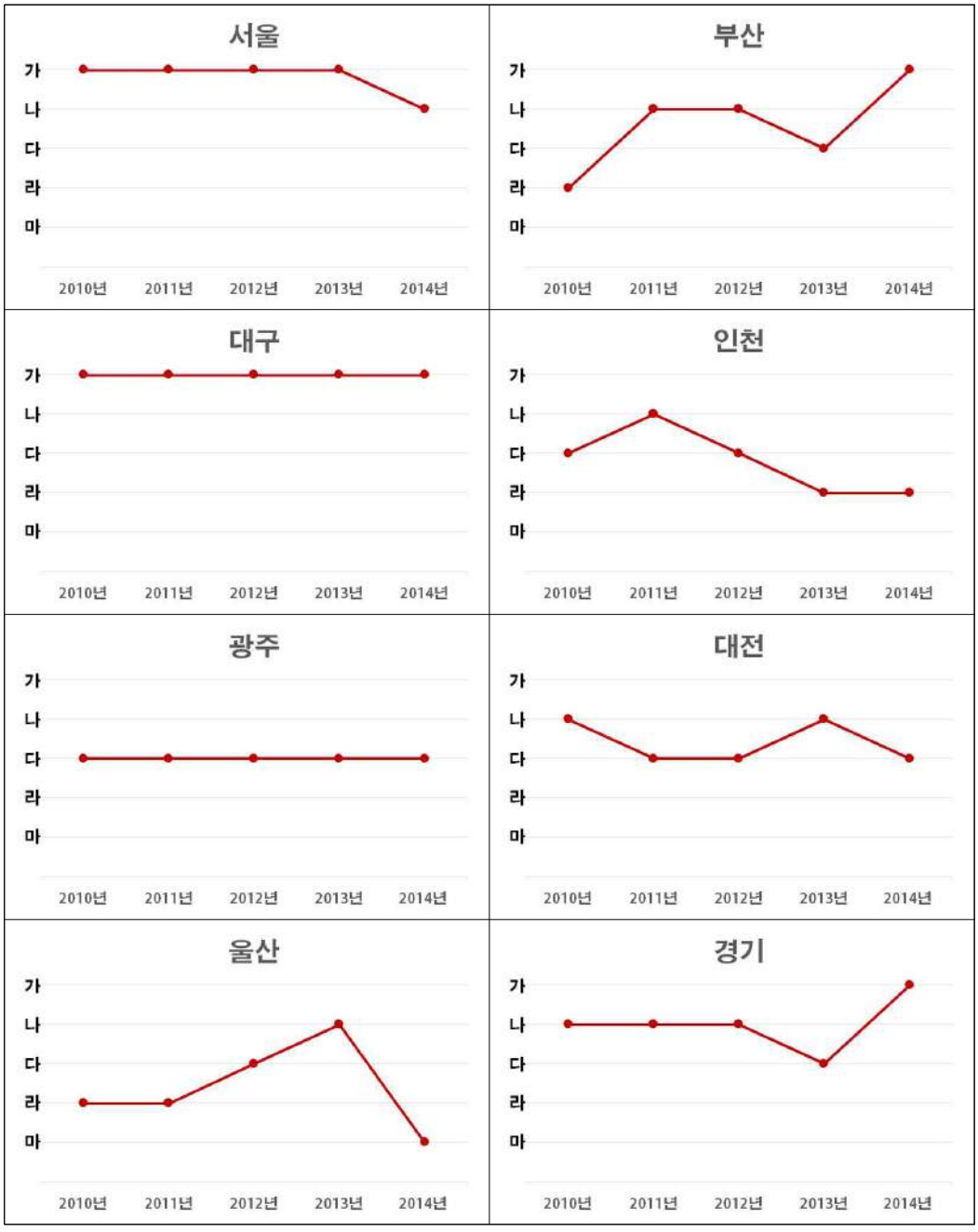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	★		★												★	
나						★	★						★			
다		★			★			★	★			★				
라				★						★						★
마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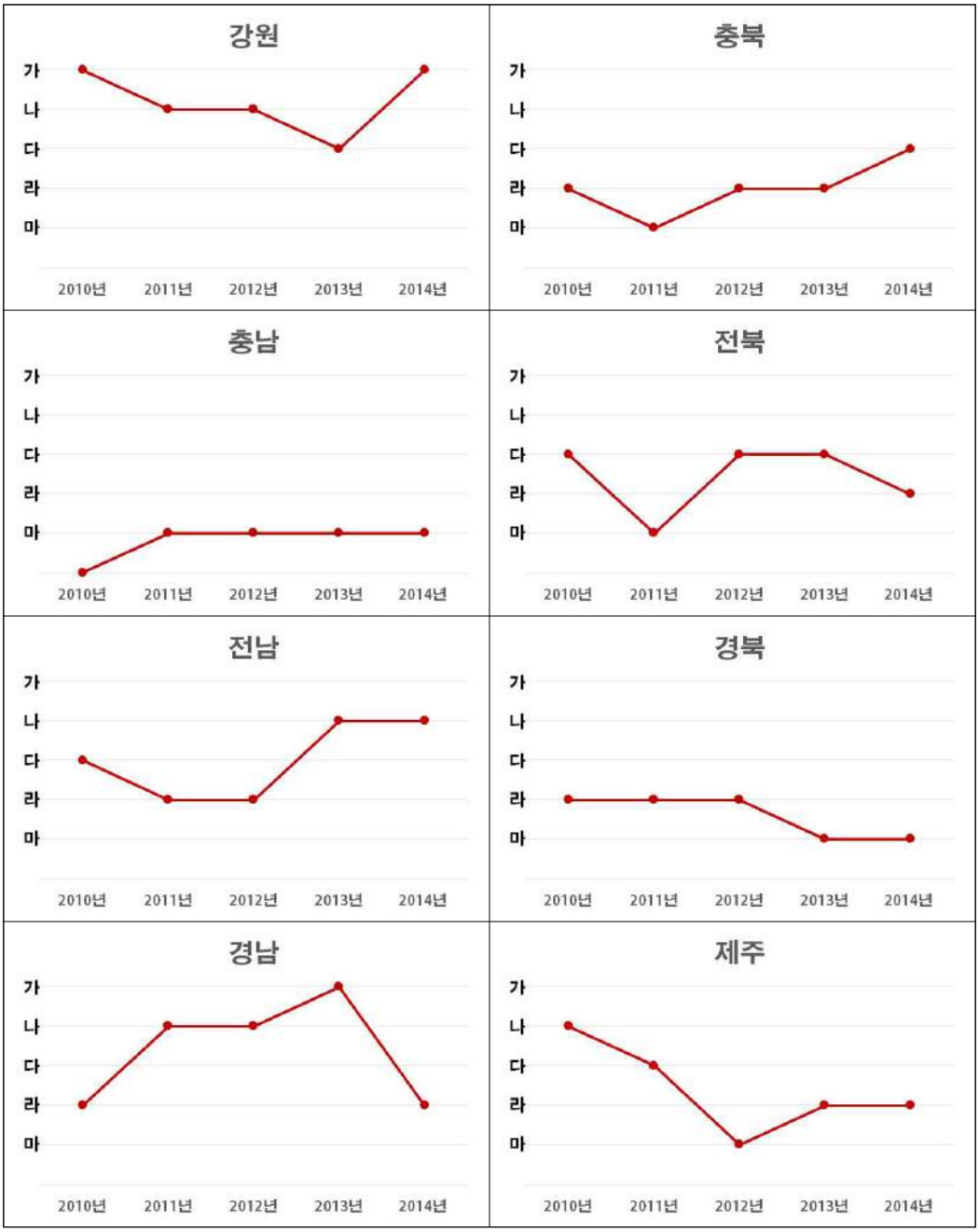
2013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		★	★					★	★							
나	★												★			
다					★	★				★						
라				★								★			★	★
마							★				★			★		

2014년

[표 313] 2010~2014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결과 등급 비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가
나
다
라
마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
나
다
라
마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제7장

부록

제1절: 2014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지표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개별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개별 부문 지표별 주안점 및 별첨자료 예시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통합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구 분	특성화 지원사업(통합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특성화 통합 지표 (40점)	사업계획	1. 사업계획 적절성	10점	1.1. 특성화사업 성과목표 설정여부 및 적합성
				1.2. 특성화사업 설계의 방향성 및 전략의 구체성
				1.3. 특성화사업 기획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사업집행	2.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5점	2.1. 특성화 사업추진일정(공고,신청,심의,교부 등)의 적절성
				2.2. 심의 절차 및 심의위원 구성의 적절성
		3. 교류협력수준	5점	3.1. 지역예술인(예술단체)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3.2. 지역 및 해외와의 교류협력 추진노력
		4. 소통체계마련 및 운영수준	5점	4.1. 지역수요자 문화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
				4.2. 통합홍보 추진 노력의 적절성 및 성과
	사업성과 및 평가환류	5. 사업성과	12점	5.1. 계량성과 취합 체계 및 성과정리 적절성
				5.2. 비계량 성과 정리 체계 및 적절성
		6. 평가환류	3점	6.1. 자체평가체계 운영의 적절성

구 분	특성화 지원사업(개별지표)							
	평가항목		배점 범위	평가지표	사업그룹별 세부배점			
					창작활성화	교류활성화	시민참여 활성화	지역특성화
특성화 개별 지표 (60점)	사업계획	1.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10~20점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5점	10점	5점	10점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	5점	5점	10점	10점
	사업집행	2. 사업추진 기초역량	5~20점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 기준	5점	10점	2점	5점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10점	10점	3점	5점
		3. 사업운영의 적절성	10~20점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	5점	5점	10점	5점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	5점	5점	10점	5점
	사업성과	4. 사업추진 성과	10~15점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5점	5점	5점	10점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10점	10점	5점	5점
	평가환류	5. 평가환류	5~10점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 만족도 조사 결과	10점	10점	10점	5점
	지원사업 분야별 배점 합계				60점	60점	60점	60점
	지원사업 분야별 가중치 합계 100%			예산비중에 따른 가중치 반영 70%	30%	20%	10%	40%
				지역별 특성에 따른 자율가중치 반영 30%	자율결정	자율결정	자율결정	자율결정
	※ 지원사업 분야별 가중치 중 자율가중치(30%)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70%의 가중치는 지원예산비중으로 가중치가 자동적으로 결정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개별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배점	보고서 작성 주안점 및 별첨자료 예시
사업 계획	1. 사업계획 적절성 (10)	1.1. 특성화사업 성과목표 설정여부 및 적합성	· 특성화 사업의 목적 제시수준 ·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목표 및 지표설정 여부와 사업목적과의 연계성 · 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연차별 성과목표 수립여부 · 사업별 성과목표에 대한 선정단체 공유노력	3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사업별 계획서(또는 지원신청 안내문)상에 성과목표가 기술되어 있는가? ○ 사업의 연차별 혹은 발전단계별 성과목표를 기술하고 있는가? ○ 특성화 사업별 성과목표를 선정된 단체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사업목적과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인과관계 설명자료 ○ 계획서, 지원신청안내문, 실적보고서(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해당부분 ○ 특성화 사업별 설명회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자료
		1.2. 특성화사업 설계의 방향성 및 전략의 구체성	· 특성화 사업 설계의 사업목적 부합여부 · 특성화 사업 추진전략의 구체성 수 · 지역의 특성과 비전의 반영 수준과 특성화 수준	4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사업설계 내용과 특성화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와의 연계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 특성화 사업 계획이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지역 특성과 문화자원을 잘 반영하고 있는 특성화 사업들을 설계하였는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특성화 사업 설계를 위한 기획회의, 포럼, 세미나, 워크숍 추진 실 적 ○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지역 예술인, 예술단체 등 수혜단체들의 의견수렴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
		1.3. 특성화사업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 사업담당자들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여부 · 기획역량 강화 노력을 통해 얻어진 실제적인 성과	3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특성화 사업 담당자들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는가?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설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역량강화 노력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지원사업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추진 실적 ○ 기타 지역만의 특별한 직원 역량강화 실천 사례
사업 집행	2. 사업일정 및 사업심의 적절성 (5)	2.1. 특성화 사업추진일정(공고,신청,심의,교부 등)의 적절성	· 사업공고 및 선정 일정의 적절성 ·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일정 준수 여부	2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지원사업 추진일정이 추진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가? ○ 지원사업 추진일정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지원사업 공고, 신청, 심의, 선정절차를 정리한 지원사업 추진일정 경과 보고자료 ○ 지원금 신청에 따른 교부 실적 보고자료
		2.2. 심의 절차 및 심의위원 구성의 적절성	· 심의위원 위촉방식 및 심의위원 선정 적절성 · 심의과정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	3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사업별로 심의위원 선정기준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지역 및 외부(타지역)심사위원의 비율이 적절하며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가? ○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결과 전체가 공개되고 있는가? ○ 심의기준이 지원사업의 목표와 일치하고 있는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심의위원 선정기준 및 실제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자료 ○ 사업별 심의(선정)기준 및 심의절차가 정리된 자료
	3. 교류협력 수준 (5)	3.1. 지역예술인(예술단체)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 지역 예술인들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시 · 도(문화재단)와 지역예술인(단체)들과의 소통을 위한 채널 운영 수준	3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지역예술인들간의 상호 소통 및 교류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 시 · 도(문화재단)에서 지역예술인(단체)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지역예술인(단체)들의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실적 ○ 지역예술인(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실적

		3.2. 지역 및 해외와의 교류 협력 추진 노력	· 시 · 도(재단)가 중심이 된 지역간 교류 및 해외와의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활동 수준	2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지자체, 재단이 기획의 주체가 되어 타 지역과의 교류, 협력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무엇인가? ○ 지자체, 재단이 해외 예술가(예술단체), 기관들과의 국제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무엇인가? ○ 지자체, 재단이 지역 예술가(예술단체)의 국제교류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지자체, 재단이 기획하여 타 지역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한 사례 정리 및 성과 증빙자료 ○ 지자체, 재단이 해외 예술가(예술단체)와 지역 예술가(예술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한 사례 정리 및 성과 증빙자료
	4. 소통체계 마련 및 운영수준 (5)	4.1. 지역수요자 문화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	· 시민 모니터링과 관객만족도 조사 체계와 실시 수준 · 시민들의 문화수요 관련 의견수렴 채널 운영여부	2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시민모니터링단 운영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가? ○ 관객 만족도 조사가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잘 관리되고 있는가? ○ 일반 시민 수요자들의 문화수요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의 운영수준은 적절한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및 운영결과 자료 (모집, 교육, 활동, 모니터링 결과 공유) ○ 외부 전문기관에서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결과보고서 ○ 시민 문화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조치 결과 및 시민 문화수요조사를 위한 연구추진결과 요약자료 등 관련자료
		4.2. 통합홍보 추진 노력의 적절성 및 성과	· 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홍보채널 확보 및 운영의 적절성	3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SNS,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가 적절히 확보되어 있으며 잘 운영되고 있는가? ○ 지원사업 홍보지원 및 시.도(재단)자체 기획사업 홍보 업무 전담인력이 있는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매체 운영실적 자료 및 우수홍보사례 ○ 지자체(또는 재단) 명의의 주요지원사업 및 기획사업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자료
사업 성과 및 환류	5. 사업 성과 (12)	5.1. 계량성과 취합 체계 및 성과정리 적절성	· 지원사업의 성과취합을 위한 체계마련 여부 · 계량적 성과 제시를 위한 자료 취합 및 정리 수준 · 계량적 성과의 연차별 변화추이 분석여부	7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지역협력형사업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 매년 지역협력형사업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계량적 지표들을 취합하고 있는가? ○ 매년 계량적 성과지표들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있는가? ○ 계량적 성과지표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가? ○ 취합된 계량적 성과가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특성화지원사업의 계량성과 제시자료 및 증빙자료 ○ 계량적 성과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과 향후 계량적 성과를 높이기 한 계획
		5.2. 비계량 성과 정리 체계 및 적절성	· 지원사업의 비계량적 성과정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지원사업의 비계량적 성과 제시여부 및 성과수준	5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특성화사업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비계량적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가? ○ 다양한 측면의 비계량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취합,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업기획에 반영하고 있는가? 〈정리자료 및 추가 별첨자료 예시〉 ○ 특성화 사업이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비계량적 성과를 증명하는 다양한 자료 (인증, 수상, 국제교류성과 등 사업실적으로 제시할만한 성과 자료) ○ 1월에 제출한 비계량적 성과와 추가적인 비계량적 성과 자료

	6. 평가 환류 (3)	6.1. 자체평가체계 운영의 적절성	·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여부 · 평가결과를 실제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 여부	3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전년도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결과를 사업개선 및 사업설계에 반영하고 있는가? ○ 선정단체의 예산집행 투명성 평가와 평가환류가 이뤄지고 있는가? 〈정리자료 및 추가별첨자료 예시〉 ○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방안 정리 자료 ○ 평가결과를 차기년도 선정과정에 반영하는 방식에 관한 토의 자료 ○ 전년도 평가결과 적용 및 사업개선 방안 정리자료 및 증빙자료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개별 부문 지표별 주안점 및 별첨자료 예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배점	보고서 작성 주안점 및 별첨자료 예시
사업 계획	1. 사업기획, 실행의 독창성 및 지역성 (10~20)	1.1. 사업기획 및 실행의 독창성 및 효과성	· 차별화된 사업기획력 반영여부 · 창의적 사업실행방식의 채택여부 · 사업실행방식의 효과성 여부	5~10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사업기획이 독창성이 뛰어난 차별화된 기획인가? ○ 사업실행방식에 있어서 창의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 ○ 사업실행방식이 실제 효과적인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사업기획의 차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정리자료 및 증빙자료 ○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식에 있어서 독창성이 사업성과로 드러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사업결과보고서, 보도기사, 전문 예술 평론가의 평론 등)
		1.2. 사업기획 및 사업내용의 지역성	· 사업기획 및 내용에 있어서 지역 특화문화자원의 연계수준	5~10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부문별 사업기획 및 선정된 개별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지역 특화문화자원이 잘 연계되고 활용되고 있는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사업기획에 있어서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반영한 기획임을 증명하는 자료 ○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식에 있어서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에 대한 활용이 잘 드러난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사업결과보고서, 보도기사, 전문 예술 평론가의 평론 등)
사업 집행	2. 사업추진 기초역량 (5~10)	2.1. 사업별 추진단체 선정기준	· 선정기준 및 선정율의 적절성 여부 · 평균지원액 규모 및 중복지원 제한여부	2~10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선정된 단체(개인)이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되었는가? ○ 사업별 특성에 맞게 적절한 선정율 수준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 사업수행에 적절한 수준의 지원액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가? ○ 중복지원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가? ○ 부문별 사업에 대한 선정단체 선정기준과 사업부문별 연차별 선정율 자료 ○ 사업부문별 평균지원액의 연차별 추이를 볼 수 있는 자료

		2.2. 사업별 선정단체의 사업추진 역량	· 전체 선정단체 중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비율 · 선정단체가 사업수행에 적절한 단체인가? · 사업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여부	3~10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사업별 참여단체(개인)의 참여조건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는가? ○ 사업부문별로 신규단체의 참여확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전문예술단체(예술인)의 참여확대를 위해 적절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가? ○ 부문별 사업에 필요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필수제출자료〉 ○ 사업부문별 선정단체의 지원금액 중 최고액과 최저액 지원단체의 단체소개 및 이력자료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지원사업 안내문에 참여자격(기준)에 대한 기술 내용 ○ 지원사업 부문별 선정단체들의 성격, 지원수혜경력, 전문예술법인(단체)여부 등을 정리한 자료 ○ 지자체나 재단이 예술단체의 전문예술법인화에 대한 교육, 지원 등 활동 추진여부 ○ 사업부문별 협력 연계 필요기관과의 협력관계 수준 및 협력활동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
	3. 사업 운영의 적절성 (10~20)	3.1. 지역문화수요자와의 소통능력	·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분석 여부 ·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운영 수준	5~10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사업부문별로 지역의 문화수요를 지원사업 설계 및 사업 선정에 반영하고 있는가? ○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기획, 운영이 적절한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지역문화수요 분석 관련 연구, 조사 여부 증빙자료 ○ 사업 부문별로 지역민들의 문화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업부문별로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을 알 수 있는 자료

		3.2. 지역민 대상 홍보 마케팅 노력 및 성과	· 사업별로 특화된 홍보마케팅 추진여부 · 지역민 참여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운영수준	5~10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사업부문별로 특화된 홍보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지역의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방안을 갖고 있는가? ○ 지원수혜단체의 홍보, 기획, 마케팅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자문,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는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사업부문별로 특화된 홍보마케팅 추진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규 문화수요 개발을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홍보,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업 성과	4. 사업추진 성과 (10~15)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사업목표대비 계량적 사업성과 수준과 적절성	5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사업부문별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 사업부문별 사업목표 대비 계량적 사업성과 수준이 적절한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부문별 사업에 대한 관람객 수, 발표작품 수, 참여예술인 수 등에 대한 입증 자료 (1월말 제출하는 계량 및 비계량 성과 제출자료 활용 및 추가 자료 제출)
		4.2.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성과 및 수준	5~10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사업부문별로 지역을 대표할만한 문화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 사업 부문별로 제시한 가장 우수한 프로젝트(Best Practice)가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가? 〈필수 별첨자료〉 ○ 특성화지원사업 사업부문별 각 1건의 Best Practice를 선정하여 그 비계량적 성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 제시한 Best Practice(최우수사례)의 지역 대표문화브랜드 창출 실적, 작품(예술가)의 수상 실적, 국내외 페스티벌 초청(참가) 실적, 핵심 예술시장 유통 실적, 예술작품(공연, 전시 등) 시장 판매 실적 등을 정리한 자료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제시된 Best Practice외에도 인증, 수상 등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를 보여주는 사업 부문별 우수 사례들에 대한 비계량적 성과 증빙자료
평가 환류	5. 평가와 환류 (5~10)	5.1. 시민모니터링 및 관객만족도 조사 결과	· 사업부문별 시민모니터링 결과 · 사업부문별 관객만족도 조사결과	5~10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시민모니터링조사와 관객만족도 설문조사가 사업부문별로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가? ○ 시민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 실시결과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시민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결과 등 관객만족도를 입증할 수 있는 요약자료 ○ 관객만족도 조사결과는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첨부자료 로 제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배점	평가목적 및 별첨자료 예시
사업 계획	1. 사업기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20)	1.1. 공연장상주사업 기획의 독창성 및 우수성	· 시도 및 재단이 수립한 상주사업 운영 및 지원계획의 독창성 및 우수성	12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상주사업 계획이 지역만의 독창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 상주사업 지원계획이 우수한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전년대비 상주사업 기획의 변화와 개선내용 정리자료 ○ 지역만의 상주사업 운영시스템의 독창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2. 상주단체 프로그램의 지역 특화소재 반영 창작여부 및 지역특성의 기획반영 수준	· 상주단체 프로그램의 지역 특화소재 반영 창작여부 및 지역특성의 기획반영 수준	8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상주사업을 기획하였는가? ○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는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지원사업 중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반영된 사례, 보도기사 자료 ○ 사업기획안과 결과보고서 중 공연장상주단체육성사업의 차별성이나 독창성이 나타난 자료 ○ 지역별 상주사업 페스티벌 성과보고 및 결과보고 자료
사업 집행	2. 사업추진 기초역량 및 협력체계 (20)	2.1. 사업별 선정단체 기준 및 선정단체 역량	· 수행단체선정 심의체계의 적절성 · 선정단체 선정기준의 적절성 · 선정단체 역량의 적절성 · 공연장 전문인력의 수준	12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사업추진 주체가 상주사업을 위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 참여단체 선정기준이 적절하며 선정을 위한 적절한 심의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 선정된 단체의 대표자와 담당자가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 선정된 공연장이 기획, 홍보분야의 역량을 갖춘 전담 담당자를 보유하고 있는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시도별 전문예술법인 단체 수, 지원선정 단체 중 전문예술법인 선정 비율

					○ 선정예술단체의 대표 및 보유 전문인력 이력사항 ○ 사업참여 공연장의 기획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사항 ○ 참여단체 선정기준 및 선정체계, 심의위원 구성 관련 자료
		2.2.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여부 및 수준	· 상주단체와 공연장 간의 협력수준 · 상주단체와 공연장의 외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활동 수준 · 시도 및 재단과 상주단체 · 공연장 간의 협력수준 · 시도 및 재단의 외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활동 수준	8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상주단체와 공연장은 충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 상주단체와 공연장은 적절한 외부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긴밀한 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가? ○ 지역내, 타지역 상주사업 단체들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한가? ○ 시도 및 재단은 상주사업을 위해 외부기관과 적절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지역문화원, 지역소재 대학, 지역축제조직, 공립예술단체, 박물관, 미술관 등 상주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실제 협력사례 자료 ○ 상주사업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긴밀한 협력관계 수준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지역내, 타지역과의 상주사업 단체들간의 교류 협력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 사업운영 및 홍보 마케팅 수준 (20)	3.1. 지역 문화수요의 반영	· 지역의 공연장상주사업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및 반영정도 · 지역민 참여프로그램 수준 및 지역민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여부	6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지역 공연장의 상주사업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가? ○ 지역 예술단체의 상주사업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가? ○ 공연장과 상주단체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선정된 지역 공연장 책임자 및 담당자들의 의견수렴 활동 및 반영에 대한 증빙 자료 ○ 선정된 지역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활동 및 반영에 대한 증빙자료 ○ 선정된 단체와 공연장의 지역 문화예술 수요자들의 의견 수렴 활동 증빙자료 ○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기획되거나 개선된 퍼블릭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3.2. 사업홍보 및 마케팅	· 통합적인 사업홍보 채널 구축 및 운영 수준 · 통합적인 관객개발 및 마케팅 수준	7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상주사업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정간물 매체발행을 하고 있는가? ○ 상주사업 관객개발을 위한 통합적인 관객마케팅 방안을 갖고 있는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지자체(또는 재단) 홈페이지의 상주사업 홍보 코너 소개자료, 정간물 소개자료 및 발행매체 증빙자료 ○ 지자체(또는 재단) 명의의 상주사업 관련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자료 ○ 상주사업 선정단체 및 공연장의 홍보, 기획, 마케팅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워크숍 추진실적 증빙자료
		3.3. 상주단체간 협력, 네트워크 수준	· 상주단체간 교류수준 · 상주사업 페스티벌 개최 수준	7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상주단체간 교류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가? ○ 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한 상주사업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는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상주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상주사업 페스티벌의 특성과 개최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업 성과	4. 사업추진 성과 (30)	4.1. 계량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 수준	· 공연장가동률 증가 수준 · 객석점유율 증가수준 · 유무료 관람객 수	15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공연장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는가? ○ 객석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가? ○ 유무료 관람객 수가 각각 증가하고 있는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공연장 상주사업의 지원단체별 공연일수, 공연횟수, 객석점유율, 유·무료 관객수와 상주사업 전체의 총합계 ○ 계량적 성과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과 향후 계량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계획

		4.2. 비계량적 사업추진 성과 (인증, 수상 등)	· 작품의 수상이력 · 국내외 페스티벌 공식초청여부	10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사업을 통해 배출된 작품의 수상경력이 있는가? ○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페스티벌에 공식적으로 초청된 이력이 있는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작품(예술가)의 수상실적, 국내외 페스티벌 초청(참가) 실적, 핵심 예술시장 유통 실적, 공연작품의 시장 판매 실적 등 ○ 선정단체별 대표 작품의 레퍼토리화 성공 사례
		4.3. 사업성과목표 달성 수준	· 성과목표 수립의 적정성 · 성과목표 대비 성과달성 수준	5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사업의 성과목표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사업의 성과목표 대비 성과달성 수준은 적절한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사업의 성과목표와 달성여부 증빙자료
평가 환류	5. 평가와 환류 (10)	5.1. 자체평가 체계의 적절성 및 결과	· 평가체계 및 설계의 적절성 · 전문가 평가, 시민 모니터링, 관객만족도 조사 추진 여부 및 결과 · 평가결과 환류의 적절성	10	〈평가보고서 작성 주안점〉 ○ 평가체계가 적절하게 갖춰져 있는가? ○ 사업별 평가(전문가평가, 시민모니터링, 관객만족도조사)가 적절하게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가? ○ 관객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는 높은가? 〈정리자료 및 별첨자료 예시〉 ○ 자체평가 추진계획 및 결과 정리자료 ○ 전문가 평가결과 및 시민모니터링 평가관련 증빙자료 (모집, 교육, 활동) ○ 관객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전년도 자체평가결과를 사업계획 및 선정과정에 반영한 증빙자료